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13



##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眞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장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차 례

머리말 .....	3
하늘의 왕자와 왕녀의 권위 .....	9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사는 축복가정의 자세 .....	63
남북통일은 통반격파로 .....	139
자연을 활용한 취미산업 육성 .....	161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 .....	190
제4차 아담권 시대의 도래 .....	245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 .....	261
일심정착 시대 .....	294
성약시대는 천국을 완전히 앞서로써 지상천국을 완성한다 ...	298





## 하늘의 왕자와 왕녀의 권위

아침에 훈독할 내용은 오늘날 타락한 인류역사의 전반적인 내적인 비밀을 통한 공개된 역사적인 주류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이런 전반적인 역사관, 섭리사적인 역사관을 확실히 앞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 정화운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개인, 가정 가정들, 국가와 국가가 다르고 여러 민족이 다 다른 것은 하나의 강을 중심삼고 강물과 바다가 연결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가 오면 빗방울이 흘러서 조그만 계곡을 따라서 개천을 이루고 그것이 커 가지고 지류와 합해 강이 돼서 큰 강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바다에 들어가 오대양을 흐를 수 있는 순환운동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가정 가정들은 한 개인이나 가정 자체는 계곡에 흐르는 물방울같이 돼서 골짜기 길을 따라

---

1999년 11월 9일(화), 천성왕립궁전.

\*이 말씀은 천성왕립궁전 봉헌식(11월 7일)과 제40회 참자녀의 날 기념행사(11월 8일)에 참석한 세계지도자들과 한국 공직자 및 일반식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서 개천이 돼서 혹은 지류와 같은 민족, 국가와 같은 강이 돼 가지고 대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해에 들어간 물은 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이 강을 흐르는 가운데 더럽혀진 모든 전부가 바닷물 짙물에 들어가서 정화돼 새로이 거기서 수증기가 돼 가지고 지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딱 그것이 복귀섭리를 중심삼은 지상 인간세계, 타락한 이후의 복귀섭리를 필요로 하는 이 지상세계와 영계와 마찬가지로라는 거예요.

영계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바다와 마찬가지로인데 바다에 들어가서 정화운동을 해야 될텐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맑은 물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물이 아니기 때문에 탕감이라는 길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탕감 이후의 역사적 방향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가정-종족민족, 하나의 강을 이루는 지류와 같이, 바다와 같이 이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정화작용을 해 가지고 지상 재림해서 수증기를 통해 새로운 물이 지상에 생명을 번식시키고 정착시키고 크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의 높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상 타락권을 넘어서 천국 이념을 들고 정화해서 다시 순환운동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가정이상을 통해서 천국화될 수 있는 이런 일체적 권이 지상-천상-천국 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주류적인 길이 어떻다는 역사관, 타락한 역사관, 타락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전체 역사관을 확실히 앎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결길에 떨어지지 않고 주류를 따라 본연의 인간의 가치 완성적 순환운동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자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과정을 극복해야 할 것이 우리의 과정인 것을 확실히 앎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하다구요. 누구든지 이것은 밤이나 낮이나

생각해 보면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지금 천성왕림궁전에서 지금 40회를 중심삼은 참자녀의 날,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그것이 지상세계에서 주류를 중심삼고 내게 거쳐갈 수 있는, 개인적인 모든 길을 통해서 가정적인 길, 종족민족국가 이렇게 가서 천상세계에 가는 고속도로의 길을 따라 가서 직행해야 할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사적 역사관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천상세계에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착지는 하늘나라라구요. 흐르는 모든 물들은, 전부 다 담수(淡水)라는 것은 전부 다 바다에 가서 정화해야 돼요. 저 영계에 가서 지상세계에서 사는 동안 그릇된 것은 반드시 훈련과정을 통해 완전히 정수(淨水)가 돼야만 증기가 돼서 또다시 순환운동, 지상 재림해서 재창조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 세계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양창식, 힘들면 한 시간만 하고 오늘 두 시간은 걸려야 될 거라구. 힘들면 유정옥이 부르고, 유정옥이 또 힘들면 황선조 불러요. 잘 들어요.

「오늘 아침에는 아버님의 말씀선집 주제별 정선 2권의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 책의 제1장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 『3. 복중(腹中) 장자복귀섭리

(1) 베레스와 세라를 통한 복중 장자복귀섭리.

야곱의 아들 유다는 엘, 오난, 셀라 등 3형제를 두었습니다. 유다의 큰아들 엘은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다말이 큰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큰아들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말은 둘째 아들인 오난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둘째도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유다 가정은 대(代)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축복의 섭리가 유다 때에 와서 무위로 돌아가게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농사터에 가는 유다 앞에 창녀의 모양을 해 가지고 유다를 유혹해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하나님으로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잇는 것이 다말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생사화복(生死禍福)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축복의 대를 잇기 위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쌍둥이를 뱉습니다. 이들을 낳을 때 먼저 손 하나가 나오므로 산파가,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놈이니 형이니라.’ 하고 붉은 실(紅絲)을 손에 매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새 그의 아우가 나오자, ‘이 밀치고 나온 놈!’ 하고 말하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고, 뒤따라 손에 붉은 실을 맨 형이 나오자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인 세라를 젓혀두고 차자인 베레스를 먼저 출생시키는 섭리를 하셨을까요? 리브가가 복중에서 형제가 싸우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 두 애가 복중에서 싸우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네 복중에는 두 나라가 있음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말의 복중에서도 두 형제가 싸웠습니다. 다말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복중에 두 나

라가 있음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섭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복중에서부터 장자의 기업을 차자가 빼앗아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곡절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압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풀지 못한 역사의 비밀이었습니다.

(2) 하나님은 왜 복중섭리를 하셔야 했는가?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은 섭리역사는 야곱의 나이 30대의 장년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볼 때, 복중시절(服中時節)부터 분립역사(分立役事)를 통해 장자(長子)의 기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탄의 피가 인간의 핏줄 속에 남아 있다는 조건이 되어 사탄이 참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분립역사를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편과 사탄편의 두 세계로 갈라졌던 것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혈통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축복의 계대를 이루어 놓기 위해서는 복중에서부터 두 세계의 통일적 기반을 닦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복귀섭리에 있어 탕감조건을 세워나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섭리를 전개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과부가 아기를 가졌거나 음행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유대나라에 있어 하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말은 하나님의 한 맺힌 장자의 기업을 복귀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자기의 처지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지 않으면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

습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의 축복권(祝福圈)을 흠모하고 또 당신의 축복의 대를 잇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십시오, 제가 비록 천만 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 이 불륜의 소행을 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유다가(家)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아마도 틀림없이 다말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실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생사를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한 맺힌 뜻을 이뤄 드리기 위해 그 죽음의 상황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말의 뜻 대한 충절은 실로 놀라운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만이 섭리역사를 펴 나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사정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다말에게 축복을 해주시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와 국가는 다말의 열매예요, 열매. 아시겠어요? 다말의 열매요, 마리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나라라는 것은 다말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딸을 부정하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기 남편을 부정하고 나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전체적 책임을 짊어진 것이 해와 국가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해와 국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마리아까지 얘기하면 세계적인 최후에는 어머니가 나라로 올라와서 소생적 다말, 장성적 마리아, 마리아는 국가적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계적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소생적 다말, 장성적 마리아, 완성적 어머니의 책임을 전 세계의 인류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세계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탄을 중심삼고 이걸 부정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전체 자기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지금

까지 역사적인 그 내용을 끌고 들어가서 이것을 어머니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면 그것은 전부 다 섭리관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고 전체를 품고, 잃어버렸던 것을 품고, 만물을 품고, 잃어버린 아들을 품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책임이 어머니의 책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예.」

#### 어머니는 천주의 해방을 위한 입장

\*해와 국가인 일본은 다말과 마리아의 세계적인 결실체입니다. 세계적인 결실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중심삼은 마리아와 다말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민족적인 해방을 위한 입장에 있었고, 마리아는 국가적인 해방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주의 해방을 위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탄편 장자인 세계뿐만 아니라 사탄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반대로 하늘편의 종교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사탄권을 완전히 잘라 버리고 180도 반대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와 국가, 어머니국가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원리관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섭리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족적인 다말의 사명권과 국가적인 마리아의 사명권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국가로서 정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자들? 「예.」 다말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리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머니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완전한 아담으로 오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여자들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왜 확실하게 가르

쳐 주지 않았소, 아버지가 왜 가지고?’ 하게 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어머니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직계 혈통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가정의 이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의 남자와 여자들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상속한 다음에 남편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아들딸이라든가, 소유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가정적인 사랑이 절대적인 기준에 안착될 때 부부의 안착, 아들딸의 안착, 소유권이 안착되어서 만물을 상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지금?

전 세계를 깎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편의 소유권을 부정하기 위한 탕감복귀의 노정을 중심삼고 지금의 이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구요. 국가와 세계뿐만 아니라 유엔을 중심삼은 모든 지구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귀 노정에 가정-종족-국가-세계를 통과하기 위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서 유엔의 정착기준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때 그러한 기준에 걸리게 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구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숨겨왔던 내적인 심정을 선생님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사탄세계가 무너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길은 없어요. 혈통전환은 이 세 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길은 없대구요. 알겠어요? 알겠다는 사람들은 손 들어 봐요! 확실하게 알라구요.

일본은 망합니다. 두고보라구요.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한밤중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 돼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을 없애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2차대전의 패전국가로서 변상하지 못했던 것을 재차 변상하는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구요. 경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돌아가면 정리해 두라구요.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천주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적인 혈통까지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구요. 절대로 부정해야 됩니다. 외적인 것의 부정, 아들딸의 부정, 부부간의 부정, 최후에는 심정적인 기준에 있어서 축복받은 그 자체를 재차 선생님 자신이 부정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비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혼독회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운명의 노정이에요. 운명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은 부자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비밀로 숨겨 온 것을 참부모가 밝히는 거라구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여러분이 모릅니다. 영계에 가도 모르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자, 계속하라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읽으라구요.

#### 반대 받으며 발전하는 통일교회

『그러한 절실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말은 생사를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한 맺힌 뜻을 이뤄 드리기 위해 그 죽음의 상황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말의 뜻대한 충절은 실로 놀라운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만 섭리역사를 펴 나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사정이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다말에게 축복을 해주시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말의 혈통을 통해서 비로소 복중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실패한 노정을 탕감하고, 오랫동안 고대해 온 승리적 기반을 이 땅 위에 다질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정하셨던 본래의 장자권(長子權)을 이 땅 위에서 전환시킴으로써 다말의 혈통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전부 다 세계에 여자들을 뿌려놓는 어머니 역사라구요. 알겠어요? 일본의 재산이나 아들 전부 다 어머니가 닦아 놓은 궤도를 이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상속받아 장자권을 세계 앞에 세우지 않으면 차자권 탕감복귀의 기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남편들은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 여자들이 활동하고 아들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천사장 대신 죽을 때까지 벌어야 돼요. 소유가 없어요, 천사장은. 알겠어요? 천사장은 소유권이 없어요! \*이것은 선생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참아버지의 말씀이라구요. 하늘땅의 대표적인 부모의 입장에 서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 일치할 수 있게 맞추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거라구요. 이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도적놈들! 일본 나라 자체가 사활을 걸고 통일교회의 박멸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가 썩어서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전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를 모르는 거라구요. 통일교회의 선생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받으면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기의 귀한 것을 부정하고 비약해야 됩니다. 도약이 아니라구요. 도약에는 각도가 있습니다. 비약은 획! 그러한 전통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해와 국가의 책임을 완성할 수 없어요. 이것은 천성왕림 궁전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의       천성

왕립궁전인 거라구요. 여기서 제40회 참자녀의 날 행사가 있었던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일본 남자들은 천사장들로서 소유권이 없다구요. 만물도, 아들딸도, 아내도 없어요. 부모도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로 고개를 넘어서 세계의 통일해방권을 이룬 다음에 가정의 이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영원한 정착의 시대가 되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구요. 일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으로 섬나라인 필리핀과 대만이 있습니다.

### 한국은 세계의 중심

일본 여자들은 한국으로 오고 싶지 않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해외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땅 속을 파서 지하자원까지 이동시켜야 된다고요.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태리 반도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알겠어요? 「예,」 분명하게 알고 돌아가라구요. 지금 한국은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40년 동안 쌓아 올렸던 외적인 소유권과 자녀, 그리고 교회까지 날아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날아가더라도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세계적인 부모의 기반을 닦았다구요. 그 페이스에 일본이 맞추지 않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한국과 일본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부모 일체권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미국은 장자예요. 아버지와 아들딸이 하나되면 어머니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머니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때가 지나면 큰일납니다. 소련이 홋카이도를 점령, 중국이 시코쿠와 큐슈를 점령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탕감복귀시키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히 해방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서운 때라구요. 일본나

라, 일본의 국민, 일본의 부모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탕감의 고개를 넘어서 돌아와 가지고 구해 주어야 됩니다.

지상천국 해방의 길은 지옥까지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그러한 길을 통과한 조건이 세워지면 다시금 돌아와서 일본의 모든 국민을 해방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본이 걸립니다. 알겠어, 오츠카! 「예,」 유정옥! 「예,」

축복받은 가정들은 종족들을 전부 다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쌍 미혼자 축복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라구요. 세계적인 부모권 복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완성한 아담의 가정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하고 기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부모님한테 기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아담 완성의 기준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이 똑같은 씨에서 비롯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권에 서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의 씨가 수만년을 통해서 번식된 가치는 같은 거라구요. 그래서 이번 달인가요? 23일은 총천주축복해방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모른다구요. 어떻게 영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계를 아는 사람은 참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중심삼고 절대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 일본 자체가 어머니의 책임을 다해야

그러면 일본 자체를 우리 한 가정이 전부 다 뒤엎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천주부모의 앞에 일본을 대표한 장자권에 설 수 있는 거라구요. 그렇게 무서운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뿔, 침을 빨아 버려야 됩니다. 그러

니까 지금 작성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늘, 진리, 참부모의 이상을 따라가는 것이 정당하게 가야 할 길이에요. 알겠어요? 「예.」 남자들, 손 들어 봐요! 알겠어요? 「예.」 자기의 아들딸과 아내를 자르고, 사탄편의 남편인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천주를 복귀할 때까지는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 메시아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아들딸과 손자뿐만 아니라 7대까지 자기의 대신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백을 남겨 놓게 되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대요. 바로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도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된다구요. 하나도 안 빠집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지상천국의 완성권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구든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라고요. 왜 심신일체권을 이루지 못해, 이 녀석들!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예.」 지금부터 일본이라는 이름을 지워 버릴지도 몰라요. 뭐 선교사가 없는 것처럼 선생님이 혼자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있다구요. 언론계, 정치계, 종교권, 경제계, 대학의 최고층 사람들을 지금 교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세계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국가의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럴 수 있는 때가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일본 자체가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지... 전세계에 모두 다 파견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총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의 조상으로 모실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일본은 자동적으로 세계 각국을 낳아주는 어머니의 입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어, 모르겠어? 이 녀석들! 이번에 돌아가면 정비하라고요. 알겠어

요? 「예.」

선생님을 중간에 세워서 고생시키는 것이 일본입니다. 독일 공장을 미국 이상의 기술을 갖게 해서 미국으로 역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으려고 했는데,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자기 자신의 소유권은 하늘적인 소유권에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옳도 안 됩니다. 해와 국가는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아무리 많더라도 가운데 이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날의 무서움을 모르는 어머니 국가라고 하는 일본! 일본 역사에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꾸짖은 사람이 있어요? 천황도 못 하는 거라구요. 그렇게 중요한 전환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러서 버린다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구요. 알겠다는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한 승리의 시대를 향한 출발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몇 년이 남아 있는가를 선생님이 선포하는 거라구요. 선생님이 80이지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한 입장에서 반대가 있을 수 없는 기준을 세우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의 40년 역사를 4년으로 단축해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4억쌍을 승리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 여자들은 자기의 아들딸들을 칸고쿠(韓國; 한국)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뿔! 안 보내면, 거꾸로 지옥의 간코쿠(監獄; 감옥)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간코쿠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들딸이 있으면 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버지의 혈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교차결혼을 한 것입니다. 일본 천황과 선생님이 하나되어서 전 국민을 교차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밑에서부

터 반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의 왕궁뿐만 아니라 영국의 왕궁도 빼창코(ぺちゃんこ; 눌러 납작해진 모양)가 됩니다. 일본의 두 왕자가 모두 다 평민과 결혼했지요? 헤이세이(平成) 천황은 히라벳타이(ひらべったい; 납작하다) 천황입니다. 무력한 천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선생과 천황 중에서 어느쪽이 훌륭해요? 「문선생님입니다.」 문선생이 아니라구요. 참부모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풍쿠라(ほんくら; 멧덩구리)!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구원섭리의 방대한 내용을 하나로 수습해서 여과장치를 해 가지고 깨끗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하려는데, 그것을 반대한 일본은 빼창코가 되는 것입니다. 두고보라구요. 그 무엇도 선생님의 기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 8단계의 여과장치를 거쳐야

선생님의 명령에 영계도 전부 다 따르지요? 일본을 치라고 하면 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아, 문선생이 일본의 젊은이들을 천상왕림궁전이라고 하는 곳에 모두 다 모아 가지고 협박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방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한 여러분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배로 수십만 명의 일본 통일교인들을 대이동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재차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지요?

타락은 자기를 중심삼은 각성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를 자각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자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라고요. 천국의 국민으로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아들딸로서의 국가관으로

보라구요. 그렇게 체휼하면서 하늘의 심정권을 자기의 일족 가운데 높여서 종족과 민족을 넘어서 세계의... 대양에는 흑조(黑潮)가 있지요? 그것이 영원히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오대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흑조를 알지요, 흑조?

여기에 찍은 나무가 되어서 태풍이 불면 대번에 꺾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어, 이 녀석? 이름이 뭐야? 모두 다 일본 간부들이야? 조심하라구, 이 녀석들! 알겠어? 지금까지 꾸물꾸물 선생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티켓이 없어요, 티켓. 원칙에 통하는 내용을 갖지 않으면 티켓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르딘에 있는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에서 가정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 교육, 종족 교육, 국가 교육을 해야 할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교육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종족 교육을 할 수 있겠어요? 8단계의 여과장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어, 오츠카? 「예。」 오츠카는 큰 왕룡의 중심이라는 말이지? 「예。」 알겠다는 사람은 손 들어 봐!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자, 읽으라구. 잘 들으라구요.

### 한국 여자들의 책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편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더라면 예수가 비록 복중에서 태어나더라도 사탄이 참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복중에서부터 승리했다는 승리적 조건을 세워 놓지 못하고는 예수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4.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의 사명 (1)독생자 예수님의 사명.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신에는 교단을 형성하여, 국가와 교회가



하나될 수 있는 때를 바라보면서 로마제국에 맞설 수 있는 식민지 국가권 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 다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탕감되어진 기대 위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사랑의 인연이 남았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의 아들이 현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중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獨生子)라는 말이 성립된 것입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일본나라가 어머니 될 수 있게끔 모든 전통적인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쌍것들! 세상을 몰라 가지고는 주인이 못 돼요. 일본 여자들한테 신세를 저서는 안 된다구요. 이제 전부 다 쫓아낼지 몰라요, 각 나라에, 아프리카 오지에. 제일 어려운 데서 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생님과 일체가 되어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제멋대로 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만딸이에요? 만딸이 돼야 된다구요. 어머니가 만딸이 되고, 작은딸은 한국의 모든 아벨들이에요, 세계평화여성연합! 그래서 어머니를 교육해야 돼요, 타락한 여자들!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사모님으로부터 그 나라의 모든 여성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한국 여자들에게 있어요. 둘 다, 해외 국가가는 전부 다 대통령 부인들과 상대적 입장에서 이 둘을 하나로 교육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한국 여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처음 이런 얘기를 한다구요. 알겠어요? 문 뵈이? 문상희? 상의 잘하겠구만. 열심히 공부하라구.

그래서 전부 다 세계에 나가서 대통령 부인들 중심삼고 그 나라, 그 다음에 국가 메시아, 해외 나라 사람들 둘 다 교육해서 하늘나라의 황후권을 따지 앓고는 아버지 아들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 들으라구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 완성을 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착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일을 만딸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만딸이 타락했지요? 정신차리라구요. 자, 계속해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타락의 혈통이 역사적인 탕감역사에 의해 복귀된 기반 위에서 태어난 성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예수님의 복중 잉태에 대해서는 기독교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는데, 제가 이와 같이 밝혔으므로 아마 여러분은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줄 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장자와 차자의 분립역사를 모두 탕감한 터전 위에 있었으므로…』

몇 페이지 읽었어요? 「52페이지 읽었습니다.」 유정옥! 「예.」 교체해! 일본 식구들 잘 들으라구요? 유정옥, 자기 편 해 가지고 전부 다 하늘나라, 부모님에게 접붙이기 위한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거 반대했다가는 다 떨어져요. 일본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 얼마나 싫어하겠나?

이거 끝나기 전에는 오늘은 점심이 없어요. 점심 먹고 싶은 사람은, 아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꺼지라구요. 읽으라구! 곱게 봐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 웃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을 보고 공부하라

『(2)독생자로서의 예수님 족보』 좀 크게 하라구. 저기에서는 잘 안 들리더라구. 가까이 대고 얘기해, 가까이 대고. 그래서 내가 내려왔

어요. 위에서 있으면 안 들리더라구. 크게 해요, 줄지 못하게! (훈독)

『...(3)하나님과 메시아의 뜻을 몰랐던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시아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왜 못 섬겼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은 세계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세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택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통일교회를 택하신 것도 통일교회를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구요. 문선생이 통일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서, 통일교회를 세운 문선생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구요. 하나님과 세계를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이 아닙니다. 망할 기독교는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독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구요. 만민을 위해서 온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독교만의 메시아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구요. 만민의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기독교는 망해요, 망해. 예수한테 발길로 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데는 자기 일국의 왕으로 나타나 가지고 로마제국을 멸망시키고 동양을 제패해 가지고, 자기 일국이 영광 가운데 천하의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아니라구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거들랑 이스라엘 민족을 제물삼고, 메시아 자체도 인류를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정을 심어 줘 가지고 전부 다 동화시킨 후에야, 인류를 위하고 난 후에야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과 하나님과 메시아의 뜻과 소원의 방

향이 엇갈렸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뜻은 세계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를 위하고 선민을 위하고, 선민 역사를 위한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충이 벌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보니까 꼬라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 유대교의 환영을 받아야 할 메시아가 오히려 반대를 받은 거예요. 로마의 지지를 받고, 로마를 통치하여야 될 터인데, 몰골을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메시아의 목적관에 상충됨으로 말미암아 뜻을 따라가야 할 목적지는 남아지고, 뜻을 받들고 목적을 이어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탈락되어 세계에 없는 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고객한 것입니다.』

일본이 이번에는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통역하고 있을 것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확인해서 공부해 두도록 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책 가운데 다 기록돼 있다구요. 그걸 읽어야 되겠다구요. 아시겠어요? 이거 읽어주라고요.

#### 영진님 사고에 대한 대모님과 흥진 형의 답문

지금 읽어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번에 영진이 사건에 대한, 영진이가 이 땅에 와서 대모님과 흥진 형이 문답을 한 그 문답서인데 이것을 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에서... 선생님은 이미 그렇게 알았다구요. 27일 10시로 돼 있지만 여기는 시간까지 확실히, 내용

이 사고사였다는 사실이 확실히 돼 있다구요.

이것을 전부 다 알고 그런 의미에서 혜진 누나, 희진 형, 흥진 형, 세 형제와 같은 자리에, 같은 반열에 세우라고 이미 선생님이 기도하고 선포했다구요. 그 페이스에 따라 앞으로 청평 활동에 영계의 대단한 협조기반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육계를 마음대로, 축복가정들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가야 되겠다고요. 잘 들어요? 조는 사람 없어요? 졸면 옆구리를 치라구!

『영계에서 지상 재림역사를 준비하는 영진님

흥진님은 김효남 장로에게 오셔서 영진님의 승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호텔경영에 대한 일을 해보고 싶어 효율적인 호텔 경영을 배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갖고 있는 네바다 주에 있는 대학으로 가던 지난달 25일 밤, 영진님 꿈속에 흥진님이 나타나시어 ‘참부모님이 지난 9월 9일, 구구절 천지부모 천주통일해방식을 선언하여 직계 조상 해원과 영인 축복으로 절대 선령을 이룬 선영계와 지상의 축복가정들을 하나로 묶어 사탄이 넘어설 수 없는 하늘 주권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을 놓고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이며 그 탕감조건으로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영진님께서서는 ‘79세의 참아버지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시면서 참아버님의 40세, 2000년 80세, 2040년 120세까지 지상에서 승리하셔야 뜻이 완성된다고 하시며 마음 졸여 오셨습니다. 영진님의 속마음은 늘 아버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네바다 주 네노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영진님의 가슴속에는 ‘아버지가 가셔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내가 아버님 대신 갔으면...’ 하는 아버님에 대한 염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네노의 한 호텔 17층에 투숙해 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고 룸에 계시면서도 늘 아버지에 대한 근심걱정 뿐이었습니다. 영진님은 그날 저녁 룸 발코니에서 운동을 하시며 거니시다가 10월 27일, 오후 9시 30분 실족 추락하셨습니다.

이때 홍진님이 깜짝 놀라 천사들을 시켜서 영진님을 받아 놓게 하셨습니다. 영진님은 발코니에서 추락하시기 전에 이미 심장이 멎어 승화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추락할 때 천사들이 받아주시어 주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누워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진님은 영진님의 승화와 관련해 ‘우리 가정의 둘째는 모두 탕감의 제물이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희진님도 둘째고, 혜진님도 딸로 둘째고, 영진님도 미국에서 낳은 자녀 중에서 둘째다. 이렇듯 둘째는 모두 탕감의 제물로 가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홍진님, 희진님, 혜진님을 비롯, 영진님 등 모두가 청평에서 역사해 더욱 성령 역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참부모님의 기도에 따라 홍진님은 영진님의 손을 잡고 영계 홍진님 수련소로 인도하셨습니다.

홍진님은 직계, 1대에서 7대, 8대에서 14대 조상들이 수련받고 있는 영계의 홍진님 특별 40일 수련소로 영진님을 안내하셨습니다. 홍진님은 영진님께 직계조상 해원식을 통해서 해원된 축복가정의 조상들이 홍진님 수련소에서 지상에서 지었던 자범죄, 연대죄, 혈통죄 등 죄악을 씻어내어 절대 선령으로 변화되고 있는 수련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계조상들이 홍진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천국으로부터 지옥 밀창까지 둘러보면서 지상에서 자신과 같은 죄악을 범한 영인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점검하게 하면서 자신의 영인체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영계의 위치를 확인시킨 다음 수련소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악을 씻어내는 수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홍진님은 영진님에게 수련소에서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인간 타락의 동기를 비롯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등 중심인물을 내세워서 복귀섭리를 이루어 나오시는 피어린 복귀섭리의 과정, 죄악에 빠져 고통 당하는 축복가정들의 모습, 선과 악 등에 관한 원리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진님께서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조상들의 영인체와 그 영인체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영계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수련소에 다시 돌아와 수련을 받는 모습을 둘러보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통하여 변화된 만큼 한 단계 더 나아진 영계를 둘러보시게 합니다. 이렇듯 좋은 영계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수련을 받기 때문에 100일간의 짧은 수련이지만 빠른 속도로 자신의 죄악을 벗게 되는 기적과 같은 수련과정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영진님께 직계 7대 조상들이 영계에 있는 홍진님 특별 100일 수련회를 통해 후손이 복을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원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방법, 또 1대에서부터 7대, 8대에서부터 14대, 이렇게 7대씩 끊어 120대까지의 조상을 찾는 방법, 지상에 있는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난 후 33세에서 40세 젊은 영인으로 변화되는 방법을 훈련하는 과정 등을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또 조상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부부 축복을 받고 다시 영계의 홍진님 수련소에 가서 40일간의 축복가정 교육을 받고 난 후 지상에 재림해서 후손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영진님은 이런 홍진님 수련소를 둘러본 후 이제 축복가정들의 직계 조상들이 절대 선령이 되어 지상에 재림역사를 하면 식구들의 생활은 놀랍게 변화할 것이며, 정말 영계의 세계인지 지상의 세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상들과의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확신했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어서 속히 이루어 하나님과 부모님을 인식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영진님은 홍진님의 안내로 영계와 육계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영계를 다 둘러본 영진님은 지상에서 생활할 때는 참부모님의 승리하심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인 체험은 못 했으나 영육계를 다 둘러보고 난 후 축복결혼으로 선의 혈통을 넓히시는 참부모님의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게 되었고, 홍진님, 대모님을 통해서 조상들을 해원하고 홍진님 수련소에서 악령들을 절대 선령으로 재창조하시며 선의 판도를 넓혀 하나님의 뜻 성사에 박차를 가하시는 참부모님의 전체·전반·전권·전능의 하늘 주권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참부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효성과 충절을 다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진님은 이렇게 영계의 수련소와 영육계를 둘러본 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부모님께 효성과 충성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영진님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뜻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영계의 힘이 필요하며, 이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의 지상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진님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형제가 힘을 합쳐 성령역사를 해 나갈 것을 아우 영진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이에 화답으로 영진님이 홍진님 형을 뜨겁게 껴안으면서 참아버님 어머님 앞에 효성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소망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영진님은 홍진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에서부터 지옥까지를 더욱 깊게 둘러보시는 한편 지상 재림역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상과 영계에 대해 비교분석 연구하며 자신을 연단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모님은 지상에서 그리고 홍진님 영진님은 영계에서 서로 보완하며 협조하여 역사하게 되면 절대 선령들의 지상 재림부활 역사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이 이제부터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뜻을 중시하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천운의 운세를 받으면서 잘살 수 있지만 비원리적인 삶인 타락성을 갖고 살아가면 조상해원 전보다 어렵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이런 절대 선령들의 놀라운 협조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면 우리 축복가정들이 정말 축복을 받아 잘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박수)

구원섭리의 목적은 축복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있었다

내가 한 말씀 첨부하겠어요. 잘 들으라구요. 구원섭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축복가정,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담 해와가 잃어버린 모든 가치는 우리 한 가정의 열매, 모든 열매와 마찬가지로 씨를 심어서 번식한 열매와 같이 30억에서 인류가 60억 인류가 됐는데, 그 60억 인류가 타락의 열매가 됐던 것이 참부모로 말미암아 중생, 부활, 축복, 영생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이 완성된 그 가정의 가치가 복귀섭리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체가 아니에요.

개개인의 가치가 우리 가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개개인 자신이 역사적인 모든 대표자로서 섭리상에 모두 맺혔던 것을 내가 대신 탕감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에 아직까지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 그 모든 탕감의 조건, 국가가 국가를 찾고 세계를 찾고, 하늘땅을 통일할 수 있는 그것이 몇 년 기간에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치 단결해서 얼마만큼 지성을 다 하느냐 하는 데서 연한(年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120살에 가나안 땅 복귀를 바랐지만 기도하면서 못 들어가던 그런 한의 역사가 아니고, 그와 같이 연장한다면 선생님은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된다구요. 나, 그렇게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40년을 4년으로 단축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때는 탕감의 해소가 다 됐기 때문에 4년도 빠르지요. 이렇게 생각하니 만큼 여러분이 일심단결해 선두에 서는 그 가정은 선생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복귀섭리의 아담 완성을 바라던 대신 가정의 열매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내 가정을 찾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제1차 이스라엘, 제2차 이스라엘, 이것이 전부 다 망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부 파탄시켰으니 민족 단결을 결실로 한 제3 이스라엘 가정 그 자체는 아담 가정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뜻을 완성시킬 수 있는 종착점까지 가게 되면 탕감 복귀하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완성한 아담권을 다 이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단체가 아니에요. 가정, 가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가 돼서 예수님이 하지 못한,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하나 못 된 것을 여러분, 축복받은 부부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종씨가 달라요. 남편 종씨, 부인 종씨를 중심삼은 이것이 둘이 하나돼야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통일교회 180가정을 중심삼고 전부 다 이걸 세워 가지고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가정들은 남자 여자의 종씨를 두고 보면 두 가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종족적 메시아가 못 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사길자는 유(劉)씨하고 사(史)씨의 일

족을 국가적 기준까지 통일시킬 수 있는 놀음을 해야만 종족적 메시아 권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연결된다는 것이 복귀 노정의 정론(正論)입니다.

누가 가야 하느냐? 우리 일족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족이 1천만 가정이면 1천만 가정, 가정들이 뒤따라가는 것이 평면적으로 일렬로 들어가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가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섭리역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있었다, 하나님 이 수고한 것도 내 가정을 위해서, 역사적인 모든 성현 현철이 희생하며 피흘린 것도 나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땅 위에 와서 고생하고 기독교 문화권이 받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 탕감의 수난의 길을, 곡절의 모든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날 전통적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주체는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한다

미지의 사실을 해결하고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을 맡아서 루시엘과 하나님의 심정 해방과 동시에 참부모의 해방권을 가지고 통일적 모든 해방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가정이요, 해방된 하나님의 가정을 대표한 것이 우리를 대표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 가정을 대신한 열매가 누가 된다고요? 누구 가정?

절대시하는 참부모의 가정, 절대시했던 아담 가정, 그걸 보게 되면 절대·유일·불변이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내정적인 심정을 중심삼고 속성을 말하면 절대적인 성품, 유일적인 성품, 전부 다 불변적인 성품, 영원한 성품이예요.

무엇을 중심삼을 것이냐 하면, 사랑을 중심삼은 것이예요. 사랑을 중심삼은 절대성, 사랑을 중심삼은 유일성, 사랑을 중심삼은 불변성,

사랑을 중심삼은 영원성,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인간을 통해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여기의 모든 소성을 대표하는 그 기반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성, 창조성. 인간은 창조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권위자입니다. 창조성, 그 다음에는 주체성이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은 모든 세계, 어떤 존재 세계든지 주체가 되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나 어떠한 성격,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모든 존재의 중심이 되겠다 이거예요. 너나할것없이,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인간은 그러한 주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성, 주체성,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관계성입니다. 주체성이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알겠어요?

주체는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성을 가지고 전부 다 창조하는 데는 관계성을 중심삼고 -한 인격이예요.- 내정을 심던 하나님의 인격을 중심삼고 그렇게 분립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을 중심삼아 가지고 지은 것은 반드시 관계성을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체는 상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요즈음에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하면 통일의 앞 단계에 왔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전부 다 인연을 넘어서 남자가 생겨났으면 여자와 인연을 맺지 남자와 맺게 되어 있지 않다구요. 그 인연적인 내용이 무엇을 중심삼고 결합하느냐 하면 사랑을 중심삼는데, 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이 세계는 창조이상 세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체성이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 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 세계를 지나

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류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관계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전부가 관계에 얽여 있습니다.

부자지관계, 또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정관계, 종족관계, 민족관계, 국가관계, 전부가 관계예요. 하늘땅 전체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외교무대에서 노력하는 것도 관계세계의 확대를 위함인데, 오늘날 사탄세계는 외교무대에서 모든 세계를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투입하고 희생해야 하는데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서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관계세계를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통일세계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중심삼고 내성적인 면에서 절대성, 사랑을 중심삼은 절대성·유일성·불변성·영원성이 그 사랑을 따라가야만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성(素性)을 중심삼고 근본 뿌리를 중심삼고 거기에 인격을 중심삼으면 상하전후좌우 관계를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성(創造性)과 주체성(主體性)과 관계성(關係性)과 통일성(統一性)을 중심삼아 가지고 역사해 오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 기준의 상대세계가 지상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필경에는 통일세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에 더욱 더 창조성이 개입돼야

하나님의 절대성·유일성·불변성·영원성 참사랑을 중심으로 통일된 세계는 나라 형태의 구성적 그 경위를 말하게 되면 전부 다 절대적인 나라, 유일적인 나라, 불변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알겠어요? 가정을 흡수한 국가가 그러면 가정도 절대적인 부자지 관계, 절대적인 부부관계, 절대적인 자녀관계가 되고 절대적인 종족 편성, 그래서

절대적 국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중심삼고 역사를 거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팎으로 이런 내용을 중심삼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대하기 위해서는, 뜻을 대하고, 뜻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창조성이 가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 더 갖다 붙여야 돼요.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창조성이 개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것이 자기 중심삼은 것이 아니에요. 천리의 참 사랑을 중심삼은 주체성! 타락한 인간 중심삼고 지금까지 사탄과 연결되고 지옥과 연결되고 그런 자기 주장하는 주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상천국을 향한 해방적 주체성을 지녀 가지고 전체를 위하는 주체성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주체성은 반드시 홀로서는 안 돼요.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상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적 상대권이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씨는 심으면 반드시 번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식하는 단계가 12수와 72수와 120수, 그 다음에는 430수, 이것이 전부 다 국가 형태의 기본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970년부터 1972년까지 3년 동원할 때 전부 다 36가정으로부터 72가정, 120가정 430가정 동원한 것이 660가정이에요. 66수라구요. 사탄수를 넘어서기 위해서 동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승리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생 6수, 장성 6수를 탕감복귀했기 때문에 세계에 있어서 6수 기간을 7년 노정을 가정을 끌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으로 향한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원리 내용의 인연을 따라 움직였지 선생님이 그냥 움직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래,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알겠어요? 그 관계성을 중심삼고 어디 가든지 자기로 말미암아, 가지가 있으면 싹이 나고 또 다른 가지에 잎을 피워야 돼요. 관계성의 확대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중심삼고 나중에는 전부 다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그 기준은 뭐냐 하면, 가정이상 완성을 하는데 그 가정은 천주적 대표의 가정이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개체 절대성을 중심삼은 유일·불변성을 이룬 가정을 위해서 섭리를 했느니라! 그 섭리의 전체는 내 가정을 위해서 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가정이에요. 절대 가정은 창조적 가정이에요. 거기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남겨야 돼요. 살 때는 빛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일가정이에요. 그 다음엔 불변가정이에요. 영원한 가정이에요. 유일이에요, 유일. 결혼도 유일이고, 아내도 유일이고, 남편 되는 그 시간도 단 하나예요. 단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없어요. 알겠어요?

유일적 본성의 사랑을 중심삼고 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단 한 번이지, 두 번 있을 수 있다? 뭐라고요? 「없습니다.」 있다! 「없다!」 이놈의 간나자식, 있어! 「없다!」 그러면 ‘이놈의 쌍놈의 선생아,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면 천하를 부정하는 것이요, 나를 인정하는 것은 천하를 세우는 것이니 부정적 요건을 중심삼고 절대적인 권한을 세워야 할 자주적인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적인 관계성을 중심삼고 창조하고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통일적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면에서는 천성의 속성을 중심삼고, 외적인 면에서는 인격을 중심삼고 몸 마음이 일치될 수 있는 거기에는 창조성·자주성·관계성·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볼 때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는 관계세계에 다 돌아야 돼요.

평화의 세계로 가고 통일의 세계로 가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부모예요. 참부모는 여러분을 대신 하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전부를 내가 100퍼센트 상속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 지구성의 주인은 나

오늘부터 세계 통일교회 식구들은 전체 복귀섭리는 나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대받는 한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결실된 아들딸로부터 종족을 편성하는 모든 전부는 하나님 해방으로부터 해원성사, 천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물 전체를 해원성사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가정이 부모님의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찾았다는 것은 타락했다고요. 그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이예요! 알겠어요? 「예.」 무슨 가정?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라고요. 한번 해봐요. 「내 가정!」 우리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 「우리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

다 중심이 되고 싶지요? 씨를 심으면 통일교회 통일천하의 단일문화 이상창조 목적 완성할 수 있는 계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선생님이 없더라도 씨를 확 다 뿌려 놓는 거예요, 세계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구성이 우리나라라고요. 알겠어요? 지구성이 우리 고향이예요. 가 봐야겠어요, 안 가 봐야겠어요? 지구성의 주인이 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안 가 봐야 되겠어요? 땀을 흘리는 것도 지구성을 위해 흘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 자리에 가더라도, 밭을 타고 앉더라도 지구성을 타고 꼭대기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됐으니 해원(解冤)이 땅에 탄식을 하고 만물이 탄식하는 걸 아니까 그걸 타고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피는 인류를 위해 바쳐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인류가 나로



하여금 해방을 위해서 죽음 길을 간 것을 억천만세 나라와 국가들이 전부 다 피 흘려간 복귀노정을 알게 될 때 나 하나 피를 흘리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총장! 공자님 가정이야, 무슨 가정이야? 네 가정이 무슨 가정이야? 무엇을 대표했다구? 저 지옥 가 있는 그 부류로부터,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부류로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백성 전체를 대표한 대표 가정이예요. 그 대표의 남편을 싫다고 하겠나?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게 축복이라구. 알겠어? 「예.」 남편을 부정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선생님을 따라갈 거야, 공자 따라갈 거야? 크게 얘기해야지, 나보고 속닥속닥 얘기해? 공자 따라가겠나, 선생님 따라가겠나? 「공자 따라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뿌려진 씨이고 여러분은 새로 거둔 씨예요. 씨의 가치가 이퀄(equal;같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오는 걸 좋다고 환영하면 선생님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공자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걸 또 ‘그래라.’ 하게 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파괴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격해요. 그런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누나 동생까지도 원수에게 품겨 주는 거예요. 영적 결혼은 원수 될 수 있는 내용을 따라 결혼시켜 나왔어요. 유관순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공자가 원수가 아니라구요. 선생님이 그렇게 결혼시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삼고 세운 뜻을 저 남미에, 저 남극에 옮기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심어 가지고 거쳐 돌아와야 대등하게 한 바퀴 돌아야만 통일적인 대등한 남북이 동일한 가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돼야만, 이게 돌아야만 원심력에서 구심력까지 평면적

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천지의 존재하는 것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 존재는 그 원칙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 운동법칙과 일치되는 거라구요. 그래 지금 시간만 있으면 선생님은 남미에 가는 거예요. 정성들여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세계시대를 맞이했으니 말이에요, 이게 축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축이 90각도가 돼야지요? 89도가 되면 되겠어요? 91도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가정, 가정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서 가정기준만 맞으면 종족교육시대가 와요. 문씨 종족 교육. 이렇게 교육받아서 그냥 그대로 각도를 맞춘 가정을 전부 다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90각도는 하나님의 90각도나 선생님의 90각도나 여러분의 90각도가 길고 거리가 클 뿐이지 각도는 마찬가지로예요. 알겠어요? 「예.」

동일한 가치적 기준에 섰기 때문에 90각도에 맞출 수 있는 해방적 권한을 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큰 것은 작은 데서 시작하니 작은 개인을 나 중심삼은 것이 우주 전체를 대표한 가정이니 만큼 노력하고 정성들이면 선생님이 세우신 36가정 72가정 전부 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3만쌍까지 여러분이 국가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3만쌍에서 세계화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책임을 중심삼고 이러한 자주적인 개인 열매, 하나님이 수고한 결실, 전부 다 역사를 통해서 찾고 원하던 말세의 열매, 또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 수고한 선생님이 수고한 열매로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주사적인 대표적이다 하는 것을 알지어다! 「아멘!」

권력, 돈, 공부는 세계 평준화를 위한 것

그러면 돈이 있으면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내 아들딸 학교 보낼 돈

을 희생시켜서라도 아프리카에 대학 세우는데 기금을 투자하는 것이 자기 아들딸이 갈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프리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게 되면 아프리카 그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중심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그런 민족과 하나님 대신 사랑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늘나라의 중심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혈족이 자기에서 끝이 아니예요! 출발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혈족 확대, 이것이 무한한 수직 영계세계에, 무한한 평면세계에 연결되는 대표의 자리에 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세계까지, 지금 선생님은 만년 이후에, 억만 년 이후에도 이래야 된다는 공식을 중심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미 많이 했다구요. 이전 기도 그만두고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각도가 전부 다 종족 각도, 민족 각도를 다 맞출 수 있는 대표적인 구형을 갖춰야 돼요. 90각도를 채는 것은 큰 거 필요 없어요. 각자 조그만 것도 90각도라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구원섭리역사,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든 뭐든 선이든 전부 나 하나에 결실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세계의 주식회사의 사장이요, 악한 세계의 주식회사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악한 세계 주식회사의 사장의 자리를 때려 치워 버리고, 각도가 틀린 것을 부정해 버리고 전부 다 선한 세계의 주식회사의 사장이 되는 내 집이다, 아멘! 아멘! 해봐요. 손 들어요. ‘아멘’ 하면 ‘아~아~멘!’ 「아~멘!」 다 알았지요? 「예.」

일본 나라는 내 손으로! 4억쌍, 4억3천만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한 부모와 축복받은 부모, 이제부터 그 아들딸의 해방시대가 오는 거예요, 4차 아담.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잘났다고 권력을 가지고, 힘과 지식과 돈 가지고 옆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평준화예요.

권력은 세계 평준화를 위한 것이요, 돈도 세계 평준화를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공부도 세계 평준화를 위한 것이예요. 많이 배웠으면 많이 투입하고 평준화 구덩이를 메워야 돼요. 놀고 먹게 안 돼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까지는 망하는 거예요. 권력 잡아 가지고 착취하고 배터지게 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다 배 터져 다 죽어요.

선생님이 어때요? 돈 있다면 돈도 많은 사람이라구요. 부자라고 소문났지요? 선생님은 따라지 왕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돈 오게 되면 90각도로 이쪽에 대고 ‘찌익’ 개봉을 해서... 90각도는 소유권이 없어요. 한 점이에요. 알겠어요? 세계에 뿌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뿌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나라의 통과기관이요, 지상 위에 하늘나라의 통과기관이에요. 두 세계를 교량으로 묶을 수 있는 통과기관 놓음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도 나빠하지 않고 지상도 좋아하지 않는다? 뭐예요? 지상도 나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 알아들었어요? 통과장치예요. 미국의 아이 알 에스(IRS;미국무부 내국세국)가 레버런 문을 조사하다 보니 수억 달러의 돈을 썼지만 레버런 문은 통과 존재다 그거예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다는 말은 못 해요. 옳다고 했다가는 자기들이 무너지겠으니 발표는 못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모든 선악은 레버런 문 대신 너희들이 발표한 그것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일치 안 되면 너희들은 왕창 무너져 간다.’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멋진가 안 멋진가 박수 한번 해봐, 이 쌍것들아! (박수)

나를 위해서 박수하는 것이 아니예요! 수고하시는 하나님 대신, 선생님 대신 내 가정을 대표해서 전체가 박수했느니라, 아멘! 「아멘.」

미물에서부터 모든 것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이제 더 할 것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박수해 주지. (박수) 그런 자각을 해야 돼요. 하늘땅에 내 중심의 가치의 공동적인 가치의 내용을 전수받은 이 가치를 어떻게 많이 뿌려서 많이 심어 가지고 번창할 그런 살림 가운데 거둘 줄 아는, 천지에 꼭 차게, 지상·천상세계에 꼭 차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섰기 때문에 그 일족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주인의 자리, 주체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랄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선생님을 존경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구요. 내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면 선생님 같은 본연의 씨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서 사방에 부식(扶植)시켜서, 심어서 전부 다 크게 하느냐 이거예요.

선생님 창고는 없대구요. 선생님 창고 있다구요, 없대구요? 이제는 ‘선생님 도와주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지요? 선생님 앞에는 아버지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것밖에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천국을 만드느냐? 여러분이 지성 지극 정성을 해 가지고 수확된 열매의 씨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1천 알이 있더라도 한 알, 두 알, 열 알, 1백 알도 안 미쳐요. 전부 다 1백 알은 씨로 하더라도 9백 알은 팔아서 선생님 창고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만민 만가정이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중심삼고 여러분의 모든 만민 가정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국토개발해서 지상, 천상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은 헨

드백 들고 다녀요, 배낭 지고 다녀요? 어떤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핸드백 가방 메고 다녀요, 지고 다녀요? 쌍것들아, 지고 다니잖아, 배낭? 그게 뭐냐 하면 지고 다니면 균형이 안 잡혀요. 찌그러져요. 배낭은 궁둥이에다 ‘이놈의 궁둥이야. 탕감복귀해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실어서 궁둥이 힘을 받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 이 시대적인 탕감복귀의 요원으로 요구하는 원인을 두고 볼 때, 그렇게 적절할 수 있는 뇌물이 그 배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귀중한 물건, 일상생활의 물건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말씀,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모든 것이 우리가 혼동회하는 참부모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하늘백성과 하늘나라 만물 통일세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읽고 나서는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무엇부터? 재창조역사이니 만큼 -여러분 지금 재창조역사 안 했지요?- 만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 내가 판타날에 가서... 거기는 원초적인 식물 동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해야 돼요. 살살이 뒤져서 새로 보는 종들은 전부 다 컬러 사진 찍게 돼 있어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분과적으로 구별해서 구별된 모든 동물, 곤충과에 속한 모든 것을 중심삼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길러서 양식해서 종이 멸종되지 않게끔 보호해야 할 책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멋집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박물관에 와야 되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박물관에 와야 되는

거예요. 식물 박물관, 곤충 박물관..., 곤충만 하더라도 3천6백가지니 이게 1백 가지씩만 하더라도 서른 여섯 개는 만들어야 된다고요. 곤충 기르는 것 중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약재가 될 수 있는 곤충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에이즈 병이 나올 수 있는 약재가 될지 몰라요. 독사가 있다고 독사가 원수가 아니에요. 독사의 독 1그램이 몇 만 달러 해요.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다 모르지요?

그러니까 미물의 동물부터 땅구렁이에 있는 벌레새끼든 지렁이든 뭐든 전부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땅을 중심삼고 그것이 있어 가지고 똥을 싸므로 그거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만물을 나는 사랑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을 사랑한 부모님의 모든 상속권이 다 문서가 있어요. 넘겨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 가든지 그런 주인을 하라는 거예요. 전체는 내가 못 하지만 이런 개괄적인 것은 알지만 내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일생에 남겨진 무엇을 사랑했다, 만물 중에, 식물 중에 대표적인 무엇이 전체를 대표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이것이 좋아서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동물 가운데도 전부 다... 사랑 가운데도 어떤 사랑? 참사랑! 알겠어요? 그런 것을 남기기 위한 놀음을 해야 되겠어요.

#### 자연을 보호하자

배낭을 메고 우리 통일교인들은... 지금 1년에 한국의 몇십 배 되는 땅들이 사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 입력 호스 주위를 1킬로미터씩 해서 둘레를 파 놓으면 그 가운데 물이 생기고 또 거기서 1킬로, 1킬로 확장운동을 해서 사막 해방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다구요. 식물이 없으면 전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불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배낭 안에는 반드시 식물의 씨가 수두룩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삼목이 되게 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열 가지면 열 가지를 심어 놓으면 돼요. 이래 가지고 말뚝을 박고 물병 들고 다니면서 물만 주면 씨가 트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밥을 먹든가 쉴 때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꽃씨든 나무씨든 씨앗을 하나 심어놓고 가든가, 가지 하나라도 뿌리를 잘라서 심으면 번식하니 만큼 그런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 창조하고 만물 창조해야지요. 인간이 얼마나 피해를 입혔어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학생이나 할머니나 배낭 지고 오면 내가 가득히 예물 줄지 몰라요. 거기에 십 배, 백 배, 그것이 배낭 몇십 개가 되겠으니 몇십 개 못 주거든 내가 찾아다니면서 돈으로 상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많아요. 돈 많대구요. 안 그래요? 세금을 바치면 아버지한테 바쳐야지요? 찾아가서 그런 사람을 상 주고 집도 벽돌집이 아니에요. 아예 다이아몬드 집같이, 천국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다 위하는 사람은 제일 가는 집을 영계에서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바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국제결혼 해서 뽀박받는 사람은 절망하지 말아요. 여기 누가 있어요, 국제결혼한 사람? 여기는 한 마리도 없구만. 국제결혼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축복할 때가 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해방을 위한 이 우주 창조이상이 말만이 아니에요. 실질적 내용으로 보나, 그 목적으로 보나, 결과의 결실적 가치로



보나 하나도 뺄 수 없는 나 중심삼은 가정 태평성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태평 가정들이 합해서 태평 왕국, 태평 천국, 태평 천주화 해방함으로 하나님이 해방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들어가지고 아~, 아멘 하자구요, 발까지. 「아멘.」 해방이에요, 해방! 완전히 해방이에요. 그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합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재산 전부 다, 경상도 것을 저 만주로 이동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합니다.」 왜? 나라 가치보다 만주에 가면 십 배, 백 배 되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 한 평 가치로 250평을 살 수 있어요. 이런 걸 말했는데 뭘 모르고 앉아 죽겠다고 하면 썩어라, 이 간나 자식아! 안 썩으면 비를 40일, 60일 노아 홍수처럼 내리게 해서 썩게 만들어 전부 비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고기밥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노아 홍수 때 심판 안 당한 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잘 먹는 민족은 흥해요. 생선 잘 먹는 민족은 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고기는 심판 안 받았어요. 동물들은 다 심판 받았지만 고기는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해방돼 있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를 중심삼고 세계의 식량을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왕초가 될 수 있다, 하늘나라의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남극에 7천 톤급 큰배를 중심삼고 이제 12월 25일,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돼 있어요. 한번 와 보고 싶어요, 안 와 보고 싶어요? 와 보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봐요. 그때는 선생님이 틀림없이 갈 텐데 12월 15일이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40일 훈련기간에 1주일 있다 가게 되면, 마지막 수련 기간에 선생님이 출범하는 출범식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때를 내가 알았으니 갈싸, 안 갈싸? 「갈싸!」

여기에 온 국가 책임자 메시아들은 거기에 참석해 그때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앞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하에 부자가

된다는 말과 더불어 해방적인 조상이 돼서 기근이 찾아와 죽는 사람들, 영양부족으로 사망의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다를 사랑해야 되느냐? 바다를 사랑하고, 고기를 사랑해야 돼요. 바다의 식물은 심판 안 받았어요. 만물 창조는 물에서부터 출발했으니 이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박테리아 같은 것을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를 전부 다 번식시켜서 한꺼번에 모아서 쇠고기도 만들고 돼지고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으면 믿고 말겠으면 말고! 죽고 싶은 사람들은 믿고 살고 싶으면 믿지 말고, '살고 싶으면 믿을지어다, 노멘!' 해도 '에에에이멘'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 훈독회를 사랑하는 나라는 영원히 존속해

자 선생님이 40회 참자녀의 날, 근본적 40회... 내년 선생님의 80회와 더불어... 8수는 재출발수예요. 우리 형진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신팔이에요. 그 아들 보면 몸도 좋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가든지 '아이구, 우리 신팔이.' 하고 자면서도 꿈으로도 '신팔이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질투가 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놓고 신팔이 손자, 그 손자도 여섯째 아들이 낳은 손자인 신팔이, 신팔이... 그것도 그럴 거예요. 아기 기르는 맛은 손자를 품어보는 거거든요. 막내아들이, 그렇게 큰 녀석이 부모님이 지금도 가게 되면 엄마 아빠 팔짱을 끼고 밥 같이 먹자고 그런다구요. 그 녀석이 특별해요. 막둥이는 사랑하지요?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장남 못 된 것이 한인데, 막둥이를 사랑해야 장남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아벨 앞에, 아벨이 승리해야만 가인이 사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인은 아벨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본보기로 선생님이 그런 놀음도 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손자 낳게 되면 3대 손자... 이제 내가 여러분을 처서 2대밖에 안 돼요. 3대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대라면 여러분은 2대라구요. 3대가 문제예요. 이놈의 자식들, 학교 세웠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우리 학교가 있는데 에미 애비가 딴 데 보내는 것은 멸망종이예요, 멸망종. 무슨 종? 멸망종이 뭐예요? 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원 가기 전에는 대학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대학교 졸업장을 갖지 말라고 했다고요.

왜? 선생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나라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세운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했다고요. 대한민국이 받들었으면 벌써 50년 전에 서울 대학쯤은 다 말아먹었어요. 그것이 똥개 학교예요. 알겠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에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브리지포트대학, 통일신학대학원도 앞으로 유명한 대학이 돼요. 이걸 피해 갔던 녀석들은 눈깔을 구더기가 파먹는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축복받은 가정의 자녀들을 자주적인 천리를 대표하고 선생님이 주력해 만든 학교를 졸업하게 해 명문들의 후계자를 품고 사랑하다 가야 천상세계에서 낙제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기억된 사랑권 내에 입적할 수 있나니라. 아멘! 「아멘.」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빨리 하더라도 기록해놓고 보면 틀림없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선생님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모르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알겠어요? 그건 모르지요? 선생님 말씀을 가만 보

면 재미도 있고 가슴에 침을 콧는 감격적인 모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지금도 말씀과 더불어 재창조해서 영원할 것입니다.

혼동회를 사랑하는 나라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다!」 이 쌍것들, 없다! 「있다!」 고맙다구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니 꺼져 버려도 괜찮을 거예요. 꺼지는 대신 여러분이 대표자가 되라 그거예요. 대표자를 둘이 해 먹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 하늘땅을 중심삼고 종적인 것을 보다 사랑해야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찾아와도 안 만나 줄지 몰라요. 우리 일족을 수습해야지요? 여러분이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딸들? 돈이 있으면 매일같이 중국요리 사줄 거예요. 선생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한번도 안 사주더니 말이에요. 내 뺏골 기름을 짜서 다 파 먹었어요. 그 이상 하려니까... 여러분도 보리밥 먹었지만 우리 아들들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고 별의별 비참상이 다 벌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의 가정이 '부모님!' 할 때는 둘째 딸, 세 아들, 중간에 있는 세 아들이에요. 세 아들이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런 모든 사실을 알아 가지고 그런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희생의 체물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해와가 아담을, 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걸 부활시키고 탕감하기 위해서, 역사를 청산하는 것을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선생님 생각과 똑 같아요. 이래서 선생님의 직계자녀를 희생시킨 위에 내가 심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알겠나, 이놈의 자식 간나들!

자기 아들딸보다 자기 에미 애비보다도 이걸 사랑했다는 공인을 받

아서 천주의 대주재의 해방적인 주체적 가정이 됐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침부한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아들딸을 사랑하게 되면 선생님이 아들딸 대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주체를 중심삼고 상대적 가치, 보다 선생님의 가정—하늘땅을 중심삼고 종적인 것을 보다 사랑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약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삼고 사랑을 치우치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방향에서 순환 운동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소유권이 없는 거라구요. 중심권을 뚫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소유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사랑의 권한을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는, 선생님을 중심삼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돼야 되는 입장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고 겸 훈시한다구요. 아시겠어요? 「예.」 박수를 해야지? (박수)

선생님은 박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하가 박수를 해요. 알겠어요? 그런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박수 했다구요.

#### 말보다는 실체가 앞서야

자, 배가 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이거 끝나면 말씀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해 주려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 절대나라요, 유일 나라요, 불변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국민은 절대국민, 유일·불변·영원한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물건은 절대·유일·불변 그런 가치를 가졌어요. 나라의 국토를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 국민을 별거벗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대신 창조성·주체성·관계성·통일성

을 갖춰서 플러스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들딸 인격을 대신한,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대신 천리를 사랑하기 위한 인격적 기준의 왕자의 권위와 왕녀의 권위를 상속받을 수 있다! ‘아멘’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흠뻑 한번 웃어봐라! 「하하하하!」 춤춰봐라, 춤! 아, 아 전부 다 춤추면 난장(亂場)이 되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이제 내가 시킬 것, 소원하는 것 다 말했고 다 하겠다고 했으니 안심하고 선생님은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거예요. 낮잠 자도 괜찮지요, 이제부터는? 「예.」 나 놓고 먹어도 불평 안 하지요? 「예.」 놀고 먹다가 저녁때에 자기 집에 가서 ‘이 간나야, 선생님 올 때 중국요리든 뭐든 잔치상을 해 놓고 준비하라고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안 했어?’ 하고 불기를 치고 그래도 고맙다고 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예.」 말들은 잘 해! 말은 1등이고 사실은 꼴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1등인 것보다 말보다 실체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말을 하기 전에 실체가 앞서 가기 때문에 다 이루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냥 그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전 승리 기록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보라구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니, 선생님이 한 얘기를 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계에 대신 가서 세밀히 기록한 사실이 딱 선생님 중심삼아서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현씨도 선생님이 해방을 해줘야 돼요, 저나라에 가서. 공동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여기에서 세 번째 열두 권까지만 이걸 연결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이 살살이 전부 다 밝혀져 몇 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천국에 못 오는 녀석은 물러로, 불도저로 전부 다 밀어서 시멘트로 만들던가 아스팔트로 만들던가 해서 쓰레기 대신 써먹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지만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그거 했다구요. 그렇게 해보라구요. 믿고 하면 밀린다구요. 딱 배짱을 정해 놓으면 밀려 나가는 거예요. ‘너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직접 저기... 탕감시대가 아니에요. 역사를 걸고 오랜 시대에 죄상을 보류하지 않아요. 즉결처분이예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조상들이 데려가요.

### 선생님이 말씀한 내용은 행하고 나서 한 것

사탄이 병 주고 약 줘서 지옥으로 데리고 갔지만 이제 조상들이 와서 병 주고 약 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조상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막으니 즉각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한까지 다 부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원리관이 그래요.

장자는 차자를 때려 죽여서 지옥 데리고 갔지만 차자가 장자권 복귀 되면 동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때려서라도 천국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원리적이라구요. 동네에 자기 종씨가 있는데, 그 종씨가 축복을 안 받으면 두 사람이 가서 납치해 가둬 가지고 원리강의 해줘서 ‘축복받겠소, 안 받겠소?’ 원리강의 3분의 1 안 해도 받겠다고 ‘아이구, 이 죄인. 마음대로 하소.’ 그런다구요.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시다.’라는 것은 받을지 안 받을지 물어보는데 ‘합니다.’ 해야지. 「합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말도 성립된다구요. 상대적 요건이 흡수돼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구요. ‘합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주체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가 침범을 못해요. ‘합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거예요?.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거예요. 아니예요. 직격탄 퀴익! 한방에 날려야 돼요.

그래 선생님 말씀에 ‘그럴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독선적인 왕자라고 해요. ‘그렇다’고 했지, ‘그럴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하고 했지, 행하고 싶으면 행하고 행하지 말라면 말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고요. 마찬가지로요. 딱 말 이제 하지 말라고요. 여기는 뭐예요? 마닐라? 그러면 필리핀? 거기는 여자들이 적도 없더구만. 야, 그건 마음대로 사탄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문충재가 가게 되면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 내가 가면 좋겠는데 갈 수 있는 아직까지 수속이,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라고 있다고요. 내가 가면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한꺼번에 태풍권내에 몰아내 가지고 전체 비상천국 해 가지고 잘사는 남미로 대이동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번 40회 참자녀의 날 축하연에 참석한 것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습니다.」

### 미국의 개척정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비상이에요. 비상사태, 해보라고요. (박수) 선생님은 대학은 내 힘으로써 조국광복에 있어서의 장자의 나라 미국과 아버지 나라에 대학을 세웠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전부 다 세웠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 나라에서도, 각국 나라에 대학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대학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 손 들어 봐요. (모두 손 들) 그러면 세우라고요? 알겠어요? (웃음)

세우는데 여러분 자체가 갈래갈래 모래알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뭉쳐서 대학 세울 수 있는 동기는 아버지가 해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



이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절대적 아멘이에요, 유일적 아멘, 영원·불변의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거든, 그러한 자녀들을 위하는 생각이 있거든 이제 전부 다 우리나라가 기관이 없지요? 어디 가든지 교회가 하코방이 돼 있는 곳이 통일교회예요. 이제는 도시 중앙 제일 복판에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늘의 위신이 있다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쌍것들아! 「그렇습니다.」

일본의 동경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하버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 전통적인 세계 재창건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의 뉴 프런티어 조상들이 누구냐 하면, 피난민이라구요. 도망 패들이라구요. 뉴잉글랜드에서 111명이 메이플라워호(號)를 타고 메사추세츠주(州) 플리머스에 11월 2일 착륙한 거예요. 전부 다 40일 지나서 죽을 건데 인디언이 보호해 주고 하나님이 다 길을 내준 거라구요.

그들은 밤낮 자기들의 일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디언 방어를 위하고 주변의 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정 자체가 가정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지만 교회에서 살 수 없어요. 왜? 뭉쳐 있으면 언제 약탈당할지 모르니까. 다 모여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기반을 닦아 가지고 가정 가정이 분할해서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혁명가들이 간 전통적인 길이에요. 나라의 기관을 대표하고 교육기관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을 찾아 나온 거예요. 미국이 새로운 아벨적 지상천국 이상국가 세계 주체 국가가 됐느니라 하는 것이 전통적 사실로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죽기 전에 전부 다 돈 있고 재산 있거든 전부 다 교회를 짓는데 기부하든가, 학교를 짓는데 기부하든가 그 다음에는 미래에 있어서 공공단체나 국토개발 하는데 기부하고 죽지 않으면 걸려요, 걸려! 선생님

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 포켓에는 돈 한푼도 없어요. 한푼도 없지만 큰소리하고 있다구요. 큰소리하는 게 잘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응?

돈 한푼 없지만 일본 나라에서 수백억을 모을 수도 있어요. 수천억도 모을 수 있어요. 수억 조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구요. 몰라서 그렇지. 그 돈 뭘 할 거예요? 일본 제일 가는 중앙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하늘나라 6대주에 왕궁을 만들고 6대주에 천재들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들을 중심삼고 제일 잘 살 수 있는 문화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예요, 나쁜 생각이예요? 여러분 생각이 똥구덩이라서, 요만한 골통이라서 생각이 요것밖에 안 된다구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은 나 잊어버렸다! 그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전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전체 소유의 10퍼센트를 전부 다 하늘 앞에 공납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일본에 돌아가면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은행을 개설해서 예금통장을 만들어라!’ 지시한다구요. 10분의 1은 현금해야지요? 지금 선생님이 30퍼센트까지 현금하라는데 이제 10퍼센트부터. 자기 소유와 아들딸 소유 전부 다 중심삼고 10퍼센트를 예치기금 하지 않고는 앞으로 선생님 명령을 따라서 천국 히말라야 산정 고개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시설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 십일조를 철저히 하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 기관을 만들어야지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국창건을 위해서, 지상·천상 하나님의 해방권의 조국광복을 위해서 내 일신은 천번 만번

그 신세진 것을 몇천만 배 희생이 되더라도 갚아야만 하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사로 말미암아 나라의 찌그러진 환경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10퍼센트 예치하면 10퍼센트 예치한 사람은 100퍼센트 불어날지 몰라요. 예치해 보라구요. 절대 손해나거든 나한테, 선생님이 거짓말했다고 해보라구요.

십일조 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이 쌍것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입을 가졌으면. 귀가 있어서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알겠어요? 「예.」

10퍼센트 예치금을 내가 갖다 쓰지를 않아요. 일본에 쓸지 어디에 쓸지 몰라요. 일본도 그런 돈이 필요할 거라구요. 일본 나라에 대표할 수 있게 학교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어야지요. 일본 통일교회 꼬락서니가 뭐예요, 이 쌍것들! 눈으로 그걸 보고 어떻게 받을 펴고 잠을 잘 수 있어요. 부끄러운 자신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선생님 말이 필요 적절한 말이에요,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필요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어봐라, 이 쌍놈의 자식들아!

한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예요. 그 공탁금을 내가 빌려다가..., 한국에 빚진 것이 몇천억 원이에요, 몇천억 원. 깨끗이 해서 10배 1백배 갚아줄지 모를 거라구요. 그러한 공익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공적인 인간이었느니라! 이론적인 조건을 붙여도 아무런 타당성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몇 퍼센트? 「10퍼센트.」

자기가 계산은 마음으로는 백으로 알고 있는데 10퍼센트 안 되면 7퍼센트든 30퍼센트든 벌여 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탕감하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으니 대양물이 흐를 수 있는 물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전부 다 이름을 등록하라고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간나 자식은 벼락을 맞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선생

님은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구름이에요, 구름. 떠돌이 구름이에요. 정착할 수 있는 기지가 없어요. 이제는 기지를 마련하려니 불가피적으로 십일조 승리판도를 중심삼고 십의 2조, 3조, 7조까지 전부 다 일시에 공납할 때는 천하의 제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날도 유엔을 통해서 법령을 통해서 전부 다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유엔 기구 활동 알지요? 유엔이 갈 수 없어요. 유엔이 빚진 것을 내가 물어줄 거예요. 그래 유엔의 스파이들이 왔으면 가서 보고하라구요. 무슨 조건? 내 말 듣는 조건이에요. 그래야 유엔이 망하지를 알아요. 통일천하에 국가 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도, 중국도 뭐 전부 다 자기 나라 국경 침해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침해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 물이 국경을 넘어요, 안 넘어요?

공기가 고기압 되면 전부 다 어떤 국경이든 밀치고 들어가서 비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흐릅니다. 공기도 흘러요. 태양빛도 흐릅니다. 구멍,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도 흘러요. 틈만 있으면,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틈이 생기기만 하면 주루룩!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조화의 원칙을 작용하는 문선생을 누가 막아요? 파괴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큰소리하더라도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행군이에요. 행군! 알겠어요? \*생기, 뭐라구요? 발랄하게! 생기 발랄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나이를 먹었지만 젊은 사람들 이상으로 생기 발랄합니다. 화산이 터지는 것과 같은 힘으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줍니다. 알겠어요?

남의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되어서 사라지게 돼

선생님이 쓰러지면 큰일나지요? 큰일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쓰러지

지 않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중심으로서 다 해야 할 책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밑에 들어가서 ‘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게 되면 치는 쪽이 전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가 날려 버리는 거라구요.

선생님을 반대하는 국가라든가 주의는 전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라구요. 그러한 원리의 길을 아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절로 망할 거예요. 뿔, 침을 뺏어 버려야 됩니다. 남의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알겠어요? 「예.」

자기 혼자서 우주를 해방하겠다는 생각으로 생기 발랄하게 움직이게 되면 영계에 갈 때 중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선생님이 할 얘기 다 했다고요. 밥 먹고는 여기 모인 사람 다 그만두고, 회의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싸움해 가지고 수천 년 기록한 것을 바람벽에 붙여놓고 ‘내가 어떤 거 했나.’ 체크해서 하지 못한 거 전부 다 깨끗이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기면 돼요.

50년 동안 모임 중에 무엇 무엇 하라고 분과별로 설명한 것이 책이 몇 권이 될 거라구요. 그걸 찾아서 바람벽에 붙여놓고 패스하지 못하면 걸린다구요. 그것도 못 한 입장인데 또 해주면 큰일날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러니 잠깐 회의해서 그 사람들 중심삼고 잔치나 하고 춤이나 추고 노래하고 다... 대중적으로 전부 다 뭘 찾기? 「보물찾기.」 보물찾기, 이제는 힘 찾기를 해야 돼요.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윗놀이를 한 번 해야 되겠다구요. (박수)

6대주에 네 패씩, 네 패면 사 육은 이십 사( $4 \times 6 = 24$ ), 24장로. 한국이 12절기 중심삼고 24절기예요. 영계도 12지파 24장로가 있는 거

와 마찬가지로 24절기를 대표한 24패가 1등, 2등, 3등, 4등까지 해가지고... 상금을 뭘 줄지 몰라요, 지옥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 (웃음) 그걸 발표 안 할텐데 뭘지는 모르지만 작으면 제일 작을 것이고, 크면 제일 클 것이다.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웃음) 그렇게 알고 소를 1백 마리 1천 마리 줄지 모르지 뭐.

남미에서는 수만 마리 소를 샀다구요. 이번에 2만 마리 소 사라고 내가 현금 주고 왔어요. 와서 1천 마리 몰아가라 하면, 5천 마리 몰아가라 하면 몰아갈 거예요, 안 몰아갈 거예요? 몰아가라는데 '비용까지 주소.' 해요. 이놈의 자식! 배를 전부 다 160개를 나눠줬는데 '비용을 주소.' 해요. 도적놈의 새끼들! 그 따위는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가치적 부여를 하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참부모님도 믿지 않고 자기 자주적으로 기도하나이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제 누구한테 믿어요? 자기 주체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안 자로서 당당하게 가라 이거예요. 그래 붙들어 줄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라고요. 왜 이렇게 꾸물거려! 「만세 삼창하고 오늘 아침 집회를 마치겠습니다.(황선조 회장)」 만세는 그만 두자. 선생님 보면 다 만세 하는 것보다 나아. 배가 고프니까 만세 해도 귀찮게 생각한다구. (웃음) 「천지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부모님께 경배!」 아이고, 얼굴들이 참 예쁘다! 굿바이! (박수) \*

##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사는 축복가정의 자세

(김효율 보좌관이 영진님 사망에 대한 경위를 보고) 지생련이 있지? 지생련! 생련이! 「예.」 우리 키 큰 할아버지, 기도하고 찾아보고 전화했나, 방문했나? 「네가 할아버지 전화 받았다고 그랬잖아? (어머님)」 그런 내용 얘기해. 네가 전화했는지, 그 할아버지가 전화했는지 얘기해 봐. 「나한테는 한마디 말하던데.」 전부 얘기해요. 해 봐요, 이쪽 가까이 나와서. 마이크 내리고. (지생련 순회사의 보고 이후 김효남 장로의 보고)

(어머님에 대해)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고... (어머님)」 나와서 얘기해요. 영계도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어야 다 이렇게 연결되고 전부 다 자리를 잡고 그래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우리 사는 것이 안팎에서 뛰놀아서 안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머님)」 엄마 마음이 그럴 때 내가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서 하라는 거예요.

「영진이가 내가 낳은 아들 맞지요?」 (웃음과 함께) 「예.」 죽 고생한 얘기도 하면서 해요. (이후 어머니가 영진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

---

1999년 11월 12일(金), 한남국제연수원.

\* 이 말씀의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축복, 승화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설명하심)

영진님의 출생과 성장 과정, 축복, 승화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영진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될 때는 이미 아버님께서는 덴버리에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구라파에 계셨어요.

그런데 나는 만삭이었기 때문에 뉴욕에 남아 있었는데, 진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동안 죽 자연분만이 됐으니까, 한두 아기도 아니고 열 세 번째인가 이렇게 되는데 으레 쉽게 낳을 줄 알았지요. 그때 몸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양호했었는데, 영진이 얼굴을 잘 기억하겠지만 두상이 큰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죽을힘을 다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산모와 아기가 염려스럽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해서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기에요.

그리고 제왕절개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것도 수술실이 예약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제왕절개를 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수술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냥 밀어 놓고 내가 들어가서 영진이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태어날 때도 이렇게 참 죽었다 살아난 아기인데 참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형제들보다 커서 그런지 학교 성적도 좋았고, 모든 면에서 끈기도 많고, 남자 형제들은 다 동적인데 이 애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죽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특별히 미국의 수재들이 간다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사실은 하버드하고 컬럼비아 대학을 같이 학교에서 추천해 주었는데 하버드 대학은 인터뷰하는 시간을 애가 어떻게 그냥 놓쳐 버렸



어요.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깜빡하고 점심 먹으러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걸 놓쳐서 컬럼비아도 괜찮다고 그래서 컬럼비아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대학 갈 때까지 생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모가 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아주 착실한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축복문제가 나왔을 때도 애는 참 마지막 아들로써 둘을 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색시감을 고른다고 골랐고, 또 한국 협회에서도 굉장히 신중히 모든 걸 다 검토해서 준비했으리라고 믿은 상태였지요. 그것이 갑자기 3주 내에, 일주일 내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들 때에는 좀 시간이 있었어요. 2년 가량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부감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축복시켰기 때문에 믿었지요.

정부(正否)를 원칙으로 아버님께서 제1조건으로 세우시는 것, 그리고 부모도 정부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부모 누구 하나라도 그런 뭐가 있다 하는 소문이 있을 때는 아무리 신부감이 좋더라도 안 보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칭평에 대한 얘기하랴구. 「그건 나중에요. 사진이 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여러 사진을 봤는데 대모님도 그 사진에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우리 형진이가, 막내아들이 더 장가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장가보내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놔두고 막내만 보낼 수 없으니까 영진이까지 보내기로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영진이 상대로 선택되었던 그 아이는 특별히 정대화가 그 집을 방문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 가정도 착실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점만 얘기해요. 그 사람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하자가 있었던 아이가 올라오게 돼 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택하게 되었는데, 신부감 사진으로서는 눈에 띄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영진이한테 보여 주었을 때 그 아이는 그때도 아버님이 첫 번째로 괜찮다고 봐서 자기한테 보여 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에 다른 사진이 와서 보여 주어도 ‘아버님께 다 맡길래요.’ 그래요. 그때 첫번 아버님이 자기를 위해서 추천한 여자라고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축복의 자리에게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긴데…»

간단, 간단히 해요. 영진이가 사랑하려면 남자가 앞에 어른거리고 그래서 알았어요. 바꿔쳐 가지고 차지하고 말이에요. 「영진이가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아이니까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걸 자기 섹시한테 고백을 받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거두어야지 하고 용서해 달라고 부모님께 사정을 했어요. 그냥 자기만 알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냥 갈라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결혼생활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그렇게 방해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애가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부터 아까 김효남 장로가 얘기했듯이 ‘왜 아버님이 이렇게 모르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왜 아버지가 이걸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망도 되고, 또 고민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후에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빨리 자기가 새롭게 새 목표를 정해서 출발하려면 가정이 정리되어야 되니까 빨리 이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법이 이혼하겠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또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돼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끌게 됐어요.

그때 영진이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앞일을 스스로 노력해서 부모님께 보답하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은 놔두고 일상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잠깐 나가겠노라고 하고서 간 곳이 아까 얘기한 네바다 거기였어요. 가기 전에 호텔 경영을 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아저씨들한테도 하고 형제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과정은 피터 김이 다 얘기했으니 여러분이 알겠고….

그러니까 피터 김이 그쪽 리노에 도착할 때 연락을 받고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을 때예요. 그때 내가 방에서 뭘 하고 있는데 어머니 나와 보시라고 그래서 나가니까 세 남자가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영진의 그 소식을…» 곽정환, 양창식이 셋이 올라왔어, 윤기병이하고. 「윤기병도 있었나? 셋이 올라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남자들이. 그럴 때…» (잠시 감정이 북받치셔서 말씀을 잊지 못하심)

‘큰일났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우는 거야. 「말문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즉각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때는…: 흥진이 때에는 그런 사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구요.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 환경에서 내가 울지 말라고 소리쳤다구. 「그런데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소리쳐서 안 운 것이 아니고, 제 마음에…» 글썄, 자기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거라구.

「세 사람에게 그러셨어요? 나한테 그런 건 아니셨군요. 제 마음에 ‘영진아,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눈물이 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안정이 되더라구요, 옆의 사람들은 자꾸 우는데. 아버지께도 내가 조용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들을 보내서 당신을 얻었으니 나는 기쁘다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영진이한테는 ‘고맙다, 잘 가라. 네가 가서 흥진 형하고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영계

에 할 일이 오죽 많겠니? 지상에서 못 한 것 형님하고 하나되어서 네 뜻을 다하거라.’ 이런 마음으로 18일 동안…: 오늘 17일째지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맥이 쪽 빠지면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아이들에게도 금방 알릴 수 없는 입장이고, 식구들한테도 금방 알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 좀 돌아다녔어요. 오늘 사진으로 영진이 모습 봤지만, 얼굴을 보니까 ‘내 아들인가? 내 아들이구나.’ 이래요..」

‘내 아들이구나.’ 뭐? 「영진이 너 장하다.’ 그랬어요」 ‘장하다. 영계에 가서 많은 일 하길 바란다.’ 그래요. 이제는 절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눈물 흘리면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 안 흘렸는데 오늘 얘기하려니까 조금 눈물이 나네요..」

#### 승화란 죽음을 이기고 천국의 주인 자리를 찾아가는 것

부모가 눈물을 흘려 가지고 가슴에 구름이 끼게 해서 돌아가면 좋지 않아요. 조상들 대해서도 슬퍼하면 가는 길이 좋지 않아요. 가볍게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실을 모르면 모르지만, 어디 가서 뭘 할 것인지 다 아는데 아는 사람들이 이르고저리고 할 것이 없어요. 아는 대로 거쳐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통일교회가 가진 위대한 것입니다.

이 승화식이란 것은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환희의 천국을 가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라구요.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는데, 영진이 자체가 나이가 어리고 뜻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해 못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영계의 모든 전체를 중심삼고 책임지고…: 지금까지 모든 탕감의 길이란 것은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전부 다 책임지고 나오고, 그 책임졌던 모든 짐들을 끊어 놓고, 그걸 끊어 버리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선포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진 짐을 잘라 놓고 새로운 책임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옛짐을 청산하고 새로운 짐을 맡아 가지고 나온 것이 선포식이었다는 사실을 알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든 중요한 과정시대에서 한 고개를 넘을 때는 선포를 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비장한 장면을 지내 왔는가 하는 사실은 여기 누구도 몰라요, 영계에 가면 알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탕감적 실상들이 이 지상에서 이렇게 증거 되는 사실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계는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남아진 죄의 양이 있으면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승화식을 통해서 전후의 모든 전부를 부모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정이면 가정에서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해방되어 갈 수 있게끔 기쁨으로, 한 단계 올라가 기쁨으로 찬양해 보낸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일교회에 승화식이란 것이 있어요, 승화식. 승화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 길이 안개가 낀다고요.

#### 재림주님이 오시기까지 가정에서 치른 탕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기 2000년 시대에 재림시대가 확정돼 가지고 신약시대가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섭리사의 세계적 무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싸움의 세계를 연결시킨 것이 전부 다 선생님 시대에 해방이 돼요.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넘어 나온 거예요. 이게 우익과 좌익이에요.

우익과 좌익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국가적 기준에서 탕감하던 것으로부터 총탕감하는 역사적 해결시대로 넘어와서 좌익과 우익이 싸우던 것을 승리해서 소화해야 됩니다. 재림시대에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좌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서 좌우를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약시대권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책임 못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책임 못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재연장 되어 가지고, 구약시대의 사실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청산 지어야 할 것인데 청산 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장되어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이 싸웠던 것이 국가적 기준에서, 통일적 가정이 확대되어 국가가 자리를 잡아 가지고 왕권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것이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싸우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곡절의 투쟁 역사를 통해서 탕감 고개를 넘고 넘어 가지고 2차대전 전에 이른 것입니다.

영·미·불, 영국은 어머니요, 불란서는 천사장이요, 미국은 아들이에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앵글로색슨 민족을 두고 볼 때 영국이 낳은 아들이 미국이라구요. 이것을 반대한 것이 불란서입니다. 불란서는 영국과 싸웠고 미국과도 싸웠다구요. 이와 같은 나라가 비로소 하나돼 가지고 총결산하기 위한 전쟁이 2차대전입니다.

거기에 반해 가지고 일독이가 나온 거예요. 일본은 동양을 중심삼고 영국 문화를 인수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대륙을 중심한 한국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지중해 문화권의 로마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간 거라구요. 거꾸로 쪽 해서 영국으로 가서 대륙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입장으로 딱 돌아 들어오는데, 도서 국가가 상대적 입장입니다. 이 도서국가 일본이예요. 일본은 여신을 중심삼은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あまてらす おおみかみ;天照大御神)를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에 재림주가 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아담이 넘어야 될 탕감조건 기간으로서 40년 간 아담 국가가 될 수 있는 한국이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에 일본에 예속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속돼요. 선생님이 1920년에 태어나게 될 때의 그 기간이 탕감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역사적인 전체 섭리사를 종결짓기 위한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할 가문에 있어서 전통적 탕감노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3대조부터... 둘째 번 할아버지도 객사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비참하게 죽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로 아버지도 객사했어요. 무덤도 없어서 찾지를 못했다고요. 둘째 번은 전부 다 객사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예요. 장손에 있어서 우리 형님이 있고, 그 아래 장손집 둘째 번이 나예요. 둘째 번인데 나에게 모든 전부가 탕감적 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탕감하기 위해서 벌써 12세부터 가정에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선생님이 15세 16세 때에 와 가지고는 대환란이었어요. 누나가 미치고 형님도 미치지, 그 다음에 말이 죽고 소가 죽지, 그 다음에는 도깨비 현상이 일어나는 등 동네방네에 꿈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도깨비가 뭐 어떻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또 북한이 본집에서 어머니가 불을 때는데 불꽃이 튀어서 그것이 문창 위로 나가 가지고 처마끝에 불이 붙는 일도 벌어졌어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아들을 장가보내려면 예단 예물이

있지요? 혼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는 왜정 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혼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무명을 짜는 거예요. 혼수를 보내게 될 때는 40자 무명을 열 필이든가 30필이든가 말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 새 이상은 돼야 광목보다 아름답다구요. 보름 새가 되면 광목 같은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참 아름다워요. 보통 여자들은 물레질을 해서 실을 뽑아 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목화를 구해다가 실을 뽑아 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가 8남매인데 전부 베를 짜 가지고 혼수를 준비해서 시집 장가를 보냈기 때문에, 어머니는 보통 베 짜는 데 있어서 하루에 이십 자, 이틀이면 한 필을 짜는 것입니다. 뭐 빠르지요. 그게 유명하다구요. 누이가 여섯이나 되는데 전부 다 시집보내고 그러려니까 농사를 짓고 아기들을 기르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본받아야 할 여자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수고하신 어머니였다구요. 보름 새 무명을 낳기 위해서는 실 뽑아 놓은 것을 물레질해 가지고 토깁이를 만든다구요. 좋은 것은 특별히 공을 들여서 갈라서 빼 가지고, 그걸 그냥 뒤두면 마르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독 같은 데에 넣어둔다구요. 큰 독이 있다구요, 쌀독 같은 큰 독. 아마 여러분 다섯 명은 들어갈 거라구요. 이런 데 집어넣으면 독이 차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에다 이렇게 쌓아두는 거라구요.

그러면 밤에 처마 밑에서 도깨비, 영들이 와서 그걸 외양간까지 전부 끌어다가... 우리 집에 120년 된 밤나무가 있었다구요. 거기를 많이 올라 다니며 밤을 따고 그랬는데, 또 응달에도 그런 상대가 되는 밤나무가 있어요. 그게 거리로 보면 한 700미터 거리예요. 거기에는 아카시아나무 노간주나무, 이런 나무가 있어요. 때는 봄인데 말이에요, 여기를 전부 꽃밭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거 꿈같은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삼촌네 돼지 아홉 마리가 물에 빠져 죽지, 사촌 누이동생이 개한테 귀가 잘리지, 별의별 일이 벌어진 거라구요.

그래, 열두 식구 중에 일년 동안에 다섯 사람이 갔어요. 그러니 문씨 아무개집 망했다는 소문이 난 걸 내가 들었대구요. 그런 환경에서 선생님이 그런 현상을 다 보면서 자란 거라구요. 그런 것이 엇그제 같은 일인데 벌써 이게 얼마나 지났어요? 60년, 7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인생사는 순식간이라구요.

### 기독교가 재림주님과 하나됐어야

그래, 나 하나 때려잡기 위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일운동이 있었던 것도 나 때문이에요. 일본, 원수의 나라에 점령당한 그 나라에서 선생님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중심삼아 가지고 피를 흘린 그 위에 태어난 거라구요. 열 여섯 살 난 유관순이 그렇게 된 것은 해와 대신 여섯 갈래로 잘려 제물 된 그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도 지금 선두에 서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중심삼고 영계 전체에 간판 붙이고 선전하는 것도 그런 인연 가운데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만세를 불러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거라구요.

그리고 우리 윤국 할아버지가 평양신학 11회 졸업생이라구요. 공부도 잘하고 그랬어요. 오산학교를 우리 종조부를 중심삼고 세웠어요. 이승훈 씨가 학교를 세웠지만 말이에요, 소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모든 배후 조종을 하면서 학교를 세워 가지고, 선생들도 전부 신학교 동창생을 중심삼아 가지고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역사를 말하면 전부 다 인연 맺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전부 다 둘째 번을 중심삼고 탕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선생님은 뜻의 길에 전념하고 결심하고 나가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원리의 근본, 이런 문제를 중심삼고 기도하고 정성들이면서 찾아 나온 거라구요. 학교는 갔지만 학교는 이름만 걸고 다녔지요.

그래서 오산학교에 우리 할아버지, 종조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친구를 통해 가지고 글방에 다니다가 3학년에 시험 치고 들어갔다구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월반해서 5학년에 들어갔는데, 애국정신을 고취하다 보니 말이에요, 일본말을 못 하게 해요. 세상에 살면서 일본말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주 보통학교, 일본 보통학교에 시험을 치고 4학년으로 들어가서 졸업한 거라구요.

그래 가지고 쪽 해서 거쳐 가지고 통일교회를 시작해서 역사를 다 접어놓고 지금 이때까지 왔다구요. 알겠어요? 이때까지 오는데, 선생님 가정이 축복받는 것도 그래요.

원래는 기성교회가 한국에 있어서 반대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 사건은 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청년 남녀들이 6개월 동안에 뜻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왔어요. 박 마리아를 중심삼고, 김활란이 중심삼고, 연세대의 백낙준이를 중심삼고... 여기 김명희도 왔구만. 그때 선교사의 양딸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양윤영이라고 친구고 다 이래 가지고, 동료들과 관계되어 가지고 뜻 가운데서 만난 김명희라구요.

그때 탕감복귀의 길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삼아 가지고, 맨 처음에 기독교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있는 기독교들이 신사참배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가 있던 애국지사니 무엇이니, 또 중국에 갔던 패들, 소련에 갔던 패, 일본에 갔던 패, 이 4개 패들이 국가를 구하자고 싸웠는데, 이들이 전부 기독교 신자들이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이 세계를 위해 간다는 것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애국적 운동을 하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가지고 투쟁한 자기 역사를 중심삼고 자기 계열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대하려고 했다구요. 그러니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4개국에서 들어온 모든 애국지사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결합을 할 수 있는 진리운동이라든가 이런 놀음을 해야 할 텐데 분파적인 면에 섰다구요. 분파적인 면의 초교파운동이니 하는 이런 운동을 한 패들이 분파적인 면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신앙하던 기준을 중심삼고는 전부 다 부딪치게 마련이에요.

#### 여호와의 부인을 찾아 평양으로

그렇게 4파전으로 나누어 싸우는 이런 혼란 가운데서 하늘이 준비한 구약 에덴 복귀파... 현실이는 박동기 패도 찾아갔지? 「예.」 그리고 섭절리(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울곡리)에 있는 김백문이 하는 곳에는 안 갔지? 그래서 모를 거야. 그건 직접 선생님이 대해 가지고... 에덴 복귀파들이 구약 에덴 복귀파, 그 다음에는 신약 에덴 복귀파, 앞으로 에 있어서의 성약 에덴 복귀파를 전부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모든 것을 선생님은 탐지해 가지고 뿌리를 중심삼고 규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패들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맨 나중에는 주님이 사람으로 온다고 준비했었는데... 이름을 다 잊어버렸다구요. 뭐인가?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새로운 성약 에덴 복귀파가 나와서 주님이 와 가지고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그 준비, 복중교 같은 곳에서는 주님이 와 가지고는 신부를 맞아 결혼해 가지고 열두 아들을 세워 축복해 줘 가지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전체 재현해서 120문도 까지 다 짜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구요.

그 모든 에덴 복귀파와 같은 신령파들이 끝날에 기독교인들로 각국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혼란상을 일으키는 여기에 있어서 이들을 규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돼야 할 텐데, 그것도 하나 안 되었다구요. 주님이 온다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 아나요? 복종교만 해도 주님이 누구인지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거지같이 나타날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구요. 허호빈 때도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온다는 것, 이도령과 성춘향이와 같은 식으로 감옥에서 만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었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례 요한과 같이 5퍼센트의 책임을 못 하게 마련이에요. 그것 때문에 확실히 하늘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에덴에서 타락도 안 시켰게?

그런 혼란의 와중에 선생님이 모든 원리를 중심삼고 기독교를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만나서 말하면 들을 텐데 말이에요, 전부 말하게 된다면 자기는 듣지 않고 자기 제자를 내세워 듣게 해 가지고 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신령파들을 전부 규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섭절리의 김백문 집단에 들어간 거라구요. 김백문이 어머니가 문씨예요. 문씨라구요. 문씨와 관계되어 있어요. 옥세현 할머니가 은혜받은 문씨 할머니라구요. 문씨 할머니의 아들이 군대 정보처에 있어 가지고 미군이 들어올 때 평양에 들어와서 옥세현 할머니를 중심삼고 생활이 어려운 그 가정을 보호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옥세현 할머니가 통일교회의 나를 찾아 모신다고 해서 소개받아 가지고 왔는데, 옥세현 할머니의 아버지하고 유 장로라는 사람하고 그 할머니가 반대했다구요. 진남포를 중심삼고 반대운동을 한 게 이 문씨 할머니예요.

이런 환경에서 평양에 갔어요. 평양 가게 된 것은 뭐냐? 김백문 집단이 뜻에 대한 준비를 다 한 거라구요. 어머니 대신 후보자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준비했는데, 김백문이 선생님을 절대 믿고 나가면서 문선생을 따라가라고 가르쳐 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요. 영적으로 대역사가 벌어졌지요. 전 식구가 영계 역사로 춤추고 야단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김성도 할머니가 별거벗고 춤추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자들의 치마끈이 풀어졌는데도 그걸 모른 채 춤춘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요. 그런 혼란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 ‘김 선생을 따라가지 말고 문 선생을 따라가라!’ 한 거예요. 한 40일 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다구요. 그걸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 할머니, 내외가 나왔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딸들 둘이, 두 딸과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네 딸이 중심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평양에서 새예수교회, 복종교의 신령한 역사를 전부 엮어 나오는 거예요. 이 집단에 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 전체를 끌고 나와서 새로운 기독교의 탕감 내용을 완비해 가지고 자리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북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 여건이 틀어지니까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때 평양의 새예수교회 패로서 이남에 내려온 패들이 이북이 그 근거지니 만큼 연락하면서 전해 준 소식이 뭐냐 하면, ‘평양에 여호와의 부인이 라는 할머니가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부인이 영적 기준에 있어서 자기가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구요. 두 면의 내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 종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로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그가 박씨예요, 박씨. 박을롱씨라고요. 박씨 할머니를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전해와 역사를 대표한 거예요. 전후좌우 안팎의 역사, 타락한 것을 물어 봐도 그렇고, 하늘의 내용을 물어 봐도 알고 그랬다구요. 그러면서 그 모든 하늘의 역사를 자기 아들딸, 자기 가정에 전부 연결시켜요. 앞으

로 주님을 중심삼고 만나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술도 잘 먹고, 옛날 왜정 때 평양의 도의원도 한 권력 기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넷이고 딸이 여섯이에요. 이것이 섭리사에 중요한 멤버라구요. 사위기대의 4수하고 6수예요. 이 가정 전체를 중심삼고 하늘이 준비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 자기 아들도 딸도 하늘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구요.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한 것이지요. 앞으로 주님을 만나 상대적 해와를 복귀해 가는 데는 하늘나라의 예수와 같은 특별히 축복받은 그런 혈통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완전히 그 가정을 중심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역사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내적 외적 문제. 외적인 기준은 몰라요, 자기가 하면서도, 규범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은 알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주관성 전도를 해야 돼요. 여자로 말미암아, 해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세상을 망쳤기 때문에, 여자를 정상적으로 코치해서 하늘과 사탄세계에 정도를 밝혀 가지고 악은 악, 선은 선으로 갈라놓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라구요.

여러분, 복귀노정은 뭐라구요? 종의 종에서부터 뭐라구요? 8단계입니다. 종의 종에서부터 종으로부터 양자, 서자, 직계 자녀에서 어머니로,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8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타락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할머니가 그런 대표적인 책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 가지고는 누구보다 좋아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종이라고, 종 중에 종 대표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에 절대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절대복종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는 전부 다 복종해야 돼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도리를 복귀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종의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여섯 딸의 달거리한 것이니 뭐니 별의별 것을 내가 다 빨래했어요. 알겠어요? 김병우! 「예.」 선생님의 딸들, 선생님의 며느리들이 달거리해서 갖다 주면 매일같이 그거 빨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 하고 기도할 자신 있어?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을 시켜도 시킬 것이 없게끔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톱이 닳아질 정도로 빨래를 하곤 했어요. 거기서부터 3년간을 중심삼아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집은 반대하지만 나를 환영할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을 만드는 데 1년 8개월을 종살이했어요, 종살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말이에요, 그 아줌마 부처는 아랫방에 살고 나는 옷방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을 중심삼고 치다꺼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통일교회 교인들이 엉터리 엉터리라 해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게 말만이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종의 종이에요.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한 거예요. 짐을 져 오라 하면 짐을 져 오고, 겨울에 밭벗고 가서 뭘 사 오라고 하면 사 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사랑, 절대복종이에요. 무슨 사랑? 하늘의 사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절대적인 종의 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편 종이 하늘 편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네만이 아니예요. 범위가 넓어져요. 평양의 어디든지, 집에서 구루마(ぐるま; 손수레)로 짐을 실어 올 것이 있으면 나를 시키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하늘 편 종이 아니고 말이에요... 하늘 편 종인 천사가 되었으니 탕감의 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의 시대를 지나 양자의 시대를 간다.’ 하고 알아요. 원리가 그러니 갈 길을 아는 거예요.

#### 양자에서 서자, 서자에서 직계 자녀의 자리로

양자는 종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 아들딸들이 8남매가 있더라도 8남매가 다 죽으면 그 8남매를 혼자 장사하고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종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자리, 양자에서 벗어나서 서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저녁이 되어서 밥을 안 줘도 불평하지 않고, 새벽에 깨워도 불평할 수 없어요. 24시간 그 기간에는 불평이란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양자에서 서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 서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를 대하게 되면 서자는 종보다 더 미워한 거예요. 딱 그래요. 미워서 아침에 조금만 잘못하면 눈을 흘기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래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보따리를 둘러메고 발길로 차 버리고 파탄시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자의 자리를 지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직계 자녀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됐다면 하늘 편이고 ‘예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신앙세계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신령한 집단 같은 데를 소개해 줘서 찾아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받으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을 내가 알지요. 그래서 직계 자녀, 예수의 동생으로서 예수의 형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총리라는 선포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야! 하나님도 너한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도 선생님을 남편 이상으로 모셔야 된다.’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박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따르던 모든 식구들이, 그 할머니를 중심삼고 세례 요한을 모셔 와 가지고 매일같이 영계를 보면서 춤추고 박자 맞추었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 원리를 중심삼고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 한마디로 뒤집어 박으니까 전부가 야단하고 그 집도 야단하는 거라구요. ‘문 아무개는 자기 집을 망쳐 놓고도, 우리 어머니까지 죽여 놓고 역적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모였던 여자들의 반대를 받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다 죽는다, 죽는다.’ 한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천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쳐 가지고 명령할 때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신이 둔 거예요. 매일같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걸 전부 다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러다가는 죽는다, 저렇게 영계에 가서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 가지고 손을 안 대면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습해 가지고 나왔어요.

이미 그때는 기독교가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북에는 김일성이 나라를 세울 때라구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된 거예요. 경창리가 문제가 되었어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기한다고 해 가지고 신령집단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허호빈파의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

허호빈 집단이 주님을 맞이한다고 해서 33세까지 일생 동안 하고픈

모든 생활환경 여건을 전부 준비한 거예요. 그때 없는 것이 없었어요. 하루에 세 번씩 갈아입고 살 수 있는 옷을 준비하고 전부 준비해 나온 거라고요, 7년 동안. 7년이 뭐예요? 12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기를 바랐지만, 주님이 누구인지 알 게 뭐예요? 치수나 모든 것이 선생님의 치수예요.

옷 같은 것을 하더라도 혼자 못 해요. 하루에 그걸 못 하게 된다면 한 쪽에서 세 사람이 목욕재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는 세 여인이 술기를 세 올 이상 못 뜨게 했어요. 미싱으로 옷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손으로, 앉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줄아서서 안 돼요. 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옷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바뀌야 된다고요. 이러면서 세 사람이 옷이 끝날 때까지 금식이예요. 이래 가지고 정성들인 모든 전부가 앞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전통적 역사의 출발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통일교회 패들은 뭐예요? 그렇게 다 그들이 탕감시켜 놓은 그 이상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몰라요. 이것을 재현해 가지고 여러분의 일가 가정을 중심삼고, 일족 종족을 중심삼고 이와 같은 전통의 주류적인 정수를 다시 부활시켜야 할 탕감노정을 통일교회 신령한 집단으로서 세계를 대표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뜻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역사관을 알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가 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보다도 그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영계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과 관계되어 있던 사람 전부, 허호빈 집단이니 역사시대에 애혼을 갖고 간 이용도 목사니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축복해 줘야 된다고요.

어디 갔나? 김효남 장로 어디 갔어? 갔나?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해방해 줘야 됩니다. 기독교를 중심삼은 신령한 사람들

도 해방해 주고, 그들보다 앞서 가지고 성약시대의 개문을 위해 나온 에덴 복귀파들의 실패를 전부 다 해방해 줘야 됩니다. 그 집단이 이단과 같이 다 사라져 갔어요.

선생님 하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운몽이니 박태선이니 다 갔어요. 한때의 봄절기를 맞아 판따라패와 같이 나발 불고 북 치고 봄잔치를 하고 간 사람들이라고요.

#### 주님 맞기 위한 탕감 역사를 통일교회가 탕감해야

김효남 장로는 내가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들었겠지? 「예.」 신령한 집단들, 에덴을 복귀해 가지고 주님이 되겠다고 하던 패들을, 거기에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의논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사람들을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을 다 해 줘야 된다고. 「예.」

그러한 탕감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탕감 역사의 모든 전부를 통일교회가 탕감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길을 거쳐 온 거예요. 개인으로서 종의 종의 시대, 종의 시대, 양자의 시대, 서자의 시대...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 위에는 그런 급이 있어요. 사탄세계의 혈통을 통한 종의 종들이 있고, 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단자가 있고, 주류의 종교 가운데 서자와 같은 것이 있고 말이에요. 성인들은 서자와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갈라진 것을 선생님 일대에 있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가와 역사적으로 반대한 모든 것을 넘어서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소화해 가지고 영양소를 남기면 그 영양소를 잘 받아서 잘 커 가지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심게 될 때 에덴에 있어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은 가치적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 가치적 가정에 대해 내가 엇그제 제40회 참자

녀의 날에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정은 과거·현재·미래에 하나님과 재림주까지도 필요하지 않는 역사적인 승리의 꽃과 같고 승리의 열매와 같은 존재다.’ 하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자리까지 나올 때에 이런 역사 과정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자기 일족을 중심삼고 지금 180가정 축복들을 다 했다고요. 그 가정들을 중심삼고 별의별 가정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물 대신 시켜 가지고 내가 위에 섰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광정환! 뭐라 그랬느냐고 물어 보잖아? 못 들었으니 부르지! 중요한 시간인데. 180일족에 있어서 역사시대에 별의별 탕감적 조건에 걸린 그 때가, 뭐라 할까, 그 찌꺼기가 전부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찌꺼기가 남은 것을 책임지고 탕감 조건을 세워 해방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는 선생님 대신 그 찌꺼기를 일족을 위해서 청산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세계를 위해서, 하늘땅을 위해서 했지만, 여러분은 일족을 위해서 선생님 대신 이 찌꺼기를 청산할 수 있는 놀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참부모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 부모가 축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참부모가 하늘에 입적할 수 있는 축복을 해주고 나왔지만, 그 이후의 자기 일족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아들이라고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버지가 못 된 자리를 탕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자리에 서 가지고 결혼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일족에 대한 모든 탕감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족에 있어서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족에 있어서... 일족 하게 되면,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하나돼 가지고 부부가 된 거와 마찬가지로... 성씨

들이 전부 다르지요? 그러니까 두 일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입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표의 수난 길을 책임지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일족이 다리를 놓아야 민족이 건너가고, 민족이 다리를 놓아야 국가가 건너가고, 국가가 다리를 놓아야 세계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1단계가 자기 일족이 민족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일족이 소생이라면 민족이 장성이고 국가가 완성이에요. 전부가 국가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족을 제물 삼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민족 하게 되면 말이에요, 열두 족속이 합한 것을 말해요. 민족을 제물 삼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해야 할 책임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선생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탕감해 가지고 세계 해방, 지상 천상의 해방권을 만들어 놓았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모든 조건을 중심삼고 효자 충신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효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효자가 되어서는 축복을 받아 가지고 아들딸을 가졌으면 그 아들딸을 중심삼고 나라를 살려라 이거예요. 충신이 되라! 이게 여러분의 갈 길이라고요.

그러니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돼요. 기도 못 하게 돼요.

#### 하나님의 속성과 4대 주체사상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인데, 인격을 지녔어요, 인격. 속성을 중심삼고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이 인간세계에 대해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인격을 지녔는데, 창조성을 가지고 인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자주성을 가지고 인격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관계성과 통일성을 갖춘 내용을 중심삼고 인격을 이루어서 모든

피조세계의 주체적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속성 가운데 창조성을 첨가해야 되고, 자주성을 첨가해야 되고, 관계성을 첨가해야 돼요. 관계성은 뭐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관계예요. 눈도 돌이지만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돌이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고, 코도 돌이지만 통일되어야 하고, 귀도 돌이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고, 손과 발도 돌이지만 통일되어야 하고, 몸 마음이 통일되어야 하고, 여편네 남편네 돌이지만 통일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주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성입니다.

지금 때는 어떤 시대냐? 자주적인 시대와 창조적 시대가 와요. 자주적 시대를 지금 거쳐 넘어가 가지고 관계시대로 왔어요.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외교관계 국가관계 선악관계, 모든 것이 관계예요. 지상천상천국의 관계, 전부가 관계에 들어가요. 그 관계 과정,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중심삼고 다방면에 연결된 모든 것이 앞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내 생명체에 통일돼 있지요? 코가 이렇게 돼 있지만 생명체에 통일돼 있어요. 자주적이예요. 눈이 코하고 타협 못 해요. 눈의 사명이 다르고 코의 사명이 다르고, 전부 다 자주적이예요. 그러면서 관계성을 갖고 자주적인 동시에 전부 다 통일성이 돼 있는 거예요. 또 통일성이 있는 동시에 창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하나씩 플러스시켜 나가는 철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지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요. 정지하기 시작한 데는 자주성과 관계성과 통일성이 자기와 더 관계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복귀노정을 가는 데는 쉬라는 말이 없어요. 정성을 더 들여라, 더 들여라 하지요. 더 들어서 뭘 하느냐? 더 들어서 하늘나라의 보좌 위의 하나님의 감투끈까지 잡고 거꾸로 하

나눔을 들이빠서 끌어올려 가지고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냥은 못 빼요.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도 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생활에 있어서 어제보다도 오늘 빛진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어제 늦게 잤으면 말이에요, 어제 늦게 잤다고 오늘 일찍 자는 것이 아니예요. 어제 열두 시에 잤으면 오늘은 열두 시 넘어서 자는 거예요. 1초라도 늦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일을 하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많지요? 외교하든지 사람과 말하든지, 어제와 비교해서 그 모든 한 일에 있어서 한 가지라도, 말하더라도 열심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오관을 중심삼은 이목구비(耳目口鼻), 언행심사(言行心事) 일체에서 어제보다 플러스시켜야 돼요. 그것이 자주적이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상대를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원료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관계적 상대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서로가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출발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을 봐 가지고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유일·불변·영원의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화될 수 있는 이런 남성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성·자주성·관계성·통일성의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이라구요.

김일성의 3대 주체사상이 뭐예요? 창조성·자주성·의식성이예요. 여기에는 관계성이 없어요. 투쟁성이예요. 통일성이 없어요. 파괴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자주성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의식이란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구요. 시대는 변한다구요. 양심까지 변한다는 세계에 의식성이 뭐예요? 그런 표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붕괴되고 원칙적 기준에서 이탈된다는 사실을 뿌리로부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구요.

그런 면에서 창조성·자주성·관계성·통일성입니다. 남자 여자 관계, 형제관계, 상하좌우·전후관계, 우주 관계, 모든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철학권 내에 있어서 중심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존재가 끊기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사라져요. 통일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속성과 4대 주체사상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는 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중심삼고 하는 말이나 하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앞에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이다 이겁니다. 참사랑 앞에 유일이요,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참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으면 절대적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유일한 자리에 설 수 없고, 불변 영원한 영생의 세계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운동할 때 상상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참사랑 세계에 목숨을 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유일·불변·영원! 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창조·자주·관계·통일이다!’ 하면 말 그대로 통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지상세계나 영계나 생활의 기준, 생활의 규범이에요. 철칙이라는 것입니다.

눈도 새로운 것을 자꾸 보고 싶어하지요? 눈도 자주적이라구요. 관계가 있는 것은 봐도 몰라요. 자주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관계성을 갖고 있고,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탕감복귀의 원칙을 인류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하늘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탕감조건을 넘어서야

약속이란 말도 조건이에요. 투전판에서 짓고땡을 할 때 4자, 5자가 되면 갑오라구요. 왕초와 마찬가지로요. 그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세워야 돼요. 제물은 뭐라구요? 소유권을 결정하는 조건물입니다. 이런 것도 다 원리원칙에 비추어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요.

제물은 소유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무슨 소유권이냐? 부락의 제물은 부락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요, 나라의 제물은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요, 하늘땅 천주의 제물은 하늘땅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물이에요. 그 조건물이 지극히 적더라도 그것은 우주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하나 안 쪼갬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이 우주를 걸고 넘어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물은 뭐라구요? 「소유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 조건이 못 되고 사탄의 소유 조건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난길을 거쳐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에야 독립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 후 3년 이내에 국가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북의 김일성이 34세에 강제로라도 주권을 세운 거예요. 이박사가 이걸 반대한 상태에서 미군정을 하게 되면 완전히 한국 강토가 김일성 판도에 흡수돼 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싸우겠어요? 그럴 때 김일성이 밀고 내려오면 미국 군정이 싸우지 않아요.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한국 백성이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16개국의 유엔군이 사탄을 대해서 싸운 것입니다. 한국이 선두에서 싸워야지 미국이 선두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선두에서 싸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천사장이 싸워주는 데 따라가서 배워 가지고 군단장 같은 모든 장성까지 나와 가지고 미국 군대 대신 해 나왔는데, 해방돼서 미국권 내에 해방돼야 되요. 이게 섭리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2천년이 되었지만 참부모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죄의 양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양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6백만 산 피의 제물을 하늘이 허락한 거예요. ‘해라.’ 이거예요. 6백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인류 해방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6백만을 학살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탕감법칙을 도와준 패도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안 그래요?

스탈린도 1953년에 죽었지만 중공과 분립돼 가지고 전부 다... 선생님이 홍남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3년 뒤인 1953년에 스탈린이 죽었지? 1953년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공산당 괴수가 무너진 거예요. 선생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목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소련 모스크바 대회와 김일성 대회를 해 가지고 대회가 끝나게 되면 선생님이 자리를 전부 다 인수할 수 있는 조건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조건적 기준이에요. 실전적 과정을 거쳐 가지고 획득해야 될 실전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있다구요. 세상은 그런 관계를 중심삼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가 통일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치른 탕감

오늘날 통일교회 선생님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믿고 절대 충성한다고

했지만, 선생님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성약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탕감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6천년을 탕감하는 역사를 전부 다 선생님이 해야 할 텐데 2차대전 직후에 구교와 신교가….

구교 신교 가운데는 나라도 많아요. 신교 나라도 있고 구교 나라도 있는데, 신교 나라 대표가 미국이고 구교 나라 대표가 로마 교황청을 중심삼은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 문화권 아니에요? 독일이니 무엇이니 전부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완전히 선생님을 내세워 가지고 신교만 하나되었다면 구교와 하나되는 것은 문제없어요.

끝날인 지금에 와 가지고는 미국의 목사 5천 명을 교육하는 데도 그들이 와 가지고 2박3일 동안에 교육을 받고는 반대하던 그들이 시퍼런 눈에서 하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축복받겠다고 그랬다구요.

그런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50년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기성교회 6대 종교단체를 대표한 연세대에 집중되어 있던 청소년 이들만 통일해서 데모해 가지고 기성교회를 때려눕혔으면 천하가 거기에서…: 이박사도 할 수 없이 굴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김활란이도 김영운이까지 보내줘 가지고 돌이키려고 했는데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통일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원조받은 35만 달러 때문에 통일교회를 반대한 거라구요.

그 기성교회의 대표자인 김명희가 반대받아 쫓겨나 가지고 회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을룡을 중심삼고 이 남한에 내려와서는…: 득삼씨 남편이 최 뭐라구요? 「최성모입니다.」 최성모 가정을 중심삼고 장자 차자, 큰누나 작은누나, 어머니, 손자, 조카며느리까지 완전히 통일교회를 반대했어요. 그 한 가정에서 3대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맏딸 작은딸까지 하나가 돼 가지고 어떻게든 지…: 딸이 셋인 동시에 남자가 하나예요. 아담 자리라구요. 아담이 찾

아야 할 것이 3시대의 여인이라구요. 여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딱 그와 같이 해 가지고 완전히... 장자는 가인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깨져 나갔어요. 뭐 63빌딩을 지었는데, 이 녀석이 통일교회보다 앞서겠다고 청평 땅도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러 다녔고, 내가 여의도에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짓는다고 해 가지고 63빌딩을 지었어요.

그 여편네는 기독교인들 말 듣다가 망했지요? 무슨 밍크 코트니 뭐니 해서 망신살이 뻗쳐 가지고 야단하잖아요? 「예,」 여자가 망살이예요.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실업축구팀인 할렐루야 팀도 만든 거 아니예요? 박정권 시대에 최성모가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정권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커졌는데, 원래는 통일교회를 전부 다 지지해야 돼요. 박보희 같은 박씨들이 전부 다... 박보희가 배포가 있었으면 말이에요, 최성모하고 친구가 돼 가지고 박정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까놓고 원리 말씀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순화씨가 축복받을 수 있는 대상이예요. 그런데 반대하니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해 가지고 끈을 달아서 순화를 중심삼고... 이것이 둘째 번이예요. 이들 셋을 중심삼고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기성교회가 반대해요. 기독교가 반대하니 안팎이 깨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신앙자라고 믿었던 애들도 전부 다 배신자가 되었어요. 전부 배신자라구요. 승택이도 배신자, 유경일이 도 배신자가 되었어요. 깨져 나갔다고요. 김명희도 그렇지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새로이 남아진 패들을 중심삼고 순화, 이총장, 어머니 이렇게 3시대를 연결시켜 가지고 돌아가는 거라구요. 그 배후에 여자 때문에 얼마나 선생님이 그늘에 살았어요? 선생님 말을 다 듣겠다고 했나? 시집 보내 달라고 그러던 것 생각나? 「예,」 시집갔으면 똥개새끼한테 시집갔을 거라구요. 뭐 공자? 공짜예요, 공짜. 공자가 공

짜라구요. (웃음) 그런데 그것도 싫다구? 최선생도 석가하고 해주었다 구. 이런 탕감 역사를 일으킨 게 전부 여자예요. 그래, 통일교회 여자 들이….

박씨 여자도 그래요. 박정숙, 박정해가 한 계열이에요. 두 여자가 대표예요. 외부에 나가 가지고 만나는 사람, 필리핀 남자들이 궁둥이를 따라다녀요. 통일교회 안에 있던 박정숙이는 전부 그 여자의 상대가 되겠다고 해 가지고 남자들이 눈이 돌았어요. 참 신기할 정도라구요.

### 여자들로 인한 고비를 넘어 여자들의 갈 길을 가려 줘야

그 어려운 모든 탕감시대를 다 넘었다구요. 복잡다단했어요. 선생님이 원리를 몰랐으면 벌써 다 깨졌어요. 틀림없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집에 묻어 놓고 뭐라 할까, 예를 들어 말하게 된다면, 밤에 보고 쏘는 총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레이저 총, 레이저 조명탄이예요. 밤에도 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것이 선생님의 생애예요. 그런 것을 전부 알지 않으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유인하고 야단했어요? 강현실이 나하고 가까우면 내가 강현실이를 데리고 살았지, 세상 같으면 틀림없이. 그러나 선생님은 엄격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여자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테러단 모양으로 ‘이 자리 내놓아라. 내가 준비한 게 몇 년이고 내가 수고한 게 몇 년인데, 선생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아니? 유효원부터 전부 경배해야 된다.’ 이랬어요. 내가 손목이라도 한 번 잡고 키스라도 한 번 해줬으면 큰일났을 거예요. 벌써 알아요. 선생님이 허재비가 아니예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훌륭한 게 그거예요. 세상 같으면 발길로 차고, ‘무슨 간나가 이래?’ 할 텐데 가만두고, 나도 가만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일어서서 밥

떡쟁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이거 뭐 대응을 해 줘야 될 할 신이 나지요. 싸움이라도 하면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할 텐데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별의별 꼴을 다 봤다구요.

여자들의 그 꼴을 얘기 좀 할까요? 전부 도망갈 거라구요. 선생님 앞에서 난동을 부린 모든 사실을 알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해와 국가 일본의 간니들도 그래요. 16만9천 명이 드나들었는데 미인이라고 해 가지고 별의별 여자들이 다 있었다구요.

또 문총재를 세무조사 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도 3개월 동안 아무리 조사해야 안 되니까 ‘위대하신 문총재는 성공할지어다.’ 하고 편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시 아이 에이(CIA)도 그런 거예요, 시 아이 에이도.

이박사도 그거 알아, 선생님이 그런 것을? 「예.」 1968년 이후에는 선생님이 여자들의 갈 길을 전부 다 잡아 줘야 돼요. 그런 원칙을 다 모를 거예요. 하늘이 다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은 자기들이 길을 가게끔 길을 잡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에게 품겨 주고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들을 다 사랑하지요. 딸과 같이 사랑하고,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할머니같이 사랑하고, 왕같이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데는 함부로 사랑하지 않아요. 질서를 세우고 체계를 따라서 대해 가지고 바로잡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위대해요. 여자들이 존경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 박사! 「예.」 저 박사! (웃음)

천신만고(千辛萬苦)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기 욕심을 통한 섭리의 뜻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막혀요. 좋다고 하지만 어둠으로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아요. 어렵더라도 원칙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생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어렵지요. 탕감복귀가 쉽다는 말은 영원히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개인에 대한 어려움, 아내에 대한 어려움, 자식에 대한 어려움, 나라에 대한 어려움, 세계에 대한 어려움, 하늘땅에 대한 어려움,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을 다 내게 분풀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역정에 뭘 찬다구요? 개 배똥기를 찬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래요. 어디 가든지 자리를 못 잡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참부모를 죽이고 참부모의 일족과 이상적 천국을 망친 그 민족은 천국이 현현할 때까지 자리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왔던 주님이라고, 구약시대에 왔던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해 가지고 그 메시아를 시봉(侍奉)할 수 있게끔 무덤을 모셔 놓고 천년 만년 참부모를 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못 하거든 기독교와 합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년 만년 참부모를 통일교회에서 모시는 것의 몇 배 모실 줄 알아야만 성약시대 뒤에 신약시대가 따르고, 신약시대 뒤에 구약시대가 따라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가중된 저 영계의 기준의 탕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제물로서 영계에 간 혜진, 희진

더 얘기할까요, 점점 더 무서운 얘기? (녹음이 잠시 중단됨)

그래, 청산 안 된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청산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남미를 안 갈 것을 잖아요. 바다에 갔는데 전부 좋지 않은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 갔는데 바다에 못 가게 병

이 나게 한 거예요. 설사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은 당장에 가더라도 내가 정세를 바로잡아 가지고 최후의 선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돌아와서 ‘총천주 축복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런 고비를 전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2천년 만에 맞는 아홉 고개를 넘어가요. 2000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편할 수 없다구요. 그래, 통일교회의 가까운 사람들이 일곱 이상 12월에 가나 안 가나 보라구요. 그걸 아는 선생님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염려했다구요.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된다면 섭리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조건을 가리기 위해서도 이번에 영진이가 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의 가정에서도 탕감하는 데는 혜진이가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만에 갔어요. 고생해서 낳아 가지고 열이 40도를 넘어서 신음하면서 어머니 젖도 못 먹고 울다가 갔다구요. 그때 선생님의 기도가 ‘이 아기가 해와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수난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또 그렇게 갔다구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무덤을 볼 때도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라구요. 내가 영계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날까지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80세 되기 전에 전부 축복시켰어요. 알겠어요? 김장로, 물어 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 보라구.

이렇게 볼 때, 둘째 번 딸이에요. 어머니에게 둘째 번 딸이에요. 남자도 둘째 번이 다 문제 되는 거예요. 해와가 타락할 때에 집에서 타락했어요. 밖에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탕감의 길을 넘어가 가지고 여자 중에 비로소 첫 제물로서 갔는데 깨끗



이 갔어요. 어머니의 젖도 안 먹고 태어난 그냥 그대로 제물로 갔어요. 해와의 원죄를 청산한 입장에서, 복중에서 태어나 해와 자체가 자주적으로 커야 했던 지금까지의 여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제물로 가라고 기도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희진이가 그랬어요. 희진이도 예수와 같이 도망다니다가 낳지 않았어요? 이정옥이 왔어도 있을 수 없어서 절간으로 전부 다... 이정옥이 왔나? 정옥씨가 후견인이 돼 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요. 절간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정옥씨가 전라도 꽤예요. 다 상대적 입장에서 이래 가지고 나온 거예요.

희진이가 여기에 와 가지고 원리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모르니 전도 갈 때는 내가 앞장서서 간다고 갔다가 객사한 거예요. 예수 시대의 소년으로부터 예수의 꿈을 품고 나가면서 전도, 하늘의 복음 전파의 길에서 제물로 갔기 때문에 예수와 연관관계를 맺게 되었다구요.

#### 흥진군의 승화와 그 의의

그 다음에는 흥진이에요, 흥진이. 국가의 위기를 넘어갈 때 승공대회를 했어요. 그때 72개국의 교수들이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한국에 오라고 하여 불러들여 가지고 승공대회를 했는데, 광주가 마지막 대회였어요. 이 마지막 대회에 초만원을 이뤘어요.

그때 영계에서 될 받는 사람들은 문충재가 마지막길이라고 별의별 말을 했다구요. 그렇지만 내 갈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화의 주역이 살아남아야 그 영화가 프로그램이 계속되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계속되는 거예요. 여자는 다 깨져 나가더라도, 주변은 다 깨져 나가더라도 주역만 남으면 됩니다. 그 영화가 아무리 장편영화라 하더라도 주역이 남아서 빛나는 스틸 있는 영화만 되면 그

건 성공이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철문을 닫고, 사람이 일어나서 오줌을 싸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공산당 지하 프락치도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구요. 그래 가지고 대회가 끝나는 날 시작하는 시간에 흥진이가 사고났어요.

그때 참 신기한 것은 뭐냐? 그날 내가 넥타이핀을 했는데 그 넥타이핀이 1.5캐럿이에요. 순 다이아몬드로 7천 불을 주고 산 거예요. 예물을 하려고 사왔던 것인데 그것을 끼우고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의 탕감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시간에 흥진이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내가 미국을 떠날 때 어디 가지 말고 전부 다 집에 있으라고 그랬다구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을 데리고, 진봉이 진길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외국에 나온 아이가 아버지가 없다고 상당히 사랑했어요. 떡을 것이 없으면 떡을 만들어 주든가, 무엇이 생기면 부모들 몰래 갖다 주고 다 이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사고현장을 보고 이것이 보통 사고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내가 검증을 했는데, 쪽 이렇게 저쪽에서 내려오던 것이 말이에요, 차가 가로막았는데 이렇게 나갔으니까 차를 운전할 때 이쪽으로 핸들을 꺾잖아요? 차가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보고 참... 뭐 핑계할 도리가 없어요. 진길이가 진봉이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가 희생한 거라구요.

그래서 그가 갈 길을 내가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식을 해준 거예요. 영계의 모든 전부를 중심삼고 여기서 애승일을 선포한 거예요. 통일식을 했으니, 천하 통일, 영계 통일, 모든 통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식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해방적인 하나의 제물로서, 조건적이 아니라 해방적인 제물로서 천상세계의 예수 형님의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형님의 자리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와서 예수를 중심삼고 성신이 강림해 가지고 신랑 신부가 출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기준과 실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50일 만에 실체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 원리적이구요. 영계에 간 예수나 모든 전부에게 미래에 있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문을 열어 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형님이예요.

예수가 지상에서 영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실체적 기준을 중심삼고는 못 했어요. 이 땅 위에서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결혼한 것이 1973년 1월 3일입니다, 1월 3일. 그때 해준 것을 비로소 80년대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번에, 금년 4월 19일을 중심삼고 미국 한국 일본의 세 나라, 3단계 중심삼은 해방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비로소 벨베디아에서 살림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줬어요.

#### 제4차 아담권 시대를 맞아 혼독으로 지상 천상 통일을 이뤄야

그래서 장자권 축복시대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2차대전 직후에 종교, 기독교를 중심삼고 세계적 축복 해방권을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탕감조건을 세워 가지고 물러 나가는 거예요. 금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돌아온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세계 축복을 못 했던 것을 탕감해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된 거라고요. 지상천상천국을 전부 연결시켜 가지고 지상의 사탄세계 혈통 단절뿐만 아니라 사탄 혈통 근절까지, 1952년까지 할 것을 전부 다 40년이 지나 1992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992년에서 지금이 8년째예요. 제2회 3차 7년노정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탕감하는 거예요.

총천주 축복 해방일, 그리고 제4차 아담권 시대 발표, 그 다음에는 자주적인 가정, 우주 승리권의 자리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지상세계와

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말씀이 있어요—훈독회 말씀과 더불어 그대로 순응해서 살게 되면 그 말씀을 중심삼고 하나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 대신, 주인 대신, 천주 대신 자기가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계약 문서를 가진 것입니다. 무슨 문서? 「계약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독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영계에서도 훈독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계도 비로소 이렇게 돼야만... 영계도 전부 다 축복들 다 받았지요? 그러니까 같은 4차 아담 지상천상시대를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중심삼고 교육하는데, 이제부터 방송이 벌어지고, 영계에서는 국경이 다 철폐되어 버리고 이 말씀으로 순식간에 통일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축복식 이후에 구구절을 선포하고 삼십절을 선포한 후에는 지옥에도 광명한 빛이 비치게 된다고 그렇잖아요? 어둠에서 살던 영인들도 부활의 역사가 벌어지고, 지옥문이 철폐돼 가지고 해방시대가 온다는 소망에 불타게 됐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다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 제4차 아담권 시대를 맞기까지 네 자녀가 제물의 길을 갔다

그래, 선생님이 그걸 처리하는 데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드려야 됩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체의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나라를 위하는 데서는 자기 일체를 제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물건을 전부 생축의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소유물을 가르면 안 돼요. 내 것이란 소유가 없어요. 나라 것으로서 통으로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딸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나라 것

이예요. 나라 것이 돼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부부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라의 뜻을 따라가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래 가지고 셋이 한꺼번에 몽땅 바쳐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자르던 가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했어요. 어디에 이전하는 거예요? 종족들 교회에 이전하라는 거예요. 문총재한테 이전하게 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알겠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전해야 돼요. 교회가 있으니, 교회는 그 나라의 소유니 그 나라에 이전했다가 전체 교회가 통일교인을 중심삼고 연합해 가지고 국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국가를 대신해서 총합한 하나의 아벨적인 제물을 중심삼고 가인 제물과 하나돼 가지고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소유권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갔다가 참부모를 중심삼은 소유권 기반을 중심삼고 다시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은 자기 소유가 필요 없어요. 결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요. 상속받아야 할 것은 뭐냐? 사랑을 중심삼고 상속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상속을 받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돼 가지고 낳은 아들딸이 사랑의 상속의 제물입니다. 그 아들딸들이 살 수 있는 만물이라구요. 알겠어요? 밥을 먹고 살지만 어미 아버지가 아들딸을 못 낳게 되면 밥을 먹으나 마나 한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 망하는 거예요. 아들딸을 못 낳아 가지고는 밥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독신생활 하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미친 간나들이라구요. 저나라에 가게 되면 거꾸로 서서 어두운 데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런 무리들은 보기도 싫어한다구요.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의 가정에서 혜진이가 그렇게 여자의 죄의 뿌리를 중심삼고 제물로 갔고, 흥진이가 기독교가 실수한 것을, 구약시대를 탕감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갔다구요. 흥진이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부활한 거와 마찬가지로 50일 만에 약혼해 가지고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까지 다 이뤄 놓았다구요. 영계의 해방, 그레 가지고 지상세계와 통일권을 중심삼고 만국이 일체 된 가운데 아담 가정을 완성한 자리에 축복하는 거라구요. 만국의 축복가정들이 공동의 자리에서, 세계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축복한 자리에 내세우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가정들과 이들의 아들딸은 아담 자리를 대표할 수 있는 죄 없는 해방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제4차 아담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이 라구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는 이 우주를 대표한 소유가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아들도 우주를 대표한 아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충신의 칭호를 줄 수 있는 아들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효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아들딸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성인의 도리를 교육해야 되고, 성자의 도리를 교육해야 돼요.

선생님은 가정에서 효자 중의 효자요, 나라에서는 충신 중의 충신이에요, 성인 중의 성인이고, 성자 중의 성자요, 지상 위에 아버지 중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실체적 대상의 일체 되는 천지부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대해 절대사랑·절대신앙·절대복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되어 가지고 탕감조건 없이 어디서든지 천상세계의 상속을 받아 가지고 천년 만년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로 살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이스라엘 민족의 총탕감을 짓기 위해 선생님의 아들딸 중에 네 아들딸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희생된 그 가정 위에 여러분이 선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6백만이 희생되지 않고는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기독교 로마 박해시대 4백년 희생한 것까지 모든 전부를 연합한 총 열매로 선생님의 아들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해방한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빛을 졌다면 무한한 빛을 진 것이요, 가치로 보면 무한한 가치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우주의 중심가정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의 아들딸의 가정을 대표로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말도 절제를 해야 해요. 함부로 농도 못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도 이제는 전부 다 빼 버려야 됩니다. 말까지 탕감해 가지고, 생활까지 환경에서 탕감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중심삼고 영클어졌던 역사적 전통,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기준에 일치화될 수 있는 생활을 내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각자 가정들의 책임이었나니라! 「아멘.」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여러분에게 왔으니 그걸 구경하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인이라구요. 주인이 돼야 되겠으니 이러한 주체적 책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상나라나 하늘나라나 주인 된 환경적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천국을 중심삼은 천국 직행의 하이웨이(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가정이었나니라!

#### 제물은 자기 부정의 길을 가야

부모가 가려면 아들딸 3대를 거느리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1대, 아담이 2대인데, 3대를 하나님이 못 거느렸어요. 3대를 거느리고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런 것을 다 안 들은 것보다도 듣고 나니 큰일났지요?

영원히 자기가 자기 색깔을 나타내지 못해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부정을 영원히 당하더라도... 부정하는 것이 제물이에요. 피를 가르잖아요? 부정적인 조건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데에 긍정적인 조건이 내게 있을 수 없다고요. 부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청산해도 일생이 미치지 못하는 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 대해서, 참부모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씨! 현실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을 보더라도 굶어 죽어간 모든 사람들 대신 내가 그 부활체로서 먹어 준다면서 복을 빌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천상의 가인들도 여러분이 어서 와서 만나서 옛 얘기를 회포를 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슬픔을 논할 수 있는 동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은 아예 깨끗해요. 여러분도 마음의 그림자를 갖고 가지 말라고요.

28일 새벽 하늘의 지시가 그래요. ‘혜진 누나, 희진 형, 흥진 형의 반열에 동참시켜라.’ 이랬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어요. 선생님은 자살했다면 불살라 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왜 울어? 자살했다면 불살라 버려!’ 그랬다고요. 효율이도 기억나? 「예.» 서슴지 말고 불살라 버려라 이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해외한테 속았어요. 딱 그렇다는 거예요. 영진이도 마찬가지로요. 영진이가 해외한테 속았어요. 효남씨가 청평에서 정이나 부정이나를 가릴 때 자기는 정이라고 하는데 영계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단체가 어디 있느냐고, 생 사람을 잡느냐고 하면서 반발했던 사실이 있다고요. 그랬다면? 「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늘나라, 영계를 통할 게 뭐야? 그리고 그런 일은 가정국에서 조사해 가지고 전부 다 해야 할 텐데, 이놈의 가정국이고 뭐고 전부 다... 기도해 가지고 하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회개시켜야 된다고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뺨을 후려갈기



고 그래 가지고라도... 그래, 영진이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딱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속은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속지를 얹어요.

영진이가 대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남자가 나타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용서하고도 그러려니까 또 남자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구요. 그 아이한테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아기가 중간에 있는 아기에요. 사탄세계에도 있을 수 있고 하늘편에도 있을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아기인데, 이 아기를 사탄세계에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계의 영진이가 용서해 주고, 아들딸을 봐 가지고 하나님이 참고 대신자를 세워 가지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신자를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대신자는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따르고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혼자 살아야 될지 몰라요.

흥진이가 아량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 같은 사랑이 있으면 말이에요, 영진이도 영계에 가서는 어때야 되느냐? 영계도 원수와 더불어 지금 교차결혼을 하고 그랬다구요. 유관순도 일본 사람하고 했지요? 영계의 청소년들이 원수들과 결혼했어요. 아버지의 원수라든가 나라의 원수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어서 앞으로 청소년들도 국경을 중심삼고 원수와 결혼함으로써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가 빨리 되는 거예요.

박정해의 원수가 누구야? 아들딸이 결혼하는 데는 이제부터 원수를 찾아 결혼해야 돼요. 통일교회 36가정도 전부 다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 가지고 그 싫어하던 것이 다 깨져 버려요. 싫어하던 패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넘어갑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때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진이는 축복을 중심삼고 지옥과 천국을 왕래하면서 지옥편이 아니라

천국편에 가려니 아기들까지 끌고 하늘나라에 가야 할 서글픈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축복가정 이름이 있지만 축복가정을 다 잃어버렸다구요. 그러니 그것을 다시 메워 줘야 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딱 그런 거예요.

### 여자들 중심한 섭리의 의의

선생님도 어머니가 둘째 번 아니예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돼 있지요? 성진 어머니가 사실 불쌍하지요. 이화여대 사건만 안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통일교회가 이런 일생의 수난길이 없어요. 아줌마들을 대신 세울 것 없대구요.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단 둘이서, 레아와 라헬과 같이... 어머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가 돌아가려면 이렇게 못 돌아가요. 다리를 놓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려니 그 길을 못 간대구요. 어차피 레아와 라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궁전에는 중전마마를 중심삼고 여자들이 많아요. 왜 여자들이 많으나 하면, 앞으로 왕이 되게 되면 120문도, 제자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천사장권을 막아야 된대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원래 백제 같은 데는 3천 궁녀가 있었다구요. 전부 다 장(長)들 혈통을 끊어 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 혈통을... 해와를 유인해 가지고 사탄이 번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남자들이 여자를 유인해 가지고 바람 피우잖아요? 복잡한 모든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방백들을 축복해 줘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통일교회 여자들도 그래요. 모였던 것이 뭐냐 하면, 원래는 선생님의 첩과 같다는 거예요. 첩이에요. 첩이 많아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첩

바람에 옥살박살 깨지겠기 때문에 공을 세워 가지고, 조건을 세워 가지고 전부 축복해 준 거예요. 조건적으로 축복할 때 선생님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천사장을 다시 낳아 가지고 남편으로 맞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지요? 사흘만에 남자가 위에 올라가지요? 소생, 장성은 여자가 위에 올라가지요? 나중에는 뭐예요? 완성한 아담으로서... 구약시대 해방하고, 신약시대 해방했기 때문에 나를 낳아 주었으니 어머니예요. 어머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로 3년 동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 대신.

여러분 생각해 보라구요. 예수님 앞에 왕이 있고,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누나가 있는데 일등 신부가 누구냐? 예수님이 딸이 될 수 없지요? 신부 역사는 왕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줄줄이... 거꾸로 올라간다면 누나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복귀시대는 이게 반대예요. 남자는 하나인데 여자는 넷이에요. 일등 신부가 순서가 뭐예요? 그 나라의 여왕이 신랑을 모시고 천상에 서면 나라가 복귀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머니가 그러면 할머니 자리가 복귀되고,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 자리가 복귀되고, 누님이 신부가 되면 누님의 자리가 복귀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어머니가 뒤에 들어오고, 할머니가 뒤에 들어오고, 여왕이 뒤에 들어와요. 이래 가지고 신부는 신랑을 따라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쌍쌍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갈 때는 전부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딸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세계의 장녀로서, 사탄세계의 어머니로서, 사탄세계의 할머니로서, 사탄세계의 왕후로서 축복해 주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여자를 중심삼고 축복을 전부 해줘 가지고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수님이 마리아 대해서 세 번씩 말을 했는데 17세, 30세, 33세 때

였어요. ‘이러해야 되는 천리의 도리를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놀음이에요. 신랑이 되었으니 하늘나라의 딸을 낳아 줘야 되고, 어머니를 낳아 줘야 되고, 할머니를 낳아 줘야 되고, 여왕을 낳아 줘야 돼요. 사탄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탕감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음시대가 와요, 혼음시대. 할아버지가 손녀하고 살고, 아버지가 딸하고 사는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빠가 누나하고 살고 딸이예요. 그런 혼란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혼란 가운데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지만, 질서를 따라서 그걸 거처가면 시궁창에 빠졌다가 바닷물에 목욕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되어 천국 들어갈 때는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예요. 누나도 축복해 주고, 어머니도 축복해 주고, 할머니도 축복해 주고, 여왕도 축복해 주고, 전세계의 모든 여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총장도 혼자 못 간다고요. 쌍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갖고 들어가요. 선생님도 함부로 못 가요.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원리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에게 품겨 주고 나 이상 사랑해 주고 복을 빌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철칙이에요.

아무리 미인이 와서 옆구리를 찌르고 발가벗고 그러더라도 마음대로 못 해요. 이게 선생님이 위대한 점이라고요. 울고불고 해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지극히 존귀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남자로서 만국을 구할 수 있는 여자의 구세주예요. 그래, 누님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 왕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를 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잡아 주겠어요? 구세주가 잡아 주는 거예요. 구세주는 가정적 구세주예요. 가정적 구세주가 되는 동시에 나라의 구세주예요. 여

자를 구해 주는 대표자예요. 그러니 여자들의 서러움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여자 때문에 무엇보다도 밤낮을 개의치 않고 정의 도리를 연결시키고 뒤넘이친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집가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영계에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둘이 가다가도 선생님만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얘기해 줬다구요.

지금까지의 망성소는 지성소가 되어야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부탁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탕감 의식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잘못됐지요, 해와가? 해와는 천사장의 아내였어요. 하늘나라의 아내가 못 되었어요. 핏줄을 끊어 버려야 돼요. 누가 끊어 줘야 돼요? 통일교회는 탕감조건을 세워서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국가적 기준을 넘어 세계적 기준에 왔기 때문에, 끝에 와서 어머니가 마음대로 전부 다 조건을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 자체는 조건이 안 돼요. 실제로 탕감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 간부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구요. 기독교한테 얘기하면 배밀이하고 전부 문제가 벌어진다구요. 이것이 천기누설이에요. 이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밝혀야 정리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의심나는 거 없지요? 6마리아라는 말도 들어 본 적 있지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는 데에 와서 예수를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라고 그랬나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귀에 대한 기준을 중심삼고 거룩한 곳에 가야 할, 성신을 맞고 나서 가야 할 그 길 앞에는 제2의 상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예요. 막 달라 이거예요. (웃음) 한국말이 계시적이에요. 한국말에 ‘말이야 말이야, 아이구, 죽고 싶단 말이야. 말이야.’ 하고 마리아를 찾지요? ‘아이구, 보고 싶단 말이야. 아이구, 먹고 싶단 말이야.’ 이

러지 않고 죽겠다는 말과 합해서 하는 거예요. 타락도 따먹었다고 하지요? 야, 그거 보면 참 놀라워요. 계시적이예요.

그리고 사탄세계에서 제일 나빠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미 붙을 놈이라고 그러지요? 제일 비밀이예요. 나도 모르겠다구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잘 몰라요. 그런지 안 그런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해봐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그 기관이 아예 얼어붙을지 몰라요. 쌍놈의 자식이라는 말은 한 쌍인데 두 패가 되라 그말입니다. 쌍이라고 그러지요, 쌍것이라고?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늘을 중심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욕이 하늘나라에서는 전부 다... 남자 여자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미에서도 이렇게 하더구만.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의 그것을 제일 쌍것으로 취급했는데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지성소라고 말하지요? 그게 지성소예요. 사랑의 지성소, 생명의 지성소, 혈통의 지성소, 양심의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성소예요. 지금까지는 타락해서 망성소였어요, 망성소. 무슨 소? 「망성소」 반대예요. 지금은? 지성소이니 지성으로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벼락을 맞을지 모른다구요. 몸뚱이는 성소예요.

#### 역사적 탕감길을 간 부모님을 위로하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우리 통일교인들은 다시 타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죽어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한국의 여자들은 은장도를 가지고 다닌 거라구요. 그럴 수 있는 자리에서는 자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한민족은 메시아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준비된 민족이예요.

오늘 내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누만. 그만큼 했으면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나?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요 모친이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탕감의 고개를 메워 주는 놀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어요. 세상에, 그게 뭐냐 이거예요. 친척집 잔칫날은 중요시하고 이들의 잔칫날은 준비 못 하는 이 어미, 비운의 어머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밝히겠어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줘요, 누가?

저 뒤에 누구야? 구보키야? 무슨 코던가? 「구보키 데쓰코(久保木 哲子)입니다.」 데쓰코! 데쓰코지 구보키는 무슨 구보키야? 지상에 없는데. 그래, 구보키가 더러 나타나서 얘기해? 「예, 아버님.」 와서 뭐라고 그래? 남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

\*꿈속에서 모처럼 만났는데, 뭐라고 그래? 「돌아가신 것 같지 않고…」 살아 있을 때처럼 만난다구. 키스를 했어? 「안 했습니다.」 키스를 하도록 해보라구! 그렇게 차츰 깊어지면 날마다 찾아온다구. 영계에 있을 데가 없다구, 네 옆에밖에는. 알겠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어? 영계와 육계가 통일권, 하나로 되어 있다구, 손등과 손바닥처럼. 있을 데가 없다구. 네 옆에 있겠다는 거야. 그렇게 영적인 인연을 묶어 가야 된다구. 알겠어? 「예.」

그래서 알몸으로 짝사랑을 해서 뭐예요? 무슨 병이라구요? 상사병! 사랑의 병을 뭐라고 그래요, 일본말로로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일심 불란하게 되면 쪽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개같이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나타난다구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되지 않으면 저나라에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고, 뒤따라가더라도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이야마이(戀病)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상사병을 일본말로 뭐라고 하느냐구요? 「고이와주라이(戀煩い)라고 합니다.」 응, 고이와주라이! 여자가 그런 병에 걸리면 남자의 가래를 섞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낫는대구요. 그러한 상사병 이상의 심정으로 기다리면, 남편이 찾아와 가지고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심정으로 기다리면 찾아오겠지요? 처음에는 잘 모른대구요. 그렇지만 누군지는 아는 거라구요. 네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나, 구보키나? 그럴 때 실수하면 큰일난다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부 다 위안축복을 안 해줘요. 4차 아담권, 이제 전부 다 상대권이 있는데 위안축복을 해줘서는 안 돼요. 위안축복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아, 탕감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 가정에서 그렇게 네 형제자매가 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역사적 뿌리를 뽑고 역사적 탕감의 해소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한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하고, 그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효자 열녀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아 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약속이 아니라 낙인이예요. 낙인 찍고 다 그러지요? 네 아들딸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조건적 허락을 하고 인정한다는 사인이 낙인이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체가 와 가지고 이상적 그들을 중심삼고 그 위에



거두어져야 효자충신·성인·성자,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주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별 수 없이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 하면 틀림없이 보고할 나라는 것을 느끼지요. 알겠어요? 「예.」 함부로 말하지 말라구요.

세상의 친구를 만나도 더럽히지 말라구요. 길가에 가다가도 전부 다 성별하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성염으로 성별했지요? 오늘부터 성염 대신 세 번 불어서 성별하는 거예요. 가는 데는 어디든지 훌훌 불라구요. 성염으로도 하지만 자기 자체에 있어서 가정을 대표한 해방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창세기에 나오듯이 생명이 되게 기운을 불어넣었지요? 자주적인 입장에 있으니 훌훌 불어넣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불어 치우잖아요? 어디에 앉게 되면 세 번만 불어서 성별하고 앉는 거예요. 「성염은 안 써도 됩니까?」 성염이 없을 때 말이지.

오늘부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디 가더라도 물건을 샀는데 성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성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소유물이다 이 거예요. 내가 탕감조건을 해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구약 전체를 하나님 앞에 총생축헌납제를 했기 때문에 사탄의 조건이 없으니 성염 없이 훌훌 부는 조건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선생님은 지금까지 어디 가서 앉더라도 그런 식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니가 이 시간에 듣는지 모르겠구만. 변소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런 식을 해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지금 몇 시예요? 「11시 35분입니다.」 11시 35분에 영진이 승화식을 끝내고 모여 가지고, 여덟 시에 모였으니 몇 시간이야?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반이 지나서 이런 특혜를 허락하니, 부디 자주적인 가정으로서 하늘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치 않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선생님이

축원한다구요. 아시겠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맹세해요.

그래서 오늘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의심되는 모든 일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어젯날보다도 오늘이 더 기쁜 가운데 만복을 바라는 만민 앞에 뭔가 결의를 다짐할 수 있는 이런 본이 되는 승화식이었다! 아멘. 「아멘!」

####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세

내일은 내가... 주동문! 다섯 시에 떠나게 되어 있지? 「잠깐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사장이.」 박구배는 언제 가겠나? 「모레 가겠습니다.」 모레 어디로? 「우루과이로요.」 우루과이 들를래? 「표를 우루과이 직통으로 끊었습니다.」 직통? 음 그래, 잘했다구. 내가 우루과이 가면 좋겠나, 자르딘으로 가면 좋겠나? 「자르딘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 들렀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르딘에서 왜 기다리는데? 「수련생들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수련생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이지, 이제 내가 언제나 거기에 가게 돼 있나? 가고 싶으면 가고... 이제는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려고 그래요. 때가 달라졌어요. 「우루과이 가시면 철이 좋습니다.」

사이토보고 배 두 척을 만들라고 했는데, 11월 말게 되면 그 두 척을 옮겨가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거 알아보았나?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 배를 가져오면 이번에 무거우면 한 1톤을 줄이라고 했고, 그게 6만8천 불까지 나가는데 5만 불대로 줄이라고 했다구. 그 정도는 돼야 팔 수 있어. 그래서 무게도 가벼워져서 상당히 속도가 빠르겠기 때문에 내가 테스트해 가지고 우루과이 바다, 바닥에 돌이 있고 이런 데를 전부 다 답사할 거라구.

앞으로 판타날에 와서 낚시하게 될 때 물이 없으면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 좋은 데 가자고 해서 우루과이에 가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무대로 해서 활동하게끔 활동무대를 확장하려고 그래. 알겠어? 「예.」 그렇게 알고 그런 준비를 하라구.

또 내가 이제 배 떠나기 전에 한번 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해? 「계시면 아주 영광이지요.」 박구배가 보기 싫어서 어떻게 가냐? 내가 보기 싫더라도 보기 싫지 않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뭐야? 행동할 수 있나 묻는데. 「예. 행동도 하겠습니다.」 준비보다 행동이 앞서야지. 준비하고 난 후에 행동하는 건데, 행동하겠느냐고 묻는데 준비하겠다고 하면 되냐?

자, 천지통일이예요! ('통일의 노래' 세 차례 합창)

### 일본은 제물의 자세로 나아가야

여기 일본 식구 일어서 봐요. \*지금부터 일본은 비상상태로 들어간 다구요. 선생님한테 진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토 자체가 제물이 되고, 국민이 제물이 되고, 가정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리카와, 알겠어? 「예.」 네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구. 「예.」 오쓰카! 「예.」 오쓰카(大塚)는 무덤이라구. 그러니까 부활해야 된다고, 부활! 「예!」 그리고 간부들도 모두 다 알겠어요? 돌아가면,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틀림없이 하라구요! 전국의 식구들을 동원해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들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지 못하면, 전부 다 포기하게 된다고요.

지금 선생님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다구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혼자서 가정을 편성해서 국가를 복귀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러한 선생님도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전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대혼란권에 빠져서 하나님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혼자 4억쌍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부모와 국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고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체 탕감시대에 있어서 물건과 백성과 가정 전체가 생축의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총생축헌납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를 수 없어요. 자기들 중심삼고 가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두 패가 되면 반드시 사탄권 내에 끌려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걸 포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가를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건과 백성과 나라 전체를 하나로써 하나의 주인 앞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부정하고, 자기 국가 소유를 부정하고, 아들딸을 부정하고, 부모를 부정하고, 왕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하늘의 소유라는 전권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전부 다 몽땅 하나님의 소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차 아담권 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해서 전체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

본의 모든 40년의 세계 경제권도 일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을 못 하게 되면 하나님이 소련을 시켜서라도 빼앗아 가고, 중국을 시켜서 빼앗아 가고,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코너에 몰아 가지고 전부 다 탕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대전쟁이 난다 그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나든가. 이자택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얘기하지 말라구요. 결산지으라구요. 이제는 자기들 앞에 현금하라는 얘기를 내가 안 해요. 도와 달라는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나라를 멀리하고, 한국 나라를 멀리하고, 미국 나라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독자적인 소유권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승리한 자리는 독자적인 주인이에요. 알겠어요? 전체·전반·전권·전능의 독자적인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독자적인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 시대로 들어갔다가 그걸 다시 분배받아야 여러분의 소유권이 벌어져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현금이란 말이 없어진다고요. 세금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세금시대!」 세금시대예요. 세금도 강제 세금이 아니에요. 30퍼센트, 50퍼센트... 100퍼센트 가깝게 바칠수록 하늘 앞에 가까워 가는 거예요. 보다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강제 세금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언제든지 선생님을 중심한 체제로 나가야

황선조! 「예.」 어디 있나? 왜 거기 앉아 있나? 황선조 똑똑히 알라구. 이거 전부 다 청평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선생님을 중심삼고 일체가 관계되어야 돼. 여기 협회에 있어서 청평의 모든 되어지는 것을

관여하면 안 돼. 대표적인 면에서 곽정환이가 초국가 초종교권 전체를 맡았기 때문에 곽정환이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가야 돼. 알겠나? 「예.」 거기에서 마음대로 돈을 잘라 쓰면 안 돼.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걸려 넘어가면 세계가 갈 길이 막혀요. 곽정환이도 알겠나? 「예.」

그리고 김효남 장로도 앞으로 대모님과 홍진군을 모시고 나가지만, 김장로의 의견을 적극 내세워서 안 돼. 절대로 선생님을 위주로 한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앞으로 거기다 궁전을 짓고 하는 모든 것의 레이아웃도 최후에는 선생님의 결재를 맡고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영계를 위주로 해 가지고는 안 돼.

세계의 궁전을 짓느냐, 청평의 궁전을 짓느냐? 모든 만국이 해방돼 가지고 세계적 궁전을 청평과 더불어 지어야 된다고. 영계가 세상의 궁전을 지을 수 없어. 세상의 궁전은 영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세상과 같은 상대에서 지어야 돼. 세상이 앞서야 된다고. 그러면 청평의 주류가 넘어가요.

대모님의 일이라든가 홍진군의 일이라든가 그것이 균형을 취해야 돼. 어디까지나 지상의 선생님을 앞장세워 가지고 수습해야 돼. 세계가 하나 안 돼 있어. 영계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고. 알겠나? 「예.」 그게 틀어지면 안 돼.

#### 하나님이 사랑하던 물건을 피땀을 흘리면서 사랑해야

다들 각성을 해서 최후의 결단들을 내려야 되겠어요. 몇백 집이 망하고 피난민이 되어도 돼요. 피난민이 되게 되면 남미에 들어와요. 밥 먹여 줄게요. 땅 파먹고 생활해요. 에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텐 복귀예요. 땀을 흘려 가지고... 너무나 쉬운 시대가 왔어요. 현대 농사를 짓듯이 과학적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 쉬워 가지고

전부 다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전부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던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던 물건을 피땀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좋은 영계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자신이 판타날에 가서 농촌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가야 돼요. 벌써 70대만 되면 농촌에 돌아가서 자라는 병아리 새끼, 새 새끼, 동물 새끼, 초목과 더불어 친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마음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를 무슨 성지라고 했지요? ‘원초근원 승리 성지’예요. 성지를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하나님 이상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든 것을 말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이 만든 것 이상 사랑해야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경고한다구요.

지금까지 공금을 잘라 써 가지고 자기들이 현금했다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되겠어요. 공금은 공금대로 장부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하전후 혼란돼 가지고 ‘이것이다.’ 해 가지고 체면을 세우려는 가식의 놀음을 하지 말라구요. 알겠어요? 자, 앉으라구요.

박상권 있어? 박상권! 「예.» 내일 가기 전에 유정옥이하고 만나자구. 「예.»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예.» 돈을 한꺼번에 다 쓸 것이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을, 3개월씩 미리 계획을 해요. 그래서 보고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안 되거든 매달 보고받고 할 수 있게끔, 공장 건설에 장애가 없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어. 알겠나? 「예.»

#### 선문대와 청평수련원에 대한 지시

그리고, 선문대학! 내가 요전에 본부 지으라고 했는데 돈 다 썼어? 돈 준 것 다 썼나 말이야. 「그동안에 일본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그

짓는 데 전에 온 것은 다 써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정환) 너희 본부 지으라고 준 것인데 밀린 데 누가 쓰라고 그랬어? 「본관 지으라고 주신 돈을 그거에 쓰고 있습니다. 딱 것이 밀려 있습니다. (이경준 총장)」 딱 거에 밀렸는지 어졌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건 자기들끼리 처리할 것이고. 본관 짓는 것은 지금 돈이 얼마 남았어? 「지금 짓고 있고요, 체크를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 떠나면 한국에 언제 올지 몰라요. 「총장회의 하고 학장회의에…」 어느 학장회의? 「지난번의 세계 여성학장회의 하고 총장회의도 아직…」 그게 몇 폰 되게? 그거 없으면 지불해 쓰라구. 그건 나중에 달라고 하고. 얼마 들어갔나? 「지난번에 1억9천만 원을 썼습니다. 세계 여성총장회의 때요.」 1억9천이면 얼마야? 20만 불이 안 되누만. 「학장회의에도 썼습니다.」 그게 합해서 얼마인가 말이야? 「3억 조금 안 됩니다.」 3억이면 얼마야? 빨리 지불해 주라구. 「유정옥회장께 지불해 주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불해 주라고 그러잖아? (웃음)

그 다음에 김석병! 「지금 협회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협회본부에서 촬영하는 것을 다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그래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구요. 그래서 디지털 시설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5만 불을 내가 사인해 줬다구요. 「지난번에 그것 주었습니다.」 이전 것 말고 새로. 그것을 하면 방송국에서 하던 것을 크레임만 가지면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 팔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우리 방송국이 있다구요. 그래서 미국과 경쟁하는 거예요. 애틀랜틱시티하고 자매결연해서 아시아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것은 우리 방송국에서 방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평에서 빵 만들지요? 빵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것 하지 말



고, 더 맛있게 해 가지고 청평 빵을 수택리에서 먹게 하고, 서울 동부 지역에서도 먹게 할 수 있잖아요?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백 퍼센트 진짜 빵입니다. (김효남 장로)」 진짜 빵인지 가짜 빵인지 나 모르겠어. (웃음) 진짜라도 맛있어야지 암만 진짜더라도 맛이 없으면 안 팔린다 그말이라구. 「이번에 빵 맛있었죠?」 「예.」 맛있으니까 청평으로부터 춘천까지 빵을 전부 팔기 위해서 트럭, 삼륜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회 식구들 앞에 새벽같이 오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 하나 배분할 수 있는 월급 주는 배달부를 두어서 백 개도 좋으니까 식구들이 먹든가 식구들이 팔든가 해서 불러 가지고 이익을 반분하라구. 알겠어?

이익이 나나? 「지금은 수련생들만 주고 있습니다.」 수령생이라도 얼마만큼 이익이 날 거 아니야? 이익이 아니면 본전 다 까먹어? 「그냥 사다가 수련생에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더라도 먹은 사람들이 그 값을 치르려면 만든 가치보다 비싼가 그말이야. 이익이 나나 그말이야. 손해가 나나, 이익이 나나? 「식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손해나나, 이익이 나나? 「손해 안 납니다.」 안 나니까, 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쪽 길을 따라 가지고 청평으로부터 가평 춘천 수택리 인근 지역,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면 아침 새벽같이 달려 가지고 교회에다 빵을 분배해 줘라 이거예요. 교회에 분배해 가지고 자기들이 먹든가 팔든가 하는 거예요. 값은 안 내면 안 돼요. 먹었으면 내야 되고, 팔았어도 내야지요.

그래 가지고 손해 안 나게 되면 운반하는 사람 월급을 주고, 그냥 그대로 푼돈이만 되어도 되고 남겨도 괜찮아. 그거 남겨서 나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아. 거기 마음대로 쓰라구.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이런 모든 판매 공공지역을 전부 다 배분해 주려고 해요.

##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

앞으로 그 다음에는... 박구배! 「예.」 요전에 설명 다 안 했지? 「예.」 앞으로 크릴새우 파우더가 생겨나는데 이걸 뭐 세계적이예요. 너무 달라는 데가 많은데, 통일교회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사탄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종교인들 앞에 나눠줄까요? 세 패 가운데 누구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말해 보라구요. 통일교회 패들? 「예.」 통일교회 패를 믿을 수 있어요?

나 통일교회패들 믿지 못해요.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신문사 만들고 전부 다 지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국장도 다른 사람 다 시키고 말이에요. 그거 해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훨씬데도 안 했어요. 3분의 2 이상이 보따리 싸서 나갔다고요. 잠 안 자고 나같이 했으면 다 자리 잡았을 거예요. 맥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앉아서 다 팔아먹었어요. 뽕이에요, 뽕.

50여 가지를 생산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 물건의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맥콜 공장(일화)에서 50여 가지를 생산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봉태! 「압니다.」 몇 가지야? 불러 봐. 「진생엿 나오고, 맥콜, 삼정톤...」 다 불러 봐, 몇 가지 되는지. 이놈의 자식들, 이제부터 다른 것을 먹는 사람들은 전부 천벌을 맞아라! (웃음) 천벌을 맞아 가지고 궁둥이까지, 피멍이 들어요. 피멍이 들어 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알게끔 말이에요.

요즘에 오 비(OB)맥주 사원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쫓겨난다고요. 퇴직이에요, 퇴직. 그 이상 해야 할 텐데, 이게 뭐예요? 멍청이들이예요, 전부 다. 사냥개는 썩 발자국을 따라서 썩을 잡을 줄 알아요. 이걸 사냥개는커녕 별개도 못 됐어요. 새 새끼도 못 된 패들이 됐어요. 사냥개 이상 값지게 공을 들어서 길러 놓았는데, 사냥을 해야 할 텐데

사냥할 줄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려야 할 때는 가릴 줄 알아야지, 쌍것들아! 이제 그걸 해야 되겠어.

이제는 신학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제부터 학교도, 뭐 서울대학? 똥! 침 뱉어 버린다구. 앞으로 졸업 하더라도 내가 안 써요. 어디를 나왔든지 졸업하게 되면, 외부의 대학 나온 사람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요. 유 티 에스(UTS)라든가 여기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거기 안 나온 사람은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축복받은 이놈의 자식들, 도적놈의 새끼 간나들, 내가 그놈의 새끼들이 출세할 수 있는 비료가 될 수 없어요. 알겠나? 박정해부터 유 티 에스에 보내! 대학 나오게 되면 신학대학 안 들어간 간나 자식은 명단을 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손 들라구요. 안 하면 전부 다 조치해야 돼요.곽정환이 알겠나? 「예.」 알겠나, 총장? 「예.」 총장 거꾸로 하면 장총이야. 팡팡 쏘는 거야!

그래, 우리 애들도 전부 다 신학대학원에 보내는 거라구요. 대학원 나왔더라도 신학대학 가라 이거예요. 하버드의 엠 비 에이(MBA) 나오고 그랬어도 신학대학 가라고 한 거예요. ‘잔소리 말아.’ 하고 말이에요. 다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현진이도 가고, 국진이도 지금 바쁘니까 통신을 통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원을 전부 다 유 티 에스라든가 우리 신학대학을 나와야만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든가, 이제 신학교를 가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아들딸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박구배! 아들이 넷인데 전부 졸업했나? 「둘 남았습니다.» 둘 다 졸업하면 신학대학원

보내는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가지를 쳐 버려! 일본 식 구도 마찬가지로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만 앞으로 몸 마음이 하나되어서, 마음을 중심 삼고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모든 활동 기관은 마음과 관계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흘러가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원리관이예요. 선생님의 강제가 아니고 원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종교적 지도자로서 말이에요, 세상 학식을 몰랐으면 역사관이니 뭣이니 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보면 선생님이 무식해요, 유식해요? 광정환이! 「유식이라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다 안 됩니다.」 여기 유식이 있잖아? (웃음) 역사관 같은 것도 전부 다 그거 그냥 가짜가 아니예요. 자기 멋대로 발표하면, 세상의 역사를 들먹이면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구요. 그걸 언제 공부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똑똑히 알라구요.

앞으로 신학대학원 못 나온 사람, 책임자도 48세 넘은 사람은 그냥 뒤돌 거예요.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앞으로 40세 이전 사람들이 졸업한 사람이 많으면 틀림없이 나이 많은 사람의 자리를 전부 인수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환고향해 가지고 자기 일족을 전도해라 이거예요. 혼동회 해라 이거예요. 이걸 정한다구요.

학교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일 가기 때문에 내일 회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구요.

#### 이제는 영계의 즉결처분 시대

황선조! 「예.」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없나? 「세계일보가 걱정입니다.」 세계일보 걱정은 뭐? 세계일보도 책임자 중심으로 해야지. 나 이제부터 한국에 대해 책임 안 지는 거야. 못 내겠으면 말고. 그거 내게

필요 없어요. 세계일보가 내게 뭐 필요해? 내가 하늘땅을 중심삼고 통일권을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뭐가 필요해? 그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들이 팔아먹으려면 선생님이 투자한 원가를 갖다 물어 놓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한 원가가 얼마인가, 아이 엠 에프(IMF) 때 통일산업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가, 각 회사별로 선생님이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기록해서 나한테 가져오라구. 알겠어? 「예.」 한국이나 어디나, 전세계 어디나. 박구배도 알겠어? 전부 다 총괄적인 그걸 해 가지고 보고하라구.

그래, 지금 얼마나 없어? 「금년에 정상적으로 와야 될 약속된 것이... (황선조)」 와야 되는 것은 나 모르겠어. 「세 개가 나 가지고 아버지님, 최소한 다섯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나는 모르겠어. 어제 그래서 일본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오늘 내가 백만 불 현금 들어온 것을 자기 줄게. 알겠어? 백만 불 빌려 가겠어, 빚을 얻어 가겠어? 얻는 것도 빌리는 거야. 빌려 가겠어, 그냥 가져가겠어? 「일본에서 들어오면...」 빌려 가느냐 가져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구.

요전에 브이티 뭐? 「멀티 큐...」 멀티 큐 한 대 값밖에 지불 못 했다면 돈이 남았겠네? 「예.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해서 빌려 쓰라구. 우선 2백만 불이 되는구만. 「2백만 불 조금 안 됩니다.」 아 글썄, 지금 바쁜데 똥을 못 싸면 똥부터 싸야 될 게 아니야? 그 후에 재간이 있거든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도 자기가 책임 있잖아? 오쓰카도 명령할 수 있잖아? 발길로 차고, 간나들 말이야, 구 보키 처든 누구든 ‘이놈의 자식들, 하늘을 망치려고 지금 이려고 있어?’ 이렇게 몽둥이로 후려갈기기도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 알겠지? 「예.」

그리고 혜진이 축복해 줄 사진 나한테 갖다 줘. 「내일 오전에... 지

금 청평에 와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정해 줄 거야. 전부 다 부모님 생일이 오기 전에 짝을 맺어 줘야 돼요. 그래야 축복가정들 전부 협조할 수 있어, 젊은 놈들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지상에 와서 후려갈길 거라구요. 천사들 대해서 ‘저놈의 간나 자식, 지상에 손해나겠다.’ 하고 지적하면 재까닥 재까닥 데려갈지 몰라요. 내가 그런 지시를 할지 몰라요. 지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시할지 몰라요. 그런 무서운 때가 온다구요.

여러분 조상들이 사탄 대신 약 주고 병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 조상들의 길을 막으니 데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워 버려야 연결되지 뉘뉘면 막혀 버려요. 물이 다른 데로 흘러 간다구요. 전부 다 쏟아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영계가 가만 안 뉘요.

이제는 탕감이라는 역사성을 중심삼고 기다리지 않아요. 즉결처분 시대, 즉결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요? 아담 해와가 타락한 다음에 보관해 놓았나요? 즉결처분이예요. 그런 면에서 양심적이나 비양심적이나는 자기가 알아요. 몸 마음이 하나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알지요? 「예.» 모를 수 없어요.

### 몸 마음을 하나 만드는 길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 첫째 문제가 몸 마음이 하나되는 거예요. 몸 마음이 하나돼 가지고 표준 선을 자기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것이 있어야만 선악의 길을 가려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길을 못 가요. 딱 알아요. 정신 통일하면 벌써 알아요. 이것이 이중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안다구요. 여기는 맞지만 저기는 틀어지면 용서가 없어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변천하는 시대에 있어 틀림없이 그것을 캐치해요. 선악의 분별을 하는 거라구요. 그게 틀러지면 모든 것이 깨져 나가요. 그러니 몸 마음이 하나되라 이거예요. 알겠지요?

요전에도 얘기했지요? 타락한 양심 기준도 70퍼센트 80퍼센트 되는 데, 타락할 때의 양심 기준의 힘보다도, 양심 기준이 몸을 대해 지배하는 힘보다도 사탄 사랑의 힘이 강했다 이거예요. 사탄 사랑에 의해서 지금도 죽고 좌우되고 있잖아요? 사탄 사랑이 강했기 때문에 강한 거기에 관계를 맺게 될 때 양심적 가치는 거기에 비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슬픔의 사랑이요 상충의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몸 마음이 싸우는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이라구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제일 원수가 잠이예요. 그리고 먹는 거하고, 남녀문제라구요. 이총장은 남녀문제는 다 지나갔지? 지금도 남녀문제가 문제 돼? (웃음) 지금 몇인가? 이제 예순 살 되어 오지? 어머니보다 한 살 위인가, 두 살 위인가? 「많이 위입니다.» 죽는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 「한 살 위가 아니고요, 다섯 살 위입니다. (이경준 총장)」 5년 위야? 「예.»

#### 외적인 사람들을 연결하여 한국 교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자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아이 엠 에프(IMF) 중심삼아 가지고 이게 팔려 넘어갈 때는 여러분도 전부 다 걸려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의도 땅이 팔려 넘어갈 때는 선생님이 혼자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이 짊어지는 거라구요. 이것을 축복받은, 해방적인 왕자권을 가진 가정 패들이 빛을 내든가 땅 구덩이를 파서라도 물어야 돼요. 알겠나, 황선조? 「예.» 내가 떠나자마자 눈감고 후려갈겨. 공짜 바라지 말라구. 피땀 흘려 쌓아 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공의 상대권을 중심삼고 이 모

든 것을 처리해야 돼. 빌려 가지고, 신세져 가지고는 안 돼.

곽정환이 협조해, 미국의 상부 전부 다. 공문 내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모든 외적인 사람들도 말이에요, 선생님 팔순 때인데 십 분의 일, 백 분의 일 예를 중심삼고 돕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관계되었던 사람들을 꺾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라도, 백 분의 일, 천 분의 일, 만 분의 일이라도 내게 되면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복받은 그 복을 따라 가지고 강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계 각국도 전체가 동원해 가지고 신세지운 곳을 찾아다녀 가지고 얼마씩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일을 완성시켜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국가 메시아들 손 들라구요. 국가 메시아는 뭘 하는 짜박지들이예요? 그 나라의 하늘 편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총독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기반을 닦으라는 거예요. 내리라구요. 옛날에는 유엔군이 16개국을 중심삼고 한국을 도왔는데 통일교회는 16개국이 아니예요. 160개국을 중심삼고 한국의 생사지권을 전부 뿌리뽑아야 된다고요. 160개국 이상 있지요?

황선조! 곽정환보다 저서는 안 되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이야 누구나 최선을 다하지. 곽정환이한테 저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야지. 왜 선생님의 5촌 조카사위가 됐어? 5촌 조카인가? 내가 당숙이 되지? 내가 저 녀석을 몰랐어, 색시가 나하고 친척이 되는지. 하늘이 다 빼서 그렇게 된 거라구. 이때 썩먹으라고 뺏던 모양이지?

전라도 패들 손 들어요. 전라도 패들 손 들라구요. 너무 많구나! 아이구, 왜 이래? 들라구, 좀 세어 보게. 세 봐라. 곽정환, 세어 보라구. 얼마야? 둘이 합하니까 숫자가 맞아야지. 「전부 44명입니다.」 3분의 1은 되누만. 전라도 패들이야, 전부 다. 나는 어디 패인가? (웃음) 나도 전라도 패인데, 전라도 패와 제일 가까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 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소화해야 됩니다. 그걸 소화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서 소화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교회를 중심삼고 투서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기도해 가지고 잡아서 오차로 찢어 버려야 돼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청평에 주어서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보고가 와요. ‘스파이가 누구냐?’ 해서 찾아오라고 하면 와 가지고 대변에 골라내요. 알겠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앞으로 선생님의 집에 오려면 120명의 남자 여자를 중심삼고, 130명을 중심삼고 그 사이를 거칠 때 이번에 영진이 가정과 같이 거짓말해 가지고는 벼락을 맞아요. 후려갈겨 버려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 나라에 가 가지고는 천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영계를 꽉 막고 일했어요. 몸뚱이 가지고 사탄세계를 지배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벌써 영계의 협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도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보니 알고 말씀했던가, 모르고 말씀했던가? 「알고 하셨습니다.» 찾아 보라고요, 모르고 말씀한 것이 어디 있나. 그 이상 뭘 어떻게 축복을 해줘요? 다 봤는데, 다 아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했어요. 24년 동안 안 했어요. 돈이 없다고 돈 달라는 기도 꿈에도 안 해요. 사람이 없다고 꿈에도 기도 안 해요.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사람들을 요리하고 선생님이 뿌려놓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신세를 받고 어디 가든지 다 울타리 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40년 전에 학자가 뭐가 필요하고, 세계적인 학자들,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아 가지고 뭘 해요? 교만이 천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수꾸대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큰소리하는 패들인데 말이에요. 세계를 위해서 다 그 놀음을 한 거예요. 하등 관계가 없는데 세계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신세를 지고 갚아야 되겠으니, 레버런 문이 가는 것이 정도요, 인류의 평화요, 통일의 가치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숨어 있던 녀석들이 대가리를 들고 나오는 거라구요. 때가 오니까 햇빛을 보고 잠자던 새가 가지에 나앉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그 역량이 커 가지고 오대양이 갈라졌던 것이 한 물, 태평양에서 만날 수 있게끔 되어 가지고 축복 판을 세계화로 만들 수 있는 거라구요.

하늘 왕궁의 고귀한 가정이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저 누군가? 훈독대학 하는 누구야? 「이동한입니다.」 이동한이 어디 갔나? 「대전외 이규대 교구장 승화식에 간 것 같습니다.」 이규대는 뭐 쓰러졌다면? 이규대는 협회장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니 본부에 데려오나? 「아버님, 대전에서 다섯 시에 승화식을 합니다. (황선조)」 「승화식을 하는데 명칭만 협회장으로 하고 본부까지는 안 옵니다. (곽정환)」 명칭만? 본부까지 안 와? 그 양반이 수고한 사람이라구, 농도원에서부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다 걸렸어요. 농도원 김원장도 그렇고, 내가 중요시하는 조선회사의 김광인도 죽느니 사느니 헤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리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구요. 아들딸을 위해서는 기도도 한 번 안 했다구요.

김윤상은 죽을 사람이 살아와서... 여기 왔나, 김윤상? 안 왔지? 휴양을 할 거라구. 이거 뭐야? 먹을 거 있나? 「저희들은 다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어? 열두 시가 지났기 때문에, 새날이 되었기 때문에 경계선을 중심으로 나는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새로운 각오 밑에 제4차 아담권 시대에 왔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하늘나라 가정으로 어디에 내세우더라도, 천국 어디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지옥 어디를 가더라도 하늘나라 왕궁의 고귀한 가정이라고 존경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걸 표준하고 바쁘게 나가야 되겠어요. 누구 듣겠으면 듣고 말겠으면 말고, 자기가 준비할 것이 바빠요. 나는 세상살이에 관여 안 했어요. 동네에서 사람이 죽는다 산다 하더라도, 싸움이 벌어져도 길을 가다가도 그거 구경도 안 했어요. 갈 길이 바빠요.

자기들이 기도할 체면이 있으면 기도해라 이거예요. 뭐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다구? 참부모의 승리권을 뭐? 「축복으로 이어받은…」 완전히 이어받았어요? 문제가 커요. 얼마만큼 이어받았어요? 자기 소유적인 권한이 어느 정도예요? 물어 봤어요? ‘참부모의 승리권을 축복으로 이어받은…」 다 주었다는 거예요.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나도 그거 부럽다구요.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참부모가 얼마나 어려워요? 선두에 서는 화살촉이에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인으로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인과 마찬가지로요.

이제 또 남미 바다를 개척해야

이제는 내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술도 좀 먹고… (웃음) 내가 술 먹는다고 다 떨어지겠나? 「동참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곽정환)」 (웃음) 임자는 동참 해방권에 안 서지 않았어? 동참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것이지. 「혼자 잡수시면 별 재미가 없잖습니까?」 아니야, 혼자도 잘 먹어. (웃음) 술을 먹든가 뭘 하든가, 놀러 다니더라도 말이에요, 나쁜 일은 안 해요. 탈선은 안 해요.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를 보게 된다면 인류의 3분의 2까지 피를 흘리게 하더라도 죄가 아니에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를 안 보려고 해요. 자기 가정이 손해나고 통일교회 사람을 희생시키더라

도 사탄세계의 피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친척, 동네 전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홀로 발길로 차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오던 선생님이에요. 이제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미련이 없어요.

임자네들 때문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이구, 소름이 끼쳐요. 끔찍해요. 그거 계속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 낚시질도 하고 싶지 않고, 사냥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현진이가 ‘아버지, 이제는 때가 다 되어서 아담시대로 돌아가고 다 그렇게 되었으니, 집에 오고 우리들하고 같이 있어야 할 텐데 아들 딸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소?’ 그래서 ‘그러마.’ 했다가요. 이번에 가게 되면 1학기 시험치고 나면 한 달 방학한다나? 그래서 ‘뭘 할 거야?’ 하니까 ‘하와이에 갑시다. 알래스카에 갑시다.’ 그래요. 큰놈들은 말이에요, ‘곰 사냥하고 사슴 사냥하러 알래스카에 갑시다.’ 그런다가요. 내가 판타날에 가자니까 구정물이라 싫다고 그래요.

구정물 세계의 고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맑은 물을 중심삼고 우루과이에 가서 배 타고 개척해야겠다 싶어서 알래스카에 가는 대신 남미에 데려가겠다고 생각하고 배를 만들어서 새로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1톤 정도 줄이니까 상당히 빠를 거라구요. 이래 가지고 우루과이서부터 내가 답사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한 달쯤 걸려서 고기가 있을 성싶은 데는 하룻밤 배에서 잘 수도 있어요. 먹고 자고 그러면서 답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낚시 얘기하면 말할 수 있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낚시는 선생님이 유명하잖아요? 일생동안 그 놀음을 했으니 모르면 안 되겠기 때문에, 간판을 거꾸로 붙일까봐 걱정했어요. 거기까지 답사해 놓아야 부러먹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을 몰아내고 기합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쁘겠어요, 편안하겠어요? 바쁘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죽기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성·주체성·관계성·통일성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잘 해야지요. 지금까지 탕감되었으니 어제보다 더 잘하는 것이 노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구요. 못 하는 거라구요. 이제부터는 그러는 걸 선생님이 좋아한다구요. 다 해놓았기 때문에. 더 보태야 그거예요. 보태나 안 보태나 마찬가지로 그말이에요. 복귀, 탕감, 재창조가 뭐 필요해요? 안 그래요? 다 넘어섰는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있으면 놀아야 되고, 낮잠을 한 40일 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구요. 40일 잔다면 따라온 청평에 온 사람들도 20일은 잘 거라구요. (웃음) 내가 자면 잘 줄 알고 있어요. 더 안 자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없는 데 홀로 가서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전부 소문나지 않아요? ‘문충재는 놀면서 사람들을 부러먹는 사람이다.’ 하고 말이에요. 지금 선두에서 자기가 부림을 당하니까 부러먹는다는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부러먹으면서 놀고 있으니 ‘부러먹는 착취 왕이다.’ 하고 소문 날까봐 아무도 모르게 살지 몰라요. 정말이라구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아요? 저기 박정희야, 박정해야? 자꾸 싹 올려? 얼굴을 보면 여자인데 박정희 대통령 같다구. 고달프지, 사람 다루는 게? 그거 알아요? 어떤 때는 싫증날 때가 많잖아? 할 수 없이 갈 때가 많아요. 싫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딱 거지예요. 부잣집 문전에 가 가지고 잔칫날 상에 놓을 떡 하나 얻어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딱 그 격이라구요.

김진문! 왔어, 없어? 「예.» 네 상대 되는 사람이 누구라구? 「박귀옥입니다.» 아니 다른 상대? 「이상진하고 사길자 사모님하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명령해 먹겠나? 입이 가만 있어도 남자 하게 되면 이름이 나가고, 여자다 하게 되면 ‘사길자’ 하고 가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돼 있구만. 사길자는 말이야, 열 번 부탁하면 한 번만 해주라구. 알겠

어? 「제가 잘 모셔야지요.」 모시다가는 사고난다, 이 쌍거야! 왕초 노릇을 해 가지고, 유 협회장 부인이라 해도 원리 말씀을 나한테 배우라고 그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길자가 아는 만큼 선생님 말씀을 알고 있나 말이야? 「제가요?」 응. 「아는 것 없습니다.」 글썄, 사길자하고 얘기하게 되면 사길자한테 배워야 될 텐데? 「배울 것도 있고 때로는…」 배우다 보면 타고 간다 그말이야. ‘내 젓 먹어 봐라.’ 그래. 그러면 어떡할 테야? (웃음) 「연세가 많아서 젓이 안 나올 겁니다.」 (웃음)

젓이 안 나오는 것은 남편이 빠는 거야, 그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빠는 것이 젓이야. 박정해는 남편이 빨아 줘, 안 빨아 줘? 물어보는 거야, 나는 모르겠다구. 그래, 빨아 줘, 안 빨아 줘? 이 녀석아, 박정해 젓 빠나, 안 빠나? 「빨아 줍니다.」 젓이 나? 그게 더 위험해, 이 쌍것들. 젓이 나면 그거 뭘 하겠노? 젓 나면 큰일이지. 젓 나면 젓맛에 사랑을 못 해. 왜 암전히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부끄럽게 그러노? 전부 60이 다 돼 가지고 할머니가 됐는데, 내놓고 얘기하더라도 박자 맞춰 춤추고 하하하 해야 될 텐데, 그래 가지고 남자세계의 등을 타고 날 수 없어.

요즘에 현실이 간증을 못 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구. ‘그게 뭐일까?’ 하고. 그거 한번 물어 보면 좋겠는데, 물어 보고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보면 못돼먹었어, 가만 보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비밀을 다 찾아 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까지도.

#### 일화천마 축구단에 대하여

박관남! 박관남 없나? 「예.」 어디 있어? 소리는 나는데 얼굴이 안 보여! 천마라는 것이 지마(地馬)야, 천마(天馬)야? (웃음) 「천마입니다.」 천마인데 어떻게 됐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어디 가든지 백전

백승해라 그 말이야. 어제 대학 어디? 아주대? 아주 질 줄 알았더니 아주 잘 이기던데! 4대 0으로 이기지 않았어? 「예.» 오늘은 안 했나? 오늘은 3시에 어디하고 한다고 그랬나? 「내일 모레 합니다.» 내일 모레 어디하고? 「대우하고 합니다.» 대우는 대학교 아니잖아? 「이번에는 대학 우승팀하고 프로하고 다 들어갑니다. 왕 중 왕입니다.» 그래, 왕 중 왕인데 프로가 대학을 전부 이겼나? 전부 몇 팀이야? 「22팀입니다.» 스물 두 팀이 전부 대학을 이겼어? 「예.» 「삼성은 떨어지고…」 삼성이 졌으면 망신이라도 개망신이구만. 「너무 알보고 2진만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몇 등이나 될 것 같아? 「해보야 되겠습니다.» 해보야 되겠다니, 틀림없이 이긴다고 생각해도 될지 말지 한데 해보야 되겠다고 하면 꼴레미 되지.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해도 일등 하겠다고 정해 놓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 정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면 일등이 될 게 뭐야? 「예,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무슨 조건을 걸고 계약하지, 조건도 없이 계약해? 죽기 살기로 계약하나? 그러니 목을 걸고 전부 다리를 꺾을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이번에는 몇 등 했나, 프로 경기에서? 이미 다 결정되지 않았어, 프로? 「정규리그는 끝났습니다.» 글썄, 그거 지지 않았어? 일화는 몇 등이야? 「꼴찌를 했습니다.» (웃음) 꼴찌면 20등을 했다 말이야? 「초창기에는 전력이 좋았는데요, 중간에 선수들이 많이 병이 나고 그래 가지고 변명입니다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어파치 성적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 꼴등을 해서 좋은 선수를 뽑으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꼴등할 거 아니야? 꼴등 좋아하면 말이야.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격수가 없고, 또 외국에서 공격수를 데려오지 않다 보니까…」 문전에서 골 넣는 것 보면 언제 봐도 못하더구만. 그거 무서운 모양이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문전에 찬다는 것이 왜 높이 차고 옆으로 차? 그거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려면 한 곳

중심삼고 천 개고 2천 개고, 만 개를 쏘는 그 훈련을 시키라는 거야, 밤새껏. 발 훈련 시켜야 돼.

이건 문전에 차게 되면 전부 다 넘기 일쑤예요. 이렇게 쏠 수 없는 거거든. 문대를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골대를 바라보니까 문제예요. 골대를 바라보지 않고 밀창을 바라봐야 돼. 밀창을 바라보고 쏘면 안 넘어간다는 거야. 왜? 가까운 데 차니까. 볼을 차게 된다면 굴러가기 쉽지 않아요. 열 번 차게 된다면 뜨게 마련이지. 그렇기 때문에 발을 던고 차야 돼. 끝으로 차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왼발잡이 바른발잡이, 문전에서는 왼발잡이가 바른발잡이 노릇을 해야 왼발잡이인 줄 알기 때문에 바른발로 차면 골로 들어간다는 거야. 반대예요. 바른발잡이는 왼발로 차서 넣을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거야. 소문은 바른발잡이로 나고. 그러면 문전에서 바른발잡이인 줄 알기 때문에 바른발잡이로 방어하려는데 왼발로 차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고 기분 나쁠 때가 많다고요.

아이 엠 에프(IMF)니까 팔아먹으라고 소문났던데 요즘에는 팔려고 안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요. 지금 문제없습니다.」 글썸, 열심히 하는데 쾌기가 죽었더라 그말이야. 강릉으로 가는 거야? 「아닙니다. 지난 번 아버님 말씀대로 성남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교섭을 해? 「예. 지난번 아버님 지시대로 교섭을 했는데, 어제까지 80퍼센트 결정했습니다.」 그래? 그거 백퍼센트 결정하지. 「예, 2~3일 있으면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 음.

그게 강원도로 가게 되면 통일교회 레버런 문 얼굴이 찌그러져요. 거기 가겠다고 나한테 보고하면서 이 녀석 둘이 합동해서 와 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 해요. 강릉까지 내려가? 「강릉 시민들이 저희들을 원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강릉이 어디야? 동해 바다로 가는 거야, 동해 바다. 「강릉에서는 상전 중의 상전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누구를? 「일화축구단을요.」



상전 되는 것을 끔찍이 좋아하누만. 그게 무슨 상전이야? 서울 같은 중요도시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밀려가는 게 상전이야? 천안은 어떻게 할 거야? 천안은 포기하고, 선문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저희들이 천안에서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아무래도 나이트 시설이 없으니까요.» 나이트 시설은 새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돈 한 20억이야 선생님은 있으나 없으나 한 거야. 돈 들여 가지고 천안으로 하면 좋겠어, 이쪽으로 오면 좋겠어? 「제 욕심으로는 성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성남이야, 성남이야? 「성남입니다.» 성남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 (웃음) 똑똑히 말해야지. 성남! 「예, 성남!» 성남이 뭐야? 전라도 사람들은 입술이 힘이 없어 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하라구.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하라구.

#### 일족의 누구라도 축복시켜라

그 다음에 또 내가 관여해 가지고 욕이라도 할 때 누구 없나? 여기 짹짹 씹어! 그래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친척이 있으면 말이에요, 처녀 총각을 강제로 잡아다가 축복시키더라도 다 좋아할 거라구요. 이제는 일족을 남겨 놓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잘 알지요? 「예.» 자기 친족은 전부 다 하라구요. 애급 떠나던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놓고 연결 안 한 것들은 전부 별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 통고해야 돼요. 씹어주세요. 23일서부터 중생식, 그 다음에는 뭐? 부활식, 영생식이예요. 축복받는 것이 영생식이라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하라는 거예요. 알겠지요? 전부 다 캔디, 성주하고 36배 분할해서 하라고 새로이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나눠 먹이는 거예요.

그래, 길을 막고, 고속도로를 막고 먹이라구요. 앞으로 싸움을 해서라도 포켓에 집어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문앞에 가나 어디 가

든지 전부 다 물어 보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길을 지켜 가지고, 매일 한 쌍씩 나가 지켜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안 마셨으면 누구든지 잡아서 싸움을 해서라도 마시게 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사탄 혈통 근절이에요.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그런 존재가 없게끔 전부 다 싹쓸이해요. 무슨 쓸이? 「싹쓸이!」 한번 더 해봐요! 「싹쓸이!」 싹쓸이,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싹쓸이하고 날아가자구요, 전부 다. (경배) \*

## 남북통일은 통반격파로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또 싸움판이 벌어진다구요. 그래서 브리지포트 대학과 선문대학을 만들어 학계를 연결하고, 초국가, 초종교, 초언론계를 연결시켜서 현재 혼독 세미나를 통해서 최고 정상급의 유엔과 연결할 수 있는 인맥을 묶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세계 구도를 위한 아벨 유엔을 만들 것을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 이걸 재현해야 돼요. 미국 전국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유엔을 만드는 거예요. 가인 유엔 앞에 아벨 유엔을 만들 거예요. 미국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국가연합,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뜻 있는 사람들을 빨리 아벨 유엔을 만드는 데... 미국도 이걸 반대할 수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세계적인 구도의 목적을 뜻에 대해서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터리 이놈의 자식들! 미국에 와 살면서 곰벵이가 됐어요.

---

1999년 11월 19일(金),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아침 혼독회 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몸뚱이만 크지 쓸모가 없어요. 알겠어요? 「예.」

현진이도 그래. 선생님이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알겠어? 모든 면의 지도자야. 사상·정치·경제·문화계의 지도자야. 통일교회의 책임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읽으라구.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 641쪽 훈독함)

『...보라구요. 북한이 해방 이후 1948년 9월에 정부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에 남침을 했어요.』

만반의 세계 인맥을 결속하기 위해서 지금 훈독 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각 나라에서 이걸 들고 나와서 훈독하는 기준만 되면 세계 전체가 반대하더라도 이미 통일교회가 꺾박받는 가운데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미 상대할 수 있는 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인맥을 결속함으로 말미암아 유엔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체성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놀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 (훈독)

『...이번에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국민연합운동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정부가 이번 대회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헤게모니(hegemony; 주도권)를 빼앗겼다고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 중류급 이상의 나라들을 포섭할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반대하면 미국은 고립되는 거예요. 새로운 유엔을 창립하는 일이 있더라도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다 국가를 흡수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자, 읽으라구. (훈독)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흘러간다

『...우리는 승공연합 조직도 있고, 통일교회 조직도 있고, 교수 학생들을 중심삼은 교학통련(敎學統聯)이라는 조직도 있고, 국민연합이

라는 조직도 있는데, 이 모든 조직의 목적은 전부 다 동반 점령을 위한 것입니다.』

하프(HARP; 전국중고등학교원리연구회)를 내가 2년 전에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서둘러서 만든 거예요. 막대한 자본을 쓰면서 중고등학교 교장 5천 명 이상을 1년 동안 미국에 데려다 교육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니 요즘 한국에서 순결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기반을 닦은 거예요. 때라는 것은 언제나 기다리지 않아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 안 한 사람은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읽으라구.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념의 철저화, 둘째로 조직 강화, 셋째로 공동활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 이상으로 강한 조직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대결해야 합니다. (중략) 통일체제를 형성하는 데는 이 한국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한국을 중심한 국민연합의 형태를 띤 것이 세계의 동서남북통일연합입니다. 한국이 곧 세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세계가 따라오면 모든 것이 통일적 세계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전국민이 사상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통일국민연합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꿈도 안 꾸고 있었다구요. 또 그런 기반도 안 되어 있고. 기독교가 협력했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기독교가 선생님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놓쳐 버린 거예요. 그때를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후려갈기라는 거예요. 이제 체제를 전부 혁신하려고 그래요.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읽으라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국을 중심삼고 전국민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최고의 교육자들을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그 교육자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을

빨리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학교를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엔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를 다 연결해야 됩니다. 또 교육기관장 및 교사를 빨리 연결해서 세워야 됩니다.』

학생들로 몇백만을 만들어 놓았어야 된다고요. 박중현, 그런 것을 알아? 작년에 한 명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유 티 에스(UTS;통일신학대학원)를 대결속시켜야 된다고요. 책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브리지포트 대학과 연합해 버리려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직접 손대서 후려 밀어 제치려고 한다고요. 자, 읽으라구.

장자 나라를 중심삼고 부모 나라를 일체화하는 운동을 해야

『결국 학생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학생을 중심으로 활동을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학생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통한 활동을 전개해서 상하 좌우로 연결시키는 놀음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과 학생을 통해서 일반가정 사회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로부터 국민학교를 연결하여 학생들을 통해서 구역까지, 사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횡적 기반 위에 종적인 국가까지 전부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 데려다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그때 다 말한 거라고요. 준비하고 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갔다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 고개를 넘어야 돼요. 국가적 기준에서 못 했으니 세계적 기준에서 넘어야 되고, 세계적 기준에서 못 했으니 유엔 기준에서 넘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 나라 일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 책임자는 미국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까지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으로 된 혼성팀을 중심삼고 전통을 연결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알겠어요? 에이 엘 시(ALC;미국지도자회의), 엔 시 시 에스 에이(NCCSA;미국교회협의회사회운동) 등 모든 조직의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허재비 노릇을 했어요. 돈만 쓰면서 바람을 타고 해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양(양창식)이 고려대학에서 싸우던 전통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까 문충재가 가서 문제됐다고 했는데, 박보희가 고려대학에 가서 계란 세례를 받았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만이 아니에요. 다 싸워 나온 사실들이라고요. 얼마나 심각해요? 선생님 혼자 책임지고 국가 전체, 세계 전체 앞에 선두에 서서 싸워 나온 거예요.

이것을 어머니도 잘 모르고, 다 몰라요. 이 패들,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너희들도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 며느리들도. 알겠어? 아버님이 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율타리에서 자고 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돼. 저런 방대한 내용의 말씀을 선언해서 실천하는데, 다 안 하니까 혼자 그림자와 같이 낮을 밤 삼아서, 밤을 낮 삼아 가지고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까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것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재현시켜 가지고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중심삼고 부모 나라 일체화 운동을 이번에 다 끝냈다고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제 인사 조치해서 갈 거예요. 미국의 50개 주 52개 교구장을 중심삼고 추첨해서 한국까지 초국가적으로 인사 조치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한 30명 내지 40명을 대이동시켜서 민족 동화운동을 서둘러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미국의 현재 고질 된 사상 기반을 확대시킬 저변이 없어

지는 거예요. 저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자, 읽으라구.

#### 미래의 소망의 기지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삼고 민간 조직을 연결시켰으면, 공무원 조직을 동원시켜야 합니다. 그 공무원 조직을 통한 국가기관을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조직의 일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사회 유지라든가 그런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동문회, 또는 연합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지방에 있어서 하나의 핵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방을 중심삼고 완전히 통일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학부형들,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 다음엔 공무원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의 나라와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체제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필요 없지만, 한국은 남북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부체제를 준비해야 돼요. (중략)

그러면 지방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승공연합 조직이 있으니까 승공연합을 중심삼고... 교회 조직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교학통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학통련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배치해 가지고 갖다 붙이면 사무실 하나 가지고 전부 쓰는 거예요. 사무실 하나로 셋이 현재 분담해 가지고 자기 책임을 하지만 서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군(郡)에까지 텔레비전을 사 주고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 이놈의 자식들! 이 똥개 새끼 책임자들! 선생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아요? 전통을 세우려는데 이것을 전부 흘려 버린 거예요. 그러한 부패한 원흉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 자체를 그냥 뒤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폭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요.

세계 선교 무대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에 대이동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시켜야 될 텐데, 없으니까 브리지포트 대학과 선문대학을 만들어서 후보요원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가도 지금 우리 체제로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빨리 생각해야 된다고요.

유 티 에스(UTS)도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브리지포트 대학하고 하나 만든다고 해서 뭐 어떻고 어떻고 하고 있단가요.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갈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먹고살면 망하는 거예요. 먹고사는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걸 격파해서 미래상의 소망의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은 원흉이에요, 원흉. 타락한 천사장의 계대를 이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공연합에서도 국민연합 부회장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교회를 중심삼아 가지고 그 지방의 유지가 부회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구요, 내년부터. 안 하면 우리 가정이 선두에 서겠다 이거예요. 자, 읽어요.

『그래 가지고 셋이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이 하나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3점을 맞추는 거예요. 입도 3점을 맞추는 거예요. 귀도 그렇게 되어 있단가요, 전부가. 본래 사람이 될 잡으려면 3점을 맞춰야지요? 전부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을 중심삼고 사위기대권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원리관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전부 하나, 둘, 셋, 넷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를 중심삼고 삼위기대가 돼 있다구요. 자, 읽어. (훈독)

1980, 90년대에 정부가 밀어 줬다면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

『... 이제 우리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모든 국민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품을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몸부림쳐 허덕이며 움직이는 통일의 무리들의 발걸음을 보여 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략) 여당 야당, 그까짓 여당 야당은 관심도 갖지 말라구요. 남북을 통일하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지, 여야당 싸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해먹겠으면 해먹고 말겠으면 말라 이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모든 정세로 볼 때에 시운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뭐 아무리 했댔자 한국을 협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결점으로 가야 할 것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입니다. 여기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가담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승공연합을 중심삼고 반공연맹을 흡수시켜야 된다구요. 아벨 앞에 흡수시켜야 돼요. 완전히 체제가 된 거예요. 국민 전체, 중요 인맥, 선거 위원장들이 그때 국민연합에 다 가입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박았어, 이놈의 자식이! 그 자식이 삼청동에 있을 때 내가 목을 끌어내서 대통령을 시켰거든. 노태우도 그래요. 김영삼 때도 통반격파를 해서 싹 쓸이해 버릴 수 있었는데, 이 통일교회 멍충이들! 세상을 몰라서 놓쳐 버린 거라구요. 돈 수백억 원을 날려 버렸다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다시 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27년 동안 해 나왔는데, 이것들이 썩었어요. 미국 똥개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거들 게 뭐예요? 기독교 정신을 재부식(再扶植)시키기 위한 목적,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훈독)

『...남북통일운동은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공연합활동의 범위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 관청도 우리의 남북통일운동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반공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무부 장관을 중심삼은 국가 기관에서 받은 표창장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조금만 밀어 줬으면 한꺼번에 획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가 차 다구요. 전두환 가정이 파탄되더라도 자기 휘하에 남은 돈 한푼이라도, 뼈다귀까지 끊어서 팔아서라도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뭐 어떻고 어떻고... 부산 지역에서 자기가 또다시 정치에 나서겠다고? 미친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라는 거예요. 망살이 뻗쳐서 나라까지 망친 거예요.

기독교가 망했어요. 김영삼이 중심삼고 망살의 결과를 가져온, 나라를 팔아먹은 패들, 입 다물라고 들이 쳐겨야 된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 책임자들을,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모아서 한꺼번에 쫓아야 할 때가 왔다구요. 자, 읽어. (훈독)

세계가 살 수 있는 기원이 남미에서 싹트고 있다

『...교육해 놓고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교육은 간접적인 준비입니다. 간접적 준비는 직접적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준비를 해놓으면 직접적 준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선생님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간접적인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30만 명을 교육시키려면 한 달에 3만 명밖에 더 됩니까?』

83개 도시를 중심삼고 15만 교육, 아마 10만이 넘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과 졸업생들과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 교육에 참가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남미 전체에 청소년들이 핵심 주동이 되어 국가 상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일이 연결된다구요.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입장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남미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중심삼고 미국에 투입하면 미국 자체가 전복될 수 있는 기원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원이 남미에서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자르딘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를 설정한 거예요. 브라질이라든가 전체 환경 여건을 중심삼고 설정한 거예요. 브라질이 거기의 중심이라구요. 아르헨티나라든가 스페인계 33개국의 33개 도시에 교육받은 요원들만 배치하면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표준을 세워서 횡적으로 확장 전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3국 일체화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전통만 서면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읽으라구. (훈독)

#### 한국의 전통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교육을 받은 30만 명에 대해서는 남북통일 역군으로서 회원증을 발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절 남북통일의 지름길—통반 격파.

##### 1. 조직의 필요성.』

통반격파를 한국에서 배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흘러 버리지 말고 185개국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을 다시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요. 사상 무장, 통일사상 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대학가를 움직여야 돼요. 자, 읽어. (훈독)

『...위치를 이동하고, 그리하여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타락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타락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

니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위치를 알고 조직권 내에 들어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상대위치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천적 작용을 할 수 있는 단결력을 거기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의 머리 속에서 언제나 잊어 버리지 않도록 생각해야 한다.

첫째 무엇? 조직. 조직은 무엇 때문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둘째는 무엇? 단결. 그 위치를 결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는 주체에 대해서 대상의 위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나의 세계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적을 향해서 가는 데는 통일된 행동이 없이는 안 된다. 이 원칙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것이 공산당의 세포 조직 이상의 내용이라구요. 자, 읽으라구. (훈독)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내릴 곳은 도 조직체가 아닙니다. 도 아래 군이 있고, 군 아래 면과 리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붕 뜬이니 여기는 사탄이 들어와 우거할 수 있는 터전이 닦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을 훈독해야 돼요. 동서남북, 상하 전후, 남북의 빈부 격차,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격차, 하늘과 땅의 격차, 모든 통일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읽어요.

『이것이 국민연합이나 승공연합이나 통일교회가 통반을 격파하는 목표를 단일목표로 삼아야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귀의 목표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이 과거시대나 현재시대나 미래시대를 막론

하고 완성을 향한 목표도 하나입니다. 개인완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3단계예요.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예요. 7대를 중심삼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7수! 자, 읽으라구. (훈독)

### 통반의 세포조직은 가정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침투공작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가정침투예요. 가정기반인 것입니다. 전부 다 세포조직이라는 거예요. 세포조직기반 위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전부 다 가정에 배치하는 거예요. 친지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을 중심삼고 전부 다 통을 움직이고, 그래 가지고 동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지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동독과 서독 중에 누가 먼저 갖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치마폭에 싸여 살고 있다구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격파해야 돼요.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격파예요. 개인주의 사상, 호모나 레즈비언, 성 개방 문제, 그 다음에 마약 문제, 술 문제, 담배 문제, 몸의 향락을 위주로 하는 모든 전부를 격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파의 목적은 그래요. 선한 입장에서 악한 모든 것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 (훈독) 『...우리가 아무리 대회를 도에서 하고, 아무리 대회를 서울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 저 가정과는 동떨어져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어디에서 펴야 되느냐 하면 통장하고 반장, 통반장을 중심삼아 가지고 결의하고 거기에서 사상 무장을 딱 해 버리면...』

통반격파를 하는 기분이 어때요? 통반격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말만 듣고 있지. 또 읽으라구.

『통반장은 전부 다 앞이에요, 앞. 앞과 마찬가지로. 앞이 살아

있어야, 잎이 무성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가지가 무성하게 크려면 잎에서부터 영양소를 보급 받아 잎이 자꾸 풍성해져야 해요. 그러면서 가지가 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당이 말하는 세포조직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의 싸움 기준은 이제 통반장을 중심삼아 가지고 어떻게 불을 붙이느냐 이겁니다. 통반장을 중심삼고, 통은 정부니까 종적인 중심이라면 받은 횡적인 중심이에요. 이것은 가인 아벨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식과 마찬가지로예요. 이것이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기반이에요. 면을 중심삼고 리가 하나되어 가지고 이렇게 딱 해 놓으면...』

3단계의 조직에 들어가서 핵심 요원이 돼야 된다고요. 반이면 반, 통이면 통, 리면 리의 핵심 요원이 돼야 돼요. 자, 읽으라구. (훈독)

『...통반장 세 사람의 책임자가 딱 있어 가지고 통반장만 사상 무장을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통반장도 통반을 하루에 한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몇 시간이면 다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통반장 교육만 하면...’ 이렇게 돼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지금까지 백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재료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시도해 가지고...』 통반격과 사상을 집어넣어야 돼요. 머리 꼭대기에서 부터 발끝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스파이 활동을 해서 사탄의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된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거예요. 읽어요. (훈독)

가정에서 뒤집어 박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잡아야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4천만으로 잡았을 때 한 가구에 네 명씩 잡으면 천만 세대이니까, 천만 세대주를 중심삼고 격파하는데, 그 세대

가운데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들을 전부 동원해야 돼요. 우리의 뜻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통반에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모든 장관도 들어가 있고,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아요.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통일교회는 세포 조직이 통반격파예요. 가정에서 뒤집어 박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앙을 철저화시켜서 가정을 중심삼아 확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서 환경적 여건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나되면 더 큰 분야의 주체적 입장에서 가지고 더 큰 환경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크고 더 커서 확대해 가지고 나라와 세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인 아벨의 소화 운동이라구요. 알겠어요?

가인을 소화하지 못하면 아벨이 될 수 없어요. 오늘날 통일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가인에게 승리한 위에 아벨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 입장이 아니에요. 소화해서 흡수한 후에 아벨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구원섭리의 완결은 지상에서 있을 수 없어요.

몸 마음을 중심삼은 가정에서 정착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통반격파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통일교회 자체가 통반격파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세밀히 가르쳐 주라구요. 알겠어요? 자, 읽어.

『여자들을 동원하면 반드시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동원될 때, 어머니를 중심삼고 반드시 아들딸, 아들딸 중심삼고 남편이 하늘의 방향으로...』

학교에 가게 되면 반이에요, 반. 반장을 중심삼아 가지고 학생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놀음을 선생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학교에서... 범위가 넓은 거예요. 가정보다 위이니 가정에 하나되어 있는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통반격파의 책임을 책임



져야 된다고요. 대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연결시켜 가정까지 침투시킬 수 있는 놀음을 학생들이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해야 돼요. 알겠어요?

청소년 때 타락했다구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는 청소년 외에 기성 가정은 축복해 주지 말라고 3년 전에 박중현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이래 가지고 자기 책임을 했다고 꺼떡거리는 것을 볼 때….

자기 후계자를 못 갖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순이 나오고, 순에서 잎이 나오고, 잎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미국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층을 기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놀음을 하면서 세계적 지도자를 길러 나가는 거예요. 발전적 단계에 합당할 수 있는 주체성을 심어 놓아야만 세계가 소화되고, 세계가 복귀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교육이예요, 교육. 자, 읽으라고요. (훈독)

『…내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는 틀림없이 남한 통반장은 전부 다 하나돼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은 다 통반장이 되는 거예요. 통반장이 하나 안 되었다가는 보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반장의 선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전체가 통반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통반장이 통반격과를 할 수 있는 책임자예요. 자, 읽어요.

『여러분이 일선에서 싸우는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못할지라도 통반을 중심삼고 눈물의 고개를 넘어서 정착해야 합니다. 타락한 운명, 여기 저끄러진 이 비애의 운명을 타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협조를 안 합니다. 하늘이 여기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하늘이 떠납니다. (중략)』

선생님이 지시한 모든 초점은 확실합니다. 통반장, 남한에 있는

통반장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교인들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장이 되든가 통장이 되는 입장에 서야 하늘 앞에 기억되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을 교육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3백만 권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시작했으니만큼... 이것이 통반격파의 원자재예요. 이것을 미국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3국 일체예요. 일본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 그 다음에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그 다음에 《성약시대와 이상천국》이에요. 이 네 권이 모든 문제의 해결 기점이 돼 있다고요. 자, 읽으라구. (훈독)

#### 청소년을 새로이 무장해야

「...젊은 청소년들이 하는 겁니다. 2세가 이 나라를 복귀해야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통에 가서 반상회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 부락의 가정에 있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을 전부 편성해 가지고 여기 활동 요원으로 딱 해 가지고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의 청년지도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이북 땅에 가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 훈련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해요?

... 앞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 침투한 모든 공산당이나 좌익계를 전부 적발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다 알아요.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다 안다고요, 집에 뭐가 있는지. 스파이들을, 은폐한 모든 것을 뿌리까지 뽑아 버릴 수 있어요. 경찰과 하나되어 대변에 색출할 수 있어요. 그래 놓으면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알겠어요, 통반격파? 「예.」

퇴폐 사상이니 불순사상, 선을 침식하는 모든 요건은 거기서 다 없

어지는 거예요. 알겠나, 양? 「예.」 미국의 대가리들, 늙어 죽게 되어 허우적거리고 기운 빠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새로이 무장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읽어.

### 세계 구원은 통반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디를 중심삼고 결전을 하자구요? 「국민연합입니다.」 그래, 국민연합인데 기지가 어디예요? 어디, 어디예요? 여기 승공연합 본부, 국민연합 본부예요? 「한국 전체입니다.」 한국 전체인데 그 전체 중에 어디? 「통반입니다.」 면을 중심삼고, 동을 중심삼고, 통반을 중심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해방 반상회를 갖는 거예요.』

확실히 제시했다구요. 세계 평화는 거기서부터예요. 구원섭리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하는데, 가정은 거기서부터예요. 세계 구원은 거기서부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정착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심정착(一心定着)이 된 가정이라고요. 몸 마음 하나, 부부 하나, 자녀 하나예요. 일심정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읽으라구. (훈독)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책임분담 완성권을 통해 가지고 직접 주관권에서 간접주관권까지 연결된 발판이 있기 때문에 위로는 세계기준에서부터 저 밑에는 개인기준까지 판도를 만든 조건을 성립한 것이 통 편성이요, 반 편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 중심삼아 가지고 가정까지, 가족까지, 주민까지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은 선생님이 세계적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한 것입니다.』

향토학교 같은 것이 그런 조직입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세우는 평준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

다. 읽으라구. (훈독)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지상 전부 다 서울본부까지 가정까지 전부 다 직선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환경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꽃을 피워야 합니다. 모든 뿌리의 전체 영양소를 전부 다 집약시킨 그 터전 위에서 완전히 전체를 대표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를 종합한 그 꽃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일까지... 내일 가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국에 돌아올지 한국에 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서두르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정에 왔다고 노래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Home Church)를 중심삼아 가지고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지요? 일족을 중심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니까 360가정이면 720명이예요. 360도를 중심삼은 환경 보호를 위한 360가정이예요. 그걸 배로 하면 720가정이에요. 그래서 사 칠은 이십 팔(4×7=28), 이팔청춘이 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힘의 무대가 되어야 돼요. 밤에 비추는 등대와 같이 되어야 돼요. 이팔청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읽으라구.

『통지부장 중심한 사상체제 일원화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부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국장이 있으면 나무에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독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사상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책으로 교육하면서.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책을 읽어 가면서 한 자 한 자 주를 밝혀 가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책을 다 사요. 누구든지 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읽어요. (훈독)

통반격파의 고개를 못 넘었으니 어차피 다시 이 일을 해야

『...교학통련이 무엇이나 하면, 전국대학교수학생남북통일운동연합입니다. 길지요? 그것을 간단히... 그거 다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너저분해도 다 들어가야지 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열여섯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히 하면 교수와 학생의 통일연합이라고 해서, 대학가에서는 교학통련이라고 합니다. 교학통련이라고 하면 대번에 안다구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세상을 모르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대학가에서는 교학통련 하면 딱 아는 거예요.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교수 아카데미하고 카프가 합해 가지고 공산당이 전부 다 애먹는 아주 강력한 패!’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 알아요, 교학통련?』

그랬으면 그때 뒤집어 박는 거예요. 다 뒤집어 박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준비를 다 했던 것인데 흘러갔어요. 대한민국 나라까지 날려버렸어요. 이것을 세계적 무대에서 탕감복귀해서 그때를 중심삼고 세계에서 찾으려던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기반을 확대시켜서 준비하기 위한 놀음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미국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신세 지고 도움 받기를 바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자권으로 어머니 아버지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때려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으라구. (훈독)

『...승공연합하고 딱 하나되고, 이제 교학통련과 하나되면, 이것을 획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면 교학통련이 소생·장성·완성이예요.』

통반격파를 중심삼아서 이것이 주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은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방치해 뒀다구요. 그들을 반장으로 만들고 책임을 쥐서 책자를 가지고 모임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한 달에 네 번씩, 한 주일에 두 번씩, 이래서 매일 훈독회로 연결하면 모든 것이 다 설정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통반격파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흘러간 것이 아니예요. 그 고개를 못 넘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 못 하면 유엔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장이 나는 거라구요. 자, 읽으라구. (혼독)

『...우리 통일교회는 순전히 종교적이어서 사회 경험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승공연합은 사회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얼룩덜룩하거든요. 양면이다 이거예요.』

황선조가 이것을 재생시켜 재현시키는 조직 편성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선을 놓아야 돼요. 당리를 제거하고 국가 이익을 위한 당, 세계 인류를 위한 당, 그것이 안 돼 있으니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남북총선거를 대비한 사상적인 대처 문제를 앞에 놓고 불가피하다는 것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남북통일교육당이예요. 교육연합이예요.

당(党)이라는 것이 형(兄)을 말하는 거예요. ‘높일 상(尙)’ 자 아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흑(黑)’ 자였는데, 형님시대예요. 사탄시대에서 형님, 천사장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체제,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남북통일교육당입니다. 교육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삼아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연결해야 돼요. 교회를 중심삼고 부자관계·부부관계·자녀관계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기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통반을 중심삼아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눈이 빨개져서 그 일을 주장해서 사방으로 뛰라는 거예요. 자기 일족이 남아 있으면 쉬지 말고 찾아가서 그 놀음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아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반장을 못 해서 뭘 해먹어요? 반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무슨 책임자예요? 기생충이지요.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거기에서 이루어 놓아야만 기생충이 아니에요. 기생충이 아니고 가생충이에요. 가해 주는 벌레다 이거예요. 자, 읽으라구. (훈독)

#### 남북통일을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재교육해서 실천토록 해야

『...선생님이 가장 기대를 거는 쪽은 2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고, 계속 교육시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됐다고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돼요. 읽어요. 얼마나 남았나? 「세 페이지 남았습니다, 3절까지.」 4절이 있어요? 「4절, 5절, 6절까지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할 텐데... 「아직 90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3절까지만 읽어요. (훈독)

『...지방의 우리 향토학교 후원회에 교수들이 배치됨으로 말미암아 지방에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을 중심삼고 통일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에는 교장선생의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수들이 전부 다 친구들이지요. 지방 유지가 전부 친구들이기 때문에 통일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또, 향토학교 배경을 중심삼아 가지고 3백 명의 교수가 후원해 줬다고 할 때 두개 군이 3백 부락이 한꺼번에 뭉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북통일을 중심삼고 강조한 것인데, 이걸 다시 중심삼고 재교육할 때가 왔어요. 한국에서 실천 못 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통을 따라가라고 전세계에 지시한 것은 이 준비에 연관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이번에도 한국에 갔다 왔지요? 「예.」 자, 읽어. (훈독 계속) (양창식 교구

장의 기도)

만인이 책임 못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파괴시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브리지포트 대학의 통일사상연구원은 교수들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된다고요. 간판을 붙여서 그 명예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세를 중심삼고 자랑하지 말고 그 자세가 씨가 돼야 돼요. 씨가 되어 땅에 묻혀서 싹이 터 가지고 새로 나온 나무가 돼서 보여 줘야 새로운 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 머리가 복잡하지요? (이후 말씀은 주로 보고와 대화식 말씀임) \*



## 자연을 활용한 취미산업 육성

죽음이 중요하구만.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고개라구요. 죽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부활시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기 나라의 전통 풍습을 끊어 버려야

미국 애들은 한국말도 잘 모를 텐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한국말을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해결할 길이 없대구요. 앞으로 더더욱 지루하고 지루하게 된대구요.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젊은애들이 공부하면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나 같으면 1년이면 완성한대구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가는 천국을 따라갈래요? 「예.」 세상의 제일 꿈지가 미국 꿈지, 각 나라의 꿈지예요. 전통 풍습이 다 달려 있어요. 그것을 다 끊

---

1999년 11월 29일(月),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훈독회 후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고 가야 돼요. 그것을 끊어 가지고 그 배로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몇 배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살려고 한다구요. 「끊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끌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역자)」 끊고 가야 돼요. 끌어당기니 끊고 가면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 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끊어 버리고 나면 점핑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것은 여러분이 동양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 세상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간절해

너는 이번에 북한에 갔다 왔나? 「그때 갔다 오고 지금 서울에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상권 사장)」

북한도 이제 우리가 결단을 지어야 할 때가 온다구요. 김정일이 그냥 끌고 가다가는 좋지 않다구요.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는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천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 「예.」 언제든지 자기들 생각대로 계속할 줄 안다구요. 반대하면 다 모가지를 잘라 버리고 그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천만에! 그거 충고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된다구. (탈북자에 대한 박상권 사장의 보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훈독회를 안 했으면 큰일날 뻔했지요? 꿈도 안 꾸고 있었으니 기가 찬 일이에요. 전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숨쉬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숨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깜박깜박하는 것을 모르잖아

요? 심장이 뛰는 것을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이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잃어버린 자기 아들 딸을 찾는 것보다 몇백 배 간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타락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의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자기 아들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 찾는 데 몇천만 년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라에서 백 번 매맞는 것보다도 외국에 가서 전도하다가 한 번 매맞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웃으심) 그걸 몰라요. 선생님이 미국에 와서 반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다 나쁘게 알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게 되면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세계를 어떻게 다 돌리겠어요?

지금도 브라질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니 세계가 ‘아이구, 레버런 문!’ 한다구요. (웃으심) 한국까지, 우루과이까지, 그 세 나라가 다 알아요. 알고 보면 나쁘지 않다고 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뭘 하러 시간만 있으면 남미에 자꾸 가느냐?’ 하는데, 정성을 들여야 돼요. 자석의 남극과 북극이 서로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디악에 가는데, 코디악이 북극이고 남미가 남극이라 할 때 코디악이 중심이라구요.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남극으로 전부 옮기면 안 돼요. 혼자서 안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코디악의 회사를 팔고 해산해야 할 텐데, 미국도 팔아 버리고 다른 것을 살리라고 지시했는데 미스터 박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구요.

사람이 미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된 사람이 미련을 느끼면 그것이 참된 미련이니 참된 결과가 찾아온다구요. 천운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성들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상대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정성들이면 그만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모이고 안개가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 이제 배를 팔아먹어야

지금 우루과이의 박구배가 유명하다구요. 선생님을 만나겠다는 사람은 다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웃으심) 배를 얼마나 만들었나? 「예.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남미 새로운 배 건조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이걸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 하나 가격이 다...」 그런 거야. 그건 공개된 사실이니까 다 안다구. 「뻔한 겁니다. 어디 뭐 더 붙일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배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런 모든 제작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원자재비가 비싸게 들어가면 팔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과 같은 스피드로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판매가를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게 문제라구. 저들이 여섯 시간이면 우리는 열두 시간을 해서라도 몇 퍼센트 낮춰야 물건을 팔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 그걸 계획해야 된다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작았는데요, 밑의 창고가 커졌습니다. 세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창고를. 그리고 요건 요거보다 높아졌잖습니까? 여기는 더 넓어졌습니다, 2층의 낚시하는 자리는.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때문에 아주 돈도 적게 들어가고 가벼워지고...」

그래서 많이 팔아먹어야 돼. 수천 척을 팔아먹을 수 있다구. 판타날 지역하고 아마존 지역은 속도가 빨라야 돼. 이건 경찰들이 많이 살 거

라구, 경찰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부터 팔아먹어야 돼. (보고 계속)

박구배는 이제 배를 팔아먹어야 된다고. 알겠어? 「예.」 (배에 대한 보고와 대화)

### 중간치의 배를 만들어 팔라

나중에는 배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도 문제가 아니고 요원이 문제예요. 누가 고기를 열심히 잡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암만 배를 만들어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거든.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데모나 하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자기들의 생활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식구로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문제라고요, 사람이.

「기업이 망하는 것도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수산업도 지금 얘기했지만 선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글썽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치 배를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자기가 전문가 입장에서 한꺼번에 이익을 계산한 그 기준을 중심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상 중 하를 중심삼고 중급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배 만든 것을 실패라고 할 수 없어요. 윗사람도 탈 수 있고, 아랫사람도 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착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길러 나가면 그것이 재산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백 척이나 큰 배를 만들지 않으면 조선소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으로 만들면 배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를 위해서 뭔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배를 단계적으로

바뀌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조업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의 수산업 개발 문제까지 신경 쓰는 것입니까?」 자연히 그렇잖아? 조선회사가 뭐야? 조선회사가 그거 하는 거야. 우루과이만이 아니야.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하는 거야.

#### 치어를 방류해서 키워 가지고 잡는 시대가 돼야

앞으로 파라과이강하고 아마존 강을 그것을 중심삼고 양식 기지로 활용해야 된다고요. 잡아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많이 길러서 방출해야 돼요. 일년에 얼마만큼 숫자가 잡힌다 생각하면 그만큼 양식해서 방출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마리 수를 계산해서 숫자를 보충하며 균형을 취하는 거예요. 양식해서 새끼를 많이 내보내 가지고 그것을 자연산과 같이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것을 잡아먹고도 자연세계가 불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하면서 새끼를 자꾸 길러 가지고 자기 잡는 몇 배씩 놓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먹는 것보다도 수가 많게끔 놓아주면 어느 강이든지 수산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민들을 얼마든지 배양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구요.

박구배! 「예.」 이제는 무슨 고기든지 양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장만 하나 만들어 놓고 부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데 땅이 얼마 안 들어가요. 수온을 맞춰서 담수어 해수어를 다 기를 수 있단구요. 이래서 수산청에서 컨트롤해야 돼요. 고기를 일년에 얼마만큼 잡으니까 새끼는 얼마만큼 놓아 놓으면 언제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수산사업이 계절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쿼터제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춰 나갈 수 있단구요.

치그늑에 킹 새면이 살잖아요? 「예.」 거기에 길러서 놓아두면 된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고기도 많잖아요? 고기가 많은 데 사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킹 새면 치어만 살면 얼마든지 킹 새면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새끼들을 뿌려만 두면 거기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고기 도시와 같이 돼 있는데 놓아주면 잘 잡아먹고 사철 살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 이동하니까 잡아먹을 것이 있잖아요? 블랙 피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 놓으면 킹 새면을 사철 잡을 수 있는 좋은 낚시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판을 만들어서 어부들 몇천 명씩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자라게 되면 육지에서 양식하는 거예요. 온도를 맞춰 가지고 하면 양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무진장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물을 끌어들여 양식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해양 수역을 점령하자는 것이 그거예요. 1킬로미터 이내면 1킬로미터 이내, 몇 킬로 이내는 바닷물을 파이프로 대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양수기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바닷물도 끌어올 수 있고, 담수도 끌어올 수 있어요. 산골짜기에도 끌어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무진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막지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사막지대에 구덩이를 깊이 파 놓으면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요. 인공적으로 깊이 파는 거예요. 한 1백 미터 깊이로 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물이 고이면 그 물을 가지고 주변의 녹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양식도 하고 말이에요. 물이 있으면 녹지대를 만들 수 있으니 채소를 기를 수 있고, 고기를 기를 수 있고,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서 방대한 사막지대를 개발해야 돼요. 사막지대에도 곤충이니 벌레니 다 있잖아요?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다 있구요. 거기에 습기만 좀 차 보라구요. 녹지대와 같이 다 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마르겠어요? 아마존 강의 물이 마르겠어요?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물을 얼마든지 끌어다가 고기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고, 푸른 지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라구요. 반사막지대를 농지로 만들어서 할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현대 과학의 힘을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 식량 문제가 해결돼요.

사방 10킬로미터면 10킬로미터의 큰 호수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킬로미터쯤 가서 주변에 열 개를 파 놓으면 거기에 물이 딱 차는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아마존 강 유역이나 판타날을 보라구요. 성수기 때는 물바다가 되잖아요? 1미터 이상이 고이는 거예요. 그 물을 뭐하겠어요? 매해 그렇게 되니까 그 물을 사막지대에 끌어들여서 많은 못을 만들고 못에서도 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이걸 끌어다가 양식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농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식량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구요.

산꼭대기에 가서도 양식할 수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에 제방을 쌓고 바위 같은 데를 연결시키게 되면 산을 커버해서 산 전체를 양식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산을 연결시켜서 양식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채소를 그냥 먹지,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막지대를 전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막지대에 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양식 도시, 양식 빌딩을 만들 수 있구요. 고기 빌딩을 만드는 거예요. 전



부 온도를 맞춰서 만들어 집어넣는 거예요. 남양에 있는 고기, 열대 지방의 고기, 한대 지방의 고기, 바다의 고기, 담수의 고기를 기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구요. 그래서 주문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구요. 원하는 대로 무슨 고기를 전화로 연락해서 점심 때 사시미(さしみ; 생선회)를 먹고 가는 거예요. 농사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장될 수 있는 건강식품, 무공해 자연식품을 분배해서 팔게 된다면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든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불 때서 밥 지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식구면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공기만 훑 붙어넣으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섯 식구가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좋은 사냥터가 있으면 사냥도 하는 거예요. 사냥터가 많고, 낚시터가 많은 거예요. 그곳이 식사 후보지예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구요. 자기가 농장 대신 사막 지대에서 얼마든지 과학의 힘을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양식장을 한다면 전화만 하면 무슨 새끼가 얼마, 무슨 새끼가 얼마, 몇백 마리를 가져 오라 해서 양식할 수 있는 못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온도를 맞추고 사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료를 만들잖아요? 사료도 몇백 가지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사료도 튜너의 사료는 비싸게 만들 수 있다구요. 제일 고급 단백질을 먹여 기르는 거예요. 몇 퍼센트짜리 사료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고기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마리의 튜너만 해도 수십 가지로 가격이 차이 나게 만들 수 있다구요. 먹이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이를 달리 해서 양식하면 다른 품질의 고기를 기를 수 있어

지금 생각난 것인데, 베이(bay;만)가 있으면, 우리 ‘해피 문 베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물을 쳐 놓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만큼 고급 밀감을 많이 뿌려 주는 거예요. 고급 종류의 고기들이 강에 있으면 여기에 와서 새끼치고 크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감을 얼마만큼 좋은 것을 주느냐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잡는 것은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싼 밀감을 주어서 길렀으면 싸게 팔 수 있다구요, 같은 고기라도. 요즘에 맥주를 먹여서 기르는 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먹이에 따라서 영양소가 달라지고 단백질이 달라지니만큼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격도 천태만상으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사업, 고기 기르는 것은 밀감이 문제예요. 이번에 들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크릴새우 가루를 만들었는데, 이것 좀 가지고 가자구요. 가져가서 밀감을 만들어 주면 빠꾸가 잘 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향료만 가감해서 수백 종 고기의 밀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양식장에 무슨 고기가 있다면 전부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밀감을 수백 종 만들어서 팔게 된다면 한 가지 고기라도 열 가지 이상도 만들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파울루 주변에 1천5백 개 이상의 낚시터가 있지요? 「예.」 그것이 대단한 거예요. 열 가지 종류의 밀감을 가지고 가격을 달리해서 열 가지 종류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도 상 중 하로서 고급 손님은 좋은 밀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장소라도 밀감이 달라지니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잡는 고기도 비싸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도

상 중 하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윤상한테 농사짓는 데 있어서 책임자 될 수 있는 전문가를 3개 분야별로 빼라고 했어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 뿌리에서 열매 맺는 것, 이 세 분야의 사람을 빼서 서너 사람씩 달고 와 가지고 개발하자고 그랬다구요.

3년씩 계획해서 월급을 주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계획한 것을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책임량을 완수해 판매할 수 있어 가지고 비준만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중심삼고 클럽을 만들자는 거예요. 세 클럽이 아니예요. 천 클럽, 만 클럽을 만들자 이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로요. 장소를 정해서 시설만 해주면, 못이 몇 개 필요하고 깊이를 얼마만큼 판다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계약을 해서 비용을 내고 이익의 몇 퍼센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 사람과 가축을 같이 치료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수의사(獸醫士)가 있어야 돼요. 수의학교가 있어야 돼요. 수의학교보다도 의사학교를 만들어서 의사가 되면서도 수의, 짐승에 대한 의사까지 겸해야 돼요. 그러면 농촌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방에 가면 의사가 없어요. 반드시 가축이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되면 수의사가 있어야 돼요. 수의사 대신 의사가 수의사까지 겸해서 자격증만 따면 완전히 혁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뉘시터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약해서 판매한다는 이

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에 안 가 있잖아? 지금 농업기술협회가 있어요. 미국에 데려온 사람이 58명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계승할 제자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몇 개월만 와서 도와줄 수 있게 해서 제자들을 가르면서 채소면 채소, 토마토면 토마토, 오이면 오이, 과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을 중심삼고 이 땅에 와서 기르게 하는 거예요. 판매 시장은 우리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3년 동안에 이런 기준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이 수지가 맞게 되면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배운 사람들은, 3년 동안에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곳이 입지 조건만 같으면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농장만 해도 산 것이 지금 마흔 다섯 개가 되잖아요? 대단한 땅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농과대학을 만들고 수의대를 만드는 거예요. 의사와 수의 양면을 겸하는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농촌에 가서 의사 노릇도 하고 수의사 노릇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농장 있는 데에 보내는 거예요. 농장 있는 데 마을이 있거든. 마을이 있으니 이들이 병원에서 병도 치료하면서 마을의 개발을 지도하는 거예요. 종자는 어떤 종자를 쓴다는 것 말이에요.

목장에 있으면 좋은 종자를 길러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전문요원이거든. 집과 목장을 고쳐 주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책임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래 보라고요. 마을 전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반도 자연히 닦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아지를 사는데 큰 것을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몇 개월 된 것을 사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길러라 이거예요. 기르면서

그 풍토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생긴다는 것을 배워 나가야 돼요. 1년 반만 되면 중소가 넘어요. 1년 7개월만 지내게 되면 새끼를 낳는다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년 반만 되면 대개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끼들이 많으니까 종류에 따라서 병도 다르게 생기니만큼 그걸 관리하면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놓고 자리잡으면 그것을 횡적으로 무한히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장은 다른 농장을 책임져서 1년을 봐 주는 대가로 얼마에 계약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집만 있으면 먹고 사는 생활비는 자연히 나와요. 환경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방문해 가지고 봐 주고 출장비를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채소를 기르고 농사짓고 가족들을 먹일 수 있으니 자연히 10년 후에는 부자가 된다고 본다구요.

한국 같은 데서 지리지 고생하고 일생 동안 쪼들리면서 농사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삼아서 도시가 발전하면 도시의 상점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키워 나가는 거예요. 농촌에서부터 중앙 도시, 상파울루면 상파울루까지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몽땅 잡아먹는 거예요.

#### 뉘시 밀감을 연구 개발하라

박구배는 밀감을 연구하라구. 밀감이 무서운 장사라구. 세계적이야. 지금 피시 파우더(fish powder;어분)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크릴새우가 인간에게 제일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고기에도 최고의 밀감이 라구요. 최고의 것이예요. 그걸 단계적으로, 10단계 20단계로 나누어서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나기 전의 고기도 갖다가 밀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있다구요. 천만 가지예요.

그런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종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구요.

보라구요. 빠꾸도 먹는 것이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살로브라강에서는 고무나무 열매를 밀감으로 쓰는 거예요. 고무나무 열매는 물어도 게는 잘 안 물어요. 그런데 판타날의 아메리카노 호텔에 가니까 고무나무 열매는 물어지도 않더라구요. 그렇게 지역에 따라 먹는 것이 다르니 수십 종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고단백 크릴새우를 밀감으로 만들어 보라구요. 향기만 다르게 하고 영양이 좋은 식료품을 배합하게 되면 무슨 밀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라구요.

양식을 하면서 그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같이 이렇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는 것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관심을 못 가져요. 이것이 무한한 발판이에요. 알겠어요?

크릴새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취미산업은 별 거 없어요. 바다에 낚시가야 된다구요. 헌팅을 해야 된다구요. 그 다음에는 운동이에요. 클레이 사격을 하는데 돈내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하는데 가서 그냥 재미로 안 해요. 투우 같은 것도 내기하잖아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내기를 해보라구요. 부락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 경기와 같이 해 가지고 도박같이 하는 거예요. 도박한다면 큰일나는 거예요. 그러니 도박이 안 되게끔 법적으로 제한하면 얼마든지 취미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취미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구요. 고스톱 같은 것, 화투 놀이를 하잖아요? 왜 화투를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공개 화투를 시켜라 이거예요. 군 대항 화투, 도

대항 화투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미로 전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얼마 이상 못 한다고 법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서 한번 걸리면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만 하게 되면 체제를 중심삼고 재미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농사면 농사만 짓고 살아요? 밥만 먹고 살아요? 취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취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취미로 할 수 있는 거라구요. 운동도 취미화할 수 있는 거예요. 축구도 돈을 걸고 할 수 있잖아요? 아메리칸 풋볼은 전부 돈을 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현장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이 누구, 서쪽은 누구 해 가지고 누구누구 몇 번 몇 번 정해서 전부 표를 파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골을 넣느니 못 넣느니, 코너킥을 누가 만드느니, 페널티킥을 누가 만드느니 그런 것을 중심삼고 거는 거예요. 이래 놓고 재미로 할 수 있다가구요. 비싸게 안 해서 생활에 피해 안 가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내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서 먹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방면의 사실을 취미로 연결하는 거예요. 정원을 만들더라도 취미정원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계 제일의 정원이라면 관광지로 만들어서 일년에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동하며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야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재간만 있으면, 운동해서 챔피언만 되면 세계 각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의 왕같이 대접받고 대통령이 불러 대통령 관저에서 추대 받으면서 그 나라의 전문적인 요원, 각 분야의 요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취미 아니에요? 오늘날 국가 국가가 경계선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학자는 소련에 연결을 못 시키고, 소련 학자는 미국에 연결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탁 터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군데서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게 되어 있지. 6대주를 돌고, 6대주의 어느 대륙에 가면 각 나라를 도는 거예요. 얼마든지 취미생활을 중심삼고 지구성을 돌면서 일생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 보라는 거예요.

남미에 33개국에 있는데, 우리 배가 한 나라에 열 척씩 있다면 몇 대예요? 330척을 중심삼아서 무슨 고기 잡기 경연대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대구요. 큰 고기만이 아니에요. 제일 조그만 고기를 잡는 대회도 하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고기를 잡은 사람이 일등이에요. 그렇게 정해서 대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고기를 잡는 데도 예쁜 고기, 상처가 하나도 없고, 비늘이 하나도 안 빠지고, 지느러미도 하나도 상처 안 났으면 일등이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고기가 많대구요. 고기가 많기 때문에 박상권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기 종류 하나를 자기 고기로 삼는 거예요. 그걸 길러서 세계에 조직을 만들어 그 사람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고기 잡기 경연대회를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게 되면 6대주에서도 할 수 있고, 6대주의 각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방대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의 멸종을 보호할 수 있어요. 식물과 동물과 곤충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삼고 누가 잘 기르느냐 경연 대회도 하는 거예요. 정성을 모아서 한번 일등 하면 일약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을 찾아오는



관광객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양식장이면 양식장, 그 동물을 기르는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세계의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고, 한 주일 동안 놀고 가면 친구 되는 것 아니에요? 남미에서 일주일 동안 먹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한국이니 밥 먹는 것을 생각하고, 장가갈 때 색시 밥은 안 굶긴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지 남미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먹는 것은 걱정도 안 한다구요.

그렇게 하면 무한히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누가 제일이나, 세계적인 최고냐 이거예요. 취미를 중심삼아 가지고 일생 동안 연구하다가 몇 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계열적으로 이 씨종이 보존된다고 본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잡아 먹고, 새로운 것을 잡아 없애기 좋아하는 인간들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물을 멸종시키는 거예요. 식물로부터 동물까지 전부 다. 그런 놀음을 하려고 생각한다구요.

식량문제 해결은 물고기이니 낚시 미끼를 연구 개발해야

밑감도 자르던에서 지렁이를 잡아서 하니까... 전문가들을 데려다 써야 돼요. 전문가를 식구 만들어야 돼요. 1년만 돈 쥐서 1년 동안 하게 될 때는 그 동네를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고 우리 식구 이상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구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동지들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크릴새우를 많이 잡으라구. 「예.」 낚싯밥에 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루를 만들어 떡과 같이 찢득찢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만

들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개발한 밀감은 크릴 가루하고 농산물을 섞었습니다. 크릴은 아까우니까 한 10퍼센트나 쓰고 90퍼센트는 농산물입니다. 그래도 그 냄새 때문에 고기들이 먹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고기들이 먹기 어려우니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섞었습니다.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냉동고에 넣어도 얼지 않아요. 그 기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구배)」 그건 문제없다구. 기계의 비밀도 스파이를 통해서 다 아는데 밀감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집에서 여편네들도 다 하고 있는데, 분석해 보면 대번에 다 안다구. 모르긴 뭘 몰라?

「두산에서 그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톤 당 2천 달러에 팝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루를 톤 당 2천 달러에 파는 것입니다. 쌀도 톤 당 22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보라구요. 크릴새우를 사용할 분야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르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 놓으면 세계적인 판도가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앞으로 낚시를 안 할 수 없어요. 식량 문제 해결은 고기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전 인류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며 산다 이거예요. 국경이 없으면 이동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동하며 살 때 제일 편리한 것이 뭐냐? 동네 들어가서 친구 하려면 낚시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낚시꾼이에요. 가서 자기는 어디서 왔다고 소개하고 당신을 다음에 내가 초청하겠다고 하면 대번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한 달 두 달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리해요!

들짐승을 사육해 사냥터를 만들어 사업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사냥터예요. 만 가지 동물, 나는 짐승도 사육해서 잡을

수 있다구요. 한국 사람에게는 뭘 하느냐? 들쭉이 있잖아요? 들쭉을 사육해 놓으면 한국 사람한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특정한 수렵 아이템이 있거든. 자기가 잡던 것은 언제든지 백 퍼센트 잡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거예요. 고기나 무엇이나 그렇게 돼 있다구요.

미국 워싱턴에 사격장이 있잖아요? 무슨 새든지 사 와요. 저녁에 전화만 하게 된다면 새벽같이, 해뜨기 전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슨 새든지 사 와요. 동구권에서 온 사냥꾼이면 동구권의 무슨 새 무슨 새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 있다구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 청사가 있으면 조류 기르는 전문가들을 중심삼고 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교수들을 중심삼아서 각 종별로 기를 수 있는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6대주 아니예요? 6대주의 조류가 다르거든. 전부 다르다구요. 같은 종류라도 전부 다른데 그것을 중심삼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애용해서 잡을 수 있게끔 보급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오리가 있더라구요. 오리는 그냥 하잖아요? 오리를 사서 하는 거예요. 열 사람이 왔으면 한 사람이 다섯 마리씩이면 50마리거든. 50마리의 오리를 사다가 높은 데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높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번 사냥을 한다구요. 잡아다가 위에서 날리는 거예요. 날려보내는데 아무리 총을 잘 쏘도 다 못 잡아요. 70퍼센트는 못 잡고 30퍼센트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70퍼센트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오리예요. (웃음) 그게 장사라구요.

그러면 그것이 밤이 되면 못에 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날아서 거기에 오게 돼 있다구요. 못에 와서 자는 거예요. 자는 데는 풀 속에서 못 자요, 여우들이 많아서. 새들이 나가 사니까 밤이면 찾아가서 잡아먹기 때문에 짐승들이 예민해 있는 거예요. 오리가 그걸 알아요. 영리하거든. 그러니 반드시 물에서 잔다구요. 수백 마리가 물에서 엉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가 몇 마리 잡혔는지 세기도 좋다는 거예요.

뿔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수리, 여우, 족제비도 많다는 거예요. 강이 있으니까 수달도 있어요. 먹이가 언제나 있니까 잡아먹기 좋거든. 이러니까 전부 모여 있는 거라구요. 수달이니 족제비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족제비는 붓장사에게 파는 거예요. 한국이나 아시아의 붓장사에게 말이예요. 붓을 만들려면 족제비 꼬지 털이어야 돼요. 뺏뺏하거든.

옛날에 내가 족제비를 잡으러 다닐 때는 쌀 한 말에 11전이었어요. 그때는 쌀 한 섬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족제비 한 마리가 쌀 세 가마니 값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족제비를 잡으려고 하지요.

족제비가 쥐를 잡아먹고 살거든. 매일같이 잡아먹으니 먹이가 많아요? 자기 동네에서 벌써 몇 개월만 있으면 먹이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 이스트 가든에도 여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람쥐가 많았는데 여우가 있어서 다람쥐를 다 잡아먹었어요. 이제 안 보인다고요. 없으니까 이사 가요. 그리고 또 불어나면 또 온다고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없으면 그걸 잡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곳에 팔 수도 있다고요. 다람쥐 같은 것은 놀이 통에 넣어서 -잘 놀거든.-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족제비가 없나 여우가 없나, 다 있어요. 알래스카 여우는 이렇게 커요. 현진이가 그것을 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못 잡고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한국에서 목도리로 하면 그만이라구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건을 밑감으로 삼게 되면 널리 동동 별의별 짐승이 다 오는 거예요.

여우가 많으면 늑대가 오는 거예요. 늑대가 많으면 호랑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깊은 산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서로가 먹

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산 같은 데는 짐승이 많아요. 명산은 물이 좋아야 돼요. 습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산수가 맑고 공기가 좋고 이런 데는 벌레들도 잘 살거든. 벌레들도 기후가 좋아야 잘 산다구요. 한국의 삼한사온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곤충이 살기가 적절한 기후거든. 그래서 한국에 사는 동물은 맛이 있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 품목을 중심삼고 연대 관계로 엉켜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대조건을 갖춰서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꾸 큰 동물이 찾아오기 때문에 잡아서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딘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

문제는 사람이 잘 모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축구장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거예요. 돈이 한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주변시설까지 잘 만드는 거예요. 수영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담수만이 아니예요. 소금물까지 해서 소금물로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 안 들어가요.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좋다!' 해서 소문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좋은 거예요.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테니스 코트나 농구장이니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로 만들 수 있는 거라구요.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김윤상한테 시켰는데, 그 사람은 자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구요. 그러니 전문가를 시켜야 돼요. 파라과이의 8만 평에 나무 심는 것을 박구배한테 관여하라고 했는데, 관계하고 있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수산사업

을 책임져서 수산사업 기지를 만들려면 자르딘이 필요하다구.

거기에 대학을 만들려고 그런다구. 농과대학 공과대학 수산대학 수의과대학, 4개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수의사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데려다가 코치할 수 있게 해서 유명한 대학교를 만들려고 그런다구요.

장사나 무엇이든 비즈니스 센스(business sense;사업 감각)가 문제예요. 센스를 팔아먹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먹는 것보다. 센스로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구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구요.

판타날 국제회의를 2차, 3차까지 계속하면 이제는 내가 도감이 될 수 있어요. 브라질 정부가 반대해 가지고 ‘레버런 문이 브라질을 삼켜 버리려고 한다!’ 했는데 판타날 얘기를 듣고는 그 패들이 완전히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됐어요.

곽정환이 이제 갈 거라구요.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몇 사람 데리고 갈 거예요. 판타날을 관리하는데 브라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이 관여한다고 하며 틀어줘어야 돼요. 미국이 관여했잖아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중심에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브라질을 비롯한 4개국, 판타날에 관계된 주변 국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사업적인 기반을 미국을 배경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본다구요. 미국이 필요해요. 박구배, 알겠어? 「예.」

#### 사업을 여러 가지로 확대시키려는 생각을 가져라

미국에 우리 조선소가 있는데, 이것이 우루과이로 이동했다 이거예요. 지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뉴욕 회사의 물건을 합작해서 만들어 판다 이거예요. 이래야 제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조선소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해수 목욕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염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도 소금을 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영광 같은 데에 해수 목욕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담수에도 염수만 집어넣으면 돼요. 염도 재는 기계가 있어서 얼마 보충하면 염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짠물에서 목욕하는 것하고 단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증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다르다구요.

그렇게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뭘 해먹지, 한 가지로 끝나면 안 돼요. 밀감도 세계의 밀감 왕초가 되라는 거예요. 밀감 개발의 선취권을 취하려고 그래요. 「예,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주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매력보다도 그건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안 돼 있어. 향료를 인공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잖아? 맛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영양이 문제야. 「미끼 하기에는 양이 좀 적습니다. 미끼 시장이 무지하게 큼니다.」 파우더가 많잖아? 「우리 파우더 가지고는…」 1년에 10톤 20톤 가지고 되나? 몇백 톤 할 수 있게끔 해서 파우더로 만들어야 돼. 그 대신 비싸게 팔아야지.

파우더를 만드는데 고기만이 아니에요. 성능 좋은 식품을 넣어서 파우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식물 동물로 전부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순식간에 분석해 내잖아요? 다른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크릴새우만 할 필요 없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무한한 거예요. 다 먹고 살잖아요?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광물도 먹여 줘야 돼요.

내가 나이 팔십이 되서도 전부… 「아버님은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아이디어가 많으면 뭘 해? 아이디어를 다 심어 놓고 영계에 갈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별 것 없다구요. 일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우루과이의 굴이 얼마나 유명해요? 전부 굴 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년이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땅이 얼마나 넓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

몇 시야? 시간이 많이 됐구만. 그러면 언제 이북에 가겠나? 「허가가 나면 곧 들어가겠습니다.」 가서 김정일을 만나야 돼. 「예.」 자기가 안 되겠으면 박보희하고 둘이 가라구. 만날 때가 있어. 안 만나면 안 돼. 이제 김정일의 북한만 가지고 안 돼. 중국 소련과 협력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교육을 해야 돼, 행동 못 하도록. 그 대신 일년에 얼마나 후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경제적 유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야. 자기들이 배급 가지고 국민을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가 지원한 것을 가지고 목을 얼마든지 조를 수 있다구. 그래서 조정해서 남쪽 사람이 서쪽으로 오고, 서쪽 사람이 북쪽으로 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임자네들도 미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 미국의 생각에 젓지요? 미국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풍습에 젓는 거예요. 매일 빵 먹으니까 빵 먹는 사람과 같이 먹고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 같은 조건에서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차이, 생활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결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그거예요. 평화의 길의 직단거리는 결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다 하지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 사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이 없이 형제 관계라든가 상하좌우 관계를 편성해 거기에 도수를 맞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권을 만드는 것이 절대 필



요해요.

통일교회에서 내가 생각할 때 문화권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30세까지 고생시켜야 돼요. 아프리카에 51개 국가가 있으면 거기를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돌아다니면서 헨드레이징하고 풍속도 적응하는 거예요.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는 국가 체제가 안 돼 있다고요. 국경으로 전부 막혀 있어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좁아져요?

새들도 그렇잖아요? 기러기는 사시장철 대륙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관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놓으면 기러기들은 찾아가는데 사람은 못 찾아가잖아요? 국경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 동물의 생태는 우주의 지식과 연결돼 있어

철새들을 보호해 돼요. 학이 나는 것이 빨라요, 떠요? 「빠릅니다.」 「학이 좀 뜬니다.」 떠요. 누가 더 멀리 날 것 같아요? 기러기가 멀리 날 것 같아요, 학이 멀리 날 것 같아요? 「기러기입니다.」 「학입니다.」 「길게 난다고 해서 기러기입니다.」 (웃음)

보라구요. 학은 히말라야 산정을 넘어 평지에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곳은 보통 새는 못 가요. 학은 천천히 날지만 가벼워요. 오래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러기는 얼마나 무거워요? 날갯짓을 계속해야 돼요. 학은 기러기가 세 번 할 때 한 번도 안 해요. (웃으심) 그러니까 세상을 관광하는 거예요. 공중을 관광하면서 지역환경을 보고 다니니 훤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학을 존경하는 것은 고상한 도의 세계의 추모의 상징으로 봤던 거예요.

학을 보면 머리나 목이나 날개 끝이 까매요. 머리 꼭대기는 빨개요. 모닝코트를 입은 신사 같다고요. 날 때는 다리가 꿩지같이 되는 거예요.

요. 앉을 때 그 긴 다리로 설 줄을 누가 알겠어요? (웃으심) 그러니까 깊은 데 낮은 데로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주둥이가 왜 길어요? 어디 가서 앉더라도 무엇이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것도 잡아먹고, 구멍 속에 있는 것도 잡아먹고, 깊은 데 낮은 데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멀리 날다가 앉아서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대비했다는 거예요.

새 세계의 생태를 생각하면 우주의 모든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연에 대한 취미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나 도를 닦는 데는 자연 풍광이 좋아야 돼요. 폭포수가 흐르고 맑은 물이 반석에 튀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구정물이 벽에 치게 되면 구정물이 야단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깨끗한 물이 반석을 치고 깨져 나가는 경치가 얼마나 멋져요? 맑은 물이 하얀 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고기들이 큰놈도 살고 작은 놈도 사는 거예요. 큰놈은 폭포를 거스르려고 올라갔다가 놓고, 작은놈들은 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히려 폭포 아래는 조용하다구요. 잔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고기도 큰놈 작은놈, 먹이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폭포수 가운데는 별의별 고기가 다 있어요. 구렁이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산중에서 밀감을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에는 개구리로부터 작은 고기들이 많으니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고기나 다 모여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배짱만 가지고 밀 때가 아니다

뉴저지의 우리 땅은 어떻게 됐나? 「사게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

말이야.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땅 매입에 대한 양창식 회장의 보고)

그 땅은 양창식이 운이 좋아서 만났다고. 「양창식 회장은 얼굴이 넓지 않습니까?」(웃음) 양창식은 한 시즌에 한 번씩 싸움을 해야 발전해. 가만히 있으면 발전 안 한다구. 「혁명이 기질이 있습니다.」 수사자처럼 생겼다고. 사냥은 암사자가 한다구. 수놈은 집 지키고 잡아오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커야 돼. ‘어흥!’ 하면 천하가 다 그 소리에 잡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외치라구. 외치면 줄개새끼들이 벌어들 먹인다는 거야. 정말이랴구.

그래서 내가 미국에 데려다가 책임자로 세웠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조금…」 기질이 늘었어, 줄었어? (웃음) 이제부터 늘려야 된다구. 「예.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기도할 때나 호령할 때는 청중 앞에서 ‘으르렁!’ 해서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위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음성도 내서 밀었다 당겼다 하라는 거야. 마술사들도 기합을 주잖아요? 우리의 말씀도 최고에 가서는 그래야 돼요. 큰 벼랑이 있더라도 그런 벼랑을 밀면 태산같이 밀려 나간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적기사가 벌어지고 다 그래요.

김장송은 신랑이 그리워서 그렇게 서서 공상하나? 여자가 서서 공상하면 위험한데? 「이제는 신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웃음) 신랑을 잊어버렸으면 뭘 찾았나? 「미국 복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을 복귀하려면 코디악에 가서 코디악을 복귀하지. 「코디악 복귀요?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코디악 복귀한다고 하더니 저번에 가 보니까 복귀도 안 됐더구만. (웃음) 「계속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없어도 이제 할 사람이 많아졌어. 이제는 자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생겼

어.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방해된다.’ 이럴 수 있는 때가 왔다구.

배짱만 가지고 냅다 밀면 안 돼. 갈래를 잡아서 물을 어디로 흐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김장송처럼 배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다고 본다구. 선생님 말에 일리가 있다구. 「예.」 김일성을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세웠는데, 돈도 주고 도와주었는데 김일성이 죽었으니 이제 상대할 사람이 북한에 없잖아? 「김정일이 있습니다.」

#### 청평 땅에는 국제 수련소와 교육시설을 갖출 계획

그러면 12월 12일이면 배를 타 보겠네? 「12일 도착이니까 13일이나 14일에는 몬테비데오에 도착합니다.」 (배에 대한 보고)

「청평에도 배가 한 두어 척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용기 장로가 있던 테하고 수련소 앞에 갖다 놓고 빌려주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청평을 좋은 곳으로 알았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좋게 그릴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선인봉에 올라가서 보면 참 아름답다구요. 바라보고 명상하고 싶지,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길이 좀 좁습니다.」 배로 가면 우리 배는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구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희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아버님이 얼마나 이곳이 좋으셨으면 사셨을까 했습니다. 남미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없지요. 세계적으로 없다가구요. 그게 9백만 평인데 보이는 산은 거의 다 우리 산이에요. 70퍼센트가 우리 땅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국제 민속촌과 교육장소를 만들어서 세계의 학자들, 전문가들이 와서 강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세계의 천재 학생들이, 그 문학생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하면 아주 멋진 데가 되는 거예요.

산 속을 차로 살살 다니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거예요. 길이 넓으면 안 돼요. 한 길로 다니면서 기다렸다가 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멋있는 거예요. 싫더라도 딱 내려서 한 5분 기다리며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도로 가운데 차가 꼭 찰 수 있는 그런 명승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천성왕림궁전을 지었는데, 이제 거기에 병원도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려고 한다구요. 「정신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알려지면 아마 엄청나게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많아져요. 아 이고, 나도 이제 올라가야겠구만. \*

##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

훈독회 안 하나? 「훈독회 먼저 할까요? (김효율 보좌관)」 원래는 아침에 훈독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를 돌아가서 읽으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입니다.

각자 고향과 조국은 다르지만 천주는 하나뿐

여러분의 고향과 조국이 어디예요? 전부 다르다구요. 여기에 여러 나라 사람, 세계 사람이 다 모였는데, 고향이 전부 다르고 조국이 전부 다르다구요.

천주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계는 고향도 많고 조국도 많지만, 천주는 하늘땅이에요. 하늘땅이면 고향과 조국은 한 곳밖에 없어요. 이 세계는 여러 조국과 여러 고향이 있지만 천주는 한 곳밖에 없어요. ‘천주’ 하게 되면 천(天)은 하늘이고 주(宙)는 집이니까 하늘 집이라는 뜻이라구요. 하늘(天)은 두 사람(二+人)이에요. 이것(宀)은 집을 말해요. 이것(由)은 자유스런 유(由)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자유

로운 집이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한자에는 뜻이 전부 다 있다구요. 그 뜻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하를 생각하고, 좌우를 생각하고, 전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 가지를 중심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말할 때 천·지·인(天地人)이 전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자신들도 영적·육적·천지인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전부 들어요. 둘이 사는 내 집이에요. (얼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심) 그리고 이 둘은 상대적으로 하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둘이 같이 하는 데는 하나님이 같이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사상은 폭이 넓어요. 서양 사람들은 일을 시키더라도 하나만 시켜야지 둘 셋을 시키면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렇지만 동양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한꺼번에 열을 시키더라도 일번 이번 삼번 사번 오번 육번,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손을 보며 정하는 거예요.

수를 손가락으로 셀 때도 보면 갔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가는 것이라면 오는 것을 생각해요. 자는 것이라면 깨는 것을 생각해요. 앉는 것이라면 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앉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앉을 수 있고, 일어서는 데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구요. 그렇게 다르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이 다른 거예요. 동양문명은 종합적이예요. 서양문명은 방향적이예요. 갔다가는 돌아올 줄 모릅니다. 서양문명은 끝에 갔다가 돌아올 줄 몰라요. 돌아가려니 할 수 없이 동양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대 우주의 집, 방대한 집의 모든 것을 잡으려니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오늘 제목의 서론밖에 안 되겠기 때문에, 이

런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알아두라구요. 그러니 여러분도 서양 문화권 내에 있지만 반드시 동양문화를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팎이 돼요, 안팎이.

#### 상하좌우전후 관계로 되어 있는 이 세계

상하좌우전후예요. (판서하심) 이래야 자기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구도 그렇잖아요? 상하좌우전후, 이래야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알아서는 안 돼요. 뒤도 알아야 돼요.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동양과 서양과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로 말하면 서양문화와 동양문화 세계문화가 전부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구요. 하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때 옆드려서도 자고 옆으로도 자고, 이렇게도 자고 이렇게도 자지요? 어떤 것이 원칙이에요? 헨드릭스! 「바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왜 바로 누워 자느냐? 그렇게 바로 누워 자면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리도 해방, 발도 해방, 전부 다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구속(拘束)이에요. 배로 자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머리가 이렇게 돼요. (행동으로 보이심) (웃음) 그러나 이렇게 자는 것은 해방이에요. 그 모든 것은 이치에 맞아야 돼요.

#### 청량음료는 건강에 좋지 않아

여기서 배로 자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건 점수로 하면 70점이에요. 옆으로 잔다면 50점이에요. (웃음) 그렇지만 뒤로 자는 것은 백점이라구요, 백점. 재미있지요, 이런 얘기?

입은 만물이고... 입으로 뭘 먹어요? 뭘 하느냐 이거예요. 입으로



물 먹어요? 식사는 하루에 세 끼 하지만 물은 어때요? 여기 서양 사람들은 콜라니 뭐니 마시며 다니고 그러면서 하루에 아마 열 번 더 먹을 거라구.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배가 크다구요, 물배. 동양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아침밥 먹을 때 물 먹고, 점심 먹을 때 물 먹고, 저녁 먹을 때 물 먹고, 그 가외에는 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구요. 그럴 사이가 없어요.

옛날에 원시인들이 청량음료를 사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번 아침 먹으면 십리 백리 길을 왔다갔다 한다구요. 그러니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배가 나와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것은 서양 사람같이 물을 많이 먹는 세계에 필요하지, 물을 많이 안 먹는 세계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이 많이 나와서 무엇을 먹으면 좋다, 무엇을 먹으면 좋다 하는데, 물을 많이 먹지 말라구요. 그러면 변소도 안 가고 말이에요... 변소에 가면 갈수록 전부 다 몸이 훌쩍하게 돼요. 물을 안 먹고 변소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변소는 두 시간에 한 번, 세 시간에 한 번씩 간다면 여덟 번 가니까 아침에 먹은 물, 어제 먹은 물까지 몸뚱이에 남은 것이 4분의 3이라면 그것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보급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4분의 3의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4분의 3의 물이 있던 것이 나가니까 세포가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점심 저녁에 밥 먹고, 하루에 세 끼씩 밥 먹을 때 물을 먹더라도 하루에 여덟 번 소변보는 것보다 많이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밥 먹은 영양의 물까지도 전부 나가고, 남아진 모든 찌꺼기도 나가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금식할 때 물만 먹지요? 그렇게 금식할 때 살이 쪼

요, 말라요? 그것이 자연치료법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콜라 같은 청량음료수는 전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중간에 간식을 안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물도 안 먹는다고요. 그 대신 먹을 때 무엇이든지 먹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 상하좌우전후 관계로 이뤄진 가정

그래, 자기 위치가 상하좌우전후의 어디라고요. 하늘과 땅, 상(上)은 하늘이요, 하(下)는 땅이요, 좌우는 남자 여자고, 전후는 형제라는 거예요. 부자지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야 구형이 돼요, 구형.

모든 존재는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상현 하현, 우현 좌현, 전현 후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센터가 요것(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심)이에요. 센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空)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한 점을 중심삼고 전부 다 구형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 이것(센터)이에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럭키 플레이스(lucky place;행운의 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앙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계에 가도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도하고 말도 하고 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상하(上下)에서 ‘상’은 보이지 않아요. ‘하’는 보여요. 이 상하가 하나되어야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완전한 것이 돼요. 이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둘이 합해야 돼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되어야 돼요. 좌우가 있지요? 바른쪽 하나만 있어요? 바른쪽이 간다면 언제나 왼쪽이 가고, 왼쪽이 가는 데는 언제나 바른쪽이 가서 맞추어진 다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상하좌우전후가 있는데,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공기가 움직이게 된다면 여기는 언제나 공기가 들어와서 수평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수평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수평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멧덩구리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좌우의 남자 여자가 있고, 미래의 후손이 있다고요. 셋이 합해야 돼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상하가 되었으니 한 꺼풀, 이것(전후)도 주고받으니 한 꺼풀, 그 다음에 좌우도 주고받으니 한 꺼풀이 돼요. 꺼풀이 된다는 거예요. 씨는 상하의 껍데기, 좌우의 껍데기, 전후의 껍데기를 쓰고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씨는 반드시 단단해요.

그러면서 씨는 둘로 되어 있다고요. 씨는 길쭉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형이 되어 있지만 전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무리 싫더라도 부모가 필요해요. 상하도 마찬가지로 지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여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 하면 형제가 필요해요. 부모를 가져야 되고... 부모가 상하인 동시에, 부모가 좌우인 동시에, 부모가 전후예요. 그러니까 전후(형제)가 자라 가지고 부부(좌우)가 되어 가지고 상하(부모)가 되는 것 아니예요?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 부모를 부정하는 사람은 낙제짱이고, 부부를 부정하는 사람은 낙제짱이고, 자녀를 부정하는 사람은 낙제짱이에요. 우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패턴, 공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 못났든 잘났든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남자 여자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 아들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도 아들딸로서 자라 가지고 부부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 가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자녀,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는 부모, 이렇게 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하나예요. 이것이 가정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적인 존재 모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부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아들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완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 상대가 없어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하니까 그렇다고요. 순서가 그래요. 상하예요. 동양의 말은 우좌(右左)가 아니고 좌우(左右)가 되어 있어요. 그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우좌(右左)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후, 앞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미국 여자들은 남자를 대해서 명령하고 ‘여자가 제일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여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뭐 하버드 대학의 여자 박사고 무슨 박사라 하더라도 ‘세상을 대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마음대로 하겠

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요즘에는 배우들, 띠따라 노래하는 꺨들은 어디 가든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예술 하는 게 사람이 아니예요. 그것은 한 분야예요. 노래나 예술에서 사랑을 빼놓으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랑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파괴시키는 악마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 쉽다는 말이라구요. 사랑을 파괴시키는 거라구요.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며) 꺨테기 같은 것, 이것이 씨예요. 하나님께서 같이해야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상하가 하나 되었고, 좌우가 하나 되었고, 전후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한 꺨테기, 두 꺨테기, 세 꺨테기가 된 것인데, 이것이 플러스고 이것이 마이너스예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 하나님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같이. 사위기대와 삼대상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구요. 이것이 우주의 근본이에요. 사랑관계를 갖는 식물이나 동물세계는 이 원칙이 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아줌마, 씨 될 수 있어? 그러려면 부모가 되어야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되고, 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구요. 그래야 이 우주 가운데 영존합니다. 돌고 돌아서 영존한다는 거예요. 일년을 돌고, 천년 만년 돌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다!’ 그래요? 요즘에 ‘부모가 자식한테 못 이긴다!’ 하는데, 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굴러 나간 거예요. 굴러 나가떨어져 나간 것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상(上)이 없게 되면 밸런스가 없으니 굴러 나가는 것이고, 좌우에서 남편이 없어도 굴러 나가는 것이고, 아들딸이 없어도 후대가 없어야지 이 땅 위의 역사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가치 부정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여자도 망하는 거예요. 아들딸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일대에 끝납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예.」

#### 상하좌우전후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사랑

그래, 무엇을 갖고 연결하느냐? 힘을 갖고, 힘? 좌우상하전후를 무엇을 갖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돈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균형이 안 잡힌다구요. 지식 가지고 균형이 안 잡혀요. 하나만 더 알게 되면 ‘너는 내 말을 들어라!’ 하고,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될 길이 없습니다. 힘 가지고는 하나될 수 없는 거예요.

밸런스(균형)를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구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센터)에 있다구요. 러키 세븐의 자리라구요. 알겠어요? 「예.」 균형을 만들려면 상하를 하나 만들고, 좌우를 하나 만들고, 전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상하좌우전후를 하나 만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모든 것이 균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두고 볼 때 중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커 볼(soccer ball; 축구공)이 있지요? 그것이 태양같이 둥글다구요. 이것이 위로 밀어 주고, 아래로 밀어 주고,

전후로 밀어 주고, 좌우로 밀어 주기 때문에 등근데,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에서 당기면 다 찌그러지고, 여기에서 당기면 찌그러진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같이 밀어 주느냐 이거예요. 잡아당기든가 끌어내리든가 하면 전부 납작해지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무엇이 균형을 잡아 주고 같이 밀어 주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전체를 원만하게 크게 만드느냐 그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의 힘이에요. 참된 사랑은 투입하는 거예요. 받는 힘이 아니에요.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중앙에 있어서 위하는 세계는 자연스럽게 완성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센터에는 내가 없어요.

자기가 없이, 자기를 절대 무시해 버리고 출발하는 그 점이 영점(零點)이에요. 영점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와도 오케이(OK)예요. 주는 힘이 영속하니 들어오는 힘이 영속하기 때문에 영원히 구형이 됩니다. 만약 주는 힘이 약해지면 짝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공(空), 스페이스 에어리어(space area; 대기권)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천주는 전부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러키 세븐과 같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투입하는 거예요. 천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주면서, 운동하면서 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세계를 끌어들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는 힘이 있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되어 가지고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중심점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공기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사랑도 흐르다 이거예요. 빛은 어때요? 「흐릅니다.」 그러면 햇빛이, 달빛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요? 공기도 돌아가고, 물도 구름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햇빛은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달무리가 있지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태양이 있으면 수만 가지가 여기서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원소들은 이 운동을 우주에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달무리같이 전부 연결시켜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비치게 되면 그런 물질이 있는 데는 반응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구요. 흐르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흐르지, 그렇지 않으면 못 흐른다는 거예요. 손해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없어요.

천주를 고향과 조국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돼

오늘 말씀 제목이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인데, 천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집이에요.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형(球形)의 자리에서, 무형의 자리에서 전부 사커 볼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았으니까 자기가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반사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반드시 돌려주어야 돼요. 돌려주는 데는 하나님같이 받은 것보다 더 보태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었으면 큰 것이 오니까 더 커지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받은 것을 잘라먹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받은 것에 대해서 플러스시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도 낮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형님은 동생이, 동생은 형님이 훌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리는 사람은 부모의 소원이나 남편의 소원이나 형제의 소원이나 모든 만물의 소원이나 모든 우주의 소원에 합당한 것이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좋아하면 자꾸 계



속해서 더 나간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그래요. 봤는데 더 좋으면 자꾸 계속해서 커 가는 거예요. 부처끼리 허그(hug;껴안다)하고 키스를 하더라도 그래요. 맨 처음보다도 하면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죽자!’ 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걸 계속해 가지고 커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리고 무엇이고 없게 된다 이거예요. 자연 이치가 다 그래요. 이것만 알면 다 해결돼요.

자, 통일교회 교인으로서 누가 일등 되겠느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등 되는 거예요. ‘훈독회 말씀, 그 말씀보다 나는 더 하겠다.’ 할 때 통일교회 멤버원 맨이 되는 거예요. 제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잡아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비는 거예요. 전진이 아니고 후퇴입니다. 후퇴할 때는 어떻게 후퇴해요? 이런 것은 전진하지만 이렇게 후퇴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요. 발이 먼저 하든가 이래 가지고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미국 나라든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신세를 진 역사적 열매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 열매를 받은 이상 주겠다고 해야 세상 전체 앞에 비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높아 가지고 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다 알았지요? 「예.」

눈도 그래요.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눈이 확 떠진다고요. 그렇게 봤지만 그 내용이 더 좋은 것을 보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요. 평상시에 듣던 말보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귀가 춤을 추고, 냄새도 마찬가지로, 입도 마찬가지로.

‘천주는 나의 고향이다. 나의 조국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천주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가정적으로 환영하고, 국가적으로 보다 환영하고, 세계적으로 환영하고, 천주적으로 환영하고, 최고로 환영하

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는 거예요.

### 천주가 내 고향과 조국이 될 수 있는 자리

천주가 내 고향이고 내 조국이라면 그것은 여기에서 어떤 자리이겠느냐?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며) 여기가 고향이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이 점령한 분야 외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라구요. 영원히 여기도 만세, 여기도 만세, 여기도 만세, 여기도 만세, 저기도 만만만세 할 수 있는 고향이 어디냐, 조국이 어디냐 이거예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모두에 꼭 찼다 이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라구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통역자)」 보이지 않는데 꼭 차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완전히 빈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다 안 보여요. (판서하시면서 말씀하심) 이것을 들여다보게 될 때 이걸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안 보이던 것을 중심삼고 사는 것이 아니예요. 이걸 한 세계, 외적 세계라면 여기는 내적 세계를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외적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無)의 경지를 통하지 않고는 진짜 세상과 진짜 하늘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것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 미국, 미국이 미역국이에요. 낙제예요. 미역국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낙제예요. 미국이 안 보여요. 미국을 부정하고, 미국 사회니 무슨 회사를 다 부정하고, 그래 가지고 점핑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밖에 모르게 된다 이거예요. 있는 데도 하나님이고, 없는 데도 하

나님이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핵에 들어가게 될 때는 바깥에 있는 부체(副體)와 같이 전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체와 뼈까지,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세계,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보는 세계를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어

(판서하시며) 요 8단계로 보게 되면... 이것을 부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예요. 부정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세계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전부 다 세계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커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나와야만 이 두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까? (통역자)」 창조할 때 그렇잖아요? 무(無)에서 시작해서 만물까지 되고 사람이 지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 근원적인 것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하나되어 가지고 봐야 하나님이 보는 세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은 것을 전부 다 소화해 버려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다이제스트(digest; 소화하다) 하는 파워를 가지고 가는 존재가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다이제스트 해 가지고 영양분을 보충해 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먹어 가지고 클 수 있는 존재는 살아남지만, 먹혀 가지고 클 수 없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입으로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지? 무엇만 먹을래? 깨끗한 것부터 먹을 거야, 제일 나쁜 것부터 먹을 거야? 「맛있는 것부터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 있어.

여러분이 풀을 먹고 곡식을 먹고 무엇을 먹는데, 이 땅 위의 초목의 열매나 뿌리 같은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더러운 것, 비

료에서 자라는 거예요. 비료를 먹은 것을 우리가 또 잡아먹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먹는 것은 비료이고, 형상적으로 먹는 것은 야채고 곡식이 라는 거예요. 상징, 형상, 실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으면 먹은 그것이 호랑이에게 들어가서 뭐가 돼요? 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양소가 되고, 그 다음에 비료가 돼요. 비료를 받았으니 비료를 돌려주는 거예요. 비료 하게 되면 사람을 잡아먹은 비료가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내놓은 비료가 제일 귀하다는 말씀입니까? (통역자)」 그렇지. 사람이 제일 높으니까. 비료를 남겨 놓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라구요. 먹었으면 내놓아야 된다고요. (웃음)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부처끼리도, 아들딸도 다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앞에 ‘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호랑이끼리 잡아먹어요? 그건 남의 새끼도 보호하더라고요. 호랑이가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다른 놈의 새끼도 보호합니까? (통역자)」 그럼! 다른 놈의 새끼도 보호하더라고요. 호랑이만이 그래요. 야! 그래서 호랑이가 사자보다 귀해요. 호랑이는 독자적으로 다니지 떼거리로 다니지 않는다고요. 사자는 밤에 잡아먹지만 이건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잡아먹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사자는 자는 것을 잡아먹으려고 밤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호랑이는 혼자 다니는 거예요.

한국 호랑이가 제일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놈들은 새끼를 낳은 다음에는 한 2년 동안은 이별해요. 이별하고 2년 후에 그 새끼들이 장성해 가지고 자랄 수 있을 때 찾아와 가지고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매해 새끼를 낳다가는 큰일나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다가는 큰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의 먹이가 어디에 많아요? 땅에 많아요, 공중에 많아요, 바다에 많아요? 어디에 많겠나 이거예요. 어디에나

딱 차 있어요.

자, 고기들은 고기만 잡아먹나요? 곤충은 안 잡아먹나요? 개구리 같은 것, 도마뱀 같은 것은 안 잡아먹나요? 그거 알아요? 물에 살면서도 육지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잡아먹어요. 야! 그거 참 놀랍다구요. 육지의 동물들도 고기도 잡아먹고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것도 다 잡아먹어요. 날아다니는 것도 고기도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어요. 그래요? 「예.」

### 우리의 고향은 지구성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싶어요? 「고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웃음) 그래, 고향하고 조국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어디예요? 「천주입니다.」 천주라는 것은 지구성도 들어간다고요. 고향은 천주 가운데 있지만 지구성이고, 조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예요. 조상이 하나님이라구요.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주라고 하면, 뭐 태어나기를 공중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지구성이지요. 이 세계라구요. (웃음) 고향 땅이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아니예요. 지구성이예요. 지구성이 고향이에요. 그 고향이 어디냐, 지구성의 어디냐 할 때 플로리다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이라고 하고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국 한계권 내에 가두어 놓는 것이다! 튜! 침 뱉어 버려야 돼요. (웃음) 좋아요? 차도 발길로 차는데 뒷발로 차고 옆발로 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라구요? 여기 미국 놈들, 그놈들은 쌍놈의 새끼들이지. 미국 플로리다, 워싱턴, 재팬(Japan), 코리아(Korea) 하는 것은 쌍것들, 쌍놈의 자식들이예요. 타락한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식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말이라구요.

세계, 천주가 내 고향입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의 아들딸, 같이 낳은 형제가 사는 곳이 고향이고, 부모가 사는 곳이 고향인데, 타락하지 않은 이 지구성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말이 맞는다 그말이라구요.

자, 낳다 보니 흑인이 나왔고, 낳다 보니 황인종이 나왔고, 낳다 보니 백인이 나왔어요. 그것이 누구 아들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봤어요? (웃음) 봤어요, 안 봤어요?

보나마나 주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맨 대장 주인인데 우주의 이래도 대장, 동으로 가도 대장, 서로 가도 대장, 상하로 가도 대장, 좌우로 가도 대장, 이 모든 대장이 러키 세븐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라구요. 하나님이 대장이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 흑인의 색깔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백인은 서서 다니는데 흑인은 기어다니더라!’ 그러면 다른 거예요. 백인이 흑인을 대해 ‘야, 너는 백인인 나를 닮았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백인이 걸어다니는 것을 자기 닮았다고 할 것 아니예요? 같다 그말이라구요. 「흑인이 서게 되면요? (통역자)」 흑인도 걸어 다니니까 백인이 말할 때 기어 다녀야 나를 안 닮았고 하지, ‘걷는 것이 나를 닮았구나.’ 하는 거예요. 같다는 거라구요.

웃는 것을 봐도 ‘야! 나 닮았다.’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노래도 못 하는데 노래하게 되면 박자에 맞춰 자동적으로 춤을 춘다. 야, 나 닮았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이들도 그렇다고요. 우리 한 살 된 손자가 노래하게 되면 이려고 있더라구요. (행동으로 보이심) (웃음. 박수)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추는지 모른다고요. 왜 웃어요? 선생님이 못 하는 것이 있나? (웃음)

그러니까 ‘전부 나 닮았다.’ 한다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야, 내가 하는 노래를 하네! 나 닮았다.’ 한다고요. 백인이 하는 것을 흑인이 못 하는 것이 없고, 흑인이 하는 것을 백인이 못 하는 것이 없다가

요. 그러니 다 닦았어요. 밥 먹는 것도 손으로 먹어요, 발로 먹어요? 원숭이는 발로도 잘 먹고 손으로도 잘 먹더라구요. (웃음)

그래, 안 닦은 것이 어디 있어요? 흑인 남자 여자가 좋아하고 키스 하는 것도 백인보다 낫고, 사랑하는 것도 더 열렬히 하고, 훌륭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암놈 수놈끼리 말입니까? (통역자)」 흑인이 백인보다 말이에요. 이 사람(통역자)은 모른다구요. 「원숭이라고 그러셔서.」 (웃음)

동물도 몸 빛깔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데 인간도 그래야

흑인들끼리 말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지금 원숭이가 말한다.’고 알아야, ‘사람들이 말한다.’고 알아야? 남자 손이고 여자 손이고 사람은 같아요. 다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변소에 가서 소변 보는 것도, 똥 누는 것도 마찬가지라구요. 남자 여자가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은 엮드려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라구요.

그런데 하나 틀린 것은 뭐냐? 다 마찬가지예요. 가죽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피도 있어요. 그 살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를 벗기면 마찬가지라구요. 피도 마찬가지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틀려요? 피부색이라구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백인은 뭐냐 하면 폴라 베어(polar bear;북극곰) 레이스(race;인종)예요. (웃음) 그렇다구요. 백인은 눈(雪)만 있으니까, 눈만 보니까 얼마나... 그리고 동물은 뭐예요? 색깔 맞춰서 변화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보호색이라고 그러합니다.」 보호색이 있기 때문에 눈만 있는 데 가서 사니 하얗 수밖에 없다구요. 사람이 그런 눈 가운데서 사는데, 전부가 하얀데 물은 먹어야 되거든. 밥을 먹더라도 사람 몸의 4분의 3이 물이니 물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가운데 물이 어디 있나 하고 찾다 보니 눈알이 물빛, 보호색으로 안 될 수 없어요. (웃음) 그렇다구

요. 보호색이라구요.

그래, 머리까지 하얗게 되면 좋겠는데, 오색 가지예요. 나무 빛이 얼룩덜룩하니까 백인사회는 머리색이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별의별 얼룩덜룩한 것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이 할머니도 보면 브라운 컬러도 있고, 흰색도 있고, 오색 가지라구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거예요. 기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먹고 사느냐? 동물을 먹고 살아요. 매일같이 피를 봐야 돼요.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아이고, 좋아라!’ 그러는 거예요. 백인들이 가는 역사 과정에서는 피를 흘려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남북미 대륙의 인디언들을 누가 다 없애 버렸어요? 흑인이에요, 황인이에요? 「백인입니다.」 \*백인들이 미대륙의 첫주인이었던 인디언들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백인이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기독교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백인은 북극곰 레이스라구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해 가지고 영국 섬을 중심삼고 활동했는데, 영국이 뭐예요? 해적단 기지예요, 해적단 기지. 그거 맞지요? 「예.」 뭐 잘한 것이 없어요. 세계를 점령해 버렸다구요.

그 다음에 동양 사람은 뭐예요? 브라운 베어(brown bear; 갈색곰)라구요. (웃음) \*코디악이 브라운 베어가 사는 곳입니다. 몸집이 엄청나게 커요. 다른 동물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브라운 베어가 파워풀(powerful; 강력한)하니까, 황인종도 다른 인종들보다 파워풀한 것입니다. 브라운 베어가 그렇지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브라운 베어하고 플라 베어하고 만나 둘이 살면 자동적으로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같이 삽니다.」 그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강제로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목장을 보더



라도 흰말도 있고 검은말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섞어져서 결혼하더라구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자연히 그런 것을 좋아하니깐, 선생님도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하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자연히 결혼하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놀음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연적인 행동을 하는데 세상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선생님을 좋아해요? 「예.」 노(No), 노! 여러분도 처음에는 전부 다 반대하다가 모든 것을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아, 나도 레버턴 문을 따라가겠다.’ 해 가지고 축복받은 것 아니에요? 그게 통일교회의 축복결혼이더라 이거예요. 안 그래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 세계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어야

흑인과 백인과 결혼하는 것이 북극과 남극이 합하는 거예요. 흑인은 전부 열대권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과 좋아해서 결혼하게 되면 건강한 후손을 낳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동물세계를 보면, 바다에 사는 고기는 반드시 담수 세계에 가 가지고야 알을 낳고, 담수에 사는 고기는 반드시 바닷물이 있는 데 가서야 아기를 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새들도 그래요. 철새들을 보게 되면 열대 지방에 있는 것이 온대나 한대 지방에서 나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거기 가고 거기에서 새끼치는 거예요. 바뀌치는 거라구요.

요즘에 백인들은 전부 육식만 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난자나 정자가 전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남성이면 남성의 사랑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고기 먹어 보고 싶어요? (웃음) 그래, 사자 고기 한번 먹어 보고 싶지 않아요? 뱀 고기 먹어 보고 싶지 않아요? 으으! 으으으 으으으! (웃음) 그것이 다 약재예요, 약재.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재라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가 천태만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태어나서 거기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세계의 지구성 어디든지 자기가 좋은 곳을 찾아가서 세계의 것을 다 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호박은 크잖아요? 한국 호박은 작지만 미국 것은 크다구요. 큰 호박 먹는 것하고 작은 호박 먹는 것이 다르다구요. 작은 호박은 전부 다 원소들이 뭉쳐 있는 것이고, 큰 것은 물이 많이 들어가서 커진 거라구요. (웃음) 여기 사람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자꾸 많이 흡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구요. (웃음) 북쪽에 가게 되면 열매도 딱딱하고 남쪽에 가게 되면 물렁물렁한 물 많은 열매라구요. 땀이 나니까 물을 보충하게 한 거라구요. 자연이 어떻게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다구요.

자,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은 1대에 있어서 백인 며느리와 사위, 흑인 며느리와 사위, 황인종 며느리와 사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이 이상적이겠어요, 백인만 흑인만 황인종만으로 이룬 가정이 이상적이겠어요? 「1대에 말입니까? (통역자)」 3대를 중심삼고. 3대가 사위기대니까. 「섞여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럼 음식도 섞인 음식이 좋아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웃음)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봄 절기에 나는 음식을 해먹고, 점심때는 여름 절기의 음식을 해먹고, 저녁때는 가을이니까 가을 절기의 음식을 해먹고, 밤에는 겨울 절기의 음식을 해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든 배탈이 안 납니다. 물을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먹고, 남쪽, 북쪽, 어디 가서 먹더라도 배탈이 안 난다구요.

아침에는 미국에서 먹고, 점심은 일본에 가서 먹고, 저녁은 런던에 가서 먹고, 밤에는 상파울루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를 그렇게 먹는다면 매일같이 배탈이 나겠나, 배탈이 안 나고 사시장철 건강하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어디 가서 사철 일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더라도 배탈이 안 나고 건강하다구요.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맵고 짠 한국 음식을 먹으면 배탈나지요? 선생님은 여기서 햄버거를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수프를 먹더라도, 어디 남쪽에 가서 무엇을 먹더라도, 고기를 삶아 먹든 생식을 하든 끄떡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이라고 있다구요.

그래,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 전부 다 달리 세계의 어떤 음식이든 먹고 소화하고 기쁘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한 곳에 붙어 가지고 취직해서 일년 열두 달, 10년 같은 데서 살고 싶어요? 「아버님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같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같이’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사람이 먹는 것은 다 먹고 싶겠나요, 안 먹고 싶겠나요? 「먹고 싶겠습니다.」

내가 여기 악어 한 마리 큰 것을 잡아 놓고 ‘야, 악어 고기 맛있게 먹자!’ 하면 낡낡 맛있게 먹을 거예요, 맛없게 먹을 거예요? 25피트짜리 악어가 있다구요. 여러분 세 사람을 한꺼번에 먹어 버릴 수 있다구요. 그 악어 고기를 요리해서 바다에 던져 주면 바다의 고기 종류는 안 먹는 종자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 종류는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이론이 인간세계에 맞겠느냐, 바다세계에 맞겠느냐, 동물세계에 맞겠느냐? 인간세계는 꼴찌가 되어 있으니 큰일났다는 거예요.

「삶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 주면 말입니까? (통역자)」 악어를 삶아 가지고 나누어 주면 무슨 고기든 서로 먹겠다고 야단할 텐데, 인간세

계는 전부 다 이래 가지고 있으니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간이 꼴찌지요? 문명인들, 미국 사람이 제일 꼴찌일 거라구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먹어야 튼튼하게 되어 있지, 한 쪽만 먹게 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은 흐르고 흐르는데 겨울이 되면 얼어요. 눈이 돼요. 마찬가지로요.

###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못 먹을 것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사람도 전부 어디 가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을 먹더라도, 낮에 먹으나 밤에 먹으나, 더운 데서 먹으나 찬 데서 먹으나, 자면서 먹으나 깨서 먹으나 설사하지 않고 건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을 한번 맛보고 살자. 먹어 보고 죽겠다.’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구석에서 이것만 먹겠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모든 것을 맛보고 살겠다는 사람들…」

움직이는 물건들만 먹겠어요, 안 움직이는 물건도 먹어 보겠어요? 사람의 대변까지도 약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약, 약, 약! 이 약이 제일 귀중한 약이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오줌 먹기 레이스(race;경주)가 생겨났다고요. 그거 알아요? (웃음) 오줌 중에도 남자에게는 여자의 오줌이 약이고, 여자에게는 남자의 오줌이 약이더라 이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다가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강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웨이스트(waste;쓰레기), 큰 쓰레기를 한번 싹 해보라구요. 붓 뜨게 되면 무슨 고기, 무슨 고기 오만 가지 고기가 ‘아이고, 잔칫날이다!’ 하고 야단이 벌어져요. (웃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동물들의 똥은 식물이 전부 받아먹고 있다가요. 고기들도 잡아먹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을 텐데, 자연사한 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바다에서 다 먹게 되어

있다고요. 갈매기도 먹고, 큰 고래들도 먹고, 청소부들이 다 먹게 되어 있다고요.

동물들의 이빨을 누가 지었겠어요? 이빨이 저절로 생겨났어요? 이빨이 왜 생겨났어요? 굳은 것을 먹고 부수기 위해서 생긴 거라고요.

다윈이 진화론을 중심삼고 약육강식(弱肉強食)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틀려요. 고래 새끼들도 자기보다 큰 놈을 잡아먹어요. 「자기 새끼를 말입니까? (통역자)」 아니, 자기 새끼가 아니라 다른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고래 새끼도 조그마한 아기 같은 것은 한꺼번에 삼켜 버리는 거예요. 짐승이든 무엇이든 다 삼켜 버린다고요. 「다른 고기를요? (통역자)」 그렇다구. 전부 잡아먹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입이 큰 녀석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삼켜 버려요. 알겠어요? 고기가 큰 고래 같은 것이 많아요, 조그마한 고기들이 많아요? 아마존 강에 가면 고기가 3천6백 가지 종류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뭘 먹고살아요? 물을 먹고살지요, 물? 물을 먹고살아요, 뭘 먹고살아요? 뭘 먹고사느냐 말이에요. 자기보다 조그마한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든 뭐든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 죄가 아니에요. 왜, 누가 먹히려요?

자, 그러면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새끼가 얼마나 많으나? 그 알을 보게 되면 먼지 알갱이보다 더 작아요. 수천 수만이에요. 조그마한 고기의 알을 보면 ‘어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큰 고기일수록 알이 적어요. 몇백만 개의 알을 낳는 고기들이 많다고요. 그것이 까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형님 고기든, 삼촌 고기든, 할아버지 고기든 그렇다고요. 그것은 평등이에요.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고 살아라 그말이에요.

사람은 일년에 자식을 몇이나 낳아요? 토끼 새끼처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끼 같은 것은 열 마리도 낳고, 일년에 다섯 번이

나 낳는다고요. 「와!」 와! 그 소리는 늑대같이 ‘와, 먹을 것이 많다!’ 그말이라구요. (웃음) 쥐 같은 것은 한 달에 몇 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많이 잡혀 먹기 때문에 번식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백 배, 몇천 배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구요.

보라구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은 사냥을 다니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밤에 다녀요. 한 시에서 세 시, 네 시까지예요. 먹기 위해서는 1백 리 이상, 4백 리까지 다니니까 얼마예요? 1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움직여야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곰 같은 것, 목직한 곰들은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쿵쿵 하고... 그런 꾀들은 향기, 냄새가 바람에 스며 날려오는 것을 맡고 설렁설렁 찾아가 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 다 맞게 되어 있다구요. 그것을 누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어요? 여러분도 잡아먹지요? 만물의 영장이니까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구요. 그렇지요?

하나님 이상 사랑하면 무슨 존재든지 좋아하게 돼 있어

여러분은 앞으로 호랑이를 길러서 타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싶습니다.» 문제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매일같이,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모래, 점점 더 사랑하면 자기 암늬보다도, 자기 수놈보다도, 어미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예요. 자기 어미 아버지를 잡아먹으면 잡아먹었지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 사랑 받고 주인 앞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언제 죽겠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니까 주인 앞에 죽게 되어 있다구요. 잡아먹든가 뭘 하든가, 죽을 자리에 보내든가 ‘나는 당신 때문에 죽겠

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기를 바치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잡아먹으쇼.’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물을 하나님 이상 사랑하고 잡아먹게 되면 병이 없습니다. 건강할 것이다 이거예요. 호랑이보다 건강하고, 만물보다 건강할 것이고, 초목보다 건강하고, 어떠한 만물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노멘이 아니고 아멘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자르딘에서 김윤상 원장보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제일 원수인데 이것을 한 집에서 살게 해주어라.’ 해서 밥을 같이 주고 했더니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것 참! 그런 일이 생겨나요. 고양이가 개를 찾아다니면서 ‘야옹, 야옹, 야옹, 야옹!’ 그리고, 개도 ‘멍멍멍!’ 이라고 찾더라고요. (웃음) 그거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사를 방에서 한 백 마리 기르면서도 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겨울에 사타구니에 열 마리, 백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끼어 자려고 한다는 거지요. (웃음) 그렇다구요.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행동으로 해보이십)

사랑을 싫어하는 것은 없어요. 참사랑을 싫어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열 식구가 살더라도 고양이를 아기가 더 사랑하면 아기한테 가서 품기지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면 안 간다구요. 안 그래요? 아기를 보게 되면 ‘야옹, 야옹!’ 하면서 가지만 할아버지를 보면 ‘야옹, 야옹, 야옹!’ (울음소리를 달리하십) 그러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웃음) \*그거 맞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안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

그렇게 사랑이 귀한 거예요. 주는 사랑을 받고 강도질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돌려보내 주고, 동물도 돌려보내 주고, 만물도 돌려보내 주는데, 인간만이 돌려주지 않는 강도단, 사기단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은 지옥 가야 됩니다.

### 아버지가 사는 곳이 본연의 조국

여기에는 오색 가지의 나라, 별의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와서 전부 다 조국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조국과 고향은 한 곳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성은 고향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조국은 안 된다 이 거예요. 조국은 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사는 곳이 본연의 파더랜드(fatherland; 조국)인데,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가치와 레벨이 상속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본연의 파더랜드가 내 파더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기 일본 식구들 손 들어 봐요. 어후! 10년만 되면 일본 사람이 미국 땅을 점령해 버리겠네. 일본 사람들은 아들딸을 많이 낳는다고요. 자꾸 낳아라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고 도망간다고요.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은 자연 멸망이에요.

우리 통일교회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꾸 낳으라고요, 자꾸. 블레스(bless; 축복)예요, 플러스(plus)예요? (웃음) \*블레스 커플은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커플이라고요.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우리 축복가정들은 이제부터 플러스 커플이라고 하라고요. 「아멘!」 21세기는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10일이 넘고 나서는 플러스 커플이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웃음. 박수) 플러스하려니까 여편네한테도 빛 안 지고, 남편네한테도 빛 안 지고 서로 빛 지우지 않고 플러스하니까 플러스 커플이기 때문에 플러스 자녀가 태어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21세기의 통일교회는 플러스 커플



이라고 하면 블레스 커플이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레이스예요? 유니피케이션(unification;통일) 레이스예요. 거기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오색 인종이 있다가요.

여러분은 흰 옷이 좋아요, 브라운 옷이 좋아요, 블랙 옷이 좋아요? 「레인보(rainbow;무지개빛깔)！」 와! (웃음) 믹스트(mixed;섞인)한 것이 좋아요. 섞여야 돼요. 얼룩덜룩하고 다 섞여야 된다가요. \*그래서 통일교회의 축복가정들은 얼룩덜룩한 가정들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러분 고향이 어디라구요? 「지구성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과 혈통이 연결 안 돼

보라구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혈통, 셋째 번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삼위일체예요. 컬러에도 3원색이 있고, 비료에도 3원소가 있다가요. 알겠어요?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핏줄이 달려 있어야 돼요. (판서하시며) 핏줄이란 생명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조상이라구요. 이래 가지고 핏줄을 연결시켜 가지고 상하전후좌우를 중심삼아 가지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구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혈통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역사와 연결되는 사랑이요, 그리고 생명과 연결되는 사랑이예요. 혈통이 연결되지 않고, 생명이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이걸 뺏골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지백체가 일시에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편적 수단적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은 누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혈통을 빼 버리더라도 전부 깨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도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요. 생명이 있더라도 사랑을 중심삼고 혈통적 인연이 안 되어 가지고는 생명이 연결 안 된다구요. 사랑은 영원한 역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과거·현재·미래를 통하더라도 하나님의 핏줄이 꼬불꼬불할 수 없다구요. 죽 끈은 거예요. 수천 대, 수만 대가 이렇게 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참사랑은 참생명과 참혈통으로 어디든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일대에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참혈통·참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환고향,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참된 사랑을 가졌느냐가 문제입니다. 참된 혈통을 가졌느냐? 참된 사람이 되어서 참된 사랑과 참된 혈통과 참된 생명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이상으로 바라는 결론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상적이 되느냐? 이상적인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혈통,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닮은 사람들이 완전한 하늘나라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다! 아멘!

### 순전한 혈통을 남기려면

커플은 뭐냐? 왜 결혼해야 되느냐? 이 전통을 과거와 같이 오늘, 오늘과 같이 미래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동양 서양 어디라도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어떤 혈통을 만들어야 하느냐? 여자로 말하게 되면 잡동사니 혈통을 만들 거예요, 순전한 혈통을 만들 거예요? 순전한 것은 하나예요. 본래의 남편을 통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남이 먹던 밥을 먹는 것이 좋아요, 숯밥을 먹는 것이 좋아요? 「뉴 푸드(new food; 숯밥)!」 뉴 푸드? 다 그렇지요? 아기가 눈을 뜰 때 무엇을 먼저 볼까요? 아버지를 먼저 볼까요, 어머니를 먼저 볼까요, 집의 아름다운 사진을 볼까요, 보물을 볼까요? 누구를 먼저 봐요? 아버지를 먼저 보겠어요, 어머니를 먼저 보겠어요? 「마미(mammy; 어머니)요.» 왜 마미예요? 마음(마미)을 주는 마미니까 마미를 먼저 봐야지요. 「마미를 주니까요?」 마음이, 마음이. 「오(Oh)!」 (웃음)

그리고 입이 무엇을 먼저 맞추려고 해요? 어머니 입을 먼저 맞추고 싶겠어요, 아버지 입을 맞추고 싶겠어요? 「마미!」 마미예요, 마미. 젖을 주는 거예요, 젖. (웃음) 왜 웃어요? 이게 보화예요, 보화. 제일 귀한 거예요.

동양 같은 데서는 말이예요, 시아버지 앞에 젖을 보이게 되면 여자 중에 제일 나쁜 여자로 보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별거벗고 두 젖을 다 보이며 이렇게 먹이더라도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참사랑이.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지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아기로서는 어머니를 만지고,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뒤떨어져요. 그 아기를 키워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세계에서도 새끼를 기르는 것은 어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식이에요. 새끼를 기르는 것은 아비는 못 해요. 어머니가 전부 기르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다 그래요.

그래, 어머니의 사랑이 두터운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두터운가요? 「어머니의 사랑이 두텁습니다.» 왜? 어째서? 「……」 어째서? 아기들은 전부 어머니 몸의 분신체입니다. 어머니 몸의 분신체라구요. 피, 살, 뼈 할 것 없이 전부 어머니 것을 나누어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실체요, 자기의 몸, 제2의 나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한테서 전부 갈라져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타락하기 전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대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지만, 타락한 후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혈통의 귀중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아담 해와는 본래 태어나기를 어느 핏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핏줄을 받았으면 핏줄을 연장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담의 아들딸이 하나님의 손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손자가 못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의 핏줄을 받았어요? 크게 대답하라고요. 「사탄!」 사탄의 핏줄을 받았어요. 사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그래, 간부(姦夫)라고요. 제일 나쁜 자(字)예요. 사랑의 원수를 간부라고 한다고요. 이 ‘간(姦)’ 자는 여자 셋이라구요. 사랑의 원수입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사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무슨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원수냐 하면 음란한 행동을 하는 신이예요. 음란한 신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해와의 뱃속에 들어 있을 때, 그 자궁에 임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하나님의 딸을 임신해야 할 자궁인데 사탄의 아들딸을 임신한 자궁과 그 몸 전체가 얼마나 비참했겠느냐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에서 여자가 생겨날 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왕자님을 모실 수 있는 나다.’라고 생각했겠어요? 통곡하는 입장에서 ‘왕자가 아니라 사탄세계의 마피아 같은 것을 만나겠구나.’ 생각하고 얼마

나 슬퍼했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와 사탄세계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배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타락한 핏줄을 이어받아 낳은 후손들이 여러분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릇된 사랑으로 그릇된 혈통을 통해 그릇된 생명으로 태어난 나

그것을 생각할 때, 본연의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평화와 사랑 가운데 안겨 가지고 희희낙락할 수 있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바탕을 이어받은 것이 조여들고, 떨고, 비참하고, 형편이 없는 나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거울 안 보는 사람 손 들어요. 없지요? 세수도 안 해, 이 녀석아? (웃음) 거울을 볼 때, 머리카락에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 입었어도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놈의 눈을 볼 때도 ‘너도 사탄의 눈이구만. 하나님의 원수의 눈이구만.’ 이렇고, 코도, 입도, 귀도, 몸 전체가 하나님이 환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로 말하게 된다면 본래의 남편을 중심삼고 아기를 배야 할 텐데 강도한테 겁탈 당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할 때, 그 아기를 보는 전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야 되는 거라고요. 보는 것도 싫어진다구요. 그것을 바라봐도, 냄새를 맡아 봐도 전부 반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원수지간의 두 아들딸이 그렇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타락한 세계의 사람도 그런데 본연의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180도 다르다고요.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여자가 사랑하겠다고 남자를 찾아가고 나타나고 말이에요, 그런 말할 수 없는 남자가 사랑하겠다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야, 잘한다.’ 하겠어요? 벼락을 쳐 버리고 싶은 거라구요.

자, 결혼하라고 하겠어요, 죽도록 결혼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뭐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나겠나요, 안 나겠나요? 지옥으로 거꾸로 처벌는 거라구요.

혈통적으로 그릇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혈통을 통한 그릇된 생명을 지니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 이 모든 자체를, 슬프고 원통한 그 마음을 풀고 원수의 마음을 풀려고 마디마디 세포와 같이 해서 날려 버려도 그 세포가 날아다니는 것을 봐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불살라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수, 혈통의 원수, 생명의 원수가 이렇게 무서운 경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옥과 천국만큼의 경계선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원수의 아들딸을 자기 아들딸보다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의 아들딸들을 자기 아들딸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없어진 자리예요. 나지 않은 자리라구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딸보다 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 남지 않게끔, 그것을 중심삼고 키워서 구원하자는 거예요. 구원섭리가 그래요. 투입하고 투입해 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수증시대·공기시대·태양시대의 길을 가게 돼 있어

백지에다가 먹으로 글을 쓰면 고무로 지우는 것이 아니예요. 물로 씻는다고 하더라도 천년 만년 가도 씻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소모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타락한 생명보다 더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입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들어가 누워 있다 하면 그 아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갈 세상이 어디야? 태어나 가지고 어디로 갈 거야?’ 이럴 거예요. 여기 어머니 몸뚱이가 타락한 몸뚱이예요. 여기는 아버지의 정자하고 어머니의 난자가 합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씨도 들어와 있다구요. 타락을 해 가지고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짓 혈통으로 말미암은 거짓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 거예요.

하나님은 복중에 임신된 아기가 비참해하는 것을 듣겠나요, 못 듣겠나요?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압니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너 불쌍하다.’ 할 수 있어요? 기가 찬 일이에요. 그것이 수천 대라구요. 한두 가정이 아니예요. 지금 60억 인류의 수많은 가정이 되어 있다구요.

그 아기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 뱃속의 수중시대, 그 다음에 육지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가지고는 만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 복중과 같은 것이 지구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을 받아 자라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다 파괴시켜 버리고 이 땅에서 영양을 보급받는 거예요.

제2의 부모가 땅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땅을 사랑해야 돼요. 땅이 사람에게 사랑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제일 사랑하는 거라구요. 우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래 가지고 물 시대서부터 공기시대, 그 다음에는 태양시대로 가는 거예요. (판서하시면서) 여기는 육지시대, 여기는 태양시대라구요. 이 건 지구성 시대지요? 「예.」 입은 물이에요. 이것(코)은 공기시대입니다. 입은 물을 마셔야 되고, 코로는 공기를 마셔야 되고, 눈은 태양시대예요. 빛을 말해요.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물도 흐르고, 공기도 흐르고, 태양 빛도 흐른다는 거예요. 눈이 균형이 되어 있느냐, 수직이

되어 있느냐를 감찰하는 거예요.

수중시대, 그 다음에는 육지시대, 태양시대입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전체 사람에게는 3시대인데, 이것이 하나의 카테고리(범주)에 들어가 있다구요. 이걸 영계예요, 영계.

태양을 중심삼고 보면 태양계는 낮이에요. 지구성은 밤낮이 있어요. 그러나 영계는 언제나 밝아요. 여기서의 물 시대, 공기시대, 그 다음에는 사랑시대예요. 사랑은 언제나 꺼져서는 안 돼요. 태양 빛과 같이 밤이나 낮이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북극이나 열대지방이나 남극이나 어디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시대, 영계에 가는 거예요, 영계. 영계는 춘하추동의 모든 것이 열매 되는 것을 거두는 창고와 같은 곳인데, 그것이 태양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본래 태양시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고 본연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화(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 자체도 기쁨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로 기쁨 가운데서 태어나 가지고 만물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입장에서 먹고 이래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이 전부가 반대예요.

여기에는 타락하지 않은 부부,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혈통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참사랑과 혈통이 연결된 생명으로 출생한 사람은 역사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고독단신이에요.

그릇된 사랑·생명·혈통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메시아 사상

그러면 본연의 이런 사람들이 지구성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어디냐? 그런 사람의 고향이 지구성이예요. 미국도 없고, 모든 이런 잡동사니가 없다구요. 그럴 수 있는 세계에 거짓 사랑과 거짓 혈통과 거짓 생명이 웬 말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슬퍼하고, 땅이 슬퍼하고, 인간이 슬퍼하고, 만물이 슬퍼하는 세계가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 모양으로, 악마의 세상, 멸망의 세계, 절망의 세계를 만들어 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될 수 없는 실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된 것을 없애 버려야 할 하나님, 본연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쌍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중심 삼고 복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부모나 나라나 전부를 완전히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숙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구요.

이런 모든 핏줄을 어떻게 맑히고, 생명을 어떻게 변경시켜 가지고 어떻게 참사랑의 자리를 찾느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해방된 주인 될 수 있는 하나의 남자, 그것을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구원섭리사에 있어서 주류의 표준으로 삼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예요.

메시아는 뭐냐? 거짓 사랑의 주인이 악마가 되어 있고, 거짓 사랑의 생명, 거짓 사랑의 혈통의 주인이 악마가 되었으니, 참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참사랑의 혈통과 참사랑의 생명이 하나님이 된 그러한 혈통적 관계로 맺어진 아들, —부자지관계예요. 부자지관계는 핏줄이 연결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구요.— 그럴 수 있는 아들로 이 땅 위

에 태어난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민을 준비해 선민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 가지고 접붙여서 동등한 가치를 중심삼고 세계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이 모든 전부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주가 왔는데, 재림주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비단 원단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천지부모의 자리를 거쳐 하늘로 연결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서하시며) 참감람나무가 와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돼요. 그래 접붙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메시아의 몸과 같이 되었으니 하늘땅이 다 환영하고 천지가 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못됐으니 메시아는 가정 기반을 중심삼고 바로잡아야

메시아가 출발한 것은 뭐냐? 아담 해와의 가정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삼고 기반을 갖지 않고는 안 돼요. 그 가정이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한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훌륭하게 모실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탕감해 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메시아는 뭐냐 하면, 참사랑을 중심삼은 아버지 자리에서 참사랑의 혈통을 먼저 연결하고, 참사랑의 생명으로 비로소 출발하는 주인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메시아요 참부모다 이거예요. 그 주인 양반을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이상 가치의 존재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혈통적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니 중생이니 부활이니 하는 것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는 사탄세계의 사랑을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

류가 있다면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 점짜리 남자 여자, 백점 짜리 가정, 백 점짜리 종족, 백 점짜리 민족, 백 점짜리 국가, 백 점짜 리 세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아까 말하기를, 축복받은 가정이 무슨 가 정이라고요? 「플러스 커플입니다.」 말은 아는구만! 그래, 내용이 어때 요, 내용?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혈통이 없어요? 북극의 백 곰이 와서 만든 것이 미국 나라라고요. 그것이 도적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적놈, 사기꾼들이라고요. (\*부터 영어로 말 씀하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자체가 이것을 씻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돌아 가면 영계의 천국 문은 들어가지만 들어가 가지고도 8단계의 길이 남 아 있어요. 그 세계에 가서는 여기서 일년에 할 것을 천년에도 정화 못 합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그러니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몇백 배, 몇천 배 땅에서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쉽지만 그것이 쉬워요? 어차피 이것은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된다고요.

세상 끝날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확실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혈통, 핏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핏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억천만세 수고했고, 수많은 도주들, 인 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기 위해 수고한 거예요. 핏줄 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이 아니고는 핏줄을 이어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넘어서, 타락한 세계의 생명을 희 생시키면서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길을 가지 않고는 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란 사탄권에 속해 있다구요. 사탄이 컨트롤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것이 큰 문제라고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알겠어요? 「예.」

### 8단계 복귀의 길을 가야 할 인간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을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얼마만큼 되었어요? 여자가 복중에서 태어날 때 그 여자가 바라는 소원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자는 앞으로 만날 남자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복중시대를 거쳐서 유아시대로부터 형제시대, 약혼시대, 부부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여왕시대까지 8단계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희망적인 여왕의 자리에 서 가지고 천지의 대주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8단계라구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러니 여자가 이렇게 커 가지고 남자를 만나 왕후가 되고, 여왕이 되고,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계승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혼시대가 있었고, 결혼시대가 있었고, 부모시대가 있었고, 조부모시대가 있었고, 왕의 시대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인간의 소망이 그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구요.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태어나서도 그런 단계를 통해서 복중시대로부터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시대를 거쳐 왕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애에 모든 하는 것은 남자로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사명입니다. 여자가 그런 자리를 못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 조건을 대신 배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래 여자나 남자나 왕과 왕후의 자리를 향해서 8단계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모델을 거쳐 나가야 된다고요.

영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아버지고 참부모도 아버지요요. 하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이고, 참부모는 보이는 아버지라구요. 상하 관계입니다. 좌우는 부부 관계이고, 그 다음에 형제 관계라구요. 아담 완성, 그 다음에 부부 완성, 하나님 완성이예요.

부모님이 그러한 아담 완성 기준의 종족 장(長), 민족 장, 국가 장, 세계 장, 천주 장의 승리권을 중심삼고... 축복해 준 것은 그 전체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이 전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판서하시며) 8단계예요. 여기에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삼고, 여러분들을 중심삼고 여기도 연결되고 전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요. 안팎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런 부모님을 중심삼고 탕감복귀한 모든 것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부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가정으로 그것을 복귀하려니 그것을 전부 가정적으로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플러스라면 여러분은 마이너스입니다. 부모님이 플러스면 세계의 모든 축복가정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낳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들딸들도 이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8단계. 요것만 올라가면 돼요.

#### 개인에서부터 8단계 과정을 시종여일 변함없이 탕감해야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판서하시며) 요 한 점을 중심삼고, 여러분을 중심삼고 개인 중심이 되고 싶고, 가정 중심이 되고 싶은 거

예요. 여기서부터 돌아 가지고 개인 중심, 그 다음에는 가정 중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복귀는 여기서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은 시종여일(始終如一)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중심삼고, 내가 개인의 중심이 되고 싶고,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싶고, 국가의 중심이 되고 싶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고, 천주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쭉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면 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종여일하려면 여기서 출발한 것이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전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구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데는 어디서 올라가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탕감하고, 여기 중심점에 와 가지고 이것 하나를 중심삼고 여기에 투입해야 돼요. 전부 투입하고 보다 더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종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여기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 올라가 가지고 또 투입해야 돼요. 민족이 이렇게 살아 가지고야 이것을 또 다시 여기에 투입할 수 있어야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8단계를 탕감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때는 반드시 탕감이 있어요, 탕감. 다시 이룬 것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시종여일이 되고, 더 크려면 이 가정이 투입해야 되고, 이것이 더 크려면 이것이 투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단계에 있어서 보다 큰 것을 향해야 돼요. 전체를 위해서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큰 세계의 탕감 길을 개척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이건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탕감이 안 돼요. 여러분은 개인적 탕감시대, 가정적 탕감시대, 종족적 탕감시대, 민족적 탕감시대, 국가적

세계적·우주적 탕감시대, 영계 해방과 지상 해방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전체를 탕감해야 되는데 참부모님 외에는 탕감법을 몰라요.

이래 가지고 이런 승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가 탕감이 필요한 때를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돌던 것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거꾸로 돌던 세계가 여기서부터 새로이 시계바늘과 같이 도는 거예요. 이것은 1차 2차 3차, 타락한 아담시대에서 복귀시대를 거쳐 가지고 4차 아담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사탄이 있어 가지고 반대 받는 때라구요. 사탄이 전부 갈라놓은 거예요. 부모끼리, 혹은 형제끼리, 식구끼리 틀려 가지고 세계가 수백, 수천 민족이 되어 있다구요. 이것을 종교권을 중심삼고 4대 문화권, 기독교·이슬람교·유교·불교의 4대 문화권을 중심삼은 통일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라구요. 그것을 참부모가 와서 소화시켜 가지고 탕감하여 제4차 아담권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창조이상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구요.

#### 8단계 과정을 수직으로 올라가려면 참사랑으로 위해야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향과 조국이 미국이 되어 있고, 플로리다니 일본이니 각각 전부 다르다구요. 나라를 중심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타락한 이후의 세계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판서하심) 남자 여자의 대표를 화장해 준다 이거예요. 나는 남자 대표고 여자 대표예요. 사랑의 화장으로 알라구요. 알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함으로 해방이에요. (웃음) 참사랑의 파우더예요. 전세계의 여자를 대표해서 선생님을 중심삼고...

그래서 여기는 지옥과 천국이 고속도로예요. 지옥이 없어졌어요.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민족국가세

계천주 완성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안다구요. 모르는 사람이 없구요.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위하는 거예요. 개인은 가정을 위하고, 가정은 종족을 위하고, 종족은 민족을 위하고, 민족은 국가를 위하고, 국가는 세계를 위하고, 위하고 위하고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라구요. 전부 위해서 사는 환경이 딱 차게 되면 사탄은 도망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것을 갖다 놓혀도 마찬가지로 라는 거예요.

참부모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혈통이 연결된, 생명권을 가진 사랑의 주인 자리에 서는 데는 사탄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내려갔지요? 그럼자라구요. 이걸 햇빛이고 사탄은 전부 깜깜한 곳이에요.

축복받은 가정 손 들어 봐요. 와, 전부 다로구만! 손을 드는 게 요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요. 블레싱 커플(blessing couple; 축복가정)이 무슨 커플이 된대구요? 「플러스 커플!」 플러스 커플! 세상과 달라요. 블레스는 평면을 말하지만 플러스는 수직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은 가정을 위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지옥 밑창에 있어요. 지옥 밑창에 있다구요. 여기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이런 모든 8단계의 탕감조건을 전부 없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신양·사랑·복종으로 모든 것을 투입해 지었다

내가 4년 전에 자르딘에 갔을 때 뭘 했느냐? 현재 자르딘은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가 되어 있다구요. 4년 전에 거기에 가서 절대신



양·절대사랑·절대복종을 선언한 거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를 지을 때 절대신앙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번은 절대사랑이에요. 창조주로서 러브 파트너 (love partner)를 절대사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복종이에요. 절대복종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까지도 다 없애는 거예요. 완전 투입이에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거라구요. 자기의 칸셉(concept;개념)조차 다 투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제로 포인트(영점)예요. 믿음도 다 퍼부었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이고, 사랑도 다 퍼부었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이고, 복종도 다 퍼부었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예요.

그 대신 저쪽에서는 받았으니 반드시 참사랑은 커 온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투입하면 커 온다는 거예요. 참사랑은 운동하면 반드시 크게 되어 있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세계의 운동은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소모되지만 참사랑은 자꾸 커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창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 절대신앙인데, 누구를 절대신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선생님도 그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신앙하고 절대사랑하고 절대복종한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을 부정 받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사랑을 부정 받더라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복종하는 것을 전부 다 부정하더라도 투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부모, 참부모인 천지부모도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그것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부터 핏줄을 받고 생명을 받았으니 그런 생명, 그런 핏줄,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 참사랑으로 위하는 사람은 중심 존재가 돼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센터, 중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보다 위하는 사람이 중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습니다.

식구가 열 식구가 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전부 계열로 다 되어 있지만 거기서 손자라도 전체를 누구보다 더 위하게 되면 그가 장래에 거기의 중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부의 중심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게 되면 여러 곳에서 밀어주니까 올라가 가지고 센터가 되는 거예요. 톱(top;꼭대기)이 되고 중심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삼고 아들딸이 열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보다 중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의 중심자가 되고 전체의 상속자가 된다, 효자 중의 효자가 된다! 아멘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나라의 애국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그럴수록 중심 충신이 되는 거예요. 성인도 그래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자를 중심삼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존재보다도 위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데 있어서 역사의 처음이요 역사의 끝까지 영원히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위하는 자들의 왕이 될 수 있고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어떻게 모든 세계와 하늘땅을 통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다 위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보라구요. 전세계가 반대했다구요. 전세계가 반대하고, 세계 종교가 반대하고, 사탄까지 동원해서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을 살려 주려고 했다구요. 그들의 아들딸을 살려 주려고 하고, 그들의 부모를 살려 주려고 하고, 그들의 왕권을 살려 주려고 하고, 그 모든 전체를 살려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대받는 통일교회가 왜 발전했느냐?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맞고 찾아오는 전략이요, 사탄은 치고 잃어버리는 전략이에요. 기독교, 미국, 소련, 공산당, 전부가 반대했지만 이제는 레버런 문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예。」 (박수)

세계 사람들이 참부모를 중심으로 교차결혼하면 세계가 통일돼

여기 오색 가지 인종이 모였다고요.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라구요. (박수) 오색 가지 인종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레버런 문이 ‘내 말을 듣고 결혼해라!’ 해서 결혼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결혼해 주었어요? 결혼을 원해서 했느냐, 강제로 했느냐? (웃음) 「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영원히 복종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됩니다。」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을 결혼해 주면,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이 결혼하는 그 시간서부터 부부가 되는 거예요. 당장 이 순간에 미국 나라하고 독일 나라의 전 국민이 결혼한다고 할 때는 이 시간부터 완전히 통일되는 거예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전세계에 대한 명령에 의해서 교차결혼이다!’ 할 때는 즉각적으로 지상에 천국, 천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왜? 교차결혼한 후에 둘이 앉아서 싸움할 거예요, 키스할 거예요? (웃음) \*통일교회에서는 그 둘을 안고 키스하

고 춤추게 만드는 것이 문제없다 이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예.」

레버런 문이 하늘과 땅을 결혼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몇억만년 전 사람하고 지금까지 해줬으면 몇억만년 전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 아줌마들은 몇천년 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결혼 해서 몇천년 전의 남편 아내를 얻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와서 지금 지상에서 같이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예요, 참부모예요? 하나님이 못 해요. 그건 참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모인 인간이 잘못했으니 인간이 해야지,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타락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정과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데, 좋아하는 가정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어서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영계 사람이든 참부모 앞에 축복받아서 좋아해 가지고 부부 된 사람은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될 수 있다 이거예요.

참부모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분입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절대유일영원불변한 사람이예요. 그러면 그 참부모 앞에 지상세계 천상세계의 축복받은 가정들도 유일한 가정과 마찬가지로요.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여러분은 형제예요. 축복가정 형제예요. 몇천년 전에 갈라졌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가정을 통해서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잔칫날이 지금 지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 나라와 장자 나라가 하나된 것이 우리 고향의 출발

생명·혈통·사랑인데 무슨 생명이고, 무슨 혈통이고, 무슨 사랑이

나? \*지금까지는 타락한 사랑·생명·혈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랑·혈통·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혈통·생명에 연결된 참사랑·참혈통·참생명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세계로부터 돌아서서 해방되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축복가정은 지상천국이나 천상천국 할 것 없이 어디든지 환영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해방 시대예요, 해방 시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미국의 고향과 조국을 가진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완전히 쓸어 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지구성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은 미국이 여러분의 조국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수 받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영어가 무슨 언어예요? 거짓 언어예요. 일본말은? 「거짓 언어입니다。」 거짓 언어예요. 한국말은? 「천국어입니다。」 아니예요. 거짓 언어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참부모가 나왔으니까 그로부터 거짓 언어를 리바이브(revive; 소생하다. 부활하다) 해 가지고 굿 랭귀지(good language; 좋은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구성입니다。」 지구성 어디예요? 여러분의 고향과 선생님의 고향이 다르지요? 지구성이 고향인데, 지구성이 고향인 것은 같지만 있는 장소는 다르다구요. 전부 다르지요? 여러분 고향은 어디냐 하면 미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국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라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나라가 축복받은 땅이 되어야 돼요. 안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향을 결정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는 조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미에 갔다 온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

지만 말이예요,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 장자권 나라, 이 세 나라를 완전히 하나 묶은 그것이 홈 랜드(homeland; 고향)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홈 랜드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시집 장가가지 않고 가정이 정착해야 돼요. 시집 온 여자는 홈 랜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래의 이상적 홈 랜드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가정이 머무를 수 있는 홈 랜드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독일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있으면 홈 랜드가 둘이예요? 하나라야 돼요. 축복받은 가정이 찾아가야 할 하나의 홈 랜드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은 가정적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지금까지 축복받은 가정들, 4억3천만쌍 축복받은 가정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바퀴 돌아야 돼요. 자르딘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 축복가정들이 입적할 수 있는 홈 랜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하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참부모와 더불어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가족과 같이 되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모님과 우리 축복가정들이 하나되고, 아들딸까지 하나된 그런 사진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증거할 거예요? 자르딘 수련소에서 수속을 밟은 거기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거예요. 입적이 뭐냐 하면, 본향의 나라예요. 부모의 나라, 형님이 살던 나라, 아담 가정을 중심삼은 부모가 살고, 장자가 살 수 있는 나라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 배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들이 살 수 있는 참된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참부모가 있고, 여러분 부부가 있고, 아들딸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홈 랜드예요.

### 총생축헌납제를 드리고 자르딘 수련을 가라

그래서 총생축헌납제를 드려 가지고 전부 다 수련 가야 되는 거예요. 수련 못 간 축복받은 사람은 헌납금이라는 것을 미리 예치해 가지고 조건을 걸고 이제 그 과정을 한꺼번에 치르는 것입니다. 몇천 명이라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동하기 전에 미리 다 교회에 바쳐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탕감조건으로서 160수, 1만 6천 달러를 조건부로 넘어가 가지고 전부 청산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계의 것이에요. 도적질해 온 거예요. 장물 범이예요. 잘사는 사람들은 칼로, 무기로 피를 흘려 가지고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려고 있다구요.

우리가 180집을 중심삼고 축복해 주었다구요. 이것이 칠 팔은 오십 육( $7 \times 8 = 56$ ), 1260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7은 무엇을 상징한 것입니까? (통역자)」 7대예요. 7대가 가입한 거예요.

이제 자르딘에 가서 교육받은 축복가정들, 선생님과 사진을 찍은 가정들을 추첨해 가지고 한국서부터 일본, 미국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세 나라를 추첨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갈지, 일본 사람이 한국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은 4천만이니까 곧장 끝날 거라구요.

그 가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4천만이 차기 전에 빨리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을 못 받으면 대이동이 벌어져요. 한국 나라는 6대주의 별의별 사람들이 섞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백인이니 흑인이니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잘살고 못사는 것이 없어집니다. 균형이 잡혀져요. 그래야 되겠나요, 안 그래야 되겠나요? 그러면 축복을 반대하고 통일교회를 반대한 2억4천만 미국 사람

은 맨 플래미가 되어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별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전부 바뀌치는 거예요.

#### 축복가정들을 중심삼고 나라를 만들자

보라구요. 2차대전 후에 7개국이에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7개국을 중심삼은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고 섭리하던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전부 다 순차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전체의 나라들을 중심삼고 전부 다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자들을 위주로 한 대이동이 벌어지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회교라도 축복받으면 같은 가치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평준화예요, 평준화.

일본 여자들을 미국에 투입해 가지고 구해 주려고 하는데, 축복을 안 받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든지 축복받으라는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 어머니 나라 여자들이 세계 선교사로 세계 어디든지 찾아가서 축복을 선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니로서 축복을 파괴했기 때문에 어머니 나라 사람이 대신 선전해 가지고 길가에서도 축복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세계에 있느냐 말이예요. 기성 가정, 결혼 가정, 결혼하기 싫어하는 패들, 청소년까지 축복하고, 영계에도 그와 같이 맞추어 가지고 16세 이하 아기로 죽은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축복을 다 해줬는데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축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구요. 길을 막아 놓고 축복을 해줬던 거라구요.

전세계의 축복받은 사람을 전부 추첨해 가지고 사람 있는 곳에는 전부 배치해서 자기의 홈 타운을 중심삼고 지구성을 축복가정들의 홈 타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천상세계와 하나되면 지상천국이



벌어지고 천상천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성의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가야 되겠나요, 안 가야 되겠나요? 「가야 됩니다.» 안 가겠으면 안 가게 만들어 보라는 거라구요. 쫓아 버린다고요. 그래, 정성들이고 빨리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 대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중심삼고 한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삼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세계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생겨나고 우리 조국이 생기는 거라구요.

#### 앞으로 7년 기간에 대변혁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대개 알겠지요? 그러니까 하늘땅이 나의 고향과 조국이 다 이거예요. 하늘땅 앞에, 천주 앞에 미국도 있고 이 지구성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전부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이 된다 그말이라구요.

핏줄, 혈통을 남겼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축복받은 부부로서 어떻게 깨끗한 혈통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구요. 그럴 수 있는 가정들이 주류로서 선생님의 일족과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가 벌어진다구요. 수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한 가정에 오색 인종을 거느리고 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계도 이와 같은 조직 편성이 벌어지고, 지상도 마찬가지라구요. 알겠어요? 「예.»

자기가 살던 모든 전부를 부정하고 다 내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왕 내버리고 가느니 하늘 앞에 미리 소유권을 전수해서 교회에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관리가 하늘나라의 관리이기 때문에 남아지

지만 안 했다가는 몽땅 내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가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취급해 주어서 다시 그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주저하다가 명령이 났는데 아무 때에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길이 없는 거예요. 자원해서 바치기 위한 행렬이 역사상의 어떤 행렬보다 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새 천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혈족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명년서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 80세 생일을 지나는 때부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년을 중심삼고 3년 3년, 7년 과정에 역사는 대변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통일교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요? 썩!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천지 축복을 해 가지고 탕감시대를 지나 해방시대를 지나 갈 수 있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세계에 가 가지고 아까 여기와 반대되는, 타락한 원한의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직접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 부모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앞으로는 뭐냐 하면, 자기 일족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일족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가정 교육시대이지만 일족, 7대가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교육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 이제 다 알았으니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날아가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냐 하면 혼독 국가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초국가 초민족, 초대학연맹이니 초언론기관이니 전부 초민족적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유엔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입적하는 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 입적, 종족적 입적, 나라 입적이 벌어집니다. 알겠어요? 「예」

이제는 다 알았어요.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개인 완성을 어떻게 하고, 가정 완성을 어떻게 하고, 종족 완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구요.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종족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민족은 국가를 위해, 국가는 세계를 위해, 세계는 천주, 천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라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종족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구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 버리고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사탄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울타리와 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되는 거라구요. 그렇게 참부모가 평지를 이루어서 종적인 세계와 90각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90각도를 중심삼고 전후좌우상하가 연결되어서 통일 해방권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천국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런 세계가 온다구요. (박수)

자, 따라 해보라구요. \*참생명! 「참생명!」 참혈통! 「참혈통!」 참사랑! 「참사랑!」 참부모! 「참부모!」 참하나님! 「참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이 참과 연결되면 세계가 해방되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박수)

조국은 하나예요. 알지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해요. 영계예요, 영계. 자, 그것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가야 하는지 다 안다구요.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니만큼 그것을 반드시 청산하고, 부모님이 무슨 명령을 하더라도, 백번 죽으라는 명령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나는 가겠다 할 수 있는

결심을 하고,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천리를 뚫아 빨리 날아갈지어다! 달리는 것보다 날아갈지어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명령일수록 축복을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틀림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은 더 가치 있는 세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기도하자구요. (통역자 기도) \*

## 제4차 아담권 시대의 도래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지금 하늘이 음란한 패들... 악마는 음란의 신이에요. 전부 다 망치기 위한 거예요.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가 자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통일교회를 반대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젊은 여러분이 행차해야 할 때

통일교회 원리가 이때 한때 써먹으려고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자기 나라 제일이라고 해서 유엔을 만들고 별의별 아우성을 했지만 갈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

나는 이제 팔십이 됐으니, 젊은 임자네들이 행차할 시대가 왔어요. 나는 팔십 난 노인이니 이제 고향에 가서 지팡이 끌고 다니고 영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세계적으로 에이즈 때문에 순결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에텐 동산의 짝짓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짝짓기? 짝

---

1999년 12월 24일(月),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세계 지도자들과의 저녁식사 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짓기 해야 돼요. 소녀서부터, 열두 살에서부터 짝짓기 운동을 지금 한국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거 해야 된다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허리케인이 너무 너무…」 들었다구.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아이구!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 예수님 탄신 축하의 자리

(참부모님과 참자녀님 가족이 함께 입장하심) 빨리 들어오라구, 빨리. 왜 이렇게 많아? 「이쪽으로 와라. 아이들은 여기 이쪽으로 앉히고 어른들은 이쪽으로 와. (어머님)」 다 왔어? (경배) 엄마가 기도해요. 「엄마가 기도해요? 아버지가 안 하고 엄마가 기도해요? (어머님)」 「그러면 일단 앉아. 앉든지 서든지…」 앉으라구. 자, 기도한다. (어머님 기도)

「의자가, 자리가 그래서 미안한데, 뷔페로 식사하세요. (어머님)」 식사가 어디 있어? 「축배를 드시라고 잔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축배, 그래. 「그래요? 그러면 누가 좀 해요. (어머님)」 누구 축배? 어느 거야? 「이것인가 봐요, 이거. 이것이 그 탄산음료예요. 다 들었어요? 뭐라고 크게 낭송하세요, 광회장.」 ‘위하여!’ 축배하라구요. 「뭘 ‘위하여!’ 그러세요.」 「참부모님을 위하여!’ 위하여!

「스태프들만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어머님)」 자, 다 왔는데. 「그래, 선물이 없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름 부르면 나와, 선물 줄 테니까.」 (선물 하사하신 후에 화동회가 있음)

미세스 박이 40일 금식을 두 번 했다는 얘기를 해줘. 「40일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한 와이프를 가졌다고… (어머님)」 (통역자가 박도희 회장 부인에 대한 소개를 함) 「노래 잘 해봐요. (어머님)」 (노래)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으로 미국 국민이 하나되면 영계가 도와줘

박도희! 박도희, 거기 있어! 「박도희 서 있으라고 하시는데.」 짐바브웨에서 하던 일을 잠깐, 내일 전부 다 얘기해 줄 텐데 말이야, 자기가 훈련 삼아 뭘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라구, 이 사람들이 좀 듣게. 「한국어로요?」 짐바브웨에서 하던 일을 잠깐 보고하라는 말이야. 에이즈가 어떻게, 아프리카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영어로요?」 영어로 해야지. 영어로 하지 않았어? (박도희 짐바브웨 회장의 활동 보고)

곽! 「미스터 곽!」 그거 얘기 좀 해. 훈독 교육, 훈독 세미나하고 이번에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이랬던 얘기하고 마셜 아일랜드에 대한 얘기 좀 해요. 여기 이 껍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 여기에 미국의 간부들이 모였대구. 또 이스트 가든에 있는 껍들이 세상을 모르고 있으니 그런 사실을 다 알아야 된대구. (곽정환 회장이 국제훈독세미나와 마셜 아일랜드에 대하여 보고)

미국이 다섯 번, 미국 지도, 교육할 때 정신차려서 협력해야 된다고, 그걸 얘기하라구. (보고 계속) 미국이 장자권 나라이니만큼 세계의 모든 교육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미국이 세계를 컨트롤하고, 교육하고, 선도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의 방향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잠깐 하는 게 좋아요. (보고 계속) 옛그제 꿈 얘기도 해주지.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는데 지금... (보고 계속)

\*통일중공업과 미국 회사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미스터 곽의 보고를 들었대구요. 그만큼 선생님과 한국 멤버들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장

자인 미국을 구하느냐? 어떻게 이와 같은 섭리를 성공시키느냐? 하나님, 참부모, 그리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하나되면 영계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노래 하나 부르자. 효율이, 노래하라구. (화동회 계속)

#### 《남북통일》과 《축복가정과 이상천국》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뭘 하자구, 이제? 닥터 양! 「예.」 오늘 훈독회 때 마지막을, 40페이지 남은 것을 한다고 약속했는데 못 했다구. 「예.」 그거 마지막 하자구. 「예.」 그거 얘기해 주라구. 내가 현재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을 중심삼고, 그 다음에는 《축복가정과 이상천국》의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중요시해 온 거라구요. 앞으로 식구들이 중요시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지금까지 반복해서 훈독해 왔는데, 오늘이 《축복가정과 이상천국》이 끝나는 날이에요.

요전에 10월 1일부터 미국의 지도자, 일본의 지도자를 교환해 가지고 미국과 일본에 가서, 한국까지 통일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이 《남북통일》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사로 볼 때, 동서 문화의 격차, 동쪽은 정신적 문화요, 서쪽은 물질적 문화인데, 동서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남북의 격차는 뭐냐 하면 빈부의 격차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 만들고, 지상과 천상세계의 격차를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섭리적인 관에서 본 통일적인 주류 사상이 어떻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의 내용이에요.

우리 통일교인들이 그 주류 사상을 알지 못하면 섭리의 방향이라든가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 미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해 나왔다고요. 여러분 식구들이 2000년대를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이 이런



내용을 강조할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내가 재검토하는 거예요. 그래,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마지막 부분, 아까 세 시간 걸릴 것을 두 번, 1차, 2차 하고 40페이지 남았으니, 한 시간 분량 남은 것을 끝내자구요.

이것은 2000년 끝날 때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성약시대와 이상천국》은 재림시대에 속한 거예요. 《성약시대와 이상천국》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다음 것이라구. 이걸 《축복가정과 이상천국》인데, 이것은 뭐냐? 축복 기준을 중심삼고 기독교 4천년 섭리사가 끝나가지고 새로운 성약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페이지가 다르다구요. 그래서 축복받아 가지고 《성약시대와 이상천국》, 완전히 해방권으로 넘어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는 영어로 번역한 것을 읽으라고 그래요. 다 있을 거라구요. 그게 불편하거든 한국말을 빨리 공부하라구요. 그거 읽으라구. 그냥 읽어도 괜찮아. (양창식 북미대륙 회장이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제5절 자녀 교육’ 훈독 후에 기도)

《축복가정과 이상천국》은 7년노정과 이상가정의 내용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버님이 어머님과 더불어 1995년 이후 기간에 세계 순회 강연하던 말씀과 어머님의 순회 강연문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뜻길》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축복가정에 대한 것, 축복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체 역사적인 축복가정 복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7년노정이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 7년노정.

그 다음에는 이상적 부부가 어떻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4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상적 가정이 들어가 있다구요. 축

복받은 가정으로서 거쳐야 할 내용을 전반적인 면에서 교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생활에 있어서, 생애노정의 한 다리, 산 실체적 다리를 여러분이 연결시켰다는 자신을 발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섭리역사의 역사관이지? 「예. ‘구원섭리사의 역사관(원리관)’과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세 번째는? 「참사랑을 중심한 참된 가정과 참된 우주’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3대 주체사상이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참된 가정과 나’입니다. 이렇게 네 타이틀이 들어가 있다구요.

\*통일교인들이 7년노정을 몰랐어요. 지금부터 그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필생의 과업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 다음에는, 축복받은 가정이지? 전반적인 것, 축복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알 수 있다구요. 1960년 참부모로부터 36가정... 전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상적 가정이에요. 그게 《축복가정과 이상천국》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요. 쪽 읽지만 선생님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나 하면, 너무 세밀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십년 전에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세밀히 얘기했느냐? 언제 선생님이 지상에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상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계속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전체를 발표했어요. 세밀히 가르쳐 준 거라고요.

왜?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 때문에 그렇게 세밀히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한 것이 지금에 와서도 나 자신이 쪽 읽어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고 그때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하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의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훈독하는 훈독회를 사랑하게 될 때는 선생님 자신이 말씀하던

귀한 그 자체를,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느끼면서 하늘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피땀의 말씀이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감동이 와

그 말씀에 실체화된 감동을 느끼라는 거예요. 눈물과 피땀을 흘리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말할 수 없이 피가 끓고, 눈물이 끓고, 땀이 끓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니었지만 누구나 영계를 통한 거예요. 옛날에 거기에 감동하고 협조하던 영계의 하나님이라든가 영계의 모든 중심적인 영인체와의 영적 체험이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성을 넘어서 이 시대에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화의 말이라든가 소설의 말같이 한번 들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 번 들어도 이해 못 할 수 있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삼고 이 말씀과 하나된 모티베이션(motivation; 동기)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성을 초월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천년 만년 창조의 힘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한 자리에서 그걸 느끼면 여러분 자신도 동화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심각해야 돼요. 줄고 이러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는 알긴 알지만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내 칸셉 가운데 점령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칸셉이 점령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다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칸셉을 점령해

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감동 받는 것보다도 보고 느끼면서 읽으면 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인격의 사람이 기도한 내용, 기도문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은 인격이 있다구요. 인격을 가졌다구요, 인격. 인격을 중시삼고, 모든 생활 감정을 중시삼고 한 하늘과 우주에 대한 기도의 선포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 보라구요. 그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사랑의 극치에 임하게 될 때, 온 우주가 화동하는 그런 모든 기도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히 춤추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구요.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는 말씀이 논리적 체제로 돼 있지만, 문학적 체제, 사랑에 대한 예술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 자신도 읽는 것을 듣게 되면 그런 경지에 대번에 들어간다구요.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계속하더라도 전부….

그래, 선생님을 그런 감동으로 밀어 넣을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선생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뜻을 위한 일편단심, 한마음 된 그 경지에 들어가면 인격 조성이 지극히 빠를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어디서든지 베껴 가지고 한 타이틀만, 한 소절만 읽더라도 안 읽은 것보다도 하루 생활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사람들은 별의별 귀하지 않은 것이 많지만, 이 말씀은 통일교회의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알기를 얼마나 알아요? 선생님 알기를 자기 정도만큼 알았지, 하나님이 알고 이 우주와 관계돼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낀 안경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지 뭐!’ 이러겠지만, 그 말씀을 들어 보면 자기들과 같지 않아요. ‘야! 선생님이 사랑, 참사랑이 어쩡다는 것을 설파한 내용을 알고 보니 참 선생님 얘기가 복잡하고 세밀하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경지에서 한 타이틀을 안다면 어디 가든지 하루 24시간 얘기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은혜스러운 기도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을 아무 준비 없는 나 자신이 틀어 놓고 듣게 될 때 감동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경지에 수십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 신약의 2천년 역사가 끝나고 성약의 4차 아담권 시대가 시작돼

이제 2000년을 맞을 수 있는 때, 1999년 이 크리스마스로 끝나지요? 2000년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데, 2천년이 끝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약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끝나고 성약시대가 되는 거라고요. 「2천년이 끝나면요?」 예수님의 2천년 역사 아니에요? 구약의 4천년 역사, 2천년 역사의 예수님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던 모든 가정 이상을 중심삼고 천국화 운동 기준을 선생님을 통해서 한 길을 넘어서 가지고 제4차 아담권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니만큼 신약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소원 성취, 예수님이 유대 나라라든가 로마를 정복하던 그 한계선을 넘어서 가지고, 지상·천상세계에 반대 없고 사탄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해방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천년 역사 탕감노정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참부모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해방권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체로서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완전히 부모님과 하나된 것이라구요.

해방된 세계에서 해방의 깃발을 들 때, 모인 그때의 아들딸과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왕국을 향해서 입성하는, 그 성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지금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완성과 더불어 성약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제4차 해방 천국의 시대에 접한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림주님이 천국이상을 완성해 가지고 왕궁으로 입성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멘!」 전환시대예요. 거기는 여러 족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안에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안에 들어갔으니까, 해방 시대니까 자주적이라구요.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를 알고, 참부모의 족속을 아는 그런 출발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4차 아담권 시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일생을 살아야

그래, 이제 가만 두더라도 세계의 음란한 무리들은 에이치 아이 브이 바이러스(HIV virus;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에이즈에 의해서 인류의 3분의 2가 쓰러질 것이라고 본다구요. 미국이 에이즈의 첫째 되는 나라인 줄 알아요? 이 저변에서는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팽창해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다 숨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얼마나 서둘러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에이즈 병에 걸려 가지고 영계에 간 때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는 그 부끄

러움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은,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기독교권이 에이즈의 선도적 국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삼촌, 사촌들이 무사하다고 생각해요? 3개월이 지나서도 의사들이 전부 검진해 가지고 잘 분석해야 안다는 거예요. 3년 이상 되더라도 드러나지 않아요. 몰라요. 3개월을 감지할 수 없으면 3년이 걸려야 안다는 거예요. 잠재기간이 7년에서 12년이에요. 그러니 걸리면 그것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모라든가 프리 섹스, 레즈비언은 완전히 지상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 부부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성을 중심삼은 절대 완전 부부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의 때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절대 성, 그 다음에는 절대 부부, 절대 가정, 절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이에요. 그러니 사랑도 절대 사랑, 유일 사랑, 불변 사랑, 영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는 절대·유일·불변·영원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그 혈통에 연결되어 있는 아들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닮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딸도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생이 가능한 거라고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우리의 조국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절대 사랑을 가졌어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을 가졌어요? 부자지관계는 핏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일·불변·영원하니 그 핏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론적이라고요.

\*그래야 영생이 가능합니다.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본연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는 조국이라고요. 자신들 있어요? 「예.」 대답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세계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우주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하나님 자체도 수천만년 걸려 가지고 완성의 가정을 이루려고 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오관이 있는데, 육적 오관과 영적 오관의 전체 중심 관으로 돼 있는 모든 세포들이 느끼는 감각, 모든 것의 모토를 종합한 것이 어떻게 사랑이상의 아들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이예요. 그것을 2차적이 아니라, 천년 만년을 걸고 본직업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직업, 부업이 아니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앙은 부업도 안 돼요. 신앙이 메인 잡(main job; 주업)인데 말이에요. \*신앙 길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노정입니다. 그 길은 참사랑을 완성하는 노정입니다. 모든 오관의 목적이 참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정착지입니다. 창조 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목적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밥을 먹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하나님이 몇천만 년 싸워 왔다는 거예요. 6천년이 아니예요. 몇천만 년을 싸워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와 가지고 이렇게 나오던 것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일생에 이렇게 이뤄 놓았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일생인데, 일생이 뭐냐 하면 절대신앙 일생, 절대사랑 일생, 절대복종 일생에서부터 영원히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다 말고 옆구리에다 뭘 꿰차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가요. 똥바가지같이 차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생겨나던 본래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절대시하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게 찾아 나오던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의 나라 한국과 일본이 하나되려면 장자국인 미국을 통해야

그래, 미국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미국 지도자들은 어떤 길을 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없어도 되겠구만. 파더랜드(Fatherland; 조국)가 필요하고 마더랜드(Motherland; 모국)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거기에 조국의 백성, 모국의 백성, 조국의 전통, 모국의 전통이 전부 다 하나로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은 마이너스가 되어 서 어우러지는 데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 씀하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일본 사람 싫지요? 한국 사람 싫지요? 그렇잖아요? 그래, 싫더라도 그 옷을 입고, 그 밥을 먹으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 낳은 아기가 한국말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미국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 말이 아니에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젊은 놈들이 한국말 공부 못 한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요. 한국이 통일되게 되면... 남한 북한은 이제 선생님이 통일해야 돼요. 통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 국가가 있는 한 하나 안 되기 때문에 남미에 땅을 사서 대이동해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잘살 수 있게끔, 먹여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3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둘이 맞서고 있다구요. 직선 상에 둘이 돼 있기 때문에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이건 언제나 부딪쳐요. 왔다갔다 부딪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점이 필요해요. 3점이 있어서 여기서 출발해 이리 와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돌아갈 수도 있고, 360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과 일본이 하나된다면 3점, 미국을 통해서 하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하나돼 가지고 북한 하나 소화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3국을 찾아 나온 거예요.

(통역과 관련하여) 그걸 얘기할 때,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가 하나되기가 자체로는 힘들어요. 두 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야 돼요. 3국을 통해야 된다고요. 그게 장자예요. 아들을 중심삼고 어머니 아버지의 싸움도 말리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가인 아벨이 싸우는 데 있어서 미국을 중심삼고 전세계가 상대가 돼 있지만 말이에요, 장자권이 위해 주면 형제가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될 수 있는 미국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세 나라에 대해서는 동생의 나라, 수많은 나라와 하나돼야만 하나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미국이 장자권이라면, 장자의 나라라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합하고 자기들이 형의 사랑을 합해 가지고 세계에 나눠주면 일시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뭐냐 하면, 차자에서 장자,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가 복귀되어 가지고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분향 땅,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예.」

조국은 영계예요, 영계. 고향과 다 달라요.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3개국에 배치하고 통일교인들을 전부 다 배치해 가지고 대이동이 벌어진다구요. 대이동이 벌어져요. 안 가게 되면 하늘나라, 조국에 못 가는 거예요.

고향이 없지요? 타락한 고향은 있었어요. 복귀될 고향은 세계 무대예요, 세계 무대.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무대의 고향을 중심삼고 영원한

세계의 조국, 지상천상천국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끝나고, 실제적으로도 끝나고, 사실적으로도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해방, 참부모의 완전 해방, 인류의 완전 해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사돈이 돼 있어요. 요전에 성인들과 살인마들이 같이 축복받았는데, 살인마하고 성인의 아들딸하고 축복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이 축복받고,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축복받고 그러면 원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지겠어요, 남겠어요?

#### 청소년 교육에 전념해야 할 때

몇 시야? 열 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구만. 자,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은 2세들 5백 명이 여기에 모일 거라구요. 요전에 내가 번역하라고 한 것 했어? 「예, 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양창식)」 만들었어?

앞으로는 청소년 교육에 전념해야 돼요. 왜 그러냐? 선생님도 돌아와서 이제 선생님의 아들딸을 버리고 지내 가지고 다 혼란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교육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딸들이 모여 들어와요. 그래, 선생님의 아들딸들도 미국에 와 가지고 미국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정에 물결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없애 버려야 된다고요.

아담 해와를 누가 길렀다구요? 천사장이예요. 천사장 입장인 통일교회의 모든 축복받은 가정들이 선생님의 아들딸을 기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자기 아들딸, 자기 여편네, 자기의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가정이 전부 탕감받았어요.

선생님의 아들딸이 세상에서 악한 놀음을 해 가지고 지옥 갔더라도

선생님이 천국 들어가는 그 날로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탄 세계까지 해방하고 사탄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아들 딸은 장성기 완성급이 아니예요. 완성기에서 출발해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과 분리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달라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직접 부모님이 처리할 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식도 주관 못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출발이.

자, 인사하고... (경배 후에 만세 삼창) (박수)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도 그래요. 같이 거닐고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

##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구요. 하나님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적 완수, 하나님이 섭리관적 책임을 완수했느냐?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관적 책임을 완수했느냐

여기 일본 식구들 손 들어 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만이에요? 전부 일본 여자들이구만. 뭐 하러 미국에 왔어요? (웃음) 그래도 한국말로 해야지요?

여기 오십 이상 된 사람 손 들어 봐라. 그래, 그 이하로구만. 45세 미만 손 들어 봐요. 희망적이라구요. 희망적이예요.

미국은 장자권인데, 장자권 하게 되면 뭐가 되나? 구원섭리관적 입장에서 보면 장자를 누가 지금까지 해 나왔어요? 타락한 세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엇이나 하면 천사장이라구요. 타락한 세계의 주인이 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본래의 창조주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무

런 권한이 없습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내가 일본말을 하나, 한국말을 하나? (웃음) \*복잡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구요.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목적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 그러면 이제는 대개 다 알았다구요. 섭리관적 책임완수, 섭리관적 책임완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완수하게 되느냐?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한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섭리라는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예요. 본래 구원섭리가 없이 섭리관적 완성을 위해서 창조이상을 세웠던 것인데, 우리 인류 시조가 사탄과 더불어, 사탄이 침입하여 별개의 세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섭리사적 책임 분야는 없어지고 구원섭리관적 책임 소명을 지금까지 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말과 영어 해독하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여기는 왜 손 안 들어요? 다 손 들라구요. 둘 다 아는 사람. 얼마나 아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라구요. 내리라구요. 그러면 둘 다 해독 못 하는 사람 손 들어요. 그래도 영어와 한국말을 해독하는 사람이 많네. 내가 일본말을 하면 통역을 못 해요. (웃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아는 사람이 해독해 주고, 간단히 얘기해 주라구요. 「하고 있습니다. (통역자)」 하고 있어? 「예.」 그래, 잘 하라구.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는 섭리관적인 역사가 아니고 구원섭리관적인 역사인데, 이는 하나님 자체에 있어서 책임 소행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이런 거짓된 주인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면 피조세계의 모든 전체는 아들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사적 모든 전부는 해독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드러날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른 주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못함으로 모든 전체를 미지의 역사와 미지의 섭리사로 알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거라구요. 사람들은 사탄권 내에, 타락권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근본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섭리관에 대한 문제를 전적으로 모르고 타락한 세계의 혼돈과 미지의 역사과정에서 모색해 나온 인류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구요.

참부모님이 하는 일이 뭐고, 완수한 일이 뭐냐

그러면 참부모의 섭리관적인 책임완수라고 했는데, 그 책임완수의 내용이 뭐냐? 섭리관의 모든 것을 전부 해명했고, 미지의 사실을 밝혔고, 그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미지의 내용이 가져온 모든 것을 청산하고, 완전히 섭리의 창조를 시작하던 본연의 기준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님이 그런 일을 책임 완수했다 그말이라구요.

그러면 참부모님이 하는 일이 뭐고, 또 완수한 일이 뭐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 타락한 이후의 구원섭리사뿐만 아니라 그 전 역사,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상 하던 역사로부터 모든 전부를 중심삼고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타락한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타락이 없었을 때 섭리적 창조이상으로 세워 나오던 모든 완성이 하나님과 아들딸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상세계에 연결되느냐 하는 관계, 그것이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를 중심삼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천국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모든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인 관에 있어서, 가정관에 있어서, 종족관에 있어서, 민족관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우주관에 있어서, 또 천주관에 있어서, 또 신관, 하나님 자체의 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되

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이 질문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예요? 「참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참사랑이 아니라 참아버지인 하나님이에요. 참사랑은 참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참자녀를 대해서 관계가 하나될 때 참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참아버지예요. 참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 「참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보다 인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가 무엇이고, 신이 있다면 인간과 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자·정·의(知情意)를 겸한 진·선·미(眞善美)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신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격적 신, 인격적 아버지라구요. 인격적 신인 동시에 인격적인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래야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것, 자·정·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요. 진·선·미가 사랑을 중심삼은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마음대로 만지고 마음대로... 사람도 자·정·의를 필요로 하고, 진·선·미의 아들이 되게 되면 완전히 하나될 수 있는, 가를 수 없는 영원한 일체적 이상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정·의와 진·선·미의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겠느냐? 하나님도 살아 계시니까 생활할 것인데 생활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중심삼고 살 것이냐? 참사랑의 심정권을 갖고 살아 오셨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환경적 여건을 전부 사랑으로 처리하면서 살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그렇지만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상징적



이요, 형상적이요, 실체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은 형상과 상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정권, 사랑권 내에 같이 치리를 받고 나온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권에 이탈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랑권만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모든 사랑권을 차지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가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거기서 비로소 하나되어 가지고 모든 상속이 벌어지고 한 바퀴 돌아서 커 나가는 거예요.

### 만물은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 여건

섭리관적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움직이게 되면 아들 된 인간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아들을 위한 상징적인 형상체도 전부 하나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일체 되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완전이요, 가정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완전이요, 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 영원한 세계까지 발전하더라도 완전한 실체로서 움직일 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한 모든 것은 완전 완성한 것으로서 전체가 완전 완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실체권, 하나의 이상적인 판국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된 그 이하의 모든 만물은 인간을 양육하고 인간을 보존시키고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되는 거라구요. 그것이 실체 만물 창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도 혼자 살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입니다. 상대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 나왔고 살고 있던 것인데, 그것이 내적인 면에 정착한 입장에 있어서는 자극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정(正)에서 분(分)해 가지고 합(合)의 목적을 다시 이름으로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극과 극, 북극과 남극, 동서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자극을 느껴 가

지고 확 웃게 되면 전체가 웃을 수 있고 전체가 좋을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 상대관계, 내적인 존재권을 외적인 상대권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 아들을 가졌다 그말이라구요. 사위기대니 삼대상목적이니 전부가 하나님 웃으면 전부가 웃고, 하나님이 좋으면 다 같이 화동하고, 같이 즐기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앉았지만 사람의 종류는 몇 가지 종류냐? 국가는 종류가 많지만 사람의 종류는 남자 여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 가운데서 왔다구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몇 사람 가운데서 나왔어요? 두 사람 가운데서 나왔다고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조상으로 쭉 가게 되면 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들딸을 중심 삼고 볼 때 아버지는 무엇이나? 그것도 둘로 되어 있는데 그 둘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된 것과 같이 자극을 못 느껴요. 남자면 남자 형태로 되어 있다구요. 이성성상의 격(格)을 가진, 격에 있어서 남자형이기 때문에 외톨이 남자 여자와 같은 입장에서 있으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냐? 두 사람을 합한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 아닐 수 없다, 이건 이론적이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놨기 때문에, 두쪽 두쪽 절반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남자도 타락 전에는 하나님 같고, 여자도 타락 전에는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마음과 몸의 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이런 성상과 형상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에서는 남자 격이 다르고 여자 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갈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남자도 좋아서 흥분되고 여자도 흥분

해 가지고 부딪치는 데는 가만히 부딪치는 것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통하게 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발되어 온 천지를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전기선이 스파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 스파크 해서 달라붙으면 말이에요, 이런 철사들이 한번 달라붙으면 뗄 수도 없어요.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플러스는 볼록이고 마이너스는 오목이 라구요. 가만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도 나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소리가 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체 앞에 ‘야, 사랑이다!’ 소리를 하고 빛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 번개 치고 우레가 나는 이유

흐린 날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세계의 보이지 않는 전기가 보이는 구름으로 합해 가지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전기 같은 것은 물이, 카본(carbon;탄소)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떨어져야 될 텐데 그 떨어지는 것이 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번개 치고 우레가 나면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웁니다.」 그 비가 뭐냐 하면 자연계 전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자연을 커버한 전기라든가 이 모든 환경과 구름이 합해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축복의 부스러기다, 떡 잔치와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입을 벌려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도 좋아하고, 식물, 동물 모두가 좋아한다 이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비가 온 후에는 모든 만물이 자라니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구멍에 들어가 사는 동물들도 비가 온다고 뛰어 들어

가면서 ‘이놈의 비야, 왜 오느냐?’ 하고 저주하겠어요, ‘잘 와라, 잘 와라, 잘 와라. 그치게 될 때는 초목이 무성해져 내 밥이 풍성해지니 고맙다, 고맙다.’ 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기뻐합니다.」 \*‘와우, 와우!’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한번 따라 해봐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침밥을 새로 짓고 말이에요, 어떤 잔칫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면 동네방네가 좋아서 ‘와우, 와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자란 그 물건들을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좋아하겠나 이거예요. 여러분은 풀을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거예요. 때면 동물은 식물을 잡아먹어요. 식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식물들은 비가 와서 좋아하는데 사람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나요? ‘잘 먹은, 살찐 모든 만물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또 먹어 주기를 바란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구 때문이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기보다 사람이지요, 사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모든 만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들도 협조하자. 그러니까 그 몸뚱이를 돕기 위해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비가 오고 나면 자란 것을 자기 밥으로 좋아하고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볼 때 인간세계에 있어서 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공중의 비로 오는데 육지의 비가 뭐냐 이거예요. 「눈물입니다.」 (웃으심)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레나 번개를 통해 만물이 그 부스러기인 비를 빨아먹고 크는데, 사람은 무엇을 가져 가지고 하나님이 빨아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구름이 돌고, 보이는 사람이 영켜 가지고 쇼트(shot) 되고 브레이크 아웃(breakout) 될 때에 천둥 번개가 발한다

이거예요. 두 남녀는 구름과 같고 거기의 보이지 않는 전기는 본연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구요. 그게 하나되어 벼락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부스러기를 중심삼고 영계가 살고,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같이 벼락을 치는 거라구요. 하나님도 사랑의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고 기뻐하고 벼락을 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도 이것을 돕기 위해서 자기 전체가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흡수될 수 있는 희생적 길을 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남자 여자 부부가 사랑할 때는 벼락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갯불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놀음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결혼식과 마찬가지로요. 남자 여자는 동과 서가 합하고, 상하가 하나되고,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 하나되어 사랑으로써 집을 짓게 되니 하나님이 즐려야 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셋이 합해 가지고 벼락을 치고, 그것이 밝으면 우주에 짝 찬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런 부부가 살면 그 동네는 그 부부의 사랑권 내에서 ‘우리도 저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 고마운 것이다. 밝혀 주는 환경이 좋구나.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구나!’ 하고 서로가 하나되기 위한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여기 축복받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안 받은 사람 손 들어 봐요. 귀 막으라구요. 귀를 막으라구요, 듣지 말고. (웃음)

자, 플러스 구름과 마이너스 구름이 합한다고 할 때 어떻겠어요? 신

경이니 무슨 오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곳에 모이겠나요, 안 모이겠나요? 「모입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안다구요. (웃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극이 생겼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촉각도 거기에 세 갈래 촉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이요, 자녀의 사랑이요, 형제의 사랑인데, 셋이 한꺼번에 붙으니 이 우주의 모든 그런 성품을 닮은 사람은 다 춤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우주가 ‘오오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 매일같이 사랑해라.’ 하겠어요, ‘매일같이 싸움해라.’ 하겠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할수록 좋다! 하나님이 ‘하하하!’ 하고 자꾸 웃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벼락을 치고, 물이 내려 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 우주를 짝 채워서 전부가 없어지더라도 ‘아, 하나님과 인간이 행복하면 만사가 오케이이다. 사랑 심판 원한다.’ 하는 거예요. 만물이 환영하고 ‘만세!’ 이러는 거예요. 그때 ‘으으으!’ 하고 웃거든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울 줄 알았더니, 이놈의 자식, 욕을 하나도 안 해?’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도 ‘으으!’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점핑하고 춤추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심) (웃음. 박수)

그래,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할 때 우레 소리가 나오? 고양이도 봄이 되어 사랑할 때 ‘야옹, 야옹.’ 하고 쥐들도 다다닥 하고 전부 다 야단하는데,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웃음) 「소리냅니다.」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간에 그 소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큽니다.」 얼마나 크겠는지 한번 소리내 보라구요. 「아우!」 (웃음) 오만 가지 소리예요. 새 소리, 동물 소리 모든 소리를 사람은 다 낼 수 있어요. 오만 가지 소리가 거기에 다 어울려 있기 때문에 동물도 죽어 없어졌지만 ‘동물보다 더 기쁜 존재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

님이 그래 가지고 품고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교인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농토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구름이 끼고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나겠으면 들어와 가지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쉼 때 이불을 펴고 자겠어요, 그냥 그대로 마룻바닥에 자겠어요? 고단하니까 마룻바닥에 잘 거라구요.

그러다가 으스스해지면 침대 위에 올라갈 거예요, 다다미 위에 올라갈 거예요, 온돌 위에 올라갈 거예요? 온돌에 올라간다고요. 온돌이니까 더우니까 추워서 입었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 궁둥이가 뜨겁고 그래 가지고 하나씩 벗어서 옷을 다 벗고 아래만 그 옷을 덮고 누워 자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거예요. 아래는 뜨겁더라도 배는 춥겠으니까 덮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여자 남자가 자고 있는데 자기 사랑이라고 ‘호호호호!’ 하고 찾아오게 될 때 발길로 찰 거예요, 물어뜯을 거예요? (웃으심) 덮은 옷을 쓱 잡아당겨 치우고 가까이 올 때 차 버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훑 당겨 가지고 남편이라도 들어 넘길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합니다.» 나는 모르겠다구요. 여러분이 잘 알 거라구요.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이 욕심쟁이인데 ‘이놈의 간나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격렬히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끼웠던 망치를 한 1미터 빼 가지고 떼었다가 박아라, 떼었다가 박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소리가 크고, 번개가 얼마나 확장하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다 뺏어 버려 가지고 뒹굴뒹굴 구를 때 하나님께서 와서 차 버리겠어요, 불안고 사랑하겠어요? 아들딸이 눈을 감게 될 때 하나님도 잔다는 거예요. 좋아 가지고 자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자, 여러분이 격렬한 사랑을 하게 되면 한잠 자야 돼요, 안 자야 돼

요? 걱정환! 「자야 됩니다.」 주동문! 「예.」 자는 것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것은 맑은 하늘이에요. 맑은 하늘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그런 거예요.

결론이 간단해요. 자연이 결혼식하면서 소리가 나거든 우리도 뛰어 들어가서 소리 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번개가 치거든 우리도 번개를 쳐야 되겠다 할 때, 천지가 그렇게 해서 번개가 칠 때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불타게끔 벼락이 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충격이 크겠느냐? 그때 ‘아, 내 창조이상 억만년 만만세!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해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 이상 없다. 그런 날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아멘.’ 하니까 사랑도 영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구요. 그렇게 되면 만물이 불평하기를 ‘뭐 하나님은 아담 해와만 좋아하고, 당신만 좋아하오? 우리도 좋게 해야지.’ 그러니까 광물도 결혼한다는 거예요. 식물도, 나비도 벌도, 모든 전부가, 오만 가지 잡탕,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이 인간과 더불어 하나되어 가지고 사랑하는 기쁨으로 취하는 거예요. 취해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앞에 ‘먹어 주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도 상대를 찾아가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물건은 담수를 찾아가야 되고, 담수에 사는 물건은 해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쌍을 엮어 가지고 둘이 합하는 조화의 법도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모든 만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통하지 않고는 산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새 같은 것도 전부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고기들은 쌍쌍이 와서 담수에서도 와와와와 하고, 담수의 고기들은 바다에 가서 와이와이와이 하는 거예요. 두 세계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좋아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우주의 결혼식과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섭리관이 뭐예요, 관? 관, 관! 이것은 영어의 뷰(view;관점)하고는 달라요. 관이라는 것은 사랑을 중심삼고... 관이라는 것은 같아요. 보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보는 뒤까지도 쪽 연결되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뒤까지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아래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걸 말합니다.

하루의 관 가운데는 낮과 밤이 움직이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합해 가지고 30가지가 되어 달이라는 관이 생긴다, 열두 달을 중심삼고 일년의 관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年)을 넘어 가지고 세기가 벌어지고, 세기가 모여서 밀레니엄(millennium;천년기)이 된다 이거예요. 2000년을 중심삼은 세기관이예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따로 따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관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개인관가정관종족관민족관국가관세계관천주관신관을 말하지만, 관이 그렇게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거리, 혼란 혼돈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돈을 전체로 알고, 정치를 전체로 알고, 학문을 전체로 알고, 자기가 사는 것을 전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

참부모님 섭리관적 책임완수, 이게 뭐예요? 오늘 이런 자연 결혼이

우리 인간의 결혼과 하늘나라의 결혼과 통할 수 있는 그 관과 책임을 가르쳐 준 사람이 선생님이시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생님의 사명이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의 주류가 뭐냐? 생명이예요, 혈통이예요, 사랑이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무슨 사랑? \*절대·유일·영원·불변의 사랑이예요. 그러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니예요. 그러한 사랑이 연결되는 존재도 자동적으로 절대·유일·영원·불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사랑에 의해서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렇지요? 방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은 다 끝났다구요. 관에 대해서는 알았다구요. \*참사랑은 만물 세계가 사망의 문을 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광물 세계에서는 그러한 식물의 주인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모든 것들도 더 차원이 높은 참사랑의 주인이 찾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한 사랑이 아니면 참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만물은 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을 그리워하고, 먹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판서하심)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전부는 작은 것은 어떻게 여기에 오너, 킹 오너(king owner)예요. 킹 오너 하면 케이오(KO)예요, 케이 오. 케이 오 하게 되면 전부 녹다운 되는 거예요. 절대복종하니까 녹다운 된다 이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미네랄 원소들이 ‘아이고, 여기 올라가고 싶다.’ 이런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큰 놈들은 이것을 삼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삼켜 버리는 거예요. 뜯 물건(동작이 느린 물건)은 빠른 놈을 타고 가고 싶어하니까 ‘빠른 짐승아, 큰 놈아

와라, 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땀북이가요? (통역자)」 거북이나 천천히 가는 것들은 전부 새가 날아와서 집어먹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판서하시며)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 여기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했으니 이리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가야 한다구요. 사람은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로 쪽 해서 더 높은 데 가서 하나님을 점령하려고 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창조이상의 합격적인 사랑하는 물건들이 더 높을 수 있는 사랑의 실체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바라는 세계 앞에 부끄러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구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밟고 올라가기 위한 관, 참사랑을 기준으로 더 큰 사랑을 찾아가는 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다. 가정이든 무엇이든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 이리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미국에 오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이것은 기차와 마찬가지로예요. 기차가 한참 달렸다 하면 여기서 출발한 것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기관차는 저기 갔는데, 아직 떠나지 못한 차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예요. 한 역에 가서 멎었는데 이쪽에서는 또 간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결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차량이 달려가고 있지만 정착하는 세계는 어차피 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 참사랑은 소리와 빛

그러면 선생님이 통일교회의 천국 갈 수 있는 기관차라면 여러분은 차량인데 몇천 몇억만이 달려 있으니 몇 년에 도착하겠어요? 만년 걸려야 되겠어요, 순식간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어

요? 「순식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계급이 큰놈 작은 놈이 있는데, 큰 통 작은 통, 큰 차 작은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차들은 전부 엔진을 만들어 달든가 해서 그 갈 길을 따라 먼저 가서 기다리면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구요. 알겠어요?

지금 뭐 총생축헌납제를 하라고 하는데, 십년 백년 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여러분이 메시아, 구주(救主) 찾간 도착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주가 와서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걸 천년 전에 했으면 천년 앞에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루어 놓는 것이 가정어요, 종족나라가 되어 있으면 그 종족, 나라를 전부 바쳤기 때문에, 그 나라 앞에 주체가 되어서 ‘야, 고맙다’ 하고 사랑으로 묶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론적이다! 아멘이다 이거예요.

참사랑은 소리와 빛이에요. 빛은 같은 것입니다. (판서하시며) 고양이 ‘야옹!’ 하고 말이에요, 양은 ‘음메!’ 하고 말이에요, 개는 ‘멍멍’ 한다구요. 미국 사람이 사운드를 낼 때 영어로 소리를 내겠냐요, 본성의 소리를 내겠냐요?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소리, 한국 사람은 한국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를 내겠어요? 이상적인 소리를 내겠어요? 「이상적인 소리를 냅니다.」 이상적인 소리가 뭐예요? 이상적 하나님, 이상적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볼 때, 영어로 ‘아이 러브 유(I love you)!’ 할 때 하나님이 관심이 있겠어요? ‘저 녀석은 어디 가서 주워 먹다가 왔구만. 이미테이션(imitation;모방) 사운드다. 나는 듣기 싫다!’ 하고 침 뱉어버린다고요. 그거 사실이라구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침 뱉어야 되겠어요? 「침 뱉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구요. 아담 해와 둘이 사랑할 때 ‘야, 너 예쁘다.’

하고 키스하고, 곱다고 쓸어 주고, ‘아름답다, 곱다, 참되다, 빛 되다.’ 이럴 수 있게끔 서로가 좋아할 수 있어 가지고 인격이 동화돼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동화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이 도망가서 아버지가 혼자 있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있으면 그것을 곱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모르겠다구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그릇된 말씀인지 하나님한테 물어 보라구요.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다.」 틀렸다! 「옳습니다.」 절대적으로 틀렸다! 「옳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웃으심)

알 거예요. 이거 사랑도 그래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사랑과 더불어 연결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랑과 관계되어 가지고 행동하고 춤추고 문화 예술을 바라는데 딴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하나님과 참부모가 한 말이 본연적인 말

자, 영어 하는 미국 사람이 먹을 때, 짹짹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뭐라고 해요? 한국말은 뭐라고 해요? 참부모가 짹짹 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다 다르다면 안 된다고요. 다 참부모를 닮아야지요.

맨 처음에 젓을 먹다가 손가락으로 퍼 먹이든가 젓가락으로 퍼 먹이더라도 잘 받아먹어야 돼요. 서양 애들이 손가락으로 퍼 먹이는 것을 받아 먹어요? 젓꼭지를 빨라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주는 것을 받아 먹어요? 못 받아먹지요. 그냥 젓을 물려 가지고 먹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안 보고, 갖다 대주어 가지고 베개라도 고여 놓고 먹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이것을 젓가락으로 찍어서 먹이면 ‘입벌려. 입벌려.’ 하고 먹이니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엄마가 이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동으로 보이심) 얼마나 정이 들어요? 몇백 번 보고 가르쳐 주고 먹이니 얼마나 정이 들겠나?

그래, 그때는 ‘아이고, 예쁘다!’ 하는 것을, 미국은 ‘뷰티플 베이비 (beautiful baby; 예쁜 아기)! 프리티 걸, 선 (pretty girl, son; 예쁜 딸, 아들)’ 하고, 일본 사람은 ‘우쯔구시이 (うつくしい; 아름답다)’ 하고, 한국은 ‘아름답다!’ 하고 전부 달라요. 그러면 그 아기들이 원하는 것은 참부모와 하나님께서 본래의 사랑에 대해 말하던 것을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고 보여 주면 좋겠다고 하겠어요, 유모와 같이 이미테이션 말을 써 가지고 뷰티플, 우쯔구시이 이러는 것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사랑을 중심삼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천만 가지 말로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곤란하니까 별 것 없다구요. 본연의 언어를 써야 한다구요. \*처음에 하나님과 참부모가 한 말이 본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본연적인 거라구요. 거기서부터 절대·유일·영원·불변이 연결되는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기 임자들은, 아기들을 낳아 봤어? 아기들을 낳아 봤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오리지널 언어로 ‘아이고, 예쁘다. 사랑한다. 쪽쪽(뽀뽀하는 소리).’ 해봤어요? \*그렇게 못 해봤지요?

그러한 이미테이션(imitation; 모조품) 언어를 사용하면 이미테이션 어머니와 이미테이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한 언어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으면 완성한 언어의 세계가 실현될 수 없어요. 나는 모르겠다구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연적인 언어의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서 쓰던 말을 버리고 본연의 언어를 붙들지 않으면 이상세계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왜? 본연의 사랑의 기반이 그러한 언어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예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 언어를 통일하라 이거예요. 사랑은 하나의 모양이요, 하나의 소리요, 하나의 빛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구요. 그런 입장에서 사탄의 흠집이 여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라도 참사랑을 갖게 되면 최고 아름다운 여인이 돼

자, 이제는 다 알았지요? 비가 오거든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 뛰어 나가 가지고 환영하겠다고 생각하라구요. 비 오는 아래에서, 번개 치는 데서 한번 벗고 사랑해 보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벗고 살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옷)은 타락의 선물이에요. 한번 벗고 살아 볼까요? 「예.」 에덴 복귀의 사랑이상 완성한 그런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산 사람만이 아멘 할 수 있다! 「아멘.」

자, 벗고 사는 여자들이 천 명이 있는데, 거기에 미남자가 열이 있는데 열 가운데 자기 남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제일 못생겼다 할 때는 어떻게 할 테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못생긴 남자 생식기를 찾아가겠어요, 가장 잘생긴 남자 생식기를 찾아가겠어요? 남자 열이 있는데 제일 잘난 남자의 아내가 제일 못난 여자고, 제일 잘난 여자의 남편이 제일 못난 남자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라구요. 답변을 해봐요. 「못생긴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와서

이렇게 건드리면 동(動)할 거예요, 안 동할 거예요? (웃으심) 「쫓아 버립니다。」 (웃음) 그렇지 않은 것은 도적놈들이예요. 사탄새끼고 도적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뭘 하면 도적놈입니까? (통역자)」 주인을 내놓고 딴 것을 상관하면 도적이지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니까. 도적이 뭐예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참사랑을 가지고 세 번만 사랑하게 되면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요. 아름다운 것은 단맛이 없는데 자기 상대는 세 번만 그렇게 하면 아주 단맛이 나요. 꿀맛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못난 남자를 찾아가 품게 될 때 남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배 이상 감사해한다구요. 키스를 해도 혀바닥을 잘라먹을 거예요. 입술을 잘라먹을 거예요. 이것은 뭐 골수가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지 말라고요. 그거 사실이에요. 골수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꿀맛 중에도 그 이상의 꿀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뜨고 하겠나요, 눈을 감고 하겠나요? 거기에는 힘이 10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랑의 감동은 천하가 다 끌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거예요. 더 해도 싫지요? 「노(No;아니오)!」 노, 케이 엔 오 더블유(know), 이해한다는 뜻이라고요. (웃음)

#### 만물도 사랑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완수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말해 보라고요. 창조원리를 알지요? 우리는 창조원리를 통한 이상관을 알아요. 개인 완성이 어떻고, 가정 완성이 어떻고, 종족 완성이 어떻고, 민족 국가 세계 하나님 해방까지 다 알아



요. 참사랑이에요, 참사랑. 참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억만년 투입하고 잊어버리면 억만년 보다 가치 있는 상대가 언제나 창조될 수 있는 고마운 결론을 내려 준 것은 참부모의 혜택이요, 하나님까지도 해방할 수 있는 참부모의 사명이었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3단계지요? (판서하시며) 이것이 3단계예요. 이것도 3단계, 3단계, 3단계지요? 이것도 3단계, 3단계, 3단계라구요. 폐장 위장 심장, 모든 것이 3단계예요. 기관도 3단계로 되어 있다구요. 걷는 데도 3수로 되어 있다구요. 하나, 둘, 셋. 언제나 그렇다구요. 상중하도 3단계이고, 좌중우도, 전중후도 전부 3단계예요.

모든 만물도 사랑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정은 더 큰 것을 희생해요. 만물세계도 마찬가지로 공식에요.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 투입해 가지고 희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같은 공식의 원리요, 같은 결론이에요.

창조에 대한 것도 다 알아요. 타락에 대한 것도 알아요.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섭리사를 중심삼아 가지고 구원 섭리관이 없었어요. 섭리관이 없는 것을 오늘날 선생님이 섭리관을 세웠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노아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예수는 어떻게 하는 관을 세웠어요. 복귀섭리관을 알아요. 복귀섭리관을 알고 복귀역사를 알아요. 개인적 역사, 가정적 역사, 종족적 역사, 민족적 역사, 국가적 역사, 세계적 역사가 한 관에 걸려 있지만, 우리 시대 시대에 분별된 역사를 안다구요. 그리고 사탄의 처리방법, 사탄까지도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천국이 뭐냐? 언제나 반대하는 패가 있고, 울고불고하는 패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해방되어 가지고 평준화될 수 있는, 지상·천상천국 해방 완성하니 감사 영광 찬양할지어다, 하는 세계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조국

오늘 미국에 있는 통일교회 식구는 이제부터 미국을 중심삼은 통일 교회가 가는 길, 세계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입적하는 것을 다 알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잃어버렸고 조국을 잃어버렸는데, 지구성이 우리의 고향 땅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조국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효자가 되고, 어떻게 충신이 되고, 어떻게 성인이 되고,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왕의 자리까지 되는지를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 지상천국천상천국... 지금 4차 아담권 시대가 온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칠팔절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완전 정착, 그 이후 구구절을 중심삼고 사탄을 청산해 버리고 줄개새끼까지 한방으로 청산해 가지고 삼십절을 중심삼고 해방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거짓 아버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전부 없애고 파괴시켰던 것을 참부모가 와서 재창조해서 전부 복귀 완성해 가지고, 그들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통일적 세계, 가정이상 일체 지상천국 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해방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4차 아담권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세계, 몇천 년 동안 천국이 비었던 것을 한꺼번에 갖다 맞출 수 있는 것까지 다 이루었다구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해방되고 사탄까지도 용서해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 선생님도 이제 해방해야 돼요. 해방해 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하늘꼭대기에 먼저 올라가겠어요? 제일 밑창 골짜기에 가서 다시 양떼를 몰아 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를 중심으로 4개국, 브라질의 자르딘을 중심삼고 교육적인 가정적 정비운동을 하기 위한 수련소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탕감시대

가 아니에요.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로 연결시켜 세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냈다구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구요.

(판서하시며)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이것이 다시 여기에 와서 가정을 중심삼고 청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영계까지예요, 영계. 여기 이것은 육계까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구요. 전부 다 여기에 와 가지고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 가지고... 8단계예요, 8단계. 8단계를 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선생님을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를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생축헌납제예요. 가르지 않아요. 둘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지상세계 천상세계, 동양세계 서양세계, 남북의 빈부의 통일, 전체를 하나로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적 가정, 참부모를 중심삼고 개인적인 사진, 종족적인 사진, 민족적인 사진, 국가적인 사진을 자유롭게 박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시대권 내, 해방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8단계를 넘지 못했지요? 그것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선생님의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그래 가지고 8단계를 넘지 못한 것을 4천년 동안을 40일 동안에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말씀씀을 존중시함으로써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재정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 것을 전부 배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탄세계의 이 모든 것을 전부 거부하더라도 이것만은 남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7대가 합해 가지고 180가정을 중심삼고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의 줄개새끼들로부터 천운이 보호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4차 아담권 시대가

되는 거예요. 탕감이 필요치 않는 시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몇천 년 동안 잃어버리고 탕감해 버렸지만, 이제는 탕감이 없이 여러분의 노력 자체가 천국에 입적할 때 그냥 그대로 기념물로서 저장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제4차 아담권 시대로 이양했다는 거예요.

#### 자르딘 40일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국본부에서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축복가정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중심삼고 본을 만들어서 한국 일본 미국에 새로이 고향 땅을, 세계가 갈라졌던 것이 하나된 그 위에서 새로운 부모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와 오빠의 나라에 새로이 입적할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를 거친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형님과 하나되어야 되고 어머니와 하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테나 가도 내 집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한 몸, 아들딸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 몸이요, 형제끼리는 전부 한집안 사이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내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2억4천만, 그 다음에 일본에 1억2천만, 한국에 4천만 해서 4억쌍인데 4억쌍만 끝나면 여기는 전부 나머지 사람들이 고향으로 정할 수 있는 때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개국, 2차대전의 주요 7개국으로부터 아프리카로 전부 퍼져 나가는 거라구요.

지금까지 4억3천만 이상을 축복해 놓았어요. 알겠어요?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배치 받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기들이 가정적 모든 총생축헌납기금을 바쳐 청산한 그 순서에 따라서 아무리 미국에 살더라도—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아프리카면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어머

니 아버지와 하나되어 있는 형님 동생이기 때문에, 한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지구성의 어디 가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말이라구요.

그래서 빨리 지구성을 풀어야 돼요. 빨리 지구성을 풀어야 돼요. 혈통을 전부 다 생축... 뭐예요? 중생식, 부활식, 영생식을 해야 돼요. 길을 막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던 40일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없더라도 지난날의 부모님의 전통적 역사를 다시 앎으로 말미암아 내 책임을 분배해 가지고, 선생님은 하늘땅을 정비했지만 우리는 우리 족속, 우리 민족, 그 땅에 있는 나라를 복귀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조상적 책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장자권 차자권의 형제를 중심삼은 하늘 가정적 일족 입장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으로 해방, 지상천상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축복가정들은 선생님 시대까지 하게 되면, 예수님 때는 120가정이었지만 재림주 때는 180가정, 혹은 160가정이라구요. 180가정이 원칙이지만 이것을 중심삼고 1997년서부터 2003년까지 7년간에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전부 정비운동을 1997년서부터 해왔어요. 영계와 육계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가는 데는 부모님 나라에 가 가지고 한 사람이 1200가정씩을 배치하느니만큼 이것이 4억쌍도 안 돼요. 몇천만 가정, 몇백만 가정이에요. 이것을 편성하면 모든 민족 감정, 국경선, 오색인종, 분열, 혹은 문화의 격차,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일방통행으로 하나님을 중심삼은 고향이 출발하고 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 국제결혼만이 천국 가는 직단거리

지금 영계에서는 자기의 원수 되었던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

금 성인하고 살인마의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왔다구요.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이 형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왔는데, 반대하고 이렇게 왔지만 이것을 전부 같이 축복해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경계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자의 아들딸하고 살인마의 아들딸하고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국경을 두는 날에는 전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경을 가진 두 나라가 교차결혼하라는 거예요. 국제결혼만이 천국 가는 직단거리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구해주는 거예요. 아벨을 자기의 왕과 같이, 자기의 부모같이, 자기 형님같이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졌던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다 끝났어요, 끝나 가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전부 끝나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말이에요. 선생님은 아버지예요. 절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절대 성품, 유일 성품, 모든 것을 같이 닮았어요. 전부 상속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론 것과 하나 되는 아들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어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거짓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참부모가 이렇게 전부 뒤집어 뺨을 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소.’ 하면 좋다고 받겠어요, 울면서 받겠어요?

선생님이 성인하고 살인마하고 결혼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겠나요, 나빴겠나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잘못되었으니 뒤집어 고칠 수 있는 것은 내 책임이니 하나님은 감독만 하소.’ 할 때 ‘그렇다.’ 하지, ‘야, 이 녀석아, 안 된다.’ 하겠어요?

내가 주는데, 하나님이 경배를 먼저 하겠나요, 주는 사람이 경배를 먼저 하겠나요? 내가 줄 때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 보라구요. 천지의 이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천지개벽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또 사탄에게 ‘야, 이 녀석아! 내가 이렇게 여기 있고 하나님도 여기 있을 것인데 너는 지옥 가는 것, 아담 해와 인류의 꿈무늬에 들어가는 것이 본연의 자리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 ‘웁습니다. 천만 지당한 사실입니다.’ 그런다구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소, 죽여 버려야 되겠소?’ 하면 ‘너 하고픈 대로 해라.’ 이런다구요. 하나님도 그것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고 싶지 않더라도 안 해줄 수 없다는 거라구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싸우는데 싸움을 누가 말려야 되겠어요? 하나님도 못 말리고 사탄도 못 말립니다. 자존심이 있고 위신이 있지요. 사탄도 위신이 있다구요. 완성한 아담은 어떠냐? ‘하나님, 이리 오소.’ ‘사탄 이리 와라, 이놈아.’ ‘내 말을 들어서 싸움을 그만 두소. 싸움은 거짓 부모가 만들었으니 거짓 부모의 모든 것을 내가 취소할 책임을 졌으니 하나될 수 있는 본연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내 책임이니 하나되소!’ 할 때,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하나님, 이놈의 사탄! 내 말을 따라야 돼!’ 하는 말을 따라가지고 그 둘이 서로 안고 하나되면 천상천국,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만세, 유일 만세, 불변 만세, 영원 만세가 되는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자, 아멘 해봐요. ‘아!’ 한번 해봐요. 「아!」 아멘! 「아멘!」 소생 아, 장성 아, 완성 아—멘! 「아멘!」 피조만물 해방 만만세! (박수)

모든 직장에는 부부가 동참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을 완수했다 하는 결론이 된다구

요. 알겠어요? (박수) 그래서 지옥 철폐! 천국 문을 열어라! (박수)  
이것이 이론적이예요.

이론 체계를 붙들고 볼 때 하나에서 백천만 가지가 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불평을 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의 자리, 최고의 승리적 영광의 자리, 최고의 주체적 자리,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 큰 녀석들, 세상에 호령하던 정치계의 머리, 언론계의 머리, 종교계의 머리, 은행계의 머리, 대학가의 머리, 모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놈의 자식들아, 배워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못할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판서하심) ‘80년 기간은 전체 재출발 완성 해방의 기간이었다. 아멘.’ 2000년에 딱 끝나는 거예요. 80은 재출발이라구요. 이 80년 간에 세계적 모든 지금까지 역사에 되었던 전부를 탕감하는 거예요. 복잡다단한 것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해방된 통일적인 민족으로서 활기도堂堂하게 출전해라 이거예요. 미국 군대보다도, 소련 군대보다도, 독일 군대보다도,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도 용맹하고 담대하고 솔선적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통일교회 통일천하의 아들딸들은 여자가 되어 가지고 사탄세계의 모든 군대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남자에 지지 않아요. 모든 직장에는 부부가 동참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군대 나갈 때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아들딸하고 넷이 나란히 서서 일선에 나가서 싸우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자가 약하게 되면 딸은 아버지가 끌어 주고, 어머니는 아들이 끌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출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머지 나라의 군대 막을 전부 점령하기 위해서 가정이 전부 출동해 가지고 항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다 항복할 수 있



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구요.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축복받으면 행복 다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통일교인들을 미워하더라도 그 중심인 레버런 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환영하고 있다구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깨지고, 젊은이들이 몰락하고 있고, 에이즈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절대 가정의 기반을 닦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싫어도 안 갈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에 ‘에이, 이 녀석아!’ 절대 부부가 되어야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제 세계 통일도 눈앞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자신을 가지고 전진할지어다!

그래서 자르던 교육 40일이 끝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명령의 한 날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집이 있으면 팔든가 예금통장에 있는 것을 다 꺼내 가지고 새로운 곳에 예금하고 땅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전부 팔아서 보따리 싸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다 보따리 싸고 있어요, 안 싸고 있어요? 「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향 땅, 조국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참부모가 본향 땅과 조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거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면 사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 유엔이 통일교회 운동을 지지할 때가 왔다

임자, 어디 갈 준비하고 있어? 「아프리카입니다. (타일러 헨드릭스 미국 협회장)」 한국이 아니면 일본이라구요. 「아, 한국입니다.」 (웃음) 한국에 가려면 얼른 가서 수련받고, 보따리 빨리 싸라는 거라구요. 만약에 반대한다면 세계적으로 데모하는 거예요. 금년부터 데모하라고 그랬지요? 매일같이 360날 데모하는 훈련을 했으니 데모 일방통행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 데모는 하늘나라의 대사관 과정이에요. 대사에요. 어디 가든지 부처끼리 나서 가지고 ‘이 자식아, 하늘나라의 대사의 말이다. 일족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호적을 만들어 주고 나라에 입적해 주려는데 싫어, 이 자식아?’ 하면 싫다는 녀석이 어디 있어요? 부처 대사다 이거예요. 누가 대사라고요? 부처예요. 사탄세계, 원수가 다 굴복했으니까 패잔병들은 전부 다 밀어 버리면 한꺼번에 밀린다구요. 얼마나 수습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에 특권적 가정의 명패를 달아 주는 거예요. 누가 영토를 많이 점령해서 하늘나라의 족속으로 정화시켰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하늘나라에 등급이 결정되고 영원한 장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미리 다 보따리 싸 가지고 여기 왔구만. 미국에 있을래요, 한국 갈래요? 어디 갈래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어디가 더 좋아요? 미국은 오빠의 집이고, 한국은 부모의 집이에요. 부모가 죽은 고아의 입장에서, 오빠의 집에 가서 살겠다는 간나는 천대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부모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형제들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 가지고 오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나라도 없어요.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에 걸려 가지고 나라, 문화가 다 비었다구요.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리를 잡아요. 오색 인종, 180개 국가 사람들이 전부 들어온 한국을 북한 김일성의 말을 들어서 남한을 통일하겠다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유엔에 있어서도 180국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선생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면 입을 이리면서도 ‘예스’ 하는 거예요.

일본은 전부 레버런 문 뒤를 따라 한국을 따라가라고 하면 싫다고 하겠어요?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꿈무늬에 따라가라고 하면 싫다고 하

겠어요? ‘사탄까지도 뒤따라가는데 뭐야, 이놈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피수를 따라서, 찍어서 뿌리 뽑혀 냄새나는 그것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유엔이 이제 통일교회 운동을 지지할 때가 왔습니다. 미국도 그렇다구요. 2차대전 이후에 세계 7개국이 한국을 지지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구요. 미국이 장자의 자리에서 부모의 나라와 하나되면 그 동생인 세계 나라가 따라오겠나요, 안 따라오겠나요? 그래서 교파, 가인 아벨 종교를 통일하는 거예요.

이것(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구교 신교를 하나 만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장자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 만들고 세계 이상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한 날과 같이 통일적인 환경이 세계에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통일 지상천국 천상천국은 자동적이다! 아멘이에요.

#### 여자들은 어머니의 분신

여자들은 어머니의 분신이에요. 장자에게 와서 젖을 먹여 주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피와 살과 뼈를 녹여서 낱아 주고 길러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지만 미국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되어야 어머니 입장이 돼요. 세 아들딸을 복귀한 후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 3배 이상 노력해야 어머니 책임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굶어죽을 단계에 있으면서도 젖 안 먹는 아기를 깨워서라도 젖을 빠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넘버 원 어머니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열두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 아버지 신부 신랑을 만날 수 있는데 세 아들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이 실패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 아들딸 이상의 노

력을 어머니가 대신 해야 되겠다구요. 그래 낳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낳아 준 입장에 있으니 장자가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탕감복귀 원칙은 불가피한 거예요.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온 일본 여자 선교사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요. ‘야, 이제 하늘나라 고향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영광이다!’ 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조국,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한 그 조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라구요. 여기 이 땅에 모시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 ‘왕 중 왕의 기반, 부모 중의 부모, 장자 중의 장자인 아담 가정을 바라던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 그 가운데 우리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하고야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들, 일어서라구요. 어머니 사명을 할래요? 「예.」 \*어머니의 사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구요! 「예.」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몇천년간 하나님이 수고하고 구원섭리의 책임을 졌던 선조들이 수고하고 부모님도 수고했다는 그 전통을, 각지에 분배할 수 있는 어머니의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울더라도 기쁨의 눈물을 이 땅에 흘려야 되겠다구요. 슬픔의 눈물, 고향을 그리고 아들딸이 보고 싶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다구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선생님이 오늘날 이 세계의 가인권을 구할 수 없었어요. 아들딸을 다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했으니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는 어머니의 책임을 못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예.」

\*지금부터 새해에는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사명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선두에 서서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일본 선교사들의 책임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하는 책임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알았으면 그렇게 실천해요? 「예.」 모두 다 분명하게 대답했다구요. 알았으면 틀림없이 실천해야 됩니다. 약속하자구요!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끝내자구요. 일어서요.\*

## 일심정착 시대

축복가정의 책임이 중하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터전으로 축복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 천주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 축복가정이에요. 자, 우리 식사하지. (식사하시면서) (곽정환 회장의 보고)

### 통일교인의 특권

17세, 27세, 33세 때 세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권고를 한 거예요, 이런 책임을 해야 된다고.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한 거예요. 그런 말들은 예수님께서 섭섭한 내적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거든. 우리 원리를 앞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통일교회 교인들은 죽을 자리에 내세우더라도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더 높은 데 가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수고한 기준, 정성들인 것보다 더 높이 가니까. 그게 특권이예요. 생명을 바치고 뜻에 있어서 선두적 입장에서 투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

---

1999년 12월 29일(水),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훈독회 이후에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세계의 최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위일이는 저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예.」 통일전선 수호니, 축복가정이니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니야? 「예,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은 혼독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고, 감명 깊게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예.」 그것은 존경이 아니에요. 숭배해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통일교인에게 무한한 것을 다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눈덩이가 한번 구르면 자꾸 굴러서 커야 된다고요. 크는 게 소원이었지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읽을 때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굴러 나왔다는 사실,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컸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맨 뿌리에서부터, 한 송이 눈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중간에 붙어서 컸다고 해서 조상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요.

#### 일심정착 시대가 와야

역사가 그래요. 국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맨 나중에 붙어서 큰 눈송이지, 맨 첫 번부터 큰 눈송이가 아니에요. 심정세계가 그렇다구요. 오늘이 29일이니까 이제 오늘까지 사흘 남았구만. 내가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구요.

하나님은 원리적인 하나님이에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노정이예요. 이것이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 우리가 1997년에 뭘 했어요?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곽정환 회장)」

이제 일심정착(一心定着) 시대가 와야 돼요. 언제 쓴 거예요? 1987년에 썼어요.

정분합(正分合) 작용이에요. 우리 몸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 정분합

이예요. 몸 마음 합, 부부 합,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되는 거예요. 다 알겠어요, 정분합 작용? 개인이 제 1, 남자 여자가 제2 정분합입니다. 먼저 몸 마음이 하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커서 결혼하여 남자 여자가 하나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자녀와 하나되어 사위기대가 벌어져요. 3단계예요. 그러면 정착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됨으로써 비로소 정착하는 거예요.

벌려져 있었던 것이 열매가 벌어져요. 이게 자녀의 시대예요. 개인이 하나되어도 열매가 아니고, 남자 여자가 정분합 되어도 열매가 아니고, 부부가 하나되어 여기서 자녀를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열매예요. 그러니까 씨가 이렇게 돼요. 자녀 가운데는 개인 완성, 부부 완성, 전체 사위기대 완성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하나님의 3대 사랑의 결착점이 자녀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일심정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정분합 작용을 보면,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둘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연결시켜 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부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부부와 자녀를 중심삼고 비로소 이게 반대로 벌어져 나가요.

통일원리가 내용은 간단하지만 설명하자면 참 복잡하지요? 세계가 다 들어간다고요. 동시성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에서 전부 다 빨리 나오잖아요?

1999년은 통일교회가 판을 친 해

지금 왔나? 「예. 미네아폴리스에 있다가 상파울루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김홍태 브라질 회장)」 (김회장과 축구단 운영에 대



한 대화)

이제 2000년은 우리 시대로 날아갈 때가 온다구요. 통일교회가 금년에 한국에서 모든 것에서 판을 쳤어요. 일화 축구가 꼴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왕중왕이 되고 말이에요, 유니버설 발레단은 문화예술상 단체상을 받은 거예요. 훈숙이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탔더구만. 단체상도 타고 말이에요. 또 우리 현진이가 대통령상을 탔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호두까기인형을 공연한 거예요. 전에는 부분 부분 갈라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해서 히트를 친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서 16차를 하는데 2천2백여 석을 초만원을 이루었어요. 다 한국의 고위층, 유명한 사람들은 다 와서 봤어요. 아예 발레 문화의 초점이 우리에게 모아진 거라구요. 발레의 중심이 구라파의 이태리로부터 불란서, 러시아로 해서 한국으로 옮겨진다고 올레그 비노그라도프가 그렇게 발표를 해 버렸다구요. (이후 브라질 수송개발 계획에 대한 김홍태 회장의 보고) \*

## 성약시대는 천국을 완전히 앞으로써 지상천국을 완성한다

\*해피 뉴 이어(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천년에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주체 대상이 운동하는 데는 이익이 나와 운동해

오늘은 2000년 참하나님의 날인데, 그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인데 참사랑의 천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 수 있는 이상(理想)의 지상천국 집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 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존재물은 주체와 대상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운동을 종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고, 횡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물체는 반드시 구형을 원하기 때문에 상하좌우 관계가

---

2000년 1월 1일(土) 오전 10시, 맨해튼 센터(미국 뉴욕).

\* 이 말씀은 제33회 참하나님의 날 기념예배 때 하신 것임.

있는 동시에 전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구형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구형을 이루어야 사방에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굴러도 이상적인 자리에 서는 거라구요.

여기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데,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하나되어 가지고 여기서 주고받는 말이 여러분과 주체 대상으로서 주고받아 가지고 여러분도 횡적인 관계의 몸 마음이 하나되는 놀음이 벌어진다 이 거예요.

주체와 대상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자리에서는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장사를 한다면 매일 아침 바쁘게 시장에 가는데, 하루에 10원, 10달러씩 손해보기 위해서 시장에 가는 사람은 없다구요. 10달러라도 이익이 나와 갑니다. 손해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스톱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그것이 전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커 가니까,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걷게 될 때, 이렇게 안 걸어요. (행동으로 해보이십) 익스체인지(exchange)예요. 엇갈리게 걸어요. 남자 여자도 걷는 데는 반드시 남자가 오른쪽을 내놓으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왼쪽 발을 내디뎌야 되고, 여자의 오른쪽 발이 가면 남자는 왼쪽 발이 간다는 거예요. 엇바뀌 걷게 되어 있습니다.

#### 인체의 오관도 이익이 있으니 작용한다

자, 여러분의 눈이 깜빡깜빡 하는데, 그거 피곤하지 않겠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하루종일 24시간 해보라구요. 이 손가락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는 뻣뻣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에 이익 되는 것이 없어요. 소모예요.

그러나 눈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뿌려 주기 때문에 눈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눈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서니 이rozum이 있는 거예요. 이익이 나게 되면 피곤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제삼자가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횡적으로 벌어지는 거라고요.

공기도 코에 들어갈 때, 한 구멍으로 들어가요, 어때요? 여기에 코 딱지가 있어도 떼어내야 된다고요. 똑같이 들어와야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커 가니까 피곤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아랫입술, 윗입술, 혀바닥이 전부 얘기하는데, 말을 중심삼고 잘 주고받으면 신이 나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릅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말을 계속해도 고단하지 않아요. 입이 열이 나서 말을 한다구요. 여기가 강해지면 여기도 강해지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잘 주고받으면 내가 기쁘고, 이익이 되면 피곤한 줄 모르고 밤을 새워 가면서 들어요.

인간에게는 오관이 있습니다. 오관 하게 되면 손까지 들어간다고요. 손이 이걸 만지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만져요? 자기 손을 몇 시간이나 만져요?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손해가 나고 소모되니까 그만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만지면, ‘이건 남자 손이구나!’ ‘여자 손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자기 상대의 손을 만지면 만질수록 불이 커 가기 때문에 하루종일 만지더라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를 만지고 다 만지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루 종일 비벼도 버팁니다.

왜? 천지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는 다 좋아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있는 데는 이익 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천지가 순응할 수 있는 상대적 권한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

은 운동을 계속할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천년 만년 계속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 축복받은 가정들, 손 들어 봐요. 와, 전부로구나! 원더풀(wonderful)! 우먼 궁둥풀! 궁둥이를 이렇게 해도 좋다고요. 원더풀하게 되면 궁둥풀이에요. 한국말이 그래요. 원더풀 할 때, 자기 사랑하는 커플, 자기 사랑하는 여편네, 남편네가... 남편이 종일 피곤하게 일해서 고단한데 아내가 발끝을 만져 주면 발길로 차요, 웃어요? 어때요? 웰컴(welcome:환영하다)이에요? 「웰컴입니다.」 차 버리는 아내는 나쁜 아내요, 환영하는 아내는 좋은 아내예요. (웃음)

그러니까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기가 주르륵 통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게 되면 아내 손은 남편의 손을 만지고, 그 다음에 남편은 여편네 손에다 키스하고, 또 남편이 여편네 손에 키스하는 데다 여편네도 키스하고 하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을 만지는 전달이 얼마나 이익 돼요? 발톱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전체 통일과 통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픈 마우스(Open mouth:입을 벌려 봐요)! 「와!」 와! 탕감을 마시는 거예요. (웃음)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다 알지요? 「예.」 설명이 필요 없어요. 궁둥이를 만졌다 할 때는 차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말 입니까? (통역자)」 남편이 아내 궁둥이를 만지는 거지. 그런 것을 물어 볼 게 어디 있어? (웃음)

남자들에게 제일 나쁜 버릇이 무엇이나? 버스를 타나 전차를 타나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여자가 옆에 서 있으면 틀림없이 남자 왼손이 여자 궁둥이를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웃음) 선생님도 그랬을까요? 선생님은 그런 말을 들었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지키고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

궁둥이를 만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자의 동산이 나빠하지 않고 좋

아하니까, 이익이 나니까 그렇게 될 때 서로 보는 거예요. 눈이 맞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행동으로 해보이심. 웃음) 그 다음에는 웃게 되면 당겨 가지고 쪽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래 가지고 손이 꼭 여기를 만지는 거예요. (웃음) 그래도 좋아하게 되면 자유 천지예요. 둘의 자유 천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왜 이렇게 웃고 야단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나는 기분 나쁜데! 정초 첫 시간에 웃게 되면 일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 웃었기 때문에 웃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에 대해 한번 말했으니 만지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데 왜 그래요? (웃음과 박수) 박수해요. (환호와 박수)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 참부모님! 해피 2000년 참하나님의 날! 해피 뉴이어 참부모님, 스타팅 키싱 액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아멘! 「아멘!」 (박수)

16시간 45분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설교 기록을 갖고 있다

그 이상 안 해도 되지요? 더 하자구요? 더 하면 남자 여자들이 오줌을 싸요. (웃음) 다섯 시간, 열 시간이라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나서 변소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줌을 싸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통역하는 사람, 유명한 박보희는 어디 갔어? 박보희! 「예..」 희보(喜報),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박복한 소식이 아니예요. 거꾸로 희보 박이예요. 저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내가 여섯 시간, 열 시간, 열한 시간, 열두 시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줌이 나오고 큰 것까지 짹 나왔어요. 그거 알아요? 박보희!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습니다.」 (웃음)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도 좋아서 통역하더라구요. (웃음) 그렇게 역사의 기록을 깬 통역 왕 박보희였나니라! 아멘! 박수해 주라구요. (박수)

그와 같이 선생님이 말씀한 기록이 16시간 45분이에요. 16시간 45분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줌 안 눌 대장이 어디 있고, 변소 안 갈 대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 폐한 다음에 의자를 보게 되면 얼룩덜룩 얼룩덜룩 해 가지고, 물방울이 있어서 걸레로 닦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청중이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세계 기록을 가진 챔피언들이다. 청중에 대한 박수!’ 이런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수)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박수해요? 아니에요. 영계가 박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문총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나? 듣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이라도 문총재가 16시간 이상 얘기하는, 세계의 기록을 깨는 세계 챔피언 얘기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나를 욕하나, 칭찬하나?’ 해서 듣고 싶어했겠어요, 안 듣고 싶어했겠어요? 16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안 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듣겠다고 고개를 모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6시간을 얘기해도 그것을 아는 문총재는 피곤한 줄 모르고 20시간, 백 시간도 계속할지 모른다, 그러다가 죽어도 죽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면서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 2000년 된 기념식 단상에서 한 30시간, 40시간 얘기하다가 영계에 갔다고 하면, 무슨 북? 「기네스북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기네스북에 오르지만 여기 청중은 기네스북에 올리겠어요, ‘그놈의 새끼들!’ 하면서 지워 버리겠어요? 「올립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영계에서는 ‘아이구, 세상에 우리가 참부모를 만나서 잔치 후에 부스러기 얻어먹듯이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 시간까지도 빼앗아 간 청중은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사람은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기를 바라는데 그 시간까지 다 잘라 버렸으니까 ‘나

쁜 청중들이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일교회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서 말씀도 짧게 짧게 짧게 하시라고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청중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말하지 말고 언제나 자꾸만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청중들이고, 위대한 청중들이고, 원더풀 청중, 감격스런 청중입니다. 하나님 이 내려와서 구경하고 싶고, 안고 키스하고 싶은 통일교회 무리들이다, 아멘! 하늘땅이 아— 와와와와, 멘— 와와와와! 에코(echo;메아리)예요. 좋은 청중이다! (박수)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좋은 청중! (박수) 자, 이만하고 그만두자구요. (웃음) 천년 계속했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면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오늘은 손 박수가 아니에요. 발 박수 한번 해봐요, 발 박수! 손 이렇게 가고, 왼손 박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혹—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혹— 썩 날아 올라간다고요. (행동으로 해보이심) 이거 연습하라구요. (박수)

#### 영계를 알아야 천국을 완성할 수 있어

금년 표어는 어디 가도 참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의 집이 차 있다, 작든가 크든가 꼭 차 있다 이거예요. 아, 좋구나! 아, 좋구나! 2000년부터 천년 만년 이렇게 살면 지상에 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 아멘! (판서하심) 성약시대는 천국을 완전히 앞으로써 지상천국 완성한다! 아—멘! 성약시대는 천국을 완전히 앞으로써 지상천국 완성한다! 아—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모두 넘버원 멘! 에이멘, 넘버원 멘!

자, 영계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영계에서 이상헌 씨가 보고한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시대에 있어



하늘나라의 숨겨진 비밀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거라구요. 그래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기를 천상세계의 구조 내용을 완전히 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누구한테? 참부모 앞에.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보고해 온 것이 이상헌 선생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 생활》이에요.

영계의 실상을 소개한 이상헌 씨도 선생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영계가 뭐 어떻고, 오른손은 영계를 붙들고 왼손은 지상을 붙들어 시계 방향의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거꾸로 돌려서 하나 만든다는 그런 말이 라든가 하는 것을 몰랐다고요.

그런데 영계에 가 보니 자기가 의심하던 모든 것이 확실히 선생님이 말한 대로 틀림없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도 그런 문을 닫지 말고 열어 놓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소상히 전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열심히 1차, 2차, 3차로 기록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다 읽지 못했다고요. 세 번째 마지막 기록을 전달해 줄 거라구요. 알겠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습니다.」

지상의 천국이 영계예요. 완성하면 말이에요. 마음과 몸이 하나된 것이 천국이라구요. 종적으로 하나되고 전부 다 하나되면 말이에요. 새로운 천년에 선생님이 하늘에 특명을 해서 상헌 씨를 통해 보고된 영계의 사실, 세세한 내용을 선물로 주는 이 시간을 환영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듣고 싶다면 전달해 주고, 듣고 싶지 않다면 폐하는 거예요.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미국 뉴욕시에 있는 번화가), 새 천년을 맞은 뉴욕이 옛날보다 얼마나 달라졌나 구경해도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듣겠습니다.」 나가라구요!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상, 선생님 말씀 이상 기쁨으로 듣겠다는 말이지요? 듣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감상문을 받아서 상

금을 줄지 모르는데, 시험지를 나누어 주면 좋겠어요, 상금을 안 주더라도 안 나누어 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통일교회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쁜 그룹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틀림없이 전부 나쁜 그룹의 결론에 떨어지고 만다 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구요. 이것이 탕감 시험이라고요.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말까요? 「시작하십시오。」 폐해요, 계속해요?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한국말로 할까요, 일본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해주십시오。」 영어는 하위급의 언어라고요. 부모도 유(You), 할아버지도 유, 왕에 대해서도 유예요. 형제 언어라고요.

한국어로는 코리아(Korea)하고 코리언(Korean)을 다르게 써요. 코리언(Korean)하고 코리아(Korea)가 다른데, 영어는 영국 사람도 잉글리시(English)고 영어도 잉글리시(English)로 같다고요. 나라 이름과 말을 다르게 쓰잖아요? 그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같다고 생각하니, 자기들이 세계가 내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한국어로 해요? 왜 한국어예요? 나도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문총재 죽어라!’ 하고 한국말로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많이 한 그 산더미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한국말을 대표로 세웠어요? 선생님이 한국말을 쓰면서 지금까지 도망 다니고 여기 중착점에 왔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세계의 모든 탄식권을 해방하고, 탕감적인 대왕마마의 자리에 썼기 때문에 한국말을 안 배울 수 없습니

다.

또 한국말이 발음에서 세계 제일이에요. 영계, 우주에 있는 모든 발음, 39억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있는 세밀한 고차적인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동물 이야기도 잘 하고, 동물 소리도 잘 내고 그런데요.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는 ‘야옹 야옹’, 양은 ‘음메’, 개는 ‘왕왕왕!’ 이래요. 숨차서 안 되겠으니 그만하자구요.

흥내도 잘 내고, 소리도 잘 내고, 어디 가든지 노래판에도 빠지지 않고, 춤추는 판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한국 사람이더라! 도둑질도 잘 하고, 사기도 잘 하고, 달리기도 잘 하고, 모든 흥내도 잘 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나이, 임기응변을 잘 하니까 어디 가도 속지 않고 사기 쳐 먹는 대왕마마가 되어서 세계에 문제의 한국 백성이 되었더라! 노멘, 아멘? 「아멘!」 그 반면 좋은 것이 하나라도 더 많으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에서 제1등 통역가는 한국 사람 외에는 해먹을 사람이 없어요. 박보희나 한상길이라든가 최원복 씨의 영어 발음이 참 좋다고요. 한국 사람은 10년만 살면 무불능통이에요. 일본에 가나 미국에 가나 중국에 가나, 어디에 가나 10년만 살면, 10년이 아니라 5년만 살면 무불능통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대해 보고 교육도 해봤지만 한국 사람 외에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한국 사람을 못 따라잡니다.

남미에 일본 사람이 4천3백 명이 가고 한국 사람은 몇 사람 안 갔는데 같은 환경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말로 써서 무엇 무엇 해서 단어를 열 개 만들어 발음을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모자라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은 하루에 백 개 쓴 것을 다 하더라도 98퍼센트를 알아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또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일본 사람들은 말씀할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한국 사람은 자꾸 전진이요, 일본 사람은 자꾸 못 알아들

으니 후퇴하는 거예요. 이러니 5년만 지나게 되면 한국 사람은 무불능 통으로 연설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일본 사람은 5년이 되어 도 밥도 못 얻어먹는 이런 놀음이 벌어져요. 언어의 발음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말이 그런 말이니까 한국말을 배워 가지고 세계의 말을 배우라고 해서 일본 공영방송국(엔 에이치 케이;NHK)에서 어린애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한국어가 훌륭하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

한국말은 부사 형용사가 복잡한데, 한 줄에 세 개 네 개를 쓰는 형용사 부사를 달아 가지고 이해해서 말하니까 일생 동안 뇌세포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아들을 대해 ‘야 아들이, 오늘은 이 열 가지 일을 하고 와라!’ 하고 명령하게 된다면 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어느 것이 1번이고 2번이다, 10번까지 다 기억해서 다 못 하고 여섯 가지만 했더라도 돌아와서 ‘남은 네 가지는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해요. 둘 셋만 돼도 컴퓨터를 두드려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야단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뇌로 연상하는 모든 것이 훈련되어 조직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한마디를 들으면 열 마디, 열 마디의 십 배인 백 마디를 연상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척척 비교해서 맞추다 보니 우주의 비밀, 진리의 모든 것을 한 께미에 께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머리가 나뻐으면 불가

능한 거예요.

‘실례’ 하게 되면 예를 범하는 것도 실례지만 ‘잃을 실(失)’ 자가 아니라 ‘열매 실(實)’ 자의 실례(實例)도 있어요. 이 방도 실내예요. 대번에 연상한다구요. 대응적인 감정이 빠르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높임말, 낮춤말, 중간 말이 다 있다구요. 사위기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순식간에 알고 다 분석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한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는 문총재는 축복받은 2세들에게 어미 아버지가 한국말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가르쳐야 되겠어요, 자유분방으로 해방시켜 주어야 되겠어요? 「예스(yes).」 예스. ‘예스’가 아니고 ‘예수’ 할 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Jesus Christ)를 말해요. 예수 할 때 한국말로로는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한국말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추모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는 것을 예수라고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예수님이 예수니까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예스’를 배우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한국말로 예수님이 뭐라구요? 「예수!」 그럼 다 배웠어요. (웃음) 그렇게 하면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영적인 말을 스피드를 내서 읽어 주라구. 시간이 많이 걸렸대구요. 얼마나 걸렸어요? 아이구, 딱 두 시간 되었네. 그러니까 빨리 읽어 주라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못 알아듣게 읽어라 이거야. 하나님과 선생님만 알아듣게 빨리 읽으라구. 이것도 두 시간 걸려.

김효율, 자기가 해야지. 「한국말로 읽으라고 하셨잖습니까?」 한국말로 읽고 통역해 주라구. 한국말을 다 모르잖아? 「다 읽습니까? 번역하면서 하면 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 3분의 1은 빼고 해도 된대구.

될 수 있는 대로 다 읽어. 이제 뭘 하겠어? 놀자니 놀 시간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웃음) 안내원은 나가는 사람들 이름을 적으라구. (웃음) 상금을 줄 거예요, 상금. 나쁜 녀석에게는 나쁜 상금을, 좋은 녀석에게는 좋은 상금을 줄 거라구요.

작년 3월 20일에 사탄이 하나님과 참부모와 인류 앞에 항복한 이후의 소식이라구요. (이상헌 선생이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Ⅲ 《인생이 마지막 가야 할 길》 훈독)

타락세계에 참부모로서 참사랑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지금부터 때를 알아야 돼요. 타락의 역사와 구원의 때는 다릅니다. 타락 후 인간의 역사는 사탄 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문화세계입니다. 이 땅 위에 복귀된 세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구약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 가지고 진리를 선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은 참부모로 왔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랐던 참사랑의 아담 가정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참사랑의 가정을 다시금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출발에 있어서 참어머니의 입장에 있었던 해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아버지의 입장에 와 가지고 어떻게 참어머니를 찾아서 하나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결혼해 가지고 참부모가 되어서 아들딸을 낳았더라면, 지금까지 2천년 동안 그 혈

통이 번성해 가지고 온 인류가 예수님의 혈통에 접붙이게 되었을 거라  
구요. 그랬더라면 지금의 교황도 필요 없고, 미국의 신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었다구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  
해서 아들딸을 낳았더라면 그 장자가 왕권을 상속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필요 없고, 미국의 신교도 필요  
없다는 거라구요. 수많은 교파들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청산해 버릴 것이  
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낸 것은 다시금 부모를 세우기 위  
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양 잔치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이  
모든 기독교 세계가 바라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결혼할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데, 노(No)! 지금부터 2천년 전에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비행기도 없었다구요. 요즘에는 구름 위로 얼마든지 높은 곳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 타락의 혈통을 끊고 세상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원 네이션 언더 갓(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이 아니라구요. ‘원 네이션 언더 갓, 나  
를 따르라!’가 아니라구요. 참부모의 가정이 세워질 때는 혈통이 문제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입니다. 요즘의 미국 가정들을 보라구  
요.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정도 없구요.

프리 섹스가 뭐야? 호모, 레즈비언? 더러운 혈통입니다. 맑은 물이  
구정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기 위

해서는 많은 필터가 필요하다구요. 그 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타락한 세상의 혈통을 생각해 보라구요. 더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죄가 쌓이고 쌓여서 구정물도 그것보다 더러운 구정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더러워져서 그 속에서는 아무 것도 살 수 없어요. 한 번만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쌍한 혈통이 되어 있는 거라구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이 청산할 것이냐?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으로 담이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개인의 담을 무너뜨리면 가정의 담이 남아 있고, 가정의 담을 무너뜨리면 종족의 담이 남아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담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아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한 아담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성한 아담은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한 장자입니다. 혈통이 같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은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혈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계도 내 영계라구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모든 것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혈통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장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알겠어요?

종교세계가 필요 없다구요. 뿔! 종교세계에는 순교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구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간 세상은 불쌍한 입장에 처하여 있다구요. 개



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의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수많은 벽들이 가로막혀 있다구요.

누가 그 모든 담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냐? 그것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완성한 아담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그러한 이상세계에 연결될 수 있어요? 노!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정치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아무 것도 그쪽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행복의 세계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이루려면 중심이 있어야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가 원했지만, 지금까지 이 땅 위에는 평화의 세계나 통일의 세계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힘으로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요? 뚱뚱뚱! 노! 절대적으로 노라구요. 통일이라는 말에는 센터 컨셉이 필요합니다. 모델적인 코어(core; 핵)가 필요하다구요. 그 중심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코어 밸류(core value; 핵의 가치)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코어 밸류가 없어요! 프리 섹스가 코어 밸류예요? 희망이 없대구요.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어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노!’ 할 수 없습니다. ‘예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친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레버린 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삼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똑같아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치, 경제, 지식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리는 한 가지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전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어 밸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의 세계와 희망의 세계도 문제없습니다. 어디든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다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왕궁의 정문까지 수백 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그런데 미국의 가정들은 그럴 수 있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 등 온갖 녀석들이 모여 있어서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있겠어요? 뻘! 어떻게 통일세계를 이루어요? 뻘!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찾을 수 있어요? 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되지 못하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는 데는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중심삼은 기독교와 유럽을 중심삼은 가톨릭 등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되어 가지고 코어 밸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종횡의 90각도로 하나되는 데서부터 코어 밸류가 찾아질 수 있습니다. 코어 밸류는 종적으로 스톱되고 횡적으로 출발하는 자리에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종적으로 부모와 연결되고, 여러분의 몸은 횡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종횡이 하나되는 곳에 하나님의 혈통도 연결됩니다. 그 혈통이 연결될 때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 민족 완성, 국가 완성,

세계 완성, 우주 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어 밸류가 정착하고 타락 세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90각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90각도를 이루게 하느냐? 이것이 종교세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인들도 그것을 몰라요. 어떻게 코어 밸류를 그 자리에 정착시키느냐?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고 인간도 원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4대 속성은 참사랑으로 연결돼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선생님을 따라해 보라구요. 절대! 「절대!」 유일! 「유일!」 불변! 「불변!」 영원! 「영원!」 그러한 속성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연결되느냐? 참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모델입니다. 모델은 공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을 바꾼다면 이상적인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의 절대적인 정착지가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완전한 아담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림주가 와 가지고 그 정착지를 다시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개인 기반, 가정 기반, 종족 기반, 민족 기반, 국가 기반, 세계 기반을 닦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땅 위의 온 인류가 영계의 조상들과 갈라져 있는 것이 큰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통일교회의 축복가정들은 최고의 레벨에 있습니다. 그 가정은 타락한 아담의 가정이 아니라 복귀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종족, 아담의 민족, 아담의 국가, 아담의 세계, 아담의 우주, 아담의 하나님한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센터인 조그만 가정이 큰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더 훌륭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도 사랑의 상대가 자기 자신보다 백 배 천 배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우리 인간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거라고요. 누구든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참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사랑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사탄 편 사랑의 기지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세계의 왕 원수가 몸세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 편 사랑을 그 몸에 심은 것입니다. 마음세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사탄의 사랑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세계에 사탄의 혈통을 연결한 거예요. 알겠어요?

#### 몸 마음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몸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일 매일의 훈독회입니다. 훈독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의 몸과 마음이 갈라진 것을 통일하고, 부부가 갈라진 것을 통일하고, 부모와 아들딸이 갈라진 것을 통일하고, 가정과 종족이 갈라진 것을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국가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우주를 통일하고, 하나님과 피조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가정이 발전하는 것도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 사랑을 중심삼은 ‘원 코스모스 언더 갓(One Cosmos under God; 하나님아래 하나의 우주)’의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파더가 부족한 영어로 가르쳐 주어도 그 내용을 이해해 주니까 고맙다구요. (박수)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기서 몸과 마음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되어야 돼요. 방금 말한 결론이 이거예요. 몸과 마음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나되어 가지고야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환영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위하고 위해서 투입하고 나중에는 우주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라구요. 그 아들딸을 사랑하는 오너(owner; 주인)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작은 집의 오너가 아니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오너의 집에 있겠다고 해서 올라가면 하나님도 이 집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아멘! 「아멘!」

참사랑의 욕망은 자기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났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자가 아무리 못났지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라면 아내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요?

참사랑의 집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상대가 같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와도 오케이, 하나님과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도 오케이, 셋이 합해 ‘내 집에 들어와서 중심이 되어도 좋습니다!’ 할 때는 영계와 육계를 통일한 하나의 통일적인 세계의 주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천년을 출발하는 표어는 대단한 거예요. 전 해는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이었어요. 이것을 뒤집어 박자

이거예요. 뒤집어 박았으니까 참사랑의 집이 생겨야 돼요. 참사랑 천주화는 천년시대에 천국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멘!

### 모든 것은 참사랑의 집

전 주일의 선생님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참부모님의 섭리관적 책임 완수’예요. 그것을 전부 정리해 주어야 돼요. 결론을 윤곽적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다 내려 준 거예요.

그 전 주일 설교 제목은 ‘천주는 나의 고향과 조국’이에요. 천주는 하늘 집인데 지상과 영계는 내 고향과 조국이다 이거예요. 이 지구성은 고향이요, 조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종적인 우리 고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국이에요, 조국. 선조들과 연결된 나라 아니에요? 고향이란 것은 횡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조국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더 얘기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인간 구조를 중심삼고 집 된 내용을 쪽 설명하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마음의 집과 몸의 집, 두 집이 있으니 아까 말하던 것과 같이 하나되면 마음세계에 하나님과 참부모와 우주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영계를 통해서 조상들도 전부 연결시켜 명령할 수 있는 복된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해주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하자구요. 여러분에게 남겨 준 영계에 대한 책을 전부 다 읽어야 되겠어요. 읽는다는 약속 밑에서 이 시간을 끝내기 바라다구요.

선생님이 효율 씨 시간을 잡아먹어서 죄송하고, 오늘 30분 늦은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말씀한 것이 여기서 여러분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구요. 더 이익 될 수 있는 것을 바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안 받지

만, 모든 사람을 30분 이상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라도 사죄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지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은 절대 시간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명령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이거예요. (박수)

(통역에 대해) 결론을 지어 주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결론을 못 지어요. 내가 지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참사랑 천주화는 새천년 천국 완성’이라는 표제를 낼 수 있어요. 해방된 4차권 아담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필요한 거라구요.

자, 어느 집이나 방문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산다.’ 하며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해야 돼요. 또 학교는 참사랑, 참학문을 배우는 내 사랑의 집이다 이거예요. 가정은 참사랑을 복돋워 길러내는 참사랑의 학교다 이거예요. \*학교도 참사랑의 집, 국가도 참사랑의 집, 세계도 참사랑의 집, 우주도 참사랑의 집... 모든 것이 참사랑의 집이라는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쌍쌍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집이에요. 이것은 보는 집, 이견 냄새 맡는 집, 이견 말하는 집 먹는 집, 이견 듣는 집, 손 집, \*몸 마음의 집, 커플 주체 대상의 집, 부모(주체)와 자녀(대상)의 집, 가정은 몸 마음의 집, 부부의 집, 부모와 아들딸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센터가 되어 가지고 종족을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종족이 센터가 되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면, 그것도 사랑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원수가 없고 방해되는 것이 없는 통일된 세계가 나타나면, 그것을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천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라구요. 아멘! 「아멘!」 모두 다 일어서서 ‘아멘’ 해 보라구요. 「아멘!」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통일의 노래 합창)

천국 해방! 아멘! 새해와 새천년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점심들 잘 먹으라구요. (만세삼창. 박수) \*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13卷>

---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